저자 錢乙 국역 이정현 해제 이정현 小兒



ISBN 978-89-5970-491-0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sup>서문序</sup>	
서문序	1.1
소아약증직결 중각 서문 重刻錢氏小兒藥症直訣序	1.1.1
서문 原序	1.1.2
전중양전 錢仲陽傳	1.1.3
소아약증직결 권상 錢氏小兒藥證直訣上	1.2
맥법、병증、치료법 脉證治法	1.2.1
소아의 맥법 小兒脉法	1.2.1.1
변(變)과 증(蒸) 變蒸	1.2.1.2
오장이 주관하는 병증 五藏所主	1.2.1.3
오장의 병증 五藏病	1.2.1.4
간기가 허해졌을 때 외감으로 생긴 풍증 肝外生感風	1.2.1.5
간장의 열증 肝熱	1.2.1.6
폐장의 열증 肺熱	1.2.1.7
폐기가 왕성해져 풍증이나 냉증까지 생긴 경우 肺盛復有風冷	

폐장의 허열 肺虚熱	1.2.1.9 1.2.1.8
폐장이 위축된 경우 肺藏怯	1.2.1.10
심장의 열증 心熱	1.2.1.11
심장의 실증 心實	1.2.1.12
신장의 허증 腎虛 얼굴의 증상 面上證	1.2.1.13
얼굴의 증상 面上證	1.2.1.14
눈의 증상 目內證	1.2.1.15
간장이 병들어 폐금을 억누르는 경우 肝病勝肺	1.2.1.16
폐장이 병들어 간목을 억누르는 경우 肺病勝肝	1.2.1.17
간장에 풍사가 있는 경우 肝有風	1.2.1.18
간장에 열사가 있는 경우 肝有熱	1.2.1.19
간장에 풍사가 심한 경우 肝有風甚	1.2.1.20
경간(驚癎)으로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驚癎發搐	1.2.1.21
이른 새벽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早晨發搐	1.2.1.22
대낮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日午發搐	1.2.1.23
해질녘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日晚發搐	1.2.1.24
밤중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夜間發搐	1.2.1.25
상풍(傷風) 후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傷風後發搐	1.2.1.26
음식에 상한 후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傷食後發搐	1.2.1.27

생후 백일 이내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百日內發搐	1.2.1.28
급경풍 急驚	1.2.1.29
만경풍慢驚	1.2.1.30
오간 五癎	1.2.1.31
창진(瘡疹)의 증상 瘡疹候 상풍 傷風	1.2.1.32
상풍 傷風	1.2.1.33
상풍(傷風)으로 손발이 차가운 경우 傷風手足冷	1.2.1.34
상풍(傷風)으로 대변을 지리는 경우 傷風自利	1.2.1.35
상풍(傷風)으로 배가 빵빵해진 경우 傷風腹脹	1.2.1.36
상풍(傷風)에 오장병이 겹친 경우 傷風兼藏	1.2.1.37
상풍(傷風)에 하법을 쓴 후에 열이 남아 있는 경우 傷風下後	餘熱
상한(傷寒)과 창진(瘡疹)의 유사점과 차이점 傷寒瘡疹同異	1.2.1.38
갓 태어난 지 3일 안에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열이 심한 경우	1.2.1.39
初生三日內吐瀉壯熱	1.2.1.40
갓 태어난 지 3일에서 10일 사이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통	이 따뜻하
거나 차가운 경우 初生三日已上至十日, 吐瀉身溫凉	1.2.1.41
갓 태어나 설사하고 구토하는 경우 生下吐	1.2.1.42
상풍(傷風)으로 구토와 설사를 할 때 몸통이 따뜻한 경우 傷	風吐瀉身
	1.2.1.43
상풍(傷風)으로 구토와 설사를 할 때 몸통이 뜨거운 경우 傷	風吐瀉身

상풍(傷風)으로 구토와 설사를 할 때 몸통이 차가운 경우 傷ೂ	虱吐瀉身
凉	1.2.1.45
풍열(風熱) 、온장(溫壯) 、조열(潮熱) 、장열(壯熱)은 서로 비	슷하다
風溫潮熱壯熱相似	1.2.1.46
신장이 위축된 경우와 실음(失音)은 서로 비슷하다 腎怯失音	相似
누렇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 黃相似 1.2.1.48	1.2.1.47
여름부터 가을까지 구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夏秋吐瀉	1.2.1.49
젖을 토하는 경우 吐乳	1.2.1.50
해수 欬嗽	1.2.1.51
여러 가지 감병(疳病) 諸疳	1.2.1.52
위부가 편안하지 않는 경우 胃氣不和	1.2.1.53
위부가 허랭한 경우 胃冷虛	1.2.1.54
적취로 통증이 있는 경우 積痛	1.2.1.55
충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虫痛	1.2.1.56
충 때문에 생긴 병과 간질은 서로 비슷하다 虫與癎相似	1.2.1.57
숨이 편안하지 않은 경우 氣不和	1.2.1.58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 食不消	1.2.1.59
뱃속에 벽적이 있는 경우 腹中有癖	1.2.1.60
허증이나 실증으로 배가 빵빵해지는 경우 虛實腹脹	1.2.1.61

땀을 잘 흘리는 경우 喜汗	1.2.1.62
도한 盜汗	1.2.1.63
야제 夜啼	1.2.1.64
놀라면서 우는 경우 驚啼	1.2.1.65
농설 弄舌	1.2.1.66
단류 丹瘤	1.2.1.67
해로解顱	1.2.1.68
태양증의 식은땀 太陽虛汗	1.2.1.69
위부가 허약하여 땀이 나는 경우 胃怯汗	1.2.1.70
위통으로 우는 경우 胃啼	1.2.1.71
뱃속에서부터 살찐 경우 胎肥	1.2.1.72
뱃속에서부터 허약한 경우 胎怯	1.2.1.73
태열 胎熱	1.2.1.74
다급하게 젖을 빨려고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 急欲	乳不能
食	1.2.1.75
구배(龜背)、구흥(龜胷) 龜背龜胷	1.2.1.76
부종 腫病	1.2.1.77
오장의 상극 관계에 따른 증상의 경중 五藏相勝輕重	1.2.1.78
기타 증상 雜病證	1.2.1.79

불치증 不治證	1.2.1.80
소아약증직결 권중 錢氏小兒病證直訣卷中	1.3
의안(醫案) 記嘗所治病	1.3.1
소아약증직결 권하 錢氏小兒藥證目錄卷下	1.4
방제 方劑	1.4.1
대청고 大靑膏	1.4.1.1
양경원 凉驚圓	1.4.1.2
분홍원 (온경원) 粉紅圓 (又名溫驚圓)	1.4.1.3
사청원 처방 瀉靑圓方	1.4.1.4
지황원 地黃圓	1.4.1.5
사백산 (사폐산) 瀉白散 (又名瀉肺散)	1.4.1.6
아교산 (보폐산) 阿膠散 (又名補肺散)	1.4.1.7
도적산 導赤散	1.4.1.8
익황산 (보비산) 益黃散 (又名補脾散)	1.4.1.9
사황산 (사비산) 瀉黃散 (又名瀉脾散)	1.4.1.10
백출산 白木散	1.4.1.11
도신법 塗顔法	1.4.1.12
욕체법 浴體法	1.4.1.13
감길탕 甘桔湯	1.4.1.14

안신원 安神圓	1.4.1.15
당귀산 當歸湯	1.4.1.16
사심탕 瀉心湯	1.4.1.17
생서산 生犀散	1.4.1.18
백병자 (옥병자) 白餅子 (又名玉餅子)	1.4.1.19
이경원 利驚圓	1.4.1.20
괄루탕 括蔞湯	1.4.1.21
오색원 五色圓	1.4.1.22
조중원 調中圓	1.4.1.23
탑기원 塌氣圓	1.4.1.24
목향원 木香圓	1.4.1.25
호황련원 胡黃連圓	1.4.1.26
난향산 ⑪香散	1.4.1.27
백분산 ⑪粉散	1.4.1.28
소적원 ⑪積圓	1.4.1.29
안충산 安虫散	1.4.1.30
자상원 紫霜圓	1.4.1.31
지한산 ⑪汗散	1.4.1.32
향과원 香瓜圓	1.4.1.33

화화고 花火膏	1.4.1.34
백옥산 白玉散	1.4.1.35
우황고 牛黃膏	1.4.1.36
우황원 牛黃圓	1.4.1.37
옥로산 (감로산) 玉露散 (又名甘露散)	1.4.1.38
백상원 (남양원) ⑪祥圓 (一名南陽圓)	1.4.1.39
우리고 (필승고) ⑩李膏 (一名必勝膏)	1.4.1.40
선풍산 ⑪風散	1.4.1.41
사향원 麝香圓	1.4.1.42
대성성원 大惺惺圓	1.4.1.43
소성성원 小惺惺圓	1.4.1.44
은사원 銀砂圓	1.4.1.45
사황원 蛇黃圓	1.4.1.46
삼성원 三聖圓	1.4.1.47
철분원 鐵枌圓	1.4.1.48
은액원 銀液圓	1.4.1.49
진심원 鎭心圓	1.4.1.50
금박원 金箔圓	1.4.1.51
진사원 辰砂圓	1.4.1.52

전도고원 剪刀股圓	1.4.1.53
사섬원 麝蟾圓	1.4.1.54
연금단 軟金丹	1.4.1.55
도지원 桃枝圓	1.4.1.56
선화산 蟬花散	1.4.1.57
구등인자 鉤藤引子	1.4.1.58
포룡원 抱龍圓	1.4.1.59
두권산 豆卷散	1.4.1.60
용뇌산 龍腦散	1.4.1.61
허증으로 생긴 풍사를 치료하는 처방 虛風方	1.4.1.62
허증으로 생긴 풍사에 쓰는 다른 처방 虛風又方	1.4.1.63
편은원 編銀圓	1.4.1.64
또 다른 우황고 又牛黃膏	1.4.1.65
오복화독단 五福化毒丹	1.4.1.66
강활고 羌活膏	1.4.1.67
욱리인원 郁李仁圓	1.4.1.68
서각원 犀角圓	1.4.1.69
이공산 異功散	1.4.1.70
곽향산 藿香散	1.4.1.71

여성원 如聖圓	1.4.1.72
백부자향련원 白附子香連圓	1.4.1.73
두구향련원 豆蔲香連圓	1.4.1.74
소향련원 小香連圓	1.4.1.75
이성원 二聖圓 목석자원 沒石子圓	1.4.1.76
몰석자원 沒石子圓	1.4.1.77
당귀산 當歸散	1.4.1.78
온백원 溫白圓	1.4.1.79
두구산 荳蔻散	1.4.1.80
온중원 溫中圓	1.4.1.81
호황련사향원 胡黃連麝香圓	1.4.1.82
대호황련원 大胡黃圓	1.4.1.83
유인원 榆仁圓	1.4.1.84
대노회원 大蘆薈圓	1.4.1.85
용골산 龍骨散	1.4.1.86
귤련원 橘連圓	1.4.1.87
용분원 龍粉圓	1.4.1.88
향은원 香銀圓	1.4.1.89
금화산 金華散	1.4.1.90

안충원 安虫圓	1.4.1.91
무이산 蕪荑散	1.4.1.92
담반원 膽礬圓	1.4.1.93
진주원 眞珠圓	1.4.1.94
소견원 消堅圓 백부원 百部圓	1.4.1.95
백부원 百部圓	1.4.1.96
자초산 紫草散	1.4.1.97
진교산 秦艽散	1.4.1.98
지골피산 地骨皮散	1.4.1.99
인삼생서산 人參生犀散	1.4.1.100
삼황원 三黃圓	1.4.1.101
숫구멍이 닫히지 않거나 콧구멍이 막혀 숨이 통하지 않는	는 경우를 치
로하는 처방 治顧開不合, 鼻塞不通方	1.4.1.102
황기산 黃茋散	1.4.1.103
호장산 虎杖散	1.4.1.104
염두산 捻頭散	1.4.1.105
양간산 羊肝散	1.4.1.106
선태산 蟬蛻散	1.4.1.107
오약산 烏藥散	1.4.1.108

이기산 二氣散	1.4.1.109
정력원 葶藶圓	1.4.1.110
마황탕 麻黃湯	1.4.1.111
생서마즙 生犀磨汁	1.4.1.112
대황원 大黃圓	1.4.1.113
사군자원 史君子圓	1.4.1.114
청금단 靑金丹	1.4.1.115
소청원 燒靑圓	1.4.1.116
패독산 敗毒散	1.4.1.117
부록 처방 [염효충(閻孝忠)] 附方 [閻孝忠]	1.5
치료법 治法	1.5.1
처방 又方	1.5.2
승마갈근탕 升麻葛根湯	1.5.2.1
성성산 惺惺散	1.5.2.2
소독산 消毒散	1.5.2.3
황벽고 黃蘗膏	1.5.2.4
호유주 胡荽酒	1.5.2.5
사성산 四聖散	1.5.2.6
다른 처방. 남근산. 又方 藍根散	1.5.2.7

다른 처방 又方	1.5.2.8
다른 처방 又方	1.5.2.9
용뇌환 龍腦丸	1.5.2.10
감로음자 甘露飮子	1.5.2.11
백호탕白虎湯	1.5.2.12
조간산 調肝散	1.5.2.13
다른 처방 又方	1.5.2.14
다른 처방 又方	1.5.2.15
다른 처방 又方	1.5.2.16
다른 처방 又方	1.5.2.17
다른 처방 又方	1.5.2.18
다른 처방 又方	1.5.2.19
다른 처방 又方	1.5.2.20
다른 처방 又方	1.5.2.21
다른 처방 又方	1.5.2.22
조등고 釣藤膏	1.5.2.23
위향산 魏香散	1.5.2.24
지황산 地黃散	1.5.2.25
다른 처방 又方	1.5.2.26

	창포원 菖蒲圓	1.5.2.27
	계두원 鷄頭圓	1.5.2.28
	영양각원 羚羊角圓	1.5.2.29
	전갈산 全蝎散	1.5.2.30
	화중산 和中散	1.5.2.31
	자소자산 紫蘇子散	1.5.2.32
	적석지산 赤石脂散	1.5.2.33
	벽묵산 蘗墨散	1.5.2.34
	지보단 至寶丹	1.5.2.35
	자설 紫雪	1.5.2.36
	이중원 理中圓	1.5.2.37
	오령산 五苓散	1.5.2.38
	부자이중원 附子理中圓	1.5.2.39
	금액단 金液丹	1.5.2.40
	청주백원자 靑州白圓子	1.5.2.41
	소시호탕 小柴胡湯	1.5.2.42
동씨소0	<b>  반진비급방론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b>	1.6
동씨	시소아반진비급방론 서문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序	1.6.1
자시	付(自序)又	1.6.2

충	론 總論	1.6.3
처팅	방 藥方	1.6.4
	승마산 升麻散	1.6.4.1
	백호탕 白虎湯	1.6.4.2
	자초산 紫草散	1.6.4.3
	포룡원 抱龍圓	1.6.4.4
	구생산 救生散	1.6.4.5
	우리고 牛李膏	1.6.4.6
	대모산 玳瑁散	1.6.4.7
	이독원 利毒圓	1.6.4.8
	여성탕 如聖湯	1.6.4.9
	감로음 甘露飮	1.6.4.10
	신선자설 神仙紫雪	1.6.4.11
	조간산 調肝散	1.6.4.12
	호목고 護目膏	1.6.4.13
	호유주 胡荽酒方	1.6.4.14
	우황산 牛黃散	1.6.4.15
	사태산 蛇蛻散	1.6.4.16
	진주산 眞珠散	1.6.4.17

후서 後序 1.7

#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 序 서문



### 重刻錢氏小兒藥 $症^1$ 直訣序 소아약증직결 중각 서문

小兒藥症直訣三卷,宋太毉丞錢仲陽所著,同時宣教郎閻孝忠所次也.治小兒之難, 與仲陽之術之工,閻序詳矣.吾兄懷三,精通禁方,而其讀書也,必自源達委深,惡近 代妄庸論著,悉屏不觀,當論仲景書爲毉之聖,而仲陽乃幼科祖,然錢非實有繆巧也, 蓋亦熟張文而神明之者,八味金匱方也,去桂附以治小兒,後世不能難焉,不精二家, 不可爲毉,然其書自元以還,多亡失竄易,旣得玉函經刻之,而此又求之三十年,近 始獲焉,手自釐正,還其舊貫次第開行,書曰若保赤子心誠求之.

《소아약증직결》 3권은 송 대 태의승(太醫丞)이었던 전중양(錢仲陽, 전을錢 乙)의 저술을 그 당시 선교랑(宣敎郞)이었던 염효충(閻孝忠)이 엮은 책이다. 소아 치료의 어려움과 전중양의 뛰어난 의술에 대해서는 염효충의 서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우리 형 회삼(懷三, 진세걸陳世傑)은 의학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는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원출전에서 시작하여 깊은 의미까지 통달하였고, 최근의 조잡한 책을 싫어하여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예전에 '장중경(張仲景)은 의학의 성인이며, 전중양은 소아과의 원조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전중양의 명성은 거짓으로 꾸며댄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장중경의 책을 익혔으면서도 아주 뛰어난 점은 《금궤요략》의 팔미환에서 계지와 부자를 뺀 육미환으로 소아를 치료했다는 점이니 후세 사람들은 이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장중경과 전중양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중경의 《상한론》은 원본 출간 이후로 대부분 소실되고 변형되었다가 《금궤옥학경》에 수록된 내용을 구하여 출간되었다. 전중양의 이 책도 30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최근에 겨우 구한 후 손으로 직접 베끼고 정리하면서 원래의 순서와 형태를 복원하고 '갓난아이를 보호하듯 정성을 다하여 치료법을 찾으라(若保赤子, 心誠求之)'라는 8글자를 써놓았다.

兒之在, 男唯女命, 寒飢暖飽之不知, 而況遇疾乎. 毉無師法, 又求之不誠, 甚惟盛 係輿要酬報, 倉卒下藥, 宛轉懷負, 其卒與哺之以砒, 而殺之以刃, 何異. 吾兄 男婦-全八九, 而救小兒決死生, 期無一失者, 而世或未之知也. 夫人血氣腑藏, 雖有幼小 壯老之不同, 而毉逢其源, 則審其氣候而處方, 未有不可通者, 專門云者, 道常該貫 而用一以名爾. 扁鵲過邯鄲, 爲帶下毉, 過洛陽, 爲耳目痺毉, 入咸陽, 爲小兒毉, 隨 俗爲變, 惟其伎之通也, 使專而不能該, 豈足爲良毉哉. 仲景仲陽, 哀人之札瘥夭昏, 以垂厥書, 仁者之功也. 吾兄于毉學, 人異說家殊書之時, 尊信而表章之, 抑非古人 慈幼之盛心歟. 業是者得而潜心焉, <mark>坄</mark><sup>2</sup>之所往, 其爲毉也, 思過半矣. 己亥三月望日, 弟汝楫書于射觀西塾.

아이들이란 젖먹이 때는 물론 말을 시작할 때에도 추운지 따뜻한지 배고픈지 배부른지 알아채기 어려운 법이니 덜컥 병에 걸렸을 때라면 오죽하겠는가. 그런데도 의원은 스승에게 전수받은 의술이 없는 데다가 의술을 연마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하고 심지어 시종들과 수레를 늘리면서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급박하게 약을 써야할 때 뒹굴뒹굴 고민하다가 결국 비상을 먹여환자를 죽이고 있으니 칼로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형 회삼이성인 남녀를 십중팔구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사람들이 알 테지만, 소아를 치료하며 생사를 결정할 때도 한 치의 실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무릇 사람의 기와 혈과 오장육부가 유아 ㆍ소년 ㆍ장

년 、 노년 때마다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의 원인을 찾고 기색이나 증후를 살펴 처방을 했을 때 반드시 효과가 있는 의원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말은 모든 분야의 의술을 통달했더라도 한 분야만을 지칭 하는 것일 뿐이다. 편작을 보라. 한단(邯鄲)을 지날 적에는 부인의 병을 잘 고 치는 의원이었고, 낙양(洛陽)을 지날 적에는 노인의 병을 잘 고치는 의원이었 고, 함양(咸陽)에 들어가서는 소아의 병을 잘 고치는 의원이었다. 동네에 따라 전문 분야가 변했던 까닭은 바로 그의 의술이 통달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분 야만 전문으로 잘 고치고 두루 잘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있었겠는가. 장중경과 전중양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요절하는 것을 안 타까워하여 이 책들을 남겼으니 인자한 이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형 은 의학에 대해 학설이 다른 사람이든 치료법이 다른 학파는 상관없이 두 분을 존경하면서 청송했으니 이 또한 선인들께서 아이들을 아끼는 깊은 마음이 아 니었겠는가. 의학을 업으로 삼은 이는 새겨듣고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다. 어디에 있더라도 의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일 테 다. 기해년 3월 보름. 아우 여즙(汝楫)이 사관서숙(射觀西塾)에서 쓰다.

<sup>&</sup>lt;sup>1</sup>. 症: ☞證 ※권수제. 이하 동일함. ↔

<sup>&</sup>lt;sup>2</sup>. 坄: ☞投 ※문맥상 ←

### 原序<sup>1</sup> 서문

醫之爲藝誠難矣,而治小兒爲尤難,自六歲以下,黃帝不載其說,始有顱顖經,以占壽夭死生之候,則小兒之病,雖黃帝猶難之,其難一也.脈法,雖曰八至爲和平,十至爲有病,然小兒脈微難見,醫爲持脈,又多驚啼,而不得其審,其難二也.脈旣難憑,必資外證,而其骨氣未成,形聲未正,悲啼喜笑,變態不常,其難三也.問而知之,醫之工也,而小兒多未能言,言亦未足取信,其難四也.臟腑柔弱,易虚易實,易寒易熱,又所用多犀珠龍麝,醫苟難辨,何以已疾?其難五也.種種隱奧,其難固多.余嘗致思於此,又目見庸醫妄施方藥而殺之者,十常四五,良可哀也.

의술이 뛰어나기는 정말 어렵지만 소아를 치료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법이다. 6살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황제내경》에도 설명이 없고, 《노신경》의 수명과 생사의 징후를 점친다는 내용에서부터 언급이 시작된다. 이처럼 소아의 병은 비록 황제라 하더라도 어려워했던 부분이니 이것이 1번째 난점이다. 맥법에서 '맥이 8번 잡히면 정상이고, 10번 잡히면 병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긴 했으나 소아의 맥은 은미하여 발견하기 어렵고, 의원이 맥을 짚을 때 아이가 대부분 놀라고 울기 때문에 제대로 살필 수 없다는 것이 2번째 난점이다. 맥으로 살피기 어렵다면 결국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의지해야 하는데 소아는 골격이나 기운이 아직 영글지 않았고, 형증이나 목소리가 아직 정상적이지 않으며, 울다가 웃다가 하는 변화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3번째 난점이다. 환자에게 물어서 병을 알아차리는 것이 의원의 기술이지만 소아는 대부분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4번째 난점이다. 소아는 오장육

부가 연약하여 허증이나 실증이 수시로 변하고 한증과 열증이 금세 변하는 데 다가 쓸 수 있는 약재가 서각ㆍ진주ㆍ용뇌ㆍ사향 정도에 한정되어 의원이 변 증하기 참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병을 낫게 하겠는가. 이것이 5번째 난점이다. 이외에도 숨겨진 각종 난점이 정말로 많다. 나는 전부터 이 점들을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서툰 의원들이 제멋대로 처방을 써서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경우 가 10명 중 4 - 5명인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하도다.

蓋小兒治法,散在諸書,又多出於近世臆說,汗漫難據,求其要妙,豈易得哉.太醫丞錢乙,字仲陽,汶上人.其治小兒,該括古今,又多自得,著名於時,其法簡易精審,如指諸掌.先子治平中登第,調須城尉識之,余五六歲時,病驚疳癖瘕,屢至危殆,皆仲陽拯之良愈.是時仲陽年尚少,不肯輕傳其書,余家所傳者,纔十餘方耳.大觀初,余筮仕汝海,而仲陽老矣.於親舊間,始得說證數十條,後六年,又得雜方,蓋晚年所得益妙.比於京師,復見別本,然旋著旋傳,皆雜亂,初無紀律,互有得失,因得參校焉,其先後則次之,重複則削之,訛謬則正之,俚語則易之.上卷脈證治法,中卷記嘗所治病,下卷諸方,而書以全.於是古今治小兒之法,不可以加矣.余念博愛者,仁者之用心,幼幼者,聖人之遺訓,此惠可不廣耶.將傳之好事者,使幼者免橫夭之苦,老者無哭子之悲,此余之志也.因以明仲陽之術於無窮焉.

대체로 소아의 치료법은 여러 책에 산재해있고 대부분은 근래의 억측에서 나온 것이다. 그 내용이 황당하고 근거를 찾기 어려우니 요점을 찾으려 한들 어찌 쉽게 알 수 있겠는가. 태의승(太醫丞) 전을(錢乙)은 자가 중양(仲陽)이며 본관은 문상(汶上)이다. 그는 소아 치료에 대하여 고금의 치료법을 모두 섭렵하였고 체득한 의술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하였다. 그의 치료법은 간단하

면서도 정밀하여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웠다. 나의 부친께서 치평(治平) 연간 (1064 - 1067)에 과거에 급제하여 조수성위(調須城尉)로 근무하셨을 적의 일 이다. 나는 5 - 6살 정도였고 경풍 사 감질 사 벽적 사장가에 걸려 여러 번 죽을 뻔 했었는데 그때마다 모두 전충양께서 구해주셔서 많이 좋아졌다. 그 당시 전충 양께서는 아직 젊어서 그의 글을 경솔하게 남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 에 남아 있는 것도 겨우 처방 10개 정도뿐이었다. 대관(大觀) 연간(1107 -1110) 초기, 내가 여해(汝海) 지역으로 처음 출사했을 때 전중양께서는 이미 나 이가 드셨는데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비로소 병증에 대한 설명 수십 조목 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6년 후 다시 여러 가지 처방을 얻었으니 대부분 그 가 만년에 터득하여 한층 더 신효한 처방들이었다. 근래에 도성에 돌아와서는 다른 사본도 볼 수 있었으나 쓰는 즉시 전해졌기 때문에 모두 복잡하게 섞여 있었으며, 애초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내용의 출입이 있었다. 그 래서 그것들을 구하여 교감을 시작하였다. 앞뒤로 떨어진 내용은 순서를 바로 잡았고, 중복된 내용은 삭제했으며, 틀린 글자는 바로잡았고, 비속어는 고쳤 다. 상권은 진맥과 병증의 설명과 치료법으로 엮었고, 중권은 예전에 치료했던 경험으로 엮었으며, 하권은 처방으로 구성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아, 고금을 통틀어 소아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기에 더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박애(博愛)는 인자한 사람이 마음을 쏟는 것이고, 아이를 아끼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니 이 책의 혜택이 가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좋은 일 하려는 사람에게 이 책을 전파하여 아이들에게는 요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게 만들고 어른들에게는 자식을 잃는 슬픔이 없게 만들 것이니 이것이 내가 이책을 엮은 의도이다. 그리하여 이 책으로 전중양의 의술을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 宣教郎大梁閻季<sup>2</sup>忠序.

선교랑(宣敎郎) 대량(大梁) 염효충(閻孝忠) 쓰다.

- $^{1}$ . 저본인 기수당 영인본에 누락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서 보충하였다.  $\leftarrow$
- 2.季:☞孝←

## 錢仲陽傳<sup>1</sup> 전중양전

#### 河間劉跂撰

#### 하간(河間) 유기(劉跂) 지음

錢乙,字仲陽.上世錢塘人,與吳越王有屬. 俶納土,曾祖贇隨以北,因家於鄆. 父顥,善鍼醫, 然嗜酒喜游,一旦匿姓名,東游海上,不復返. 乙時參歲,母前亡,父同産嫁醫呂氏,哀其孤,收養爲子. 稍長讀書,從呂君問醫. 呂將歿,乃告以家世,乙號

①①①②跡父. 凡五六返,乃得所在,又積數歲,乃迎以歸. 是時乙年參拾餘. 鄉人驚嘆,感槩爲泣下,多賦詩詠其事. 後柒年,父以壽終,喪葬如禮. 其事呂君,猶事父,呂君歿,無嗣,爲之收葬行服,嫁其孤女,歲時祭享,皆與親等.

전을의 자는 중양(仲陽)이다. 그의 선대는 전당(錢塘)에서 세거하였고 오나라 월왕(越王)의 가계이다. 전숙(錢俶)이 영토를 봉납하면서 증조인 전윤(錢贇) 도 따라서 북쪽으로 옮겨갔고 운(鄆)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다. 부친 전호(錢 顥)는 이름난 침의였으나 술과 여행을 좋아하여 어느 날 이름을 감춘 채 동쪽 바다로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을이 3살 때 모친마저 돌아가셨고, 고모 가 의원인 여씨(呂氏)에게 시집가면서 고아인 전을을 안타까워하며 수양아들 로 삼았다. 전을은 자라면서 책을 읽으며 양부 여씨에게 의학을 수학하였다. 여씨가 죽기 전에 전을에게 집안 내력을 말해주니 전을은 슬피 통곡하면서 부 친의 행적을 쫒고 싶다고 청하였다. 5 - 6년 정도 후에 돌아와서는 부친의 소재 를 알았다고 했고,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부친과 함께 환영을 받으며 돌아 왔다. 이때 전을의 나이가 30세 정도였다. 고을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개무량하여 눈물을 흘렸으니 그 때의 일이 시로 많이 쓰여졌다. 그 후 7년이 지나고 부친이 죽자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여씨를 섬겼다. 여씨가 죽을 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을이 장례를 치르고 상복을 입었으며, 남겨진 여씨의 딸을 시집보내고 해마다 제향하기까지 하였으니 모두 친부모에게 하듯 하였다.

乙始以《顱頤方》著山東.元豊中,長公主女有疾,召使視之,有功,奏授翰林醫學,賜緋.明年,皇子儀國公病瘈瘲,國醫未能治,長公主朝,因言錢乙起草野,有異能,立召,入進黃土湯而愈.神宗皇帝召見,褒諭,且問黃土所以愈疾狀.乙對曰:以土勝水,木得其平,則風自止;且諸醫所治垂愈,小臣適當其愈.天子悅其對,擢太醫丞,賜紫衣金魚.自是戚里貴室,逮士庶之家,願致之,無虛日.其論醫,諸老宿莫能持難,俄以病免,哲宗皇帝復召,宿直禁中.久之,復辭疾賜告,遂不復起.

전을은 처음에 《노신경顱顖經》에 정통하여 산동 지역에서 유명하였다. 원풍연간(1078 - 1085)에 장공주(長公主)의 딸이 병이 나서 부름을 받고 살핀 적이 있는데, 그 공으로 한림의학(翰林醫學)을 제수받고 비(緋, 주홍비단)를 하사받았다. 다음 해에 황자 의국공(儀國公)이 계종(瘈瘲)을 앓았을 때 궁중의 의원들이 치료하지 못하였다. 이때 장공주가 황제를 알현하여 '초야에 있는 전을이란 사람이 신기한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즉시 불러들였고, 전을이 황토탕(黃土湯)을 올렸더니 계종이 나았다. 신종(神宗)황제가 불러 칭찬하면서 황토가 어떻게 병을 낫게 했는지 물었다. 전을이 대답하였다. "토(土)로 수(水)를 눌러 목(木)이 평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풍증이 저절로 멎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치료로 병이 거의 나았을 때 소신이 때마침 치료한 것뿐입니다." 황제가 그의 대답을 기뻐하면서 태의승(太醫丞)으로 발탁하고 자의(紫衣)와 금어(金魚)를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궁중 안팎의 황족들부터 양반들의 집안까지 전을을 모셔가려고 하여 쉴 날이 없게 되었다. 그가의학을 논하면 노련한 의원들도 버티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전을은병을 이유로 사직하였으나 철종(哲宗)황제가 다시 불러 궁중에서 관직을 맡게했다. 오래 지난 후에 다시 병을 이유로 사직한 후로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

乙本有羸疾,性簡易嗜酒.疾屢攻,自以意治之輒愈.最後得疾憊甚,乃嘆曰:此所謂周痺也.周痺入藏者死,吾其已夫!已而曰:吾能移之,使病在末.因自製藥,日夜飲之,人莫見其方,居亡何,左手足攣不能用,乃喜曰:可矣!又使所親登東山,視菟絲所生.秉火燭其下,火滅處斸之,果得茯苓,其大如斗.因以法噉之,閱月而盡.繇此雖偏廢而氣骨堅悍,如無疾者.

전을은 본래 병약하였으나 성격이 단순하며 술을 좋아했다. 병이 여러 번 들었어도 스스로 생각한 대로 치료하면 금세 좋아지곤 했다. 말년에 병에 걸렸을때 매우 힘들어하면서 한탄하고 말하길 "이 병은 주비(周瘻)라는 병이다. 주비가 오장까지 들어가면 죽는 법이니 나도 곧 끝이구나."라고 하였다. 이윽고 말하길 "나는 주비를 사지 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 후 스스로 약을 짓고 밤낮으로 마셨다. 다른 사람들은 그 처방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할 수도 없었다. 왼쪽 손발이 경직되어 쓰지 못하게 되자 기뻐하며 "성공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친한 이를 시켜 동쪽 산에 올라 토사자가 난 곳을 살펴보게 하였다. 횃

불로 토사자 아래를 태워서 불이 꺼진 곳을 파보니 과연 복령이 있었고 한 말정도 되는 크기였다. 그것을 복용법대로 한 달 동안 전부 먹었다. 이 일로 비록반신불수가 되었으나 기골은 탄탄해져 마치 병이 없는 사람 같았다.

退居里舍,杜門不冠屨,坐臥一榻上,時時閱史書雜說,客至酌酒劇談.意欲之適,則使二僕夫輿之,出沒閭巷,人或邀致之,不肯往也.病者日造門,或扶攜繈負,累累滿前,近自隣井,遠或百數十里,皆授之藥,致謝而去.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집에서는 두문불출하며 예관을 갖추지 않고 침상에 앉거나 누운 채 때때로 역사서나 잡설을 읽다가 손님이 오면 술잔을 부딪치며 신나게 이야기하며 지냈다. 하고 싶은 게 생각나면 두 종을 시켜 수레에 타고 저 갓거리에 나타나곤 했으나 사람들이 간혹 의원으로 모셔가려고 하면 가려고하지 않았다. 환자가 날마다 문 앞에 오거나 혹은 부축 받거나 포대기에 싸여와서 집 앞이 환자로 늘 가득했다. 가깝게는 동네 사람들부터 멀리는 간혹 수십 수백 리 밖의 환자들까지 있었으니 전을이 그들 모두에게 약을 주면 다들감사하며 돌아갔다.

初, 長公主女病泄痢, 將殆, 乙方醉, 曰: 當發疹而愈. 駙馬都尉以爲不然, 怒責之, 不對而退. 明日, 疹果出, 尉喜以詩謝之.

예전에 장공주(長公主)의 딸이 이질에 걸려 거의 죽어갈 때, 전을이 마침 취한 상태에서 "발진이 생기면서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부마도위(駙馬都尉) 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서 화를 내며 꾸짖었더니 전을은 대답하지 않고 물러갔 다. 다음날 과연 발진이 생기자 부마도위는 기뻐하며 시(詩)를 지어 사례하였 다. 廣親宗室子病, 診之曰: 此可無藥而愈. 顧其幼曰: 此兒旦夕暴病驚人. 後參日過午無恙, 其家恚曰: 幼何疾? 醫貪利動人乃如此. 明日果發癎甚急, 復召乙治之, 參日愈. 問: 何以無疾而知? 曰: 火急直視, 心與肝俱受邪. 過午者, 心與肝所用時, 當更也.

광친택(廣親宅)의 황실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전을이 진찰하고 말하였다. "이 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고 말하였다. "이 아이는 아침저녁으로 갑자기 발작하면서 사람을 놀래킬 것입니다. 그 후 3일 동안은 오시(午時)를 지나면서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자 집안사람들이 화내며 말하였다. "아이는 무슨 병인가? 의원이 돈을 탐내 사람을 겁줘도 되는 겐가?" 다음날 과연 간질이 발작하여 위급하게 되자 다시 전을을 불러 치료하였더니 삼일 후에 나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없어질 것을 알았는가?"라고 하니 전을이 대답하였다. "화기가 급박하여 눈에 초점이 없었으니 심장과 간장에 모두 사기가 침입한 상태였습니다. 오시를 지나면 심장과 간장이 작용할 때이니 당연히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宗室王子病嘔泄,醫以藥溫之,加喘.乙曰:病本中熱,脾且傷,奈何以剛劑 之?將不得前後溲,與石膏湯,王與醫皆不信,謝罷,乙曰:毋庸復召我.後二日,果來召,適有故不時往.王疑且怒,使人十數輩趣之,至曰:固石膏湯證也.竟如言而效.

황실의 왕자가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어 의원이 약으로 속을 따뜻하게 하려 했으나 숨을 헐떡거리는 증상까지 더해지게 되었다. 전을이 "이 병은 중열(中熱)이며 비장까지 상한 상태이거늘 어째서 강한 약재로 불을 지릅니까? 그러면 대소변까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석고탕을 처방했다. 그러

나 왕과 의원이 모두 믿지 않자 인사하고 나왔다. 전을이 말하였다. "쓸데없이나를 다시 부르지 마시오." 2일 후에 과연 전을을 부르러 사람이 왔으나 마침일이 있어 제시간에 가지 못하였다. 왕이 의심하고 분노하여 사람들 열 몇 명을 보내 데려오니 전을이 도착하여 "확실히 석고탕 증상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그의 말대로 효과가 있었다.

有士人病咳, 面青而光, 其氣哽哽. 乙曰: 肝乘肺, 此逆候. 若秋得之可治, 今春不可治. 其家祈哀, 彊之與藥. 明日, 曰: 吾藥再瀉肝而不少却, 參補肺而益虛, 又加脣白, 法當參日死. 然安穀者過期, 不安穀者不及期, 今尚能粥. 居伍日而絶.

어떤 양반이 해수를 앓아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광택이 났으며 숨소리가 답답하였다. 전을이 말하였다. "간목(肝木)이 폐금(肺金)을 올라탔으니 이는 역증의 징후입니다. 만약 가을이었다면 치료할 수 있으나 지금은 봄이라 치료할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사람들이 애처롭게 빌기에 억지로라도 약을 주었다. 다음날 전을이 말하였다. "내가 준약은 다시 간목을 사해주는 약이었으나 간목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폐금을 보해주었으나 폐금이 더욱 허해진데다가 입술까지 하얗게 질렸으니 이치상 사흘이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넘기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가 되기도 전에 죽기도 합니다. 지금 다행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양반은 5일을 살다가 목숨이 끊어졌다.

有姙婦得疾,醫言胎且墮.乙曰: 娠者五藏傳養,率六旬乃更. 誠能候其月,偏補之,何必墮. 已而子母皆得全.

어떤 임신부가 병에 걸렸을 때 한 의원이 얼마 후에 유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을이 말하였다. "임신을 하고 오장의 기운이 태아에게 전해져 길러주는기간이 대략 60일 정도면 자리를 잡습니다. 정성을 다해 60일을 기다리면서 어머니든 자식이든 부족한 쪽을 보충해준다면 어찌 꼭 유산하겠습니까." 그 후에 자식과 어머니 모두 무사하였다.

又乳婦因大恐而病. 病雖愈, 目張不得瞑. 人不能曉, 以問乙, 乙曰: 煮郁李酒飲之, 使醉則愈. 所以然者, 目系內連肝膽, 恐則氣結, 膽衡不下, 惟郁李去結, 隨酒入膽, 結去膽下, 目則能瞑矣. 如言而效.

어떤 산모가 크게 놀란 후에 병이 들었다. 그 후에 병은 나았으나 눈을 뜬 채 감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까닭을 알 수 없어 전을에게 물었다. 전을이 말하였다. "데운 욱리주(郁季酒)를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왜 나하면 눈이란 기관은 속으로 간장과 담부에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이 놀라면 기가 뭉치게 되고 담부의 기도 막혀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오직 욱리(郁季)로만 뭉친 기를 제거할 수 있으니 욱리가 술기운을 따라 담부로 들어가서 뭉친 기가 제거되면 담부의 기가 아래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 말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다.

一日,過所善翁,聞兒嗁. 愕曰: 何等兒聲? 翁曰: 吾家孿生二男子. 乙曰: 謹視之,過百日乃可保. 翁不懌. 居月餘,皆斃.

어느 날 전을이 친구 집을 지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인가?"라고 했더니 친구가 "우리집 쌍둥이 두 놈이라네."라고 답했다. 전을이 "조심히 잘 돌봐야하네. 그렇게 100일이 지나면 살 수 있을 것

이네."라고 하였으나 친구는 그 말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한 달 남짓살다가 둘 모두 죽었다.

乙爲方博達,不名一師,所治種種皆通,非但小兒醫也.於書無不闚,它人靳靳守古,獨度越縱舍,卒與法合.尤邃本草,多識物理,辨正闕誤,人或得異藥,或持疑事,問之必爲言,出生本末,物色名貌,退而考之,皆中.

전을은 모든 방면에 박학다식하여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규정할 수 없다. 치료하는 족족 모두 효과가 있었으니 소아만 치료하는 의원이 아니었다. 읽지 않은책이 없었던 전을은 다른 사람들이 옛것만을 고집하는 데 비하여 유독 취사선택이 탁월하였고 결국 이치에 부합하였다. 또한 본초에 대해서는 특히 정통하여 약재와 그 특성을 많이 알았다. 본초서에 빠진 글자나 틀린 글자가 있으면바로잡았고, 사람들이 간혹 신기한 약재를 구하거나 궁금한 점을 가지고 와서그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었다. 전을이 말한 약재의 생육 ㆍ부위 ㆍ 형상 ㆍ 명칭에 대해 돌아가서 찾아보면 모두 맞는 얘기였다.

末年攣痺浸劇,其嗜酒喜寒食,皆不肯禁.自診知不可爲,召親戚訣別,易衣待盡,享年捌拾貳,終於家.所著書有《傷寒論指微》伍卷,《嬰孺論》百篇.一子早世,二孫今見爲醫.

전을은 말년에 마비가 극심하였는데도 술을 좋아하고 찬 음식을 즐기는 성격이라 모두 끊으려 하지 않았다. 스스로 진단하여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친한 이들을 불러 이별을 고한 후 옷을 바꿔입고 죽음을 기다리다가 향년 82세

에 집에서 생을 마쳤다. 저서에는 《상한론지미傷寒論指微》 5권과 《영유론嬰 孺論》 100편이 있다. 외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손자는 지금 의원이 되 었다.

- 劉跂曰: 乙非獨其醫可稱也, 其篤行似儒, 其奇節似俠, 術盛行而身隱約, 又類夫有道者. 數謂余言: 曩學六元五運, 夜宿東平王冢巓, 觀氣象, 至逾月不寐. 今老且死, 事誠有不在書者, 肯以三十日暇從我, 當相授. 余笑謝弗能. 是後, 遂不復言. 嗚呼! 斯人也, 如欲復得之, 難哉! 沒後, 余聞其所治驗尤衆, 東洲人人能言之, 剟其章章者著之篇. 異時史家序方術之士, 其將有考焉.
- 나(유기)는 말한다. "전을은 의원으로만 부를 사람이 아니다. 그의 독실한 행동은 마치 유학자와 같았고, 그의 높은 절개는 마치 협객과 같았다. 의술로 널리 알려졌음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췄으니 이 또한 도를 체득한 사람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가 자주 나에게 말씀하시길 '예전에 오운육기(五運六氣)를 공부할 적에 밤마다 동평왕(東平王) 무덤 꼭대기에서 하늘의 기상을 관찰하다가 달이 지도록 잠들지 못했었지. 지금은 늙어서 곧 죽을 때가 되고 보니 정말이지 어떤 일은 책에 실리지 않은 경우가 있구나. 네가 기꺼이 30일 동안 시간을 내서 나를 따른다면 내 너에게 꼭 그것을 전수해주겠다. '고 하셨다. 나는 웃으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결국 다시 그 말을 하시지 못하게 되었다. 아아 이런 분께서 다시 그 말을 할 수 있기가 어렵겠구나.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치료한 사람이 매우 많다고 동주(東洲)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나는 그분의 유고를 선별하여 한 편의 글로 엮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기술 분야의 인물에 대한 글을 쓸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원래는 권말에 있었으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으로 변경된 듯하다. 염 효충의 〈부방〉에 언급된 부분이 있다. ←

2. ⊕⊕⊕: ☞泣, 請返 ←



# 錢氏小兒藥證直訣上 소아약증직결 권상

#### 閻孝忠集

염효충(閻孝忠) 편집

# 脉證治法 맥법、병증、치료법



#### 小兒脉法 소아의 맥법

脉亂不治, 氣不和弦急, 傷食沈緩, 虛驚促急, 風浮, 冷沈細.

소아의 맥이 혼란스러우면(亂) 치료하지 못한다. 기가 조화롭지 못한 증상은 맥이 현급(弦急)하다. 음식에 상한 증상은 맥이 침완(沈緩)하다. 기운이 허하면서 경풍이 있으면 맥이 촉급(促急)하다. 풍증이 있으면 맥이 부(浮)하다. 냉증이 있으면 맥이 침세(沈細)하다.

### 變蒸 변(變)과 증(蒸)

小兒在母腹中, 乃生骨氣, 五藏六府, 成而未全, 自生之後, 卽長骨脉五藏六府之神 智也, 變者, 易也, 「巢源云, 上多變氣」 ] 又生變蒸者, 自內而長, 自下而上, 又身 熱、故以生之日後三十二日一變,變每畢,卽情性有異於前,何者,長生府藏智意故 也,何謂三十二日長骨添精神,人有三百六十<sup>2</sup>骨,除手足中四十五碎骨外,有三百 二十數, 自生下骨, 一日十段而上之, 十日百段, 三十二日, 計 $^{3}$ 百二十段, 爲一遍, 亦曰一茎, 骨之餘氣, 侧4 腦分入齦中, 作三十二齒, 而齒牙有不及三十二數者, 由變 遍, 乃發虛熱諸病, 如是十周, 則小蒸畢也, 計三百二十日, 生骨氣乃全而未壯也, 故 初三十二日一變, 生 $0^6$ 生 $1^2$ 志, 六十四日再變, 生膀胱, 其發耳與 $0^7$ 冷,  $0^8$ 與膀胱 俱主於水,水數一,故先變生之,九十六日三變,生心喜,一百二十八日四變,生小腸, 其發汗出而微驚,心爲火,火數二,一百六十日五變,生肝哭,一百九十二日六變,生 膽, 其發目不開而赤. 肝主木, 木數三, 二百二十四日七變, 生肺聲, 二百五十八9日 八變,生大腸,其發膚熱而汗,或不汗,肺屬金,金數四,二百八十八日九變,生脾智, 三百二十日十變,生胃,其發不食,腸痛而吐乳,此後乃齒生,能言,知喜怒,故云始 全也. 太倉云, 氣入四肢, 長碎骨, 於十變後六十四日, 長其經脉, 手足受血, 故能持 物足立能行也. 經云變且蒸, 謂蒸畢而足一歲之日也, 師曰, 不汗而熱者, 發其汗, 大 吐者, 微 $\mathbf{r}^{10}$ , 不可餘 $\mathbf{r}^{11}$ 治, 是以小兒須變蒸蛻齒者, 如花之易苗. 所謂不及三十二 齒, 由變之不及, 齒當與變日相合也, 年壯而視齒方明.

소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뼈와 기혈이 생기면서 오장육부도 만들어지 지만 완전하지는 않고 태어난 다음부터 곧바로 뼈와 혈맥과 오장육부에 깃든 신령한 지각이 자라기 시작한다. 변(變)은 바뀐다는 의미이다. [《제병원후 론》에서는 '윗부분에는 변하려는 기운이 많다'고 하였다. ] 그리고 변과 증이 생기면 몸속에서부터 점점 커지며 아랫부분부터 윗부분으로 올라오면서 몸통 이 뜨거워진다. 그러므로 태어난 지 32일 만에 첫 번째 변을 한다. 각 변이 끝날 때마다 소아의 지각이 이전과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장육부와 지각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왜 32일을 단위로 뼈와 정신이 자랄까? 사람에게는 365개 의 뼈가 있고 손발의 자잘한 45개 뼈를 빼면 320개 정도가 남는다. 태어난 이후 에 뼈는 하루에 10단계씩 늘어나 10일이면 100단계가 되며 32일이면 총 320단 계가 되어 한 번 완성된다. 이것을 첫 번째 증이라고도 한다. 뼈의 넘치는 기운 은 머릿속에서 잇몸으로 나뉘어 들어가서 32개의 이빨을 만들지만 이빨이 32 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변 때문에 정상적인 숫자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28일 만에 28개 이빨이 나거나 그 이하의 경우는 이와 같은 원리이나 32 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했을뿐이다. 대체로 한 번 이렇게 몸 전체를 돌고 나면 허열이나 여러 증상이 생기고, 이와 같이 10번 돌고 나면 소증(小蒸)이 끝나고 총 320일이 되면 뼈와 기혈이 온전히 갖추어지지만 아직 튼튼하지는 않다. 그 러므로 가장 처음 32일에 첫 번째 변을 지나면 신장과 생각이 생기고, 64일에 두 번째 변을 지나면 방광이 생기면서 귀가 트이고 피부가 식는다. 신장과 방 광은 둘 다 수기(水氣)를 주관하며 수의 역수는 1이므로 먼저 변을 지나며 생 기는 것이다. 96일에 세 번째 변을 지나면 심장에 속하는 기뻐하는 감정이 생 긴다. 128일에 네 번째 변을 지나면 소장이 생기면서 땀이 나면서 살짝 경기를

한다. 심장은 오행 중에 화(火)에 속하고 화의 역수는 2이기 때문이다. 160일에 다섯 번째 변을 지나면 간장에 속하는 울음이 생긴다. 192일에 여섯 번째 변을 지나면 담부가 생기면서 눈이 감기지 않고 충혈된다. 간은 오행 중에 목기(木 氣)를 주관하고 목(木)의 역수는 3이기 때문이다. 224일에 일곱 번째 변을 지 나면 폐장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난다. 256일이 지나면서 여덟 번째 변 을 지나면 대장이 생기면서 살갗이 뜨거워지고 땀을 흘린다.(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폐장은 오행 중에 금(金)에 속하고 금의 역수는 4이기 때문이다. 288일에 아홉 번째 변을 지나면 비장과 기억력이 생긴다. 320일에 열 번째 변 을 지나면 위부가 생기면서 음식을 먹지 않거나 배를 아파하면서 젖을 토하기 도 한다. 이 이후로는 이빨이 생기고 말을 시작하고 기쁘고 화내는 감정이 생 기니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창공의 책에 '기운이 사지로 들어가서 자잘한 뼈를 자라게 하고 열 번 변을 지난 후 64일이 되면 경 맥이 자라면서 손발에 피가 잘 돌게 되기 때문에 물건을 잡거나 두발로 서거나 걸을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경전에서 '변을 하고 증을 한다'라고 했으니 증 이 끝나려면 1년의 시일이 필요함을 말한 것이다. 사씨가 말하길 "땀을 흘리지 않고 열이 나는 이유는 땀을 내기 위해서이고 크게 토하는 이유는 살짝 설사하 려는 것이니 별다른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아가 반 드시 변과 증을 거치고 이를 가는 것은 꽃이 싹을 갈면서 피는 것과 같다. 이른 바 이빨이 32개가 안된다는 경우도 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니 이빨은 으레 변의 날수와 서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이빨은 자연스레 정상으로 된다.

- 1. 巢源云, 上多變氣: ※취진본 ←
- <sup>2</sup>. 글자없음 : \*五 ※취진본 ←
- 3. ①: ☞三 ※취진본 ←
- 4. ⑩ : ☞自 ※취진본 ↔
- 치지본↔ 5. ⑩⑪⑪, ⑪ : ☞十八齒, 已 ※취진본←
- 6. (1) : ☞腎 ※취진본 ←
- <sup>12</sup>.生: ※취진본 ←
- ※취진본. 肌와 동자←
- 8. (1): ☞腎취진본 ←
- <sup>9</sup>. 八: ☞六 ※취진본 ←
- 11. 餘: ☞別 ※취진본 ←

### 五藏所主 오장이 주관하는 병증

心主驚, 實則叫哭發熱, 飲水而搖 $^1$ , 虛則臥而 $^2$ 悸動不安.

심장은 경풍을 주관한다. 심기가 허하면 소리 지르며 울거나 열이 나거나 물을 마시면 경축이 생긴다. 심기가 허하면 계속 누워있으면서 떨거나 움직일 때 불 안정하게 된다.

肝主風,實則目直大叫,呵欠項急頓悶,虛則前3牙多欠,氣熱則外生氣,溫則內生氣.

간장은 풍질을 주관한다. 간기가 실하면 눈에 초점이 없거나 크게 소리 지르거나 소리 내어 하품을 하거나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가슴을 답답해한다. 간기가 허하면 이를 악물거나 하품을 많이 한다. 간기가 뜨거우면 겉에 병이 생기고, 간기가 따뜻하면 몸속에 병이 생긴다.

#### 脾主困,實則困睡,身熱飲水,虛則吐瀉生風.

비장은 피곤함을 주관한다. 비기가 실하면 피곤하게 자거나 몸통이 뜨겁거나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한다. 비기가 허하면 구토와 설사를 하거나 풍질이 생긴 다.

#### 肺主喘,實則悶亂喘促,有飲水者,有不飲水者,虛則哽氣,長出氣.

폐장은 기천(氣喘)을 주관한다. 폐기가 실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을 헐떡 거리되 물을 자꾸 마시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폐기가 허하면 목이 메거나 숨을 길게 내쉰다.

#### 腎主虚,無實也,惟瘡疹腎實,則變4黑陷.

신장은 허로를 주관한다. 신기가 실한 경우는 없으나 창진(瘡疹)일 때 신기가 실하면 수포가 까맣게 되면서 움푹 꺼지게 된다.

更當別虛實證,假如肺病又見肝證,前<sup>5</sup>牙多呵欠者易治,肝虛不能勝肺故也.若目直大叫哭,項急頓悶者難治,蓋肺久病則虛冷,肝强實而反勝肺也,視病之新久虛實,虚則補①<sup>6</sup>,實則瀉子.

무엇보다 허증과 실증을 구별해야 한다. 가령 폐장으로 생긴 병증을 간장으로 생긴 병증이라고 생각하면 소아가 이를 악물거나 자주 소리 내며 하품하는 증상을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 간기가 허하면 폐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눈에 초점이 없거나 크게 소리 지르며 울거나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폐장이 오랫동안 병들어 허랭해질 때 간기가 튼실하면 반대로 폐기를 이기게 되기 때문이다. 병증이 언제 생겼는지 허증인지 실증인지를 잘 살펴서 허증이면 모(母)격을 보하고 실증이면 자(子)격을 사해야한다.

- <sup>1</sup>. 搖 : ☞搐 ※취진본 ←
- 2. 臥而: ☞困臥 ※취진본 ←
- 3. 前: ☞ 咬 ※취진본 ←
- <sup>4</sup>. 變: ☞ ※취진본 ←

5. 前: ☞ 咬 ※취진본 ←

6. ⊕ : ☞母 ※취진본 ←



### 五藏病 오장의 병증

#### 肝病, 哭叫目直, 呵欠頓悶項急.

간장이 병들면 소리 지르며 울거나 눈에 초점이 없어지거나 소리 내며 하품하 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뒷목이 뻣뻣해진다.

#### 心病,多叫哭驚悸,手足動搖,發熱飲水.

심장이 병들면 계속 소리 지르며 울거나 몸을 덜덜 떨거나 손발을 파닥거리거나 열이 나면서 물을 찾게 된다.

#### 脾病, 困睡洩瀉, 不思飲食.

비장이 병들면 계속 자려고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게 된다.

#### 肺病, 悶亂哽氣, 長出氣, 氣短喘急.

폐장이 병들면 가슴을 답답해하거나 목이 막혀하거나 길게 숨을 내쉬거나 숨이 짧아지면서 헐떡이게 된다.

#### 腎病,無精光,畏明,體骨重.

신장이 병들면 눈에 힘이 빠지거나 빛을 싫어하거나 몸이 무거워진다.



### 肝外生感風 간기가 허해졌을 때 외감으로 생긴 풍증

呵欠頓悶, 口中氣熱, 當發散, 大青膏主之. 若能食, 飲水不止, 當大黃圓微下之, 餘不可下.

소리 내며 하품하거나 가슴을 답답해하거나 입 속의 숨이 뜨거울 때는 발산시켜야 하니 대청고로 치료한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계속 물을 마시려 하는 경우에만 대황원을 써서 살짝 설사시키고 나머지 경우에는 설사시키지 말아야한다.

### 肝熱 간장의 열증

手尋衣領, 及亂捻物, 瀉靑圓主之, 壯熱飲水喘悶, 瀉白散主之.

손으로 옷깃을 자꾸 매만지거나 이것저것 물건을 쥐는 경우에는 사청원으로 치료한다. 열이 극심하거나 계속 물을 마시려 하거나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답 답해하는 경우에는 사백산으로 치료한다.

## 肺熱 폐장의 열증

手掐眉目鼻面, 甘桔湯主之.

손으로 눈썹이나 눈이나 코 등 얼굴을 자꾸 만지면 감길탕으로 치료한다.



肺盛復有風冷 폐기가 왕성해져 풍증이나 냉증까지 생긴 경우

胃滿短氣, 氣急喘嗽上氣, 當先散肺, 後發散風冷. 散肺瀉白散、大青膏主之, <mark>肺只傷寒, 則不胃滿<sup>1</sup>.</mark>

가슴이 그득하면서 숨이 짧아지거나 숨을 헐떡대면서 기침하고 상기되면 우선 폐기를 흩은 후에 풍증이나 냉증을 발산시켜야 한다. 산폐사백산이나 대청고로 치료한다. 단순히 폐장이 한기에 상하면 가슴이 그득해지지는 않는다.

1. 肺只傷寒, 則不胷滿: ※취진본←

# 肺虛熱 폐장의 허열

脣深紅色, 治之散肺. 虚熱, 少服瀉白散.

입술이 새빨갛게 된 경우에는 폐기를 흩어서 치료해야 한다. 허열이 있을 때는 사백산을 조금 복용시킨다.

### 肺藏怯 폐장이 위축된 경우

脣白色, 當補肺, 阿膠散主之. 若悶亂氣麁, 喘促哽氣者難治, 肺虚損故也.

입술이 하얗게 질렸을 때는 폐기를 보해주어야 하니 아교산으로 치료한다. 가 숨을 답답해하거나 숨소리가 거칠거나 숨을 헐떡이거나 목이 멘 경우에는 치 료하기 어려우니 폐장이 허손해졌기 때문이다.

脾肺病久,則虚而脣白. 脾者, 肺之母也, 母子皆虚, 不能相營. 故名曰怯. 肺主脣白, 白而澤者吉, 白如枯骨者死.

비장과 폐장이 오랫동안 병들면 기운이 허해져 입술이 하얘진다. 비장은 폐장의 모격이니 모격과 자격이 모두 허해졌다면 서로 길러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위축'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폐장은 입술이 하얘지는 증상을 주관하니 입술이 하얗지만 촉촉한 경우는 낫고, 입술이 마른 뼈처럼 하얗게 된 경우는 죽는다.

### 心熱 심장의 열증

視其睡,口中氣溫,或合面睡,及上竄咬牙,皆心熱也,導赤散主之.

자고 있는 소아를 살펴봤을 때 입 속의 숨이 따뜻하거나 혹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자거나 눈을 치켜뜨거나 이를 악무는 경우는 모두 심장의 열 때문이다. 도적산으로 치료한다.

心氣熱, 則心胷亦熱, 欲言不能, 而有就冷之意, 故合面臥.

심장에 열이 있으면 가슴도 열이 난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시원한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자는 것이다.

#### 心實 심장의 실증

心氣實則氣上下行澁, 合臥則氣不得通, 故喜仰臥, 則氣得上下通也, 瀉心湯主之.

심기가 실하면 기의 순환이 막히게 된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자면 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누워있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있어야 기가 잘 순환되기 때문이다. 사심탕으로 치료한다.

### 腎虛 신장의 허증

兒本虛怯,由胎氣不成,則神不足.目中白睛多,其顱卽解[囟開也],面色㿠白,此皆難養,縱長不過八八之數.若恣色慾多,不及四旬而亡.或有因病而致腎虛者,非也,又腎氣不足,則下竄,蓋骨重,惟欲墜於下而縮⑪¹也.腎水陰也,腎虛則畏明,皆宜補腎,地黃圓主之.

소아는 본래 기운이 위축되어 있으니 뱃속에서 원기가 영글지 않아서 정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에 흰자위가 많이 보이거나 숨구멍이 닫히지 않았거나 낯빛이 창백한 경우는 모두 제대로 기르기 어려우니 혹시나 살더라도 64세까지 밖에 살지 못한다. 색욕이 과다하면 40세가 되기도 전에 죽는다. 간혹 병에 걸려 신기가 허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그리고 신기가 부족하면 눈을 아래로 내리깔게 되니 뼈를 지탱하기가 무거워서 오로지 밑으로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려고 한다. 신수는 음에 속하니 신기가 허하면 빛을 싫어한다. 이 모든 경우는 신기를 보해야 하니 지황원으로 치료한다.

<sup>1</sup>. ⑪ : ☞身 ※취진본 ←

### 面上證 얼굴의 증상

左顋爲肝. 右顋爲肺. 額上爲心. 鼻爲脾. 頦爲腎. 赤者熱也. 遂證治之.

왼 뺨은 간장에 속한다. 오른 뺨은 폐장에 속한다. 이마는 심장에 속한다. 코는 비장에 속한다. 턱은 신장에 속한다. 각 부위가 붉어지는 이유는 오장의 열 때 문이니 증상에 따라 치료한다.

### 目內證 눈의 증상

#### 赤者心熱,導赤散主之.

눈이 충혈된 것은 심장의 열 때문이니 도적산으로 치료한다.

#### 淡紅者心虛熱, 生犀散主之,

눈이 살짝 붉은 경우는 심장의 허열 때문이니 생서산으로 치료한다.

#### 青者肝熱, 瀉靑圓主之, 淺淡者補之.

눈에 푸른 기가 도는 경우는 간장의 열 때문이니 사청원으로 치료한다. 살짝 푸른 경우는 간기를 보해준다.

#### 黃者脾熱, 瀉黃散主之.

눈이 누렇게 된 경우는 비장의 열 때문이니 사황산으로 치료한다.

#### 無精光者腎虛, 地黃圓主之.

눈에 생기가 없는 경우는 신기가 허하기 때문이니 지황원으로 치료한다.

#### 肝病勝肺 간장이 병들어 폐금을 억누르는 경우

肝病秋見[一作日晡],肝强勝肺,肺怯不能勝肝,當補脾肺治肝,益脾者.母令子實故也.補脾益黃散,治肝瀉靑圓主之.

간장의 병증은 가을철에 나타난다.(해질녘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다) 간목이 강성해져 폐금을 억누르거나 폐장이 위축되어 간목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토와 폐금을 보하여 간장을 치료해야 한다. 비장을 보익하는 이유는 모격이 자격을 튼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비장을 보할 때는 익황산으로 치료하고, 간장의 병을 치료할 때는 사청원을 쓴다.

## 肺病勝肝 폐장이 병들어 간목을 억누르는 경우

肺病春見[一作早辰],肺勝肝,當補腎肝治肺臟,肝怯者受病也,補肝腎地黃圓,治肺瀉白散主之.

폐장의 병증은 봄에 나타난다. [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다. ] 폐장이 간장을 억누르면 신장과 간장을 보하여 폐장을 치료해야 한다. 간장이 위축된 이유는 적사(賊邪)를 받았기 때문이다. 간장과 신장을 보할 때는 지황원으로 치료하고, 폐장의 병을 치료할 때는 사백산을 쓴다.

## 肝有風 간장에 풍사가 있는 경우

目連劄, 不搐, 得心熱則搐. 治肝瀉靑圓, 治心導赤散主之.

눈을 계속 깜빡인다. 축닉은 없으나 심장에 열이 생기면 축닉이 발작한다. 간 장의 병을 치료할 때는 사청원을 쓰고, 심장의 병을 치료할 때는 도적산을 쓴 다.

## 肝有熱 간장에 열사가 있는 경우

目直視,不搐,得心熱則搐.治肝瀉靑圓,治心導赤散主之.

눈에 초점이 없다. 축닉은 없으나 심장에 열이 생기면 축닉이 발작한다. 간장의 병을 치료할 때는 사청원을 쓰고, 심장의 병을 치료할 때는 도적산을 쓴다.



### 肝有風甚 간장에 풍사가 심한 경우

身反折强直,不搐,心不受熱也.當補腎治肝,補腎地黃圓,治肝瀉靑圓主之.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강직되지만 축닉이 없는 경우는 심장에 열사가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장을 보하고 나서 간장을 치료해야 한다. 신장을 보할 때는 지황원을 쓰고, 간장을 치료할 때는 사청원을 쓴다.

凡病或新或久,皆引肝風,風動而止<sup>1</sup>於頭目,目屬肝,風入於目,上下左右如風吹.不輕不重,兒不能任,故目連劄也.若熱入於目,牽其筋脉,兩眥俱緊,不能轉視,故目直也.若得心熱則搖,以其子母俱有實熱,風火相搏故也.治肝瀉靑圓,治心導赤散主之.

무릇 병이란 언제 걸렸건 간에 모두 풍사를 끌고 오는 법이다. 풍사가 발작하면 머리로 올라가게 되고 눈이 간장에 속하므로 풍사가 눈으로 들어가게 되니는 이 상하는 좌우는 바람 불듯이 치우치게 된다. 경증이는 중증이는 소아가 그 풍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계속 깜빡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열사가는으로 들어가면 눈을 조절하는 힘줄을 당기게 만들어서 양쪽 눈시울이 모두 긴장되고 결국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앞만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풍사가 심장의 열과 만나면 축닉이 생기게 되는데 자격과 모격이 모두 열이 가득해져 풍사와 열독이 서로 부딪치기 때문이다. 간장을 치료할 때는 사청원을 쓰고, 심장을 치료할 때는 도적산을 쓴다.

<sup>1</sup>. 止: ☞上 ※취진본 ←



### 驚癎發搐 경간(驚癎)으로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男發搖,目左視無聲,右視有聲.女發搖,目右視無聲,左視有聲,相勝故也,更有發時證.

남자 아이에게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왼쪽을 볼 때 소리를 내지 않다가 오른쪽을 볼 때 소리를 내고, 여자 아이에게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오른쪽을 볼 때 소리를 내지 않다가 왼쪽을 볼 때 소리를 내니 이는 성별에 따라 간목과 폐금의 기운이 서로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 증상 외에 발작할 때의 증상은 별도로 있다.

#### 早晨發搐 이른 새벽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因潮熱, 寅卯辰時身體壯熱, 上視, 手足動搖, 口內生熱涎, 項頸急, 此肝旺, 當補腎治肝也. 補腎地黃圓, 治肝瀉靑圓主之.

소아에게 조열(潮熱)이 있으면서 인시 · 묘시 · 진시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에는 몸 전체가 매우 뜨겁고 눈을 위로 치껴뜨며 손발을 파닥거리고 입 속에서 뜨겁고 끈적한 침이 나오며 목 전체가 뻣뻣해진다. 이 증상들은 간목이 왕성해 졌기 때문이니 신장을 보하고 나서 간장을 치료해야 한다. 신장을 보할 때는 지황원을 쓰고, 간장을 치료할 때는 사청원을 쓴다.

### 日午發搐 대낮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因潮熱, 巳午未時發搖, 心神驚悸目上視, 白睛赤色, 牙關緊, 口內涎, 手足動搖, 此心旺也. 當補肝治心, 治心導赤散、凉驚圓, 補肝地黃圓主之.

소아에게 조열(潮熱)이 있으면서 사시 · 오시 · 미시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에는 무언가에 두려운 것처럼 덜덜 떨고 눈을 위로 치껴뜨며 흰자위가 붉게 충혈되고 입을 악다물며 입속에서 끈적한 침이 나오고 손발을 파닥거린다. 이 증상들은 심화가 왕성해졌기 때문이니 간장을 보하고 나서 심장을 치료해야 한다. 심장을 치료하려면 도적산이나 양경원을 쓰고, 간장을 보할 때는 지황원을 쓴다.

#### 日晚發搐 해질녘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因潮熱, 申酉戌時不甚搐而喘, 目微斜視, 身體似熱, 睡露睛, 手足冷. 大便淡黃水, 是肺旺, 當補脾治心肝. 補脾益黃散, 治肝瀉靑圓, 治心導赤散主之.

소아에게 조열(潮熱)이 있으면서 신시ㆍ유시ㆍ술시에 축닉이 살짝 생기는 경우에는 숨을 헐떡이고 눈은 약간 사시가 되며 몸 전체에 열이 있는 듯하고 잠잘 때 눈동자가 보이며 손발이 차갑고 묽고 누런 물 같은 똥을 싼다. 이는 폐금이 왕성해졌기 때문이니 비장을 보하고 나서 심장과 간장을 치료해야 한다. 비장을 보할 때는 익황산을 쓰고, 간장을 치료할 때는 사청원을 쓰고, 심장을 치료할 때는 도적산을 쓴다.

### 夜間發搐 밤중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因潮熱, 亥子丑時不甚搐, 而臥不穩, 身體溫壯, 目睛緊, 斜視, 喉中有痰, 大便銀褐色, 乳食不消, 多睡, 不納津液, 當補脾治心. 補脾益黃散, 治心導赤散、凉驚圓主之.

소아에게 조열(潮熱)이 있으면서 해시 · 자시 · 축시에 축닉이 살짝 생기는 경우에는 누워도 편안해하지 않고 몸 전체가 따끈따끈하며 눈동자가 긴장되면서 사시가 되고 목구멍에 가래가 끼고 은갈색 똥을 싸며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며 침을 삼키지 못한다. 이때는 비장을 보하고 나서 심장을 치료해야 한다. 비장을 보할 때는 익황산을 쓰고, 심장을 치료할 때는 도적산이나 양경원을 쓴다.

### 傷風後發搐 상풍(傷風) 후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傷風後得之,口中氣出熱,呵欠頓悶,手足動搖,當發散,大青膏主之.小兒生本怯者,多此病也.

상풍(傷風) 후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에는 입 속의 숨이 뜨겁고 소리 내면서 하품하며 가슴을 답답해하고 손발을 파닥거린다. 이때는 풍사를 발산시켜야 하니 대청고를 쓴다. 소아가 태어나면서 본래 겁약한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나타난다.

### 傷食後發搐 음식에 상한 후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傷食後得之,身體溫,多唾多睡,或吐,不思食而發搐,當先定搐,搐退,白餠子下之,後服安神圓.

음식에 상한 후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에는 몸 전체가 뜨끈뜨끈하고 계속 침을 흘리며 자꾸 자려고만 하고 간혹 토하는 경우도 있다.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서 축닉이 발작할 때는 우선 축닉을 안정시키고, 축닉이 줄어들면 백병자를 써서 음식을 대변으로 빼낸 후 안신원을 복용시킨다.

### 百日內發搐 생후 백일 이내에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

진축(真搐)은 축닉이 발작한 지 2 - 3번을 넘기지 못하고 필시 죽게 되고, 가축 (假搐)은 자주 발작해도 그리 위중하지 않다. 진축은 몸속의 경간(驚癎) 때문에 생기고, 가축은 외부에서 풍사나 냉기에 상하기 때문에 생긴다. 대체로 혈과 기가 튼실해지기 전에는 병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축닉이 발작하는 것이다. 가축인지 알려면 입속의 숨이 뜨거운지 살펴야 한다. 발산시키는 치료를 해야 하니 대청고를 쓰거나 혹은 숨구멍에 약을 바르는 방법이나 목욕시키는 방법을 쓴다.

## 急驚 급경풍

因聞大聲或大驚而發搐,發過則如故,此無陰也.當下,利驚圓主之.

큰 소리를 듣거나 무언가에 크게 놀라서 축닉이 발작하는 경우는 발작이 끝나면 정상으로 되니 이는 음기가 바닥났기 때문에 생긴다. 하법으로 치료해야 하니 이경원을 쓴다.

小兒急驚者,本因熱生於心,身熱面赤引飲,口中氣熱,大小便黃赤,劇則搐也.蓋熱甚則風生,風屬肝,此陽盛陰虛也,故利驚圓主之,以除其痰熱,不可與巴豆及溫藥大下之,恐搐虛熱不消也.小兒客痰熱於心胃<sup>1</sup>,因聞聲非常,則動而驚搐矣.若熱極,雖不因聞聲及驚,亦自發搐.

소아의 급경풍은 심장의 열 때문에 생기니 몸통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물을 찾고 입속의 숨이 뜨거우며 대소변 모두 황적색으로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해지면 축닉이 생긴다. 대체로 열이 심하면 풍사가 생기는 법이고 풍사는 간목에 속하니 이 증상은 양기가 왕성하고 음기가 허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이경원을 써서 담열을 없애야 한다. 파두나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크게 설사시켜서는 안 되니 축닉에 허열이 생기면 없애지 못할까 걱정되기때문이다. 소아의 경우 담열이 심장이나 위부를 침입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소리를 너무 크게 느껴서 움직일 때마다 경풍과 축닉이 생기게 된다.

1. 客痰熱於心胃: ◎熱痰客於心胃 ※취진본 ←



## 慢驚 만경풍

因病後,或吐瀉,脾胃虛損,遍身冷,口鼻氣出亦冷. 手足時瘈瘲,昏睡,睡露睛,此無陽也,括蔞湯主之.

병을 앓은 후에 간혹가다가 구토와 설사를 하는 이유는 비위가 허손해졌기 때문이니 이런 경우는 온몸이 차갑고 입이나 코에서 나오는 숨도 차갑다. 손발에 때때로 계종(瘈瘲)이 생기고 기절한 듯 자며 잘 때 눈동자가 드러나는 것은 양기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괄루탕으로 치료한다.

凡急驚, 陰陽異證, 切宜辨而治之. 急驚合凉瀉, 慢驚合溫補, 世間俗方, 多不分別, 慢小兒甚多. 又小兒傷於風冷, 病吐瀉, 醫謂脾虛, 以溫補之, 不已, 復以凉藥治之, 又不已, 謂之本傷風, 醫亂攻之. 因脾氣卽虛, 內不能散, 外不能解, 至十餘日, 其證多睡露睛身溫. 風在脾胃, 故大便不聚而爲瀉, 當去脾間風, 風退則利止, 宣風散主之, 後用史君子圓補其胃, 亦有諸吐利久不差者, 脾虛生風而成慢驚.

무릇 경풍은 음증과 양증이 다르기 때문에 잘 분별하여 치료해야만 한다. 급경 풍에는 서늘한 약재로 사해주는 방법이 적합하고, 만경풍에는 따뜻한 약재로 보해주는 방법이 적합하다. 세간의 속방에서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않아서 소아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소아가 풍사나 냉기에 상하여 구토하고 설사하는 병에 걸렸을 때 의원이 '비장이 허하기 때문이다'라 면서 따뜻한 약재로 보하거나, 그렇게 해도 낫지 않으면 다시 서늘한 약재로 치료하거나, 그래도 또 낫지 않으면 '원래 풍사에 상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것저것 어지럽게 약을 때려넣고 있다. 그로 인하여 비기가 허해지게 되니 몸속에서는 병사를 흩어낼 기운이 없고 몸 밖에서는 병사를 풀어주지 못한 채 10여일이 지나면 계속 자려고 하고 잘 때 눈동자가 드러나며 몸통이 뜨끈뜨끈한 증상이 생기게 된다. 풍사가 비위에 있기 때문에 대변이 뭉치지 못하여 설사가된다. 이때는 비장에 있는 풍사를 제거해야 하니 풍사가 물러나면 설사가 멎게된다. 선풍산으로 치료한 후 사군자원으로 위부를 보해준다. 또한 구토와 설사가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비기가 허해져 풍사가 생기게 되고 결국 만경풍으로 발전한다.



## 五癎 오간(五癎)

凡治五癎, 皆隨藏治之. 每藏各有一獸, 並五色圓治小病也.

무릇 오간을 치료할 때는 모두 오장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오장 각각 짐승이 하나씩 있으니 모두 오색원으로 작은 증상부터 치료해야 한다.

### 大<sup>1</sup>癎, 反折上竄, 犬叫, 肝也.

견간(犬癎)은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눈을 위로 치껴뜨고 개가 짖는 것 같은 소리를 내니 오장 중에서 간장과 관련된다.

#### 羊癎,目瞪吐舌,羊叫,心也.

양간(羊癎)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양과 비슷한 소리를 내니 오장 중에서 심장과 관련된다.

#### 牛癎, 目直視, 腹滿, 牛叫, 脾也.

우간(牛癎)은 눈에 초점이 없고 배가 그득하면서 소와 비슷한 소리를 내니 오 장 중에서 비장과 관련된다.

#### 鷄癎,驚跳反折手縱,鷄叫,肺也.

계간(鷄癎)은 놀라 뛰며 몸이 뒤로 젖혀지고 손을 파닥거리면서 닭과 비슷한 소리를 내니 오장 중에서 폐장과 관련된다.

#### 猪癎,如尸,吐沫,猪叫,腎也.

저간(猪癎)은 시체처럼 되고 거품을 토하면서 돼지와 비슷한 소리를 내니 오 장 중에서 신장과 관련된다.

#### 五癎重者死, 病後甚者亦死.

오간의 증상이 위중한 경우에는 죽고, 오간이 나았더라도 심한 경우는 죽는다.

<sup>1</sup>. 大: ☞犬 ※취진본 ←

## 瘡疹候 창진(瘡疹)의 증상

面燥顋赤,目胞亦赤,呵欠頓悶,乍凉乍熱,欬嗽嚏噴,手足梢冷,夜臥驚悸,多睡,並瘡疹證,此天行之病也,惟用溫凉藥治之.不可妄下及妄攻發,<sup>1</sup>,受風冷,五藏各有一證.

얼굴이 건조하고 뺨이 붉으며 눈꺼풀도 붉고 소리 내면서 하품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며 몸이 식었다가도 갑자기 열이 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손발 끝이 차가우며 잘 때 경계(驚悸)가 나고 계속 자려고만 하는 것이 모두 창진의 증상이다. 창진은 전염병이니 오직 따뜻하거나 서늘한 성질의 약을 써서 치료해야 한다. 함부로 하법을 쓰거나 강한 약재를 써서는 안 된다. 이때는 맵고 서늘한 성질의 약으로 조리시켜야 한다. 풍사나 냉기가 침범하면 오장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별도의 증상이 생긴다.

#### 肝藏水疱. 肺藏膿疱. 心藏斑. 脾藏疹. 歸腎變黑.

간장에 침범하면 수포가 생긴다. 폐장에 침범하면 고름이 찬다. 심장에 침범하면 반진이 생긴다. 비장에 침범하면 은진이 생긴다. 결국 신장까지 침범하면 까맣게 움푹 꺼진다.

 $\oplus \oplus^2$ 疹病後或發癎,餘瘡難發癎矣. 木勝 $\oplus$ , $\oplus^3$ 歸心故也. 若凉驚用凉驚圓,溫驚用粉紅圓.

반진이나 은진이 생긴 후에는 간혹 간질이 발작하지만 나머지 단계에는 간질이 발작하는 일이 드물다. 간목이 비토를 억제하면 간목이 심화로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몸이 차가우면서 경풍이 있으면 양경원을 쓰고, 몸이 따뜻하면서 경풍이 있으면 분홍원을 쓴다.

小兒在胎十月,食五藏血穢,生下則其毒當出,故瘡疹之狀,皆五藏之液.肝主淚,肺主涕,心主血,脾爲裹血,其瘡出有五名,肝爲水疱,以淚出如水,其色靑小,肺爲膿疱,以涕稠濁,色白而大,心爲斑,主心血,色赤而小,次於水疱,脾爲疹,小次斑瘡,其主裹血,故色赤黃淺也.涕淚出多,故膿疱水疱皆大,血營於內,所出不多,故斑疹皆小也.病疱者,涕淚<sup>4</sup>俱少,譬胞中容水,水去則瘦故也.

소아는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오장을 돌고 난 후의 오염된 혈을 먹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는 그 독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창진의 단계별 모습이 모두 오장의 진액과 비슷하다. 간장은 눈물을 주관하고, 폐장은 콧물을 주관하며, 심장은 혈을 주관하고, 비장은 혈을 싸고 있으니 각 단계마다 다섯 가지 명칭이 나온 것이다. 간장은 수포가 되니 눈물이 물처럼 흐르고 색깔이 푸르스름하면서 작다. 폐장은 고름이 되니 탁하고 끈적한 콧물처럼 색이 희면서 그다. 심장은 반진이 되니 심장의 혈을 주관하므로 색깔이 붉으면서 작고 수포보다 작다. 비장은 은진이 되니 반진보다 작고 혈을 싸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담적색 또는 담황색인 것이다. 콧물과 눈물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름과수포는 모두 크고, 혈은 몸속에서 돌아서 몸 밖으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으므

로 반진과 은진은 모두 작은 것이다. 고름이나 수포가 생기면 눈물이나 콧물이 모두 적게 나오는 법이니 비유하자면 뱃속의 양수가 없어지면 몸이 마르는 연 유와 비슷하다.

始發潮熱,三日以上,熱運入皮膚,卽發瘡疹,而不甚多者,熱留膚腠之間故也.潮熱隨藏出,如早食潮熱不已,爲水疱之類也.瘡疹始出之時,五藏證見,惟腎無候,但見平證耳, 脈凉耳凉是也. 脈耳俱屬於腎,其居北方,主冷也,若瘡黑陷而耳脈反熱者,爲逆也.若用百样圓牛李膏各參服,不愈者,死病也.

창진에 처음으로 조열이 생기고 3일 이상 되면 열이 피부로 스며들어 곧 수포가 돈지만 너무 많이 돈지 않는 이유는 열이 주리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조열이 오장의 상태에 따라 올라오는 현상은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도 조열이 그치지 않으면 수포가 되는 것 등과 같다. 창진이 처음 돈는 때에는 오장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지만 오직 신장에 따른 증상은 없고 다만 보통 증상만 나타날뿐이니 엉덩이가 차갑고 귀가 차가워진다. 엉덩이와 귀는 둘 다 신장에 속하고 위치로는 북방에 속하며 냉증으로 나타난다. 수포가 까맣게 움푹 꺼지는데도 귀와 엉덩이가 도리어 뜨겁다면 역증이다. 백상원 오리고를 각각 3번씩 복용하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증이다.

凡瘡疹若出,辨視輕重,若一發便出盡者,必重也.瘡夾疹者,半輕半重也.出稀者輕,裏外肥紅者輕,外黑裏赤者微重也,外白裏黑者大重也.瘡端裏黑點如針孔者,勢劇也. 青乾紫陷,昏睡,汗出不止,煩燥熱渴,腹脹啼喘,大小便不通者,困也. 凡瘡疹當乳母愼口,不可令飢,及受風冷,必歸腎而變黑,難治也.

무릇 수포가 돋을 때에는 증상의 경중을 잘 분별해야 한다. 만약 한 번에 모두 돋는다면 필시 중증일 것이다. 수포와 은진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경증과 중증이 절반씩이다. 온몸에 빽빽하게 나지 않은 경우는 경증이고, 속과 겉이 통통하고 붉은 경우는 경증이며, 겉이 까맣고 속이 붉은 경우는 약간 중증이고, 겉이 희고 속이 까만 경우는 매우 중증이다. 수포의 끝부분 속에 까만 점이 있어 마치 침으로 찌른 구멍 같으면 증상이 극심한 것이다. 푸르스름하게 마르거나 자주빛으로 움푹 꺼지고 혼수상태가 되며 땀이 멎지 않고 번조가 나면서 덥고 갈증이 생기며 배가 빵빵해지고 숨을 헐떡이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몸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창진의 모든 단계에는 유모도 섭식을 조심하되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풍사와 냉기의 침범을 받으면 필시 신장까지 도달하여 창진이 까맣게 변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 어렵다.

有大熱者,當利小便,有小熱者,宜解毒.若黑紫乾陷者,百祥圓下之,不黑者,愼勿下,更看時月輕重.大抵瘡疹屬陽,出則爲順,故春夏病爲順,秋冬病爲逆,冬月腎旺,又盛寒,病多歸腎變黑.又當辨春膿疱,夏黑陷,秋斑子,冬疹子,亦不順也,雖重病,猶十活四五,黑者無問何時,十難救一.其候或⑪或⑪⑪⑤,或身黃腫紫,宜急以百祥圓下之,復惡寒不已,身冷出汗,耳骶反熱者,死病也.何以然,腎氣大旺,脾虚不能治故也.下後身熱氣溫欲飮水者,可治,以脾生勝腎,寒去而溫熱也,治之宜解毒,不可妄下.妄下則內虛,多歸於腎,若能食而痂頭焦起或未⑪⑥而喘實者,可下之.身熱煩渴,腹滿而喘,大小便澁,面赤悶亂,大吐,此當利小便,不差者,宣風散下之.若五七日痂不焦,是內發熱,熱氣蒸於皮中,故瘡不得焦痂也,宜宣風散導之,用生犀磨汁解之,使熱不生,必着痂矣.

열이 심한 경우에는 마땅히 소변을 빼주어야 하고, 열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해독법을 써야 한다. 검붉으면서 마르고 움푹 꺼진 경우에는 백상원으로 하법 을 쓰고 까맣지 않은 경우에는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하니 계절과 증상의 경중까 지 살펴서 조심히 써야 한다. 대저 창진은 양증에 속하니 수포가 돋는 것이 순 증이다. 봄과 여름에 걸리면 순조롭고 가을과 겨울에 걸리면 순조롭지 못하다. 겨울철에는 신기가 왕성한데다가 매우 춥기 때문에 병이 대부분 신장까지 도 달하여 창진이 검게 변하게 된다. 또한 판별해야 할 것은 봄에는 고름이 잡히 고 여름에는 검게 함몰되며 가을에는 반점이 생기고 겨울에는 은진이 생기는 경우니 이는 모두 순조롭지 못한 증상이다. 증상이 심하더라도 오히려 열 중에 너댓은 살 수 있으나 창진이 까만 경우는 어떤 계절이건 상관없이 열 중에 하 나 살리기도 어렵다. 그 증상 중에 혹시 덜덜 떨거나 이를 악물거나 몸통이 누 레지거나 수포가 자주빛인 경우에는 급히 백상원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그렇 게 해도 오한이 멎지 않고 몸통이 차가우면서 땀이 날 때 귀와 엉덩이가 도리 어 뜨거운 경우는 사증이다. 왜 그런 것인가. 신기가 매우 왕성하면 비장이 허 해져 치료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이다. 하법을 쓴 후에 몸통이 뜨겁고 숨 이 따뜻하며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는 치료할 수 있으니 비기가 살아나 신기 를 억제함으로써 한사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몸이 따뜻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할 때는 해독법을 써야지 함부로 하법을 쓰면 안 된다. 함부로 하법을 쓰 면 몸속이 허해져 대부분 신장까지 사기가 도달하게 된다. 음식을 먹을 수 있 으면서 딱지 끝이 바싹 마르면서 올라오고(간혹 바싹 마르지 않기도 한다) 숨 을 헐떡이며 실증이 있는 경우에는 하법을 써도 된다.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있으며 배가 그득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얼굴이 붉

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하게 토하는 경우에는 소변을 빼주어야 한다. 그래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선풍산으로 하법을 쓴다. 만약 5 - 7일이 되어도 딱지가 바싹 마르지 않으면 몸속에 열이 나는 것이니 열기가 피부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수 포에 딱지가 바싹 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는 선풍산을 써서 열독을 빼내 거나 생서각 간 즙을 써서 열독을 풀어주어 열이 생기지 않게 하면 필시 딱지가 제대로 앉을 것이다.

瘡疹由內相勝也. 惟斑疹能作搐, 疹爲脾所生, 脾虚而肝旺乘之, 木來勝土, 熱氣相擊, 動於心神, 心喜爲熱, 神氣不安, 因搐成癎. 斑子爲心所生, 心生熱, 熱則生風, 風屬於肝, 二藏相搏, 風火相爭, 故發搐也. 治之當瀉心肝補其母, 括蔞湯主之.

창진의 각 단계는 몸속에서 오장이 서로 억제하기 때문에 생긴다. 반진과 은진 단계에서만 축닉이 생길 수 있다. 은진은 비장에서 생긴다. 비기가 허하면 간 기가 왕성해져서 비장을 억제하고 간목이 와서 비토를 억제하기 때문에 열기 가 서로 부딪혀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심장은 열을 좋아하여 정신이 불안해지 다가 결국 축닉이 간질로 변하는 것이다. 반진은 심장에서 생긴다. 심장에서 열이 생기고 열이 나면 풍사가 생기는데 풍사는 간장에 속한다. 심기와 간기가 서로 부딪치면 풍사와 열사가 서로 부딪치기 때문에 축닉이 발작하는 것이다. 치료할 때는 심기와 간기를 사해주어 그 모격을 보해야 하니 괄루탕을 쓴다.

瘡黑而忽瀉便膿血, 幷痂皮者順, 水穀不消者逆, ⑪<sup>7</sup>以然, 且瘡黑屬腎, 脾氣本强, 或⑪<sup>8</sup>服補脾藥, 脾氣得實, 腎雖用事, 脾可制之. 今瘡入腹爲膿血, 及連痂皮得出, 是⑪<sup>9</sup>强腎退, 卽病出而安也, 米穀及瀉乳不化者, 是脾虛不能制腎, 故自洩也, 此必難治.

수포가 까맣고 갑자기 피고름을 설사하면서 딱지가 앉는 경우는 순조롭다.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순조롭지 못하다. 왜 그런 것인가. 수포가 까만 것은 신장에 속하니 비기가 원래 왕성했거나 혹은 비장 보하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여 비기가 실하게 된 상태라면 신장이 무얼 하던 비장이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수포가 뱃속으로 들어가 피고름이 되었고 연달아 딱지가 앉았으니이는 비기가 왕성하여 신기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곧 병이 배출되면서 편안해질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거나 젖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비기가 허하여 신기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새어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필시 치료하기 어렵게 된다.

- 1. 글자없음 : \*此辛凉調之也 ※취진본 ↔
- 2. ⑩⑪: ☞惟斑 ※취진본 ←
- <sup>3</sup>. ①, ①: ☞脾, 木 ※취진본 ←
- 4. 涕淚: 淚涕 ※취진본 ↔
- <sup>5</sup>. ⊕或⊕⊕: ☞寒戰咬牙 ※취진본 ←
- 6. ①: ☞焦 ※취진본 ↔
- <sup>7</sup>. ⑪:☞何 ※취진본 ←
- 8. ⑩: ☞舊 ※취진본 ←
- 9. ⑩: ☞脾 ※취진본 ←



## 傷風 상풍(傷風)

昏睡, 口中氣熱, 呵欠頓悶, 當發散, 與大靑膏解. 不散, 有下證當下, 大黃圓主之. 大飲水不止而善食者, 可微下, 餘不可下也.

국은 듯이 자면서 입 속의 숨이 뜨겁고 소리 내며 하품하고 속을 답답해하는 경우에는 발산시켜야 하니 대청고를 먹여 풀어준다. 그래도 풀어지지 않으면 하법을 써야하는 증상이니 대황원을 쓴다. 물을 계속 마시려고 하면서 음식을 잘 먹는 경우는 하법을 약하게 써야 한다. 나머지 경우는 하법을 쓰지 말아야한다.

## 傷風手足冷 상풍(傷風)으로 손발이 차가운 경우

脾藏怯也, 當和脾, 後發散, 和脾益黃散, 發散大靑膏主之.

비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니 비장을 편안하게 만든 후에 발산시켜야 한다. 비장을 편안하게 만드려면 익황산을 쓰고, 발산시킬 때는 대청고를 쓴다.



## 傷風自利 상풍(傷風)으로 대변을 지리는 경우

脾藏虚怯也, 當補脾, 益黃散, 發散大青膏主之. 未差, 調中圓主之, 有下證, 大黃圓下之, 下<sup>1</sup>後服溫驚圓.

비장이 허약하고 위축되었기 때문이니 비기를 보해주어야 한다. 비기를 보할 때는 익황산을 쓰고, 발산시킬 때는 대청고를 쓴다.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조중원을 쓴다. 하법을 써야 하는 증상이 있으면 대황원을 쓴 후 온경원을 복용시킨다.

<sup>1</sup>. 下之, 下: 主之 ※취진본 ←

## 傷風腹脹 상풍(傷風)으로 배가 빵빵해진 경우

脾藏虚也, 當補脾, 必不喘, 後發散, 仍補脾也. 去脹, 塌氣圓主之, 發散, 大青膏主之.

비장이 허하기 때문이니 비기를 보하는 약을 써야 한다. 반드시 숨을 헐떡이는 증상이 없어진 후에 발산시키고 그다음 비기를 보해야 한다. 빵빵했던 배를 가라 악하려면 탑기원을 쓰고, 발산시키려면 대청고를 쓴다.

## 傷風兼藏 상풍(傷風)에 오장병이 겹친 경우

#### 兼心則驚悸.

상풍일 때 심기가 허하면 경계(驚悸)가 생긴다.

#### 兼肺則悶亂,喘息哽氣,長出氣嗽.

상풍일 때 폐기가 허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을 헐떡이거나 목이 메이거나 숨을 길게 내쉬거나 기침을 한다.

#### 兼腎則畏明.

상풍일 때 신기가 허하면 빛을 싫어한다.

#### 各隨補母, 藏虛見故也.

오장에 따라 그 모격을 보해야 하니 허해진 오장의 기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傷風下後餘熱 상풍(傷風)에 하법을 쓴 후에 열이 남아 있는 경우

以藥下之太過,胃中虛熱,飲水無力也.當生胃中津液,多服白朮散.

설사시키는 약을 너무 많이 쓰면 위부 속에 허열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자꾸 마시려고 하고 몸에 힘이 없어진다. 이때는 위부 속에 진액을 생기게 해야 하 니 백출산을 많이 복용시킨다.

# 傷寒瘡疹同異 상한(傷寒)과 창진(瘡疹)의 유사점과 차이점

傷寒男體重面黃,女面赤喘急憎寒,各口中氣熱,呵欠頓悶,項急也.瘡疹則顋赤燥, 多噴嚏,悸動昏倦,四支冷,傷寒當發散之,治瘡,行溫平,有大熱者解毒,餘見前說.

소아가 상한에 걸리면 남자 아이는 몸이 무거워지고 얼굴이 누레지며, 여자 아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숨을 헐떡이며 오들오들 떤다. 그리고 모두 입 속의 숨이 뜨겁고 소리 내며 하품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며 뒷목이 뻣뻣해진다. 창진은뺨이 붉으면서 건조해지고 재채기를 자주 하며 몸을 떨면서 움직이기 싫어하며 사지가 차가워진다. 상한은 발산시켜야 한다. 창진을 치료할 때는 약성이따뜻하면서 평이한 약재를 써야 한다. 열이 심한 경우에는 해독법을 써야 한다. 나머지는 앞의 설명에 나온다.

初生三日內吐瀉壯熱 갓 태어난 지 3일 안에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열이 심한 경우

不思乳食,大便乳食不消,或白色,是傷食,當下之,後和胃,下用白餅子,和胃用益黃散主之.

젖이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먹은 것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는 (간혹 백색인 경우도 있다) 음식에 상한 증상이다. 하법을 쓴 후에 위부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 하법은 백병자를 쓰고, 위부를 편안하게 할 때는 익황산을 쓴다.

갓 태어난 지 3일에서 10일 사이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통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경우 初生三日已上至十日, 吐瀉身溫凉

初生三日已上至十日, 吐瀉身溫凉 갓 태어난 지 3일에서 10일 사이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통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경우

不思乳食, 大便青白色, 乳食不消, 此上實下虛也. 更有兼見證.

젖이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푸르스름한 대변 또는 하얗게 소화되지 않은 대변을 보는 경우는 상부가 실하고 하부가 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오장에 병사가 침범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 肺睡露睛喘氣. 心驚悸飲水. 脾困倦饒睡. 肝呵欠頓悶. 腎不語畏明.

병사가 폐장을 침범하면 잘 때 눈동자가 보이거나 숨을 헐떡인다. 심장을 침범하면 경기를 하거나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한다. 비장을 침범하면 몸이 까라지거나 자꾸 자려고 한다. 간장을 침범하면 소리 내며 하품하고 가슴을 답답해한다. 신장을 침범하면 말을 하지 못하고 빛을 싫어한다.

#### 當瀉見兒兼藏,補脾益黃散主之,此二證多病於秋夏也.

설사할 때는 병사가 어떤 오장에 침범했는지 살펴야 한다. 비장을 보할 때는 익황산을 쓴다. 이 두 증상은 대부분 여름부터 가을까지 나타난다.

# 生<sup>1</sup>下吐 갓 태어나 설사하고 구토하는 경우

初生下, 拭掠兒口中穢惡不盡, 嚥入喉中, 故吐. 木苽圓主之, 凡初生, 急須拭掠口中令淨, 若啼聲一發則嚥下, 多生諸病.

갓 태어났을 때는 입 속에 남은 찌꺼기를 닦아주어야 한다. 아이가 이것을 삼 켜서 목구멍에 들어가서 구토를 하는 것이다. 목과원으로 치료한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재빨리 입속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만약 울음소 리가 한 번만 나도 찌꺼기를 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계속 생긴다.

1. 生: ☞初生 ※목록 ←

傷風吐瀉身溫 상풍(傷風)으로 구토와 설사를 할 때 몸통이 따뜻한 경우

乍凉乍熱,睡多氣麁,大便黃白色,嘔吐乳食不消,時欬嗽,更有五藏兼見證,當煎入藏君 $\mathbf{E}^1$ ,化 $^2$ 大青膏,後服益黃散. 如先曾下,或無下證,慎不可下也. 此乃脾肺受寒,不能入 $\mathbf{p}^3$ 也.

소아가 갑자기 열이 나다가 갑자기 열이 식거나 계속 자려고 하거나 숨소리가 거칠거나 황백색 똥을 누거나 소화되지 않은 젖이나 음식을 구토하거나 자주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상풍에 오장병까지 겹친 것이다. 오장에 따른 군신(君臣) 약재를 넣고 달인 후 대청고를 녹여서 먹이고 그다음 익황산을 복용시킨다. 만약 이전에 하법을 썼거나 혹은 하법을 써야하는 증상이 없다면 절대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증상은 비장과 폐장에 한사가 침입하여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이다.

1. 臣: ☞臣藥 ※취진본 ↔

2 化: ☞ 先服 ※취진본 ←

<sup>3</sup>. 脾: ☞食 ※취진본 ←

傷風吐瀉身熱 상풍(傷風)으로 구토와 설사를 할 때 몸통이 뜨거운 경우

多睡,能食乳,飲水不止,吐痰,大便黃水,此爲胃虛熱渴吐瀉也.當生胃中津液,以止其渴,止後用發散藥.止渴多服白朮散,發散大青膏主之.

계속 자려고 하거나 음식이나 젖은 잘 먹지만 물을 끊임없이 마시거나 가래를 토하거나 누런 물 같은 똥을 싸는 증상은 위부에 허열이 있어 갈증이 나고 구 토와 설사를 하는 것이다. 위부 속에 진액을 생기게 하여 갈증을 멈추게 하고, 갈증이 멈춘 후에는 발산시키는 약을 써야 한다. 갈증을 멈추려면 백출산을 많 이 복용시키고, 발산시키려면 대청고를 쓴다. 傷風吐瀉身凉 상풍(傷風)으로 구토와 설사를 할 때 몸통이 차가운 경우

吐沫, 瀉青白色, 悶亂不渴, 哽氣, 長出氣, 睡露睛, 此傷風荏苒輕怯, 因成吐瀉, 當補脾, 後發散. 補脾益黃散, 發散大青膏主之. 此二證多病於春冬也.

거품을 토하거나 청백색 설사를 하거나 가슴을 답답해하지만 갈증은 없거나 목이 메이거나 길게 숨을 내쉬거나 잘 때 눈동자가 드러나는 증상은 상품을 계속 가볍게 앓다가 결국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것이니 비장을 보한 후에 발산시켜야 한다. 비장을 보할 때는 익황산을 쓰고 발산시킬 때는 대청고를 쓴다. 이 두 증상은 겨울부터 봄까지 많이 나타난다. 풍열(風熱) · 온장(溫壯) · 조열(潮熱) · 장열(壯熱)은 서로 비슷하다 風溫潮熱壯熱 相似

# 風溫潮熱壯熱相似 풍열(風熱) · 온장(溫壯) · 조열(潮熱) · 장열(壯熱)은 서로 비슷하다

潮熱者,時間發熱,過時卽退,來日依時發熱,此欲發驚也. 壯熱者,一向熱而不已, 甚則發驚癎也. 風熱者,身熱而口中氣熱,有風證,溫壯者,但溫而不熱也.

조열(潮熱)은 일정한 시간에 열이 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열이 떨어지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열이 나는 증상이니 조열이 있으면 경풍이 발작하려는 것이다. 장열(壯熱)은 한 차례 열이 나서는 그치지 않는 것이니 심하면 경간(驚癎)으로 발작한다. 풍열(風熱)은 몸통이 뜨거워지고 입 속의 숨도 뜨거워지는 증상이니 풍증일 때 나타난다. 온장(溫壯)은 그저 따뜻한 정도이며 뜨겁지 않은 증상이다.

腎怯失音相似 신장이 위축된 경우와 실음(失音)은 서로 비슷하다

病吐瀉及大病後,雖有聲而不能言,又能嚥藥,此非失音,爲腎怯不能上接於陽故也. 當補腎,地黃圓主之.失音乃猝病耳.

구토와 설사를 하거나 큰 병을 앓은 후에는 목소리가 나더라도 말을 하지 못하고 약을 삼킬 수는 있으니 이는 실음(失音)이 아니라 신장이 위축되어 기가 양의 부위인 머리까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장을 보해주어야 하니 지황원으로 치료한다. 실음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일뿐이다.

## 黃相似 누렇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

身皮目皆黃者, 黃病也. 身痛, 髆背强, 大小便澁, 一身盡黃, 面目指爪皆黃, 小便如屋塵色, 看物皆黃, 渴者難治, 此黃疸也. 二證多病於大病後. 別有一證<sup>1</sup>, 不因病後, 身微黃者, 胃熱也, 大人亦同. 又有面黃腹大, 食土, 渴者, 脾疳也. 又有自生而身黃者, 胎疸也. 古書云, 諸疸皆熱, 色深黃者是也. 若淡黃兼白者, 胃怯, 胃不和也.

몸통과 피부와 눈이 모두 누렇게 되는 경우는 황병(黃病)이다. 몸이 쑤시고 어깨와 등이 뭉치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몸 전체가 온통 누럴 뿐 아니라 얼굴과 눈과 손가락과 손톱까지 모두 누렇고 소변은 지붕에 쌓인 먼지 색깔이며무엇을 보던 간에 누렇게 보이고 갈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황달(黃疸)이다. 두 병증은 대부분 큰 병을 앓은 후에 걸린다. 이와 별도로 생후 백 일에서 반 년 사이에 나타나는 병증이 있으니 병을 앓은 후에 생긴 것이 아니고 몸통이 살짝 누레지는 경우로 위부의 열 때문이다. 성인에게도 나타난다. 또 얼굴이 누레지고 배가 빵빵해지며 흙을 주워먹고 갈증이 있는 경우는비감(脾疳)이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몸통이 누런 경우는 태달(胎疸)이다. 옛의서에서 "온갖 달증(疸症)은 모두 열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색깔이 진한누런색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연하게 누렇거나 흰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는위부가 위축되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글자없음 : \*生下百日及半年 ※취진본 ←



## 夏秋吐瀉 여름부터 가을까지 구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五月二十五日已後吐瀉,身壯熱,此熱也.小兒藏府十分中九分,熱也.或因傷熱乳食,吐乳不消,瀉深黃色.玉露散主之.

5월 25일 이후에 구토하고 설사할 때 몸통이 계속 뜨거운 경우는 열독 때문이다. 소아의 장부에 생기는 병은 십중팔구 열독 때문이다. 간혹 뜨거운 젖이나음식에 상하여 소화되지 않은 젖을 토하고 샛노란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옥로산으로 치료한다.

六月十五日已後吐瀉,身溫似熱,藏府六分熱四分冷也. 吐嘔乳食不消,瀉黃白色,似渴,或食乳,或不食乳,食前少服益黃散,食後多服玉露散.

6월 15일 이후에 구토하고 설사할 때 몸통이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것 같기도 한 경우 중에서 6할은 오장육부의 열독 때문이고 4할은 오장육부의 냉 기 때문이다. 소화되지 않은 젖이나 음식을 구토하고 황백색 설사를 하며 갈증 이 있는 것 같고 젖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는 경우에는 식전에 익황산 을 조금 복용시키고 식후에 옥로산을 많이 복용시킨다.

七月七日已後吐瀉,身溫凉,三分熱七分冷也.不能食乳,多似睡悶亂,哽氣,長出氣,睡露睛,脣白多噦,欲大便,不渴,食前多服益黃散,食後少服玉露散.

7월 7일 이후에 구토하고 설사할 때 몸통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경우는 3할은 열독 때문이고 7할은 냉기 때문이다. 젖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 자는 것 같으며 가슴을 답답해하고 목이 메이며 길게 숨을 내쉬고 잘 때 눈동자가 드러 나며 입술이 창백해지고 계속 딸꾹질을 하며 자꾸 똥을 누려고 하며 갈증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식전에 익황산을 많이 복용시키고 식후에 옥로산을 조금 복용시킨다.

八月十五日已後吐瀉,身冷,無陽也.不能食乳,乾噦,瀉靑褐水,當補脾,益黃散主之,不可下也.

8월 15일 이후에 구토하고 설사할 때 몸통이 차가운 경우는 양기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젖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른 딸꾹질을 하며 청갈색의 물처럼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장을 보해야 하니 익황산으로 치료하되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 吐乳 젖을 토하는 경우

吐乳瀉黃, 傷熱乳也, 吐乳瀉青, 傷冷乳也, 皆當下.

젖을 토하고 누런 설사를 하는 증상은 뜨거운 젖에 상했기 때문이다. 젖을 토하고 푸른 설사를 하는 증상은 차가운 젖에 상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하법을 써야 한다.

#### 虚羸

#### 허리(虛羸)

脾胃不和,不能食乳,致肌瘦,亦因大病,或吐瀉後,脾胃尚弱,不能傳化穀氣也.有 冷者,時時下利,脣口靑白,有熱者,溫壯身熱,肌肉微黃,此冷熱虛羸也.冷者,木香 圓主之,夏月不可服,如有證則少服之,熱者,胡黃連圓主之,冬月不可服,如有證則 少服之.

비위가 편안하지 않으면 젖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결국 바싹 마르게 된다. 또는 큰 병을 앓은 뒤에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비위가 너무 약해져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생기기도 한다. 냉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자주 설사를하며 입술 부근이 창백해진다. 열독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몸이 뜨끈하거나 몸통에 열이 나고 피부가 살짝 누레진다. 이것이 냉기나 열독 때문에 생기는

허리이다. 냉기 때문이면 목향원으로 치료하되 여름철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증상이 있을 때만 조금씩 복용시킨다. 열독 때문이면 호황련원으로 치료하되 겨울철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증상이 있을 때만 조금씩 복용시킨다.



## 欬嗽 해수(欬嗽)

夫嗽者, 肺感微寒, 八九月間, 肺氣大旺, 病嗽者, 其病必實, 非久病也. 其證面赤痰盛身熱, 法當以葶藶圓下之, 若久者, 不可下也. 十一月十二月嗽者, 乃傷風嗽也, 風從背脊第三椎肺兪穴入也, 當以麻黃湯汗之. 有熱證, 面赤飲水, 涎熱, 咽喉不利者, 宜兼甘桔湯治之. 若五七日間, 其證身熱痰盛唾粘者, 以編銀圓下之. 有肺盛者, 欬而後喘, 面腫欲飲水, 有不飲水者, 其身卽熱, 以瀉白散瀉之. 若傷風欬嗽五七日, 無熱證而但嗽者, 亦葶藶圓下之, 後用化痰藥. 有肺虚者, 欬而哽氣, 時時長出氣, 喉中有聲, 此久病也, 以阿膠散補之. 痰盛者, 先實脾, 後以編銀圓微下之, 涎退卽補肺, 補肺如上法, 有嗽而吐水或青綠水者, 以百祥圓下之. 有嗽而吐痰涎乳食者, 以白餅子下之. 有嗽而咯膿血者, 乃肺熱, 食後服甘桔湯. 久嗽者, 肺亡津液, 阿膠散補之. 欬而痰實不甚, 喘而面赤, 時飲水者, 可編銀圓下之. 治嗽大法, 盛卽下之, 久卽補之, 更量虚實, 以意增損.

무릇 해수는 가벼운 한사가 폐장을 침범하여 생기는 것이다. 8 - 9월 사이에 폐기가 매우 왕성할 때 해수에 걸리면 필시 실증이니 오래된 병이 아니다. 해수로 얼굴이 붉어지고 가래가 끓으며 몸통이 뜨거워지는 경우에는 정력원을 기준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오래 된 해수에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11 - 12월에 해수에 걸리는 경우는 상풍(傷風) 때문에 생긴 것이니 등줄기의 제3번 척추인 폐수혈을 통해 풍사가 침입한 것이다. 이때에는 마황탕으로 한법을 써야 한다. 열증이 있어 얼굴이 붉어지고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하며 뜨끈한 연말이 흐르고 목구멍이 답답한 경우에는 감길탕을 함께 써서 치료해야 한다. 해수가 발

병한 지 5 - 7일 동안 몸통이 뜨겁거나 가래가 끓거나 침이 끈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편은원으로 하법을 써야한다. 폐기가 왕성한 경우에는 기침 후에 숨 을 헐떡거리고 얼굴이 부으며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한다.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몸통에 곧 열이 날 것이니 사백산으로 폐기를 사해주어야 한다. 상품 으로 해수에 걸린 지 5 - 7일이 되어서도 열증이 없고 오로지 기침만 한다면 정 력원으로 하법을 쓴 후에 가래 삭이는 약을 써야 한다. 폐기가 허한 경우에는 기침을 하면서 목이 메고 자주 긴 숨을 내쉬며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니 이는 오래된 병이다. 이때는 아교산으로 폐기를 보해주어야 한다. 가래가 끓는 경우 에는 우선 비장을 튼싴하게 만든 후에 편은원으로 살짝 설사시켜야 한다. 끈적 한 침이 줄어들면 즉시 폐기를 보해야 하니 폐기를 보하는 방법은 위와 같다. 기침이 나면서 물 같은 것(혹은 청록색 물 같은 것)을 토하는 경우에는 백상원 으로 하법을 쓴다. 기침을 하면서 담연이나 젖이나 음식을 토하는 경우에는 백 병자로 하법을 써야 한다. 기침을 하면서 피고름을 뱉는 경우는 폐장의 열 때 문이니 식후에 감길탕을 복용시킨다. 기침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는 폐장 에 진액이 바닥났기 때문이니 아교산으로 폐기를 보해준다. 기침을 하면서 가 래가 약간 끓고 숨을 헐떡이면서 얼굴이 붉어지며 자주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경 우에는 편은원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해수를 치료하는 원칙은 폐기가 왕성하 면 하법을 쓰고 오래된 기침에는 폐기를 보해준 후 다시 허실을 헤아려 상황에 따라 가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 諸疳 여러 가지 감병(疳病)

疳在內,目腫腹脹,利色無常,或沫毒白,漸瘦弱,此冷證也.

감병이 몸속에 있으면 눈이 붓고 배가 빵빵해지며 설사를 하되 색깔은 평소와 같고(간혹 청백색의 거품을 토하기도 한다) 점점 바싹 마르고 쇠약해지니 이 는 냉증이다.

疳在外,鼻下赤爛,自 $0^1$ ,鼻頭上有瘡,不着痂,漸遶耳生瘡. 治鼻瘡爛,蘭香散,諸瘡,白粉散主之.

감병이 몸 겉에 있으면 코 아래가 빨갛게 짓물러서 자꾸 문지르고 코끝에 창이 새겨서는 딱지가 앉지 못하다가 점점 귀까지 창이 생기게 된다. 코에 생긴 창이나 짓무른 증상에는 난향산을 쓰고, 다른 부위의 창에는 백분산을 쓴다.

#### 肝疳, 白膜遮睛, 當補肝, 地黃圓主之.

간감(肝疳)은 하얀 예막이 눈동자를 가리게 된다. 간기를 보해주어야 하니 지황원으로 치료한다.

#### 心疳, 面黃頰赤, 身壯熱, 當補心, 安神圓主之.

심감(心疳)은 얼굴이 누레지고 뺨이 붉어지며 몸통이 매우 뜨거워진다. 심기를 보해주어야 하니 안신원으로 치료한다.

脾疳, 體黃腹大, 食泥土, 當補脾, 益黃散主之.

비감(脾疳)은 몸 전체가 누레지고 배가 빵빵해지며 진흙을 먹는다. 비기를 보 해주어야 하니 익황산으로 치료한다.

#### 腎肝<sup>2</sup>, 極瘦, 身有瘡疥, 當補腎, 地黃圓主之,

신감(腎疳)은 심하게 마르고 몸통에 창이나 개선이 생긴다. 신기를 보해주어 DRIENTA 야 하니 지황원으로 치료한다.

#### 觔疳, 瀉血而瘦, 當補肝, 地黃圓主之.

근감(筋疳)은 혈변을 보면서 바싹 마른다. 간기를 보해주어야 하니 지황원으 로 지료한다.

#### 肺疳, 氣喘, 口鼻牛瘡, 常補脾肺, 為黃散主之.

폐감(肺疳)은 숨을 헐떡이고 입이나 코에 창이 생긴다. 비기와 폐기를 보해주 어야 하니 익황산으로 치료한다.

#### 骨疳, 喜臥冷地, 當補腎, 地黃圓主之.

골감(骨疳)은 자꾸 차가운 바닥에 누우려고 한다. 신기를 보해주어야 하니 지 황워으로 치료한다.

#### 諸疳皆依本藏補其母,及與治疳藥,冷則木香圓,熱則胡黃連圓主之.

각 감병은 모두 해당되는 오장에 따라 그 모격을 보해주어야 한다. 감병을 치 료하는 약을 쓸 때 냉증이 있으면 목향원을 쓰고 열증이 있으면 호황련원을 쓴 다.

疳皆脾胃病, 亡津液之所作也. 因大病, 或吐瀉後, 以藥吐下, 致脾胃虚弱, 亡津液, 且小兒病疳, 皆愚醫之所壞病. 假如潮熱, 是一藏虚, 一藏實, 而內發虛熱也, 法當補母而瀉本藏則愈, 假令日中發潮熱, 是心虛熱也, 肝爲心母, 則宜先補肝, 肝實而後瀉心, 心得母氣, 則內平而潮熱愈也. 醫見潮熱, 妄謂其實, 乃以大黃牙硝輩諸冷藥利之, 利旣多矣, 不能禁約, 而津液內亡, 卽成疳也.

감병은 모두 비위가 병들어 진액이 바닥났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큰 병을 앓은 후, 혹은 구토나 설사 후에 토법이나 하법을 지나치게 쓴 후에는 비위가 허약해지기 때문이 진액이 바닥나는 것이다. 한편 소아들이 감병을 앓는 이유 는 모두 어리석은 의원이 병을 키우기 때문이다. 가령 조염은 오장 중에 하나 가 허하고 다른 하나가 실하여 몸속에서 허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모격을 보하면서 해당하는 오장을 사한다는 기준으로 치료하면 낮는 법이다. 예를 들어 낮에 조열이 발작하는 것은 심장의 허열 때문이다. 간장은 심장의 모격이니 우선 간기를 보해야 하고 간기가 실해진 이후에 심기를 사하면 심장 은 모격인 간기의 도움을 받게 되어 몸속이 편안해지면서 조열이 낮게 된다. 의원이 조열을 접했을 때 함부로 실열이라고 하고 나서 대황이나 마아초 같이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써서 설사시키면 금세 설사를 어러 번 하게 되면서 멈출 수 없게 되고 진액이 몸속에서 바닥나므로 결국 감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벽적도 비슷한 경우이다. 벽적이 발작하면 오한발열이 생기고 자꾸 물 을 마시려 하며 옆구리 아래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면서 아파한다. 벽적을 치료 하는 방법은 응당 점차 사그라뜨리고 줄어들게 해야 하지만 의원들은 도리어.

파두나 망사 같은 약재로 하법을 쓰고 있다. 소아는 허증과 실증이 쉽게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과다한 하법으로 위부 속에 있던 진액이 모두 소모되게 되어점점 감병으로 마르게 되는 것이다.

又有病傷寒, 五六日間有下證, 以冷藥下之太過, 致脾胃津液少, 卽使引飲不止而生熱也. 熱氣內耗, 肌肉外消, 他邪相干, 證變諸端, 因亦成疳.

그리고 상한도 비슷한 경우이다. 상한에 걸린 후 5 - 6일 사이에 하법을 써야하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차가운 성질의 약재로 하법을 지나치게 쓰면 비위의 진액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물을 찾게 되면서 열이 생기는 것이다. 몸속에서는 열기가 소모되고 몸 겉에서는 살집이 줄어들 때 다른 사기가함께 침범하게 되면 여러 증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감병이 된다.

#### 又有吐瀉久病,或醫妄下之,其虛益甚,津液燥損,亦能成疳.

그리고 오래된 구토와 설사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의원이 이럴 때 함부로 하법을 쓰면 허증이 더욱 심해져서 진액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감병이 될 수 있다.

又有肥疳, 卽脾疳也. 身瘦黃, 皮乾而有瘡疥, 其候不一, 種種異端, 今略擧綱紀, 目 澁或生白膜, 脣赤, 身黃乾或黑, 喜臥冷地, 或食泥土, 身有瘡疥, 瀉靑白黃沫水, 利色變易, 腹滿, 身耳鼻皆有瘡, 髮鬢作穗, 頭大項細, 極瘦, 飲水, 皆其證也.

그리고 비감(肥疳)이라는 것도 있으니 바로 비장의 감병인 비감(脾疳)이다. 몸이 누레지고 바싹 마르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창이나 개선이 생기니 그 증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각각이다. 지금 대략 주요 증상만 들어보겠다. 눈이 깔깔하거나(간혹 흰 예막이 생기기도 한다) 입술이 붉어지거나 몸통은 누

레지면서(간혹 까매지기도 한다) 마르거나 차가운 바닥에 눕기를 좋아하거나 (간혹 진흙을 먹기도 한다) 몸통에 창이나 개선이 생기거나 청백색이나 누런 거품 섞인 물 같은 것을 설사하면서 설사의 색이 자주 변하거나 배가 빵빵하거나 몸통 '귀 '코에 모두 창이 생기거나 머리털이 푸석푸석해지거나 머리는 커지면서 목은 가늘어지거나 심하게 바싹 마르거나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들이 주요 증상이다.

大抵疳病當辨冷熱肥瘦, 其初病者爲肥熱疳, 久病者爲瘦冷疳, 冷者木香圓, 熱者黃<sup>3</sup>連圓主之, 冷熱之疳, 尤宜如聖圓, 故小兒之藏府柔弱, 不可痛擊, 大下必亡津液而成疳. 凡有可下, 量大小虛實而下之, 則不至爲疳也. 初病津液少者, 當生胃中津液, 白朮散主之, 惟多則妙, 餘見下.

감병은 냉증인지 열증인지, 살집이 있는지 말랐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제 막감병에 걸렸을 때는 살집이 있으며 열감(熱疳)이고, 오래된 감병은 바싹 말랐으며 냉감(冷疳)이다. 냉감일 때는 목향원을 쓰고 열감일 때는 호황련원을 쓴다. 냉감과 열감이 섞여 있으면 여성원이 매우 적합하다. 그런데 소아의 장부는 연약하여 아프게 치료하지 말아야 하니 하법을 심하게 쓰면 필시 진액이 없어져 감병이 될 것이다. 하법을 써도 되는 증상이 있더라도 아이의 몸집과 허실을 가늠하여 하법을 쓴다면 감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막 감병에 걸렸을 때 진액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위부 속에 진액을 생기게 해야 하니 백출산을 쓴다. 많이 쓰면 쓸수록 효과가 좋다. 나머지는 아래에 나온다.

<sup>1.</sup> ⑩ : ☞揉 ※취진본 ↔

<sup>2</sup>. 肝: ☞疳 ※취진본 ←

3. 黃:☞胡黃 ※취진본 ←



## 胃氣不和 위부가 편안하지 않는 경우

面晄白, 無精光, 口中氣冷, 不思食, 吐水, 當補脾, 益黃散主之.

얼굴이 창백하면서 생기가 없고 입 속의 숨이 차가우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물 같은 것을 토할 때는 비기를 보해야 하니 익황산으로 치료한다.



# 胃冷虛 위부가 허랭한 경우

面晄白,色弱<sup>1</sup>,腹痛不思食,當補脾,益黃散主之.若下利者,調中圓主之.

얼굴이 창백하면서 안색이 좋지 않고 배를 아파하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을 때는 비기를 보해야 하니 익황산으로 치료한다. 설사를 한다면 조중원으로 치료한다.

- '. 弱:☞瘦 \*\*취진본 ↔

### 積痛 적취로 통증이 있는 경우

口中氣溫, 面黃白, 目無精光, 或白睛多, 及多睡畏食, 或大便酸臭者, 當磨積, 宜消積圓, 甚者當白餅子下之, 後和胃.

입 속의 숨이 따뜻하고 얼굴이 누렇거나 창백하며 눈에 생기가 없고(혹은 흰자위가 많이 보인다)계속 자려고만 하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혹은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적취를 줄어들게 해야 하니 소적원을 써야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백병자로 하법을 쓴 후에 위부를 편안하게 해야한다.

# 虫痛 [ 虛實腹痛附 ] 충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 복통의 허증과 실증도 붙여 놓는다 ]

面㿠白,心腹痛,口中沫及清水出,發痛有時,安虫散主之,小兒本怯者,多此病.

얼굴이 창백하고 배 전체가 아프며 입에서 거품이나 투명한 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때 안충산을 써야 한다. 소아는 태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積痛食痛虛痛, 大同小異, 惟虫痛者, 當口淡而沫自出, 治之隨其證.

적취나 상식이나 복통의 허증은 증상이 대동소이하지만 오직 충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입에서 담연이나 거품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해야 한다.

### 虫與癎相似 충 때문에 생긴 병과 간질은 서로 비슷하다

小兒本怯, 故胃虚冷, 則虫動而心痛, 與癎略相似, 但目不斜手不搐也, 安虫散主之.

소아는 태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위부가 허랭하면 충이 움직이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 이 점은 간질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충 때문에 생긴 병에는 눈이 사시 가 되지 않고 손에 축닉이 생기지 않는다. 안충산으로 치료한다.

# 氣不和 숨이 편안하지 않은 경우

口頻撮,當調氣,益黃散主之.

입을 자주 오무리는 경우에는 숨을 고르게 해주어야 하니 익황산으로 치료한 다.

# 食不消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

脾胃冷,故不能消化,當補脾,益黃散主之.

비위가 허랭하기 때문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비기를 보해주어야 하니 익황산으로 치료한다.

#### 腹中有癖 뱃속에 벽적이 있는 경우

不食,但飲乳,是也,當漸用白餅子下之.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오직 젖만 먹으려 하는 증상이다. 백병자를 점점 늘 리면서 하법을 써야 한다.

小兒病癖, 由乳食不消, 伏在腹中, 乍凉乍熱, 飲水, 或喘嗽, 與潮熱相類, 不早治, 必成疳, 以其有癖, 則令兒不食, 致脾胃虚而熱發, 故引飲, 水過多, 卽蕩滌腸胃, 亡失津液, 脾胃不能傳化水穀, 其脉沈細, 益不食, 脾胃虚衰, 四肢不擧, 諸邪遂生, 鮮不瘦<sup>1</sup>而成疳矣. 餘見疳門.

소아가 벽적을 앓는 이유는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뱃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몸이 갑자기 열이 났다가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물을 마시려하니(간혹 숨을 헐떡이거나 기침을 하기도 한다) 조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일찌감치 치료하지 않으면 분명코 감병이 된다. 벽적은 소아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드니 결국 비위가 허해지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마시려하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장과 위를 씻어 내려가서 진액이 망실된다. 비위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맥이 침세(沈細)해져 음식을 더더욱 먹지 못하게 되고, 비위가 허약해지면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다른 여러 증상들이 뒤따라 생기면서 바싹 마르고 감병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머지는 감병 부분에 나온다.

1. 鮮不瘦: ☞羸瘦 ※취진본 ←



# 虛實腹脹 [ 腫附 ] 허증이나 실증으로 배가 빵빵해지는 경우 [ 부종도 함께 나온다 ]

腹脹,由脾胃虛氣攻作也.實者,悶亂滿喘,可下之,用紫霜圓白餅子,不喘者,虛也,不可下,若悮下,則脾虛氣上,附肺而行,肺與脾子母皆虛,肺主目胞腮之類,脾主四肢,母氣虛甚,卽目胞腮腫也.色黃者,屬脾也,治之用塌氣圓,漸消之,未愈,漸加圓數,不可以丁香木香橘皮豆蔻大溫散藥治之,何以然,脾虛氣未出,腹脹而不喘,可以散藥治之,使上下分消其氣則愈也.若虛氣已出,附肺而行,卽脾胃內弱,每生虛氣,入於四肢面目矣.小兒易爲虛實,脾虛不受寒溫,服寒則生冷,服溫則生熱,當識此,勿悮也.胃久虛熱,多生疸病,或引飲不止,脾虛不勝腎,隨肺之氣,上行於四肢,若水狀,腎氣浸浮於肺,卽大喘也.此當服塌氣圓,病愈後,面未紅者,虛衰未復故也.

복창(腹脹)은 허약해진 비위의 기운이 발작하여 생기는 것이다. 실증인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니 하법을 써도 괜찮다. 자상원, 백병자를 쓴다. 숨을 헐떡이지 않는 경우는 허증이니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만약 잘못해서 하법을 쓰면 허해진 비기가 위로 치받아 폐장까지 가게되니자격인 폐장과 모격인 비장이 모두 허해지게 된다. 폐장은 눈, 눈꺼풀, 뺨 같은 부분을 주관하고, 비장은 사지를 주관한다. 모격인 비장의 기운이 매우 허해지면 자격인 폐장에 속하는 눈, 눈꺼풀, 뺨이 붓는다. 색깔이 누레지는 중상은 비장에 속하니 탑기원을 써서 점점 사그라뜨리는 치료를 하되 그래도 낫지 않으면 점점 탑기원의 분량을 늘려간다. 정향, 목향, 귤피, 두구처럼 크게 따뜻하거나 기운을 흩는 약재로 치료해서는 안된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

하약해진 비기가 발작하지 않았을 때는 배가 빵빵해지더라도 숨은 헐떡이지 않으니 기운을 흩는 약재를 써서 상부와 하부로 허해진 기운을 나누어 감소시키면 낫는다. 그런데 허약해진 비기가 발작하면 폐장에 붙어서 몸 밖으로 나가야 한다. 즉, 비위가 몸속에서 약해져 있어서 매번 허약해진 기운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다시 사지ㆍ얼굴ㆍ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소아는 쉽게 허증이나 실증이 변한다는 특성이 있다. 비장이 허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약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차가운 약재를 복용시키면 냉증이 생기고, 따뜻한 약재를 복용시키면 열증이 생긴다. 이 원리를 알아야 잘못 치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위부에 오랫동안 허열이 있으면 대부분 황달이 생기게 되거나 혹은 계속 물을마시려고 하기도 한다. 비기가 허하여 신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신기가 폐기를따라 위로 사지까지 올라가서 마치 물처럼 신기가 폐장에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금세 심하게 숨을 헐떡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탑기원을 복용시켜야 한다. 병이 나은 후에도 낯빛이 붉어지지 않는 경우는 허약해진 비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治腹脹者,譬如行兵,戰寇於林,寇未出林,以兵攻之,必可獲寇,若出林,不可急攻,攻必有失,當以意漸收之,卽順也.

복창을 치료하는 것은 병사를 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적과 숲에서 싸울 때적이 숲에서 나오지 않으면 병사에게 공격하게 해야 적을 잡을 수 있지만, 적이 숲에서 나온다면 굳이 급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된다. 급하게 공격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니 상황에 따라 차근차근 잡으면 순탄하게 이길 수 있다.

治虛腹脹, 先服塌氣圓, 不愈, 腹中有食積結糞, 小便黃, 時微喘, 脉伏而實, 時飲水, 能食者, 可下之, 蓋脾初虛而後結有積, 所治宜先補脾後下之, 下後又補脾, 卽愈也. 補肺恐生虛喘.

비기가 허하여 생긴 복창을 치료할 때는 우선 탑기원을 복용시킨다. 이렇게 해도 낫지 않으면 뱃속에 식적으로 뭉친 똥이 있는 것이다. 소변이 누렇고 자주숨을 약간 헐떡이며 맥이 복(伏)하면서 실(實)하고 자주 물을 마시려고 하고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법을 써도 괜찮다. 비기가 원래 허한 상태였다가 나중에 적취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 비기를 보한 후에 하법을 써야 한다. 하법을 쓴 후에 다시 비기를 보하면 증상이 곧 좋아진다. 잘못해서 폐기를 보하면 허증으로 숨을 헐떡이게 될 수도 있다.

# 喜汗 땀을 잘 흘리는 경우

厚衣臥而額汗出也,止汗散主之.

옷을 두껍게 입고 재워서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이다. 지한산으로 치료한다.



# 盜汗 도한(盜汗)

睡而自汗出, 肌肉虚也, 止汗散主之. 遍身汗, 香瓜圓主之.

자는 동안 저절로 땀이 나는 이유는 기육의 기운이 허하기 때문이니 지한산으로 치료한다. 온몸에 땀이 나는 경우에는 향과원으로 치료한다.



## 夜啼 야제

脾藏冷而痛也, 當與溫中藥, 及以法穰之, 花火膏主之.

야제는 비장이 차가워서 아파하는 것이다.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먹이고 관습대로 액막이를 하거나 화화고로 치료한다.

# 驚啼 놀라면서 우는 경우

邪熱乘心也, 當安心, 安神圓主之.

열독이 심장을 억누르기 때문이니 심장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안신원으로 치료한다.

### 弄舌 농설(弄舌)

牌藏微熱, 令舌絡微緊, 時時舒舌, 治之勿用冷藥及下之, 當少與瀉黃散, 漸服之, 亦或飲水, 醫疑爲熱, 必冷藥下之者, 非也. 飲水者, 脾胃虚, 津液少也. 又加面黃肌瘦, 五心煩熱, 卽爲疳瘦, 宜胡黃連圓輩. 大病未已用藥弄舌者, 凶.

비장에 열이 약간 있으면 혀 쪽이 살짝 긴축되어 자주 혀를 내민다. 치료할 때는 차가운 성질의 약이나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하며 사황산을 조금 먹이면서 점점 늘려 복용시킨다. 간혹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원이 열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되면 필시 차가운 성질의 약재로 하법을 쓰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유는 비위가 허하여 진액이 거의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얼굴이 누렇고 살이 마르며 오심번열 증상까지 생기면 감병으로 바싹 마른 것이니 호황련원 같은 약을 써야 한다. 큰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을 때 약을 쓰다가 농설이 생긴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다.

# 丹瘤 단류(丹瘤)

熱毒氣客於腠理, 搏於血氣, 發於外, 皮上赤如丹, 當以白玉散塗之.

열독이 주리를 침범하여 혈기에 부딪치면 몸 겉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주사처럼 붉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백옥산을 환부에 발라야 한다.



### 解顱 해로(解顱)

年大而頤不合, 腎氣不成也, 長必少笑, 更有目白睛多, 皖白色瘦者, 多愁少喜也. 餘見腎虛.

해마다 몸은 자라지만 숫구멍이 닫히지 않는 이유는 신기가 영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라면서 웃음이 적어질 것이다. 게다가 눈에 흰자위가 많이 보이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마르는 경우도 있으니 근심은 많고 즐거움은 적기 때문이다. 나머지 내용은 신허(腎虛) 부분에 나온다.

# 太陽虛汗 태양증의 식은땀

上至頭,下至項,不過胷也,不須治之.

머리부터 목까지 식은땀이 나고 가슴 아래는 나지 않는다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 胃怯汗 위부가 허약하여 땀이 나는 경우

上至項,下至臍,此胃虚,當補胃,益黃散主之.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땀이 난다면 위부가 허약하기 때문이니 위부의 기운을 보해야 한다. 익황산으로 치료한다.

# 胃啼 위통으로 우는 경우 $^1$

小兒觔骨血脉未成,多哭者,至小所有也.

- <sup>1</sup>. 후대의 책이긴 하지만 《幼幼新書》에는 이 내용이 '喜啼' 항목에 있다. 글자의 오류를 의심해 볼 만하지만 고증하지 못하였다. ←
- <sup>2</sup>. '지소소유(至小所有)'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 ↔

### 胎肥 뱃속에서부터 살찐 경우

生下肌肉厚, 遍身血色紅, 滿月以後, 漸漸肌瘦, 目白睛粉紅色, 五心熱, 大便難, 時時生涎, 浴體法主之.

태어나자마자 살이 통통하고 온몸의 혈색이 좋았으나 1달 된 후부터 점점 살이 마르면서 눈에 흰자위가 분홍색으로 충혈되고 오심에 열이 나며 대변을 잘누지 못하고 끈적한 침을 자주 흘리는 경우에는 욕체법(浴體法)으로 치료해야한다.

### 胎怯 뱃속에서부터 허약한 경우

生下面色無精光, 肌肉薄, 大便白水, 身無血色, 時時哽氣, 多噦, 目無精彩, 當浴體法主之.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생기가 없고 살집이 없으며 흰 물 같은 대변을 싸고 몸에 혈색이 없으며 자주 목이 막히고 딸꾹질을 자꾸 하며 눈에 생기가 없는 경우에 는 욕체법(浴體法)으로 치료해야 한다.

### 胎熱 태열(胎熱)

生下有血氣,時叫哭,身壯熱,如淡茶色,目赤,大便赤黃糞稠,急食乳,浴<sup>1</sup>法主之,更別父母肥瘦,肥不可生瘦,瘦不可生肥也.

태어나자마자 혈기가 있어서 자주 소리 지르며 울고 몸통에 열이 많으면서 마 치 옅은 찻물 색깔 같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적황색의 걸쭉한 대변을 누고 젖을 급하게 빠는 경우에는 욕체법(浴體法)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살쪘는지 말랐는지 구별해야 하니 살쪘다면 마른 아이가 나올 수 없고, 말랐다 면 살찐 아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1. 浴: ☞浴體 ※취진본 ↔

# 急欲乳不能食 다급하게 절을 빨려고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

因客風熱入兒臍,流入心脾經,卽舌厚脣燥,口不能乘乳,當凉心脾.

풍사나 열독이 아이의 배꼽으로 침입하여 심장이나 비장의 경락으로 흘러 들어가면 얼마 후에 혀가 두꺼워지고 입술이 말라서 입으로 젖꼭지를 빨지 못하게 된다. 이때는 심장과 비장을 식혀 주어야 한다.

### 龜背龜腎 구배(龜背) , 구흥(龜腎)

肺熱脹滿, 攻於胷鬲, 卽成龜胷, 又乳母多食五辛, 亦成.

폐열로 생긴 창만이 흉격으로 흘러가게 되면 구흉이 된다. 또는 유모가 오신채를 많이 먹어서 생기기도 한다.

兒生下,客風入脊,逐於骨髓,卽成龜背,治之以龜尿點節骨.取尿之法,當蓮葉安龜在上,後用鏡照之,自尿出,以物盛之.

아이가 태어난 후에 풍사가 등줄기로 침범하여 골수까지 흘러가게 되면 구배가 된다. 치료할 때는 거북이 오줌을 척추 부분에 똑똑 떨어뜨린다. 거북이 오줌을 받는 방법. 연잎 위에 거북이를 올려놓은 후 거울을 거북이에게 비추면자연히 오줌이 나오니 그릇에 담아놓는다.

### 腫病 부종

腎熱傳於膀胱,膀胱熱盛,逆於脾胃,脾胃虚而不能制腎,水反尅土,脾隨水行,脾主四肢,故流走而身面皆腫也.若大喘者,重也,何以然.腎大勝而尅退脾土,上勝心火,心又勝肺,肺爲心尅,故喘.或問曰,心刑肺,肺本見虚,今何喘實.曰,此有二,一者肺大喘,此五藏逆,二者腎水氣上行,傍浸於肺,故令大喘,此皆難治.

신장의 열이 방광으로 전달되면 방광의 열이 왕성해져서 비위까지 거슬러 가게 된다. 비위가 허해지면 결국 신수를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신수가 거꾸로 비토를 이기게 된다. 비기는 신수를 따라 운행하고 비장은 사지를 주관하기 때문에 흘러 다니면서 몸통과 얼굴까지 모두 붓게 된다. 숨을 심하게 헐떡거리는 경우는 중증이니 어째서 그런 것인가. 신수가 너무 왕성해져서 비토를 이기게 되면 위로 올라가 심화까지 억제하고, 심화는 다시 폐금을 억제하게 되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는 것이다. 혹자가 물었다. "심화가 폐금을 억제하면 폐기가 허해지는데 어째서 숨을 헐떡이는 실증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답하였다. "이는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폐장 때문에 숨을 심히 헐떡이는 것은 오장의 역증이다. 다른 하나는 신장의 수기가 위로 올라가서 폐장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숨을 심하게 헐떡이게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치료하기 어렵다."

#### 五藏相勝輕重 오장의 상극 관계에 따른 증상의 경중

肝藏病見秋, 木旺, 肝强勝肺也, 宜補肺瀉肝. 輕者肝病退, 重者脣白而死.

간장의 증상은 가을에 나타난다. 오행 중에 목기가 왕성해지면 간기가 강해져서 폐기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폐기를 보하고 간기를 사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간장의 증상이 줄어들고, 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입술이창백해지면서 죽는다.

肺病見春, 金旺, 肺勝肝, 當瀉肺, 輕者肺病退, 重者目淡青, 必發驚, 更有赤者, 當搐, 爲肝怯, 當目淡青色也.

폐장의 증상은 봄에 나타난다. 오행 중에 금기가 왕성해지면 폐기가 간기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폐기를 사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폐장의 증상이 줄어들고, 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눈이 옅은 청색이 되면서 경풍이 발작하게 된다. 다시 눈이 붉게 충혈되면 축닉이 생긴다. 간기가 허약해지면 눈이 옅은 청색으로 되는 법이다.

心病見冬, 火旺, 心强勝腎, 當補腎治心, 輕者病退, 重者下竄不語, 腎虛怯也.

심장의 증상은 겨울에 나타난다. 오행 중에 화기가 왕성해지면 심기가 강해져서 신기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기를 보하여 심기를 다스려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심장의 증상이 줄어들고, 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눈동자가 아래로 쏠리면서 말을 하지 못하니 신기가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 腎病見夏,水勝火,腎勝心也,當治腎.輕者病退,重者悸動,當搐也.

신장의 증상은 여름에 나타난다. 오행 중에 수기가 화기를 억제하면 신수가 심화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기를 다스려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신장의 증상이 줄어들고, 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벌벌 떨면서 축닉이 발작하게 된다.

脾病見四旁,皆倣此治之,順者易治,逆者難治,脾怯當面目赤黃,五藏相反,隨證治之.

비장의 증상은 사계절 모두 나타나며 각 경우마다 위와 같은 원리로 치료해야한다. 순증은 치료하기 쉽고, 역증은 치료하기 어렵다. 비장이 허약하면 얼굴과 눈이 붉거나 누레진다. 오장의 상반 원리대로 증상에 따라 치료해야한다.

# 雜病證 기타 증상

#### 目赤兼靑者, 欲發搐.

눈이 붉어지면서 푸른 기가 함께 나타나면 축닉이 발작하려는 것이다.

## 目直而青,身反折强直者,生驚.

눈동자가 앞만 보면서 흰자위가 파랗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뻣뻣하게 굳는 경 우는 경풍이 생긴 것이다.

# 咬牙甚者, 發驚.

입을 심하게 악다무는 경우는 경풍이 발작한 것이다.

#### 口中吐沫水者, 後必虫痛.

입에서 거품이나 물 같은 것을 토한 후에는 필시 충통(虫痛)이 생길 것이다.

#### 昏睡善嚏悸者, 將發瘡疹.

죽은 듯이 자고 재채기를 자주 하며 덜덜 떠는 경우에는 창진(瘡疹)이 발작하려는 조짐이다.

#### 吐瀉昏睡露睛者,胃虛熱.

구토하고 설사하며 죽은 듯이 자면서 눈동자가 드러나는 경우는 위부의 허열 때문이다.

#### 吐瀉昏睡不露睛者,胃實熱.

구토하고 설사하며 죽은 듯이 자지만 눈동자가 드러나지는 않는다면 위부의 실열 때문이다.

#### 吐瀉乳不化,傷食也,下之.

구토하고 설사하며 젖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음식에 상한 것이니 하법을 써야한다.

# 吐沫及痰,或白綠水,皆胃虚冷.

거품과 가래를 토하고 간혹 희거나 초록색 섞인 물을 토하기도 하는 경우는 모두 위부가 허랭하기 때문이다.

#### 吐稠涎及血,皆肺熱,久則虚.

끈적한 침과 피를 토하는 경우는 모두 폐장의 열 때문이다. 오래 앓은 경우는 폐기가 허하기 때문이다.

#### 瀉黃紅赤黑皆熱,赤亦毒.

누렇거나 붉거나 검은 설사를 하는 경우는 모두 열 때문이다. 붉은 설사는 독 때문인 경우도 있다.

#### 瀉靑白穀不化, 胃冷.

푸르거나 흰 색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는 경우는 위부가 냉하기 때문 이다.

#### 身熱不飮水者, 熱在外, 身熱飲水者, 熱在內.

몸통이 뜨거울 때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 경우는 열독이 몸 겉에 있기 때문이고, 몸통이 뜨거울 때 물을 마시려 하는 경우는 열독이 몸속에 있기 때문이다.

#### 口噤不止則失音,遲聲亦同.

입을 계속 악다물고 있으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나오는 경우도 동일하다.

#### 長大不行, 行則脚細.

점점 자라도 걷지 못하거나, 걷더라도 다리가 너무 가는 경우가 있다.

#### 齒久不生,生則不固.

이빨이 늦게까지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髮久不生,生則不黑.

머리털이 늦게까지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까맣지 않은 경우가 있다.

#### 血虚怯, 爲冷所乘, 則脣靑.

혈이 허약하면 냉기의 침입을 잘 받게 되어 입술이 새파래진다.

#### 尿深黃色, 久則尿血.

샛노란 오줌을 누는 경우 오래 되면 요혈(尿血)이 된다.

#### 小便不通, 久則脹滿, 當利小便.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오래 되면 창만(脹滿)이 되니 소변을 소통시켜야 한다.

#### 洗浴拭臍不乾, 風入作瘡, 令兒撮口, 甚者是脾虚.

목욕 후에 배꼽을 말리지 않으면 풍사가 침입하여 창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입을 오무리는 증상이 생긴다. 심하면 비허증(脾虛證)이 생긴다.

#### 吐涎痰, 熱者下之.

담연을 토하면서 몸이 뜨끈한 경우에는 하법을 쓴다.

#### 吐涎痰,冷者温之.

담연을 토하면서 몸이 차가운 경우에는 뱃속을 따뜻하게 해준다.

#### 先發膿疱,後發斑子者,逆.

고름 잡힌 수포가 먼저 난 후 반진이 생기는 경우는 역증이다.

#### 先發膿疱,後發疹子者,順.

고름 잡힌 수포가 먼저 난 후 은진이 생기는 경우는 순증이다.

#### 先發水疱,後發疹子者,逆.

수포가 먼저 난 후 은진이 생기는 경우는 역증이다.

# 先發膿疱,後發水疱,多者順,少者逆.

고름 잡힌 수포가 먼저 난 후 수포가 돋는 경우는 순증이 많고 역증은 적다.

# 先水疱, 後斑子, 多者逆, 少者順.

수포가 먼저 돋은 후 반진이 나는 경우는 순증이 많고 역증은 적다.

# 先疹子,後斑子者,順.

은진이 먼저 난 후 반진이 나는 경우는 순증이다.

#### 凡瘡疹只出一般者善.

대체로 창진에 수포만 돋는 경우는 보통 예후가 좋다.

#### 胎實,面紅,目黑睛多者,多喜笑.

태아가 튼실하여 얼굴이 붉고 눈의 검은자위가 큰 경우는 대부분 잘 웃는다.

# 胎怯,面黃,目黑睛少,白睛多者,多哭.

태아가 허약하여 얼굴이 누렇고 눈의 검은자위가 작으며 흰자위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 잘 운다.

凡病先虚,或下之,合下者,先實其母,然後下之,假令肺虚而痰實,此可下,先當盆脾,後方瀉肺也.

모든 병은 먼저 각 오장의 기가 허해진 상태지만 간혹 하법을 쓰기도 한다. 하법을 쓰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 그 모격을 튼실하게 한 후에 하법을 써야한다. 가령 폐기가 허하여 가래가 끓으면 이 경우는 하법을 써도 되는 경우이니 먼저 비기를 보익한 후에 폐기를 사해야 한다.

#### 大喜後,食乳食多,成驚癎.

크게 웃은 후에 젖이나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많아지면 경간(驚癎)이 된다.

#### 大哭後,食乳食多,成吐瀉.

크게 운 후에 젖이나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많아지면 토사(吐瀉)가 된다.

#### 心痛吐水者, 虫痛.

가슴을 아파하면서 물 같은 것을 토하는 것은 충통(虫痛) 때문이다.

#### 心痛不吐水者,冷心痛.

가슴을 아파하지만 물 같은 것을 토하지 않는 경우는 냉심통(冷心痛)이다.

#### 吐水不心痛者,胃冷.

물 같은 것을 토하면서 가슴을 아파하지 않는 것은 위부가 차갑기 때문이다.

#### 病重,面有五色不常,不澤者,死.

각종 증상이 심할 때 얼굴에 여러 가지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윤기가 나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

#### 呵欠面赤者, 風熱.

소리 내면서 하품하고 얼굴이 붉은 증상은 풍열(風熱) 때문이다.

#### 呵欠面靑者,驚風.

소리 내면서 하품하고 얼굴이 푸르스름한 증상은 경풍(驚風)이다.

#### 呵欠面黃者, 脾虛驚.

소리 내면서 하품하고 얼굴이 누런 증상은 비허(脾虛)로 생긴 경풍이다.

# 呵欠多睡者, 內熱.

소리 내면서 하품하고 계속 잠만 자려는 증상은 몸속의 열 때문이다.

# 呵欠氣熱者,傷風.

소리 내면서 하품하고 숨이 뜨거운 증상은 상풍(傷風)이다.

#### 熱證疎利,或解化後無虛證,勿溫補,熱必隨生.

열증에 하법을 쓰거나 혹은 열을 풀어준 후에 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뱃속을 따뜻하게 보해주지 말아야 하니 열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不治證 불치증

#### 目赤脉貫瞳人.

눈이 붉게 충혈되고 혈관이 눈동자를 관통한 경우.

#### 胷腫及陷.

가슴이 붓거나 움푹 꺼진 경우.

# 鼻乾黑.

코가 마르고 까매진 경우.

#### 魚口氣急.

물고기 입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숨이 급한 경우.

# 吐虫不定.

일정하지 않게 충을 토하는 경우.

# 瀉不定,精神好.

일정하지 않게 설사하지만 정신은 멀쩡한 경우.

# 大渴不定, 止之又渴.

일정하지 않게 심한 갈증이 생기고 멈췄다가는 다시 갈증이 생기는 경우.

#### 吹鼻不噴.

콧속에 무언가를 불어 넣어도 재채기하지 않는 경우.

#### 病重,口乾不睡.

각종 증상이 위중하여 입이 마르고 잠들지 못하는 경우.

# 時氣, 唇上青黑點.

전염병으로 입술에 검푸른 점이 생기는 경우.

#### 頰深赤,如塗烟脂.

뺨이 새빨개져서 마치 연지를 바른 것 같은 경우.

#### 鼻開張.

콧구멍이 계속 벌어져 있는 경우.

#### 喘急不定.

일정하지 않게 숨을 심하게 헐떡이는 경우.

#### 錢氏小兒藥證直訣上 終

소아약증직결 권상 끝

# 錢氏小兒病<sup>1</sup>證直訣卷中 소아약증직결 권중

# 記嘗所治病 의안(醫案)

李寺丞子三歲,病搐,自卯至巳,數醫不治,後召錢氏視之,搐目右視,大呌哭.李曰,何以搐右,錢曰,逆也.李曰,何以逆,曰,男爲陽而本發左,女爲陰而本發右,若男目左視,發搐時無聲,右視有聲,女發時右視無聲,左視有聲,所以然者,左肝右肺,肝木肺金,男目右視,肺勝肝也,金來刑木,二藏相戰,故有聲也.治之瀉其强而補其弱,心實者亦當瀉之,肺虚不可瀉,肺虚之候,悶亂哽氣,長出氣,此病男反女,故男易治於女也.假令女發搐,目左視,肺之勝肝.又病在秋,卽肺兼旺位,肝不能任,故哭呌,當大瀉其肺,然後治心續肝,所以俱言目反直視,乃肝主目也.凡搐者,風熱相搏于內,風屬肝,故引見之於目也.錢用瀉肺湯瀉之,二日不悶亂,當知肺病退,後下地黃圓補腎三服,後用瀉靑圓、凉驚圓各二服.凡用瀉心肝藥,五日方愈,不妄治也.又言肺虚不大瀉者何也,曰,設令男目右視,木反尅金,肝旺勝肺,而但瀉肝,若更病在春夏,金氣極虛,故當補其肺,愼勿瀉也.

이 시승(寺丞)의 3살 된 아들이 축닉을 앓아 묘시부터 사시까지 발작하곤 했다. 몇몇 의원들이 치료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 전 씨를 불러서 살펴보게 했다. 그때 아이는 축닉으로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갔고 크게 소리 지르며 울고 있었다. 이 시승이 "왜 오른쪽으로 축닉이 생겼는가?"하고 물으니 전 씨가 "역증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시승이 "왜 역증이라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으니 전 씨가 "남자는 양이라서 본래 왼쪽에서 기운이 생겨나고, 여자는 음이라서 본래 오른쪽에서 기운이 생겨납니다. 만약 남자의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축닉이 발작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으나,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의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축닉이 발작할 때 목소리를 지르 지 않지만,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왼쪽에는 간 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폐장이 있는데 간장은 오행 중에 목기이고 폐장은 금기 입니다. 남자의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폐금이 간목을 억누르기 때문 입니다. 폐금이 와서 간목을 억누르면서 두 장기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에는 강대해진 기운을 사하면서 허약해진 기운을 보해주어야 합니다. 심기가 실한 경우에는 사해주어야 하지만 폐기가 허한 경 우에는 사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가 허하여 생기는 증상으로는 가슴이 답 답하고 목이 메이며 길게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병은 남자의 증상이 여자 의 반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치료하기 쉽습니다. 가령 여자가 축닉을 앓으면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폐금이 간목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을에 이 병에 걸렸으니 폐금이 금기가 왕성한 가을과 만나 간목이 도저 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소리 지르며 울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를 크게 사해준 후에 심기를 다스려서 간기를 살려야 합니다. 눈이 뒤집히 거나 앞만 쳐다보는 증상을 모두 말하는 까닭은 간장이 눈을 주관하기 때문입 니다. 대체로 축닉이라는 병은 풍사와 열독이 몸속에서 서로 다투어 생깁니다. 풍사는 간장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고 말하였 다. 전 씨가 사폐탕을 써서 폐기를 사했더니 이틀 만에 답답했던 가슴이 풀렸 으니 폐장의 병사가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 지황원을 먹여서 신기를 보하기를 총 3번 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청원 ㆍ 양경원을 각각 2번씩 복용시켰 다. 이렇게 심기와 간기를 사해주는 약을 쓰자 5일만에 좋아져서 더이상 치료 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시승이 말하기를 "폐기가 허함 때 크게 사하지 말아 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기에 전 씨는 "가령 남자의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면 간목이 도리어 폐금을 이긴 격입니다. 왕성해진 간기가 폐기를 억제하는 상태이니 그저 간기만 사하면 됩니다. 만약 봄이나 여름에 이 병에 다시 걸렸다면 금기가 매우 허할 때이기 때문에 폐기를 보해주어야지 절대 사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廣親宅七太尉方七歲, 潮熱數日欲愈, 錢謂其父二大王曰, 七使潮熱將安, 八使預防驚搐, 王怒曰, 但使七使愈, 勿言八使病, 錢曰, 八使過來日午間, 卽無苦也. 次日午前<sup>1</sup>, 午前果作急搐, 召錢治之, 三日而愈, 蓋預見目直視而顋赤, 必肝心俱熱, 更坐石机子<sup>2</sup>, 乃欲冷, 此熱甚也. 肌膚素肥盛, 脉又急促, 故必驚搐, 所言語<sup>3</sup>時者, 自寅至午, 皆心肝所用事時, 治之瀉心肝補腎, 自安矣.

광친택(廣親宅)의 일곱째 태위(太尉)가 7살인데 조열이 며칠동안 반복되다가 좋아지려고 했다. 전 씨가 그의 아버지인 두 번째 대왕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왕자님의 조열은 앞으로 좋아질 테지만, 여덟째 왕자님의 경축을 예방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대왕이 화를 내며 "일곱째만 치료하고 여덟째의 병에 대해 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 씨가 말하기를 "여덟째 왕자님은 내일 오시를 지나면 금세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오시가 되기 전에 과연 여덟째에게 갑자기 경축이 생겨서 전 씨를 불러 치료하게 했더니 3일 후에 좋아졌다. 아마 전 씨가 예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덟째가 앞만 보고 뺨이 붉었으므로 분명히 간장과 심장에 모두 열이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돌 의자에 앉으려는 것은 시원한 곳을 찾으려는 것이니 이 증상들은 열이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기 때문이다. 여덟째는 원래 살이 많고 맥도 촉급(急促)했으니 분

명 경축이 생길 조짐이었고, 오시라고 말한 것은 인시부터 오시까지는 모두 심장과 간장이 작용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심기와 간기를 사하고 신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하자 자연스레 편안해졌다.

李司戶孫病,生百日,發搐三五次,請衆醫治,作天釣<mark>或作胎驚癎<sup>4</sup>,皆無應者,後錢</mark>用大青膏如小豆許,作一服發之.復與塗顧法封之,及浴法,三日而愈.何以然.嬰兒初生,肌骨⑪<sup>5</sup>怯,被風傷之,子不能任,故發搐.頻發者輕也,何者.客風在內,每遇不任卽搐,搐稀者,是內藏發病,不可救也.搐頻者,宜散風冷,故用大青膏,不可多服,蓋兒至小,易虛易實,多卽生熱,止一服而已,更當封浴,無不效者.

이 사호(司戶)의 백 일된 손주가 경축 증상이 3 - 5번 정도 발작하였다. 여러 의원에게 치료를 청하자 누구는 천조경풍(天釣驚風)이라 하고 누구는 경간(驚癎)이라고 진단했으나 모두들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 후에 전 씨가 대청고를 소두(小豆) 크기만큼 한 번 복용시켰더니 그래도 발작했다. 다시 도신법(塗顔法)을 써서 숫구멍을 막고 욕체법(浴體法)을 썼더니 3일이 지나 좋아졌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에는 뼈와 살이 연약하여 풍사에 상하기 쉬운 법이니 손주도 풍사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축이 발작한 것이다. 자주 발작하는 경우는 경증이니 어째서인가. 풍사가 몸속으로 침입할 때마다 아이가 풍사를 감당하지 못하면 금세 경축이 발작해야 한다. 경축이자주 발작하지 않는 경우는 몸속의 오장이 병든 것이므로 구제할 수 없다. 경축이 자주 발작하는 경우는 등사와 냉기를 흩어주어야 하니 대청고를 쓰되많이 복용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이는 매우 작아서 금세 허증이 생겼다

가 금세 실증으로 변하면서 대부분 이때 열이 나기 때문이다. 그저 한 번 복용 시키면 충분하고 추가로 도신법이나 욕체법을 쓴다면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 가 없을 것이다.

東都王氏子吐瀉,諸醫藥下之,至虛,變慢驚,其候睡露睛,手足瘈瘲而身冷.錢曰,此慢驚也,與【苦+瓜】【蔞+瓜】湯,其子胃氣實,即開目而身溫.王疑其子不大小便,令諸醫以藥利之,醫留八正散等數服,不利而身復冷,令錢氏利小便,錢曰,不當利小便,利之必身冷,王曰,已身冷矣,因抱出,錢曰,不能食而胃<sup>6</sup>中虛,若利大小便即死,久即脾胃俱虛,當身冷而閉目,幸胎氣實而難衰也.錢用益黃散、史君子圓四服,令微飲食,至日午,果能飲食.所以然者,謂利大小便,脾胃虛寒,當補脾,不可別攻也.後又不語,諸醫作失音治之,錢曰,旣失音,<sup>7</sup>開目而能飲食,又牙不緊<sup>8</sup>而口不緊也,諸醫不能曉,錢以地黃圓補腎.所以然者,用清藥利小便,致脾腎俱虛,今脾已實,腎<sup>9</sup>虛,故補腎必安.治之半月而能言,一月而痊也.

동도(東都)에 사는 왕 씨의 아들이 구토와 설사를 하기에 여러 의원들이 약으로 하법을 써서 매우 허해지게 되었고 결국 만경풍이 생겼다. 그 증상으로는 잘 때 눈동자가 보이고 손발에 계종(瘈瘲)이 생기면서 몸통이 차가웠다. 전 씨가 "이 증상은 만경풍입니다."라고 말하고 괄루탕을 먹였다. 그의 아들은 위기가 실했기 때문에 즉시 눈을 뜨면서 몸통도 따뜻해졌다. 왕 씨는 그의 아들이 대소변을 잘 누지 못하고 있다고 짐작하여 다른 의원들에게 약을 써서 소변이 잘 나오도록 했다. 의원들이 그 집에 머물면서 팔정산 등의 약을 몇 번 복용시켰으나 소변을 여전히 잘 누지 못하고 몸통은 다시 차가워졌다. 그래서 다시 전 씨에게 소변을 잘 누게 해달라고 하였다. 전 씨가 말하기를 "소변이 잘 나오

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변이 잘 누게 하면 필시 몸이 차가워질 것입니 다."라고 하였다. 왕씨가 말하기를 "몸은 이미 차갑습니다."라고 한 후에 아이 를 안고 나가려고 했다. 전 씨가 말하기를 "음식을 먹지 못하여 위부가 텅 비어 있을 때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나면 비위가 모두 허해지게 되고 당연히 몸통이 차가워지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지금은 다행히 아이의 기운이 튼실하여 쇠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익 황산과 사군자원을 4번 복용시켰더니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오 후가 되자 과연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 비위가 허한해지는 법이니 당연히 비장을 보하기만 하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원리이다. 그 후에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의 원들은 실음(失音)으로 여겨 치료하였다. 전 씨가 말하기를 "실음이라면 왜 눈 을 감으며 어떻게 음식을 먹겠는가. 또한 이를 꽉 깨물지도 않고 입을 악다물 지도 않았잖은가."라고 했으나 의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 씨는 지황원으로 신기를 보해 주었다. 청열약으로 소변을 나오게 하면 결국 비기와 신기가 모두 허해지게 되는데 당시 아이는 비위가 튼실했지만 신기가 허한 상 태였으니 신기를 보하면 필시 안정될 터였기 때문이다. 보름 정도 치료하자 말 을 하게 되었고, 한 달 정도 치료하니 완전히 나았다.

①10都藥鋪杜氏,有子五歲,自十一月病嗽,至三月未止,始得嗽而吐痰,乃外風寒 搐<sup>11</sup>入肺經,今<sup>12</sup>肺病,嗽而吐痰,風在肺中故也.宜以麻黃輩發散,後用凉藥壓之 卽愈.時醫以鐵粉圓、半夏圓、褊銀圓諸法下之,其肺卽虛而嗽甚,至春三月間尚 未愈.召錢氏視之,其候面靑而光,嗽而喘促哽氣,又時長出氣.錢曰,痰困拾以捌玖, 所以然者,面靑而光,肝氣旺也,春三月者,肝之位也,肺衰之時也,嗽者肺之病,肺 之病<sup>13</sup>肺自十一月至三月, 久卽虛痿, 又曾下之, 脾肺子母也, 復爲肝所勝, 此爲逆也, 故嗽而喘促哽氣, 長出氣也. 錢急與瀉<sup>14</sup>靑圓瀉, 後與阿膠散實肺, 次日面靑而不光. 錢又補肺, 而嗽如前. 錢又瀉肝, 瀉肝未已, 又加肺虛, 脣白如練. 錢曰, 此病必死, 不可治也. 何者, 肝大旺而肺虚熱<sup>15</sup>, 肺病不得其時, 而肝勝之. 今三瀉肝而肺病不退, 三補肺而肺證猶虛, 此不久生, 故言死也. 此證病於秋者, 十救三四, 春夏者, 十難救一. 果大喘而死.

동도(東都)에서 약재상을 하는 두 씨의 5살 아들이 11월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 하여 3월이 되도록 멎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토했다고 한 다. 이는 풍한의 사기가 폐장의 경락까지 침입하여 폐장을 병들게 만든 것이니 기침하면서 가래를 토하는 증상은 풍사가 폐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당연히 마황탕 같이 발산시키는 약을 쓴 후 서늘한 약재를 써서 기침을 진정시켜 주면 곧 좋아질 터였다. 당시에 의원이 철분원 , 반하원 , 편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법을 쓰자 폐기가 곧바로 허해지면서 기침이 심해졌고 3월이 되도록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전 씨에게 진료를 청하기에 가서 보았 더니 얼굴이 푸르면서 광택이 있었고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목이 메는 증상이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전 씨가 말하길 "십중팔구 담증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얼굴이 푸르면서 광택이 있으 면 간기가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3월은 간기가 왕성한 달이며 폐기가 쇠약 해지는 때입니다. 기침은 폐장에 해당하는 병이니 아이의 폐기는 11월부터 3 월까지 오랫동안 허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하법까지 썼습니다. 비장은 모격이고 폐장은 자격인데 비장은 다시 간장의 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역증 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목이 메이며 길게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급히 사청원을 먹여 설사시킨 후 아교산을 먹여 폐기를 튼실하게 했더니 다음 날 얼굴이 푸르긴 했으나 광택이 없어졌다. 전 씨가 한 번 더 폐기를 보했으나 기침은 여전했다. 전 씨가 이번에는 간기를 사했으나 간기가 미처 사해지기도 전에 다시 폐기가 허해져 입술이 명주처럼 하얘졌다. 전 씨가 말하길 "이 증상은 분명 죽을병이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기가 너무 왕성하여 폐기가 거의 바닥났고, 폐장의 증상이 계절과 맞지 않아 간목이 폐금을 더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기를 세번 사했으나 폐장의 증상이 줄어들지 않았고, 폐기를 세번 보했으나 폐장의 증상은 오히려 허증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오래 살 수 없다는 반응이므로 죽을 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을에 이 증상이 있으면 열 명 중에 서너 명 살릴 수 있지만 봄이나 여름이라면 열 명 중에 한 명도 살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 아이는 숨을 심하게 헐떡이면서 죽었다.

京東轉運使李公,有孫八歲,病嗽而胷滿短氣,醫者言肺經有熱,用竹葉湯、牛黃膏各貳服治之,三日加喘.錢曰,此肺氣不足,復有寒邪,卽使喘滿,當補肺脾,勿服凉藥.李曰,醫已用竹葉湯、牛黃膏.錢曰,何治也.醫曰,退熱退涎.錢曰,何熱所作.曰,肺經熱而生嗽,嗽久不除生涎.錢曰,本虛而風寒所作,何熱也,若作肺熱,何不治其肺而反調心,蓋竹葉湯、牛黃膏,治心藥也.醫有慙色,錢治愈.

경동전운사(京東轉運使) 이 공의 8살 된 손주가 해수에 걸려 가슴이 부푼 채숨이 짧았다. 의원이 폐장의 경락에 열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는 죽엽 탕과 우황고를 각각 두 번씩 복용시켜 치료하였더니 3일이 지나자 숨을 헐떡 거리는 증상까지 생겼다. 전 씨가 말하길 "이 증상은 폐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사까지 침입하여 숨을 헐떡거리고 가슴이 부푼 것입니다. 폐기와 비기를 보하되 서늘한 약재를 복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고 하였다. 이 공이 말하길 "의원이 이미 죽엽탕과 우황고를 썼다네."라고 하자 전 씨가 "어떤 치료를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 의원은 "열을 떨어뜨리고 담연을 없애는 치료를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어떤 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니 그 의원이 "폐경의 열 때문에 해수가 생긴 것이고, 해수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아서 담연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본래 허해서 풍사나 한사가침범한 것이지 어찌 열사 때문이겠습니까. 폐장의 열 때문이었다면 왜 폐기를 다스리지 않고 반대로 심기를 다스렸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죽엽탕과 우황고는 심기를 다스리는 약이기 때문이었다. 그 의원은 챙피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전 씨가 치료하니 나았다.

東都張氏孫九歲,病肺熱,他醫以犀珠龍麝生牛黃治之,一月不愈,其證嗽喘悶亂,飲水不止,全不能食.錢氏用史君子圓、益黃散,張曰,本有⑪,⑪<sup>16</sup>以又行溫藥,他醫用凉藥攻之,一月尚無效.錢曰,凉藥久則寒,不能食,小兒虛不能食,當補脾,候飲食如故,卽瀉肺經,病必愈矣.服補脾藥二日,其子欲飲食,錢以瀉白散,瀉其肺,遂愈十分.張曰,何以不虛.錢曰,先實其脾,然後瀉肺,故不虛也.

동도(東都)에 사는 장씨의 9살 된 손주가 폐열(肺熱)을 앓았다. 어떤 의원이 서각 · 진주 · 용뇌 · 사향 · 생우황으로 치료했으나 한 달이 되도록 낫지 않았고, 숨이 넘어갈 듯이 기침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며 계속 물을 마시려고 하고 전혀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다. 전 씨는 사군자원과 익황산을 썼다. 장 씨가 말하길 "안그래도 열증이 있는데 왜 따뜻한 성질의 약재까지 씁니까? 어떤

의원이 서늘한 성질의 약재로 치료했어도 한 달 되도록 여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는 "서늘한 약재를 오래 먹이면 몸이 차가워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허약해져 음식을 먹지 못하니 당연히 비기를 보해야 합니다. 음식을 예전처럼 먹기를 기다렸다가 폐장의 경락을 사해주면 병이분명코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비기를 보하는 약을 이틀 동안 복용시켰더니 그 손주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전 씨가 사백산을 써서 폐기를 사했더니 마침내 완전히 나았다. 장 씨가 말하길 "어째서 손주가 허약해지지 않은 것입니까?"라고 하니 전 씨는 "우선 비장을 튼실하게 만든 후에 폐기를 사했기 때문에 아이가 허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睦親宮十太尉病瘡疹, 衆醫治之, 王曰, 疹未出, 屬何藏腑. 一醫言胃大熱, 一醫言傷寒不退, 一醫言在母腹中有毒. 錢氏曰, 若言胃熱, 何以乍凉乍熱, 若言母腹中有毒, 發屬何藏也. 醫曰, 在脾胃. 錢曰, 旣在脾胃, 何以驚悸, 醫無對. 錢曰, 夫胎在腹中, 月至六七, 則已成形, 食母穢液, 入兒五藏, 食至十月, 滿胃脘中, 至生之時, 口有不潔, 産母以手拭淨, 則無疾病, 俗以黃連汁壓之, 云<sup>17</sup>下臍糞及涎穢也, 此亦母之不潔餘氣, 入兒藏中. 本先因微寒入而成, 瘡疹未出, 五藏皆見病症, 內壹藏受穢多者, 乃出瘡疹. 初欲病時, 先呼<sup>18</sup>欠頓悶驚悸, 乍凉乍熱, 手足冷痺<sup>19</sup>, 面顋燥赤, 嗽時嚏, 此五藏證具也. 呵欠頓悶, 肝也, 時發驚悸, 心也, 乍凉乍熱, 手足冷, 脾也, 面目顋頰赤, 嗽嚏, 肺也. 惟腎無候, 以在腑下, 不能食穢故也. 凡瘡疹乃五藏毒, 若出歸一證, 則肝水疱, 肺膿疱, 心斑, 脾疹, 惟腎不食毒穢而無諸證, 瘡黑者屬腎, 由不慎風冷而不飽, 內虛也. 又用抱龍圓, 數服愈, 其別無他候. 故未發出則見五藏證, 已出則歸一藏也.

목친궁(睦親宮)의 열째 태위(太尉)가 창진에 걸려서 여러 의원들이 치료하였 다. 왕이 말하길 "수포가 아직 돋지 않았으니 어떤 장부에 속하는 단계인가."라 고 하니 어떤 의원은 "위부의 열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고, 어떤 의 원은 "상한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고, 어떤 의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독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말하길 "만약 위부의 열 때문이라면 왜 갑자기 몸이 식었다가 또 갑자기 열이 납니까?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독기 때문이라면 병이 생겨난 것은 어느 장부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그 의원은 "비위에 속합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비위에 속한다면 어째서 경계(驚悸) 증상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그 의원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전 씨가 말하길 "무릇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 - 7 달 정도 되면 그때는 이미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머니의 양수를 먹으면서 양 수가 태아의 오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양수를 10달 동안 먹으면 양수가 태아 의 뱃속을 가득 채우게 되며, 태어난 후에는 입속에 찌꺼기가 있게 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산모가 손으로 입속을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 다. 민간에서는 황련즙을 먹여서 찌꺼기를 눌러주면 배내똥과 끈적한 것이 똥 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은 찌꺼기가 태아의 오장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병은 예전에 약간의 한사가 침입하여 생긴 것이니 수포가 아직 돋지 않았기 때문에 오장에 모두 증상이 나타는 것입니다. 몸속의 한 장부에서 찌꺼기를 많이 받았다면 바로 수포가 돋았어야 합니다. 애초에 창 진이 생기려고 할 때는 우선 소리 내며 하품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며 경계 증상 이 나타나고 갑자기 몸이 식었다가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며 손발이 차가우 면서 저리고 얼굴과 뺨이 건조해지면서 붉어지며 기침을 하면서 가끔 재채기

도 하게 됩니다. 이는 오장의 증상이 모두 섞인 것입니다. 소리 내며 하품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는 증상은 간장의 증상이고, 가끔 경계 증상이 발작하는 것은 심장의 증상이며, 갑자기 몸이 식었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은 비장의 증상이고, 얼굴과 눈과 뺨이 붉어지고 기침이나 재채기하는 증상은 폐장의 증상입니다. 신장만큼은 증상이 없으니 신장이 육부 아래에 있어서 찌꺼기가 스며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창진은 오장의 독기가 나와 각 단계의 증상이 되는 것이니 간장의 독기는 수포로 나오고, 폐장의 독기는 고름으로 나오며, 심장은 반진, 비장은 은진으로 나옵니다. 오직 신장은 독기가 스며들어가지 않아서 해당되는 증상이 없지만 수포가 까매지는 경우는 신장에 속합니다. 풍사나 냉기를 조심하지 않고 배불리 먹이지 않아 몸속이 허해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포룡원을 썼더니 몇 번 복용하고는 좋아졌고 그 밖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아직 수포가 돋지 않았다면 오장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이미 돋은 후에는 어느 한 장부에 속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四大王宮五太尉, 因墜鞦韆, 發驚搐, 醫以發熱藥治之, 不愈. 錢氏曰, 本急驚, 後生大熱, 當先退其熱. 以大黃圓、玉露散、惺惺圓, 加以牛黃龍麝解之, 不愈, 至三日, 肌膚尚熱. 錢曰, 更二日不愈, 必發斑瘡, 蓋熱不能出也. 他醫初用藥發散, 發散入表, 表熱即斑生. 本初驚時, 當用利驚藥下之, 今發散, 乃逆也. 後二日, 果斑出, 以必勝膏治之, 七日愈.

넷째 대왕궁(大王宮)의 다섯째 태위(太尉)가 그네에서 떨어진 뒤로 경축이 발작하였다. 어떤 의원이 발열에 쓰는 약으로 치료했으나 낫지 않았다. 전 씨가말하길 "본래 급경풍 후에는 열이 심하게 납니다. 우선 열을 먼저 떨어뜨려야합니다."라고 하고는 대황원、옥로산、성성원에 우황、용뇌、사향을 더해써서 열을 풀려 했으나 좋아지지 않았고 3일 째가 되자 피부가 더욱 뜨거워졌다. 전 씨가 "다시 이틀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필시 반진이 나타날 것이니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원이 애초에 약을 써서 열을 발산시키려 했지만 발산시키게 되면 열이 표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부에 열이나게 되고 곧 반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랐을 당시에 경풍을 빼주는 약을 써서 설사시켰어야 했습니다. 지금 발산시키는 약을 쓰면 역증이 됩니다."라고말하였다. 이틀 후에 과연 반진이 돋았기에 필승고를 써서 치료하였고 7일 째나았다.

睦親宅一大王病瘡疹,始用一李醫,又召錢氏,錢留抱龍圓三服,李以藥下之,其疹稠密.錢見大驚曰,若非轉下,則爲逆病.王言李以<sup>20</sup>用藥下之.錢曰,瘡疹始出,未有他證,不可下也.但當用平和藥,頻與乳食,不受風冷可也.如瘡疹三日不出,或出不快,卽微發之,微發不出卽加藥,不出卽大發之,如大發後不多,及脉平無證者,卽瘡本稀,不可更發也.有大熱者,當利小便,小熱者,當解毒,若出快,勿發勿下,故止用抱龍圓治之,瘡痂若起能食者,大黃圓下一二行,卽止.今先下,一日瘡疹未能出盡而稠密,甚則難治,此悮也.縱得安,其病有三,一者疥,二者癰,三者目赤.李不能治,經三日黑陷,復召錢氏,曰,幸不發寒,而病未困也.遂用百祥圓治之,以牛李膏爲<sup>21</sup>.

若<sup>22</sup>黑者, 歸腎也. 腎王<sup>23</sup>勝牌, 土不尅水, 故脾虚寒戰則難治. 所用百祥圓者, 以瀉膀胱之腑, 腑若不實, 藏自不盛也. 何以不瀉腎, 曰, 腎主虚, 不受瀉, 若二服不效, 即加寒而死.

목친택(睦親宅) 첫째 대왕(大王)이 창진에 걸렸다. 처음에는 이 씨 의원을 불 렀고 그다음 전 씨를 불렀다. 전 씨는 머무르면서 포룡원을 세 번 복용시켜보 자고 했으나, 이 의원은 약을 써서 설사시켰다. 그러자 수포가 온몸에 빽빽하 게 났다. 전 씨가 이를 보고 크게 놀라며 "만약 갑자기 하법을 쓴 것이 아니라 면 역증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이미 이 의원이 약을 써서 설사시켰다고 말 해주었다. 전 씨는 "창진에 수포가 처음 돋을 때 다른 증상이 없으면 하법을 써 서는 안 됩니다. 그저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을 쓰면서 젖이나 음식을 자주 먹 이고 풍사나 냉기에 접촉시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3일 후에도 수포가 돋지 않거나 혹은 돋더라도 시원하게 돋지 않으면 살짝 발산시키고, 살짝 발산 시켜도 돋지 않으면 발산시키는 약을 더 써야 합니다. 그래도 돋지 않으면 크 게 발산시켜야 합니다. 크게 발산시킨 후에는 수포가 많이 돋지 않습니다. 그 리고 맥이 평온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는 수포가 본래 듬성듬성 돋으니 이때는 다시금 발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열이 심한 경우에는 소변으로 빼주어야 하 고, 열이 조금 나는 경우에는 해독법을 써야 합니다. 만약 수포가 시원하게 돋 는다면 발산시키지도 말고 하법을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만 포룡원 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딱지가 생기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황원으 로 한두 번 하법을 쓰고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먼저 하법을 써서 하 루가 지나 수포가 전부 돋지 못하게 되었고 분포가 조밀하기까지 하니 심하면 난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잘못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창진이 낫더

라도 3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첫째는 개창이고 둘째는 옹저이며 셋째는 눈의 충혈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치료하지 못했고, 3일이 지나 수포가 검게 함몰되었다. 대왕은 다시 전 씨를 불렀다. 전 씨가 "다행히 오한이 발작하지도 않았고 증상이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드디어 백상원을 써서 치료하되 우리고와 함께 각각 한 번씩 대제(大劑)로 복용시켰더니 5일이 지나자 수포가 다시 붉어졌고 7일이 되자 나았다.

창진에 수포가 검게 함몰되는 것은 신장과 관련있다. 왕성해진 신기가 비기를 억제하여 비토가 신수를 이기지 못하면 비기가 허해지고 오한이 발작하면서 결국 난치증이 된다. 치료에 사용한 백상원은 방광부의 기운을 사해주는 약이 니 육부의 기운이 튼실하지 못하면 오장의 기운이 저절로 왕성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어째서 왕성해진 신기를 사해주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신장은 허증을 주관하고 사하지 않는 장부입니다. 만약 두 번 복용시켜도 효 과가 없었다면 오한이 심해지다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皇都徐氏子三歲,病潮熱,每日西則發搖,身微熱而目微邪<sup>24</sup>,反<sup>25</sup>露睛,四肢冷而喘,大便微黃. 錢與李醫同治. 錢問李曰,病何搐也,李曰,有風. 何身熱微溫,曰,四肢所作. 何目斜露睛,曰,搐則目斜. 何肢冷,曰,冷厥必內熱. 曰,何喘,曰,搐之甚也. 曰,何以治之,曰,嚏驚圓鼻中灌之,必搐止. 錢又問曰,旣謂風病,溫壯搐引,目斜露睛,內熱肢冷,及搐甚而喘,倂以何藥治之,李曰,皆此藥也. 錢曰,不然,搐者肝實也,故令搐,日西身微熱者,肺潮用事,肺主身溫且熱者,爲肺虚,所以目微斜露睛者,肝肺相勝也,肢冷者,脾虚也,肺若虚甚,<sup>26</sup>用益黃散、阿膠散,得脾虛證退,後以瀉青圓、導赤散、凉驚圓治之,後九日平愈.

황도(皇都)에 사는 서씨의 3살 된 아들이 조열을 앓았다. 매일 해질녘에 경축 이 발작하고 몸통이 약간 뜨뜻하면서 눈도 약간 사시가 되고, 흰자위가 드러났 으며 사지가 차갑고 숨을 헐떡거리며 대변은 약간 황색이었다. 전 씨가 이 의 원과 함께 치료하러 갔다. 전 씨가 이 의원에게 묻기를 "이 병에 경축이 왜 생 기는가?"라고 하니 이 의원이 "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전씨가 "왜 몸통이 뜨겁거나 약간 뜨뜻한가?"라고 하니 이 의원이 "사지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27"라고 하였다. 전씨가 "왜 눈이 사시가 되고 흰자위가 드러나는 가?"하니 이 의원이 "경축이 있으면 눈도 사시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 다. 전씨가 "왜 사지가 차가운가?"라고 하니 이 의원이 "사지 끝이 차가워져서 필시 몸속에 열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왜 숨을 헐 떡이는가?"라고 하니 이 의원이 "경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라고 하니 이 의원이 "체경원을 콧속에 넣으 면 경축이 그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가 얼마 후 묻기를 "자네는 풍증 이라고 했다. 몸통이 꽤나 따뜻하며 경축이 있고 눈이 사시가 되며 흰자위가 드러나고 몸속에 열이 있으나 사지는 차갑고 경축이 심할 때는 숨을 헐떡인다 면 이런 증상들을 어떤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가?"라고 하니 이 의원은 "역시 체경원을 써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는 "그렇지 않다. 경축은 간장이 실 하기 때문에 생긴다. 해질녘에 몸통이 살짝 뜨뜻한 증상은 폐장이 일정한 시간 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폐장은 몸통이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는 증상을 주관 하니 이 증상은 폐장이 허하여 생긴다. 눈이 약간 사시가 되고 흰자위가 드러 나는 증상은 간장과 폐장의 기운이 모두 왕성하기 때문이다. 사지가 차가운 증 상은 비장이 허하기 때문이다. 폐장이 매우 허해지면 모격인 비장도 허약해지

고 간목의 기운이 비토를 억누르기 때문에 사지가 차가워지는 것이다. 치료할 때는 마땅히 익황산 · 아교산을 먼저 써서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증상이 괜찮 아진 후에 사청원 · 도적산 · 양경원을 써서 치료하면 9일 정도 지난 후에 평소 처럼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監簿子五歲, 夜發熱, 曉卽如故, 衆醫有作傷寒者, 有作熱治者, 以凉藥解之不愈, 其候多涎而喜睡, 他醫以鐵粉圓下涎, 其病益甚, 至五日, 大引飲. 錢氏曰, 不可下之, 乃取白朮散末, 煎一兩, 汁三升, 使任其意, 取足服. 朱生曰, 飲多不作瀉否. 錢曰, 無 生水, 下<sup>28</sup>能作瀉, 縱瀉不足怪也, 但不可下耳. 朱生曰, 先治何病. 錢曰, 止渴治痰, 退熱清袖裹<sup>29</sup>, 皆此藥也. 至晚服盡, 錢看之曰, 更可服三升, 又煎白朮散三升, 服盡 得稍愈, 第三日又服白朮散三升, 其子不渴無涎, 又投阿膠散二服而愈.

주 감부(監簿)의 5살 된 아들이 밤에 열이 나다가 새벽이 되면 정상이 되었다. 여러 의원들 중에는 상한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열을 치료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마침내 서늘한 약재로 열을 풀려고 했으나 좋아지지 않았고, 입에서 담연을 많이 흘리면서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이 있었다. 다른 의원이 철분원으로 담연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5일 째가 되자 갈증이 매우 심해졌다. 전 씨가 "하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백출산을 가루 내어물 1냥에 넣고 달인 물 3되를 먹고 싶은 만큼 먹여서 충분히 복용시켜야 합니다."고 말하였다. 주 감부가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니, 전 씨는 "맹물이 아니므로 설사를 하지 않으며 혹시나 설사를 하더라도 불길한 증상은 아닙니다. 다만 하법 만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주 감부가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가?"하고 말하니 전 씨는 "갈

증을 없애려면 담연을 치료해야 하고 열을 떨어뜨리려면 정신을 맑게 해야 하니 둘다 이 약을 써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저녁까지 약을 모두 먹인 후 전씨가 아이를 살펴보며 "약 3되를 다시 한번 먹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백출산을 달인 물 3되를 모두 복용시키자 점점 좋아졌다. 3일 째 되는 날 다시백출산 달인 물 3되를 복용시키자 그 아이는 갈증도 없어지고 담연도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아교산을 두 번 복용시키니 나았다.

朱監簿子[三<sup>30</sup>歲],忽發熱,醫曰,此心熱,顋赤而脣紅,煩燥引飲,遂用牛黃圓三服,以一物瀉心湯下之,來日不愈,反加無力而能<sup>31</sup>食,又<sup>32</sup>,便利黃沫.錢曰,心經虚而有留熱在內,必被凉藥下之,致此虚勞之病也.錢先用白朮散,生胃中津,後以生犀散治之.朱曰,大便黃沫如何.曰,胃氣正,卽瀉自止,此虛熱也.朱曰,醫用瀉心湯何如.錢曰,瀉心湯者,黃連性寒,多服則利,能寒脾胃也.坐久,衆醫至,曰實熱,錢曰虛熱,若寒<sup>33</sup>熱,何以瀉心湯下之不安,而又加面黃頰赤,五心煩燥,不食而引飲.醫曰,旣虛熱,何大便黃沫.錢笑曰,便黃沫者,服瀉心湯多故也.錢後與胡黃連圓治愈.

주 감부(監簿)의 5살 된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났다. 어떤 의원이 "이는 심장의열 때문에 뺨이 붉어지면서 입술이 빨갛게 되고 번조증이 생겨서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드디어 우황원을 3번 복용시키고 일물 사심탕으로 하법을 썼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어도 좋아지지 않은 채 도리어 무기력해지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증상까지 더해졌고, 다시 한번 하법을 썼더니 누런 거품 같은 대변을 지렸다. 전 씨는 "심장의 경맥이 허하고 열이 아직 몸속에 남아 있으니 이는 분명 서늘한 약재로 하법을 써서 허로가 생겼기 때문

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전 씨는 우선 백출산을 써서 위부에 진액이 생기게 한후에 생서산을 써서 치료하였다. 주 감부가 "대변이 누런 거품으로 나온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물으니, 전 씨는 "위부의 기운이 정상이었다면 설사가 저절로 멎었겠지만 이 아이는 허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주 감부가 "다른 의원이 사심탕을 쓴 것은 어땠는가?"라고 물으니 전 씨는 "사심탕의 황련은 약성이 차가워서 많이 복용하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고 비위의 기운까지 차갑게 만듭니다."라고 답하였다. 한참 앉아있으니 다른 의원들이 도착해서는 "실열입니다."라고 하자, 전 씨는 "허열일세. 만약 실열이라면 왜 사심탕으로 하법을 써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게다가 얼굴이 누레지고 뺨이 붉어지며 오심번열과 번조증이 생기고 음식은 먹지 못하면서 물만 찾고있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그 의원이 "허열이라면 왜 누런 거품을 설사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전 씨가 웃으며 "누런 거품을 설사하는 이유는 사심탕을 많이 복용시켰기 때문이네."라고 하였다. 전 씨가 그 후에 호황련원을 먹여 치료하게 하였더니 나았다.

張氏三子病, 歲大者汗遍身, 次者上至頂, 下至胷, 小者但額有汗, 衆醫以麥煎散治之, 不效. 錢曰, 大者與香瓜圓, 次者與益黃散, 小者與石膏湯, 各五日而愈.

장씨의 아들 삼형제가 병에 걸렸다. 첫째는 온몸에 땀이 났고, 둘째는 정수리에서 가슴까지만 땀이 났으며, 막내는 이마에만 땀이 났다. 여러 의원들이 맥전산을 써서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전 씨가 "첫째는 향과원을 먹이고, 둘째는 익황산을 먹이고, 막내는 석고탕을 먹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셋 다 각각 5일 정도 먹이니 나았다.

廣親宅四大王宮五太尉,病吐瀉不止,水穀不化,衆醫用補藥,言用薑汁調服之,六月中服溫藥,一日血<sup>34</sup>加喘,吐不定.錢曰,當用凉藥治之,所以然者,謂傷熱在內也,用石膏湯三服,倂服之.衆醫皆言吐瀉多而米穀不化,當補脾,何以用凉藥,王信衆醫.又用<sup>35</sup>丁香散三服.錢後至曰,不可服此,三日外必腹滿身熱,飲水吐逆.三日外一如所言,所以然者,謂六月熱甚,伏入腹中,而令引飲,熱傷脾胃,即大吐瀉,他醫又行溫藥,即上焦亦熱,故喘而引飲.三日當死,衆醫不能治,復召錢至宮中,見有熱證,以白虎湯三服,更以白餅子下之,一日減藥二分,二日三日又與白虎湯各二服,四日用石膏湯一服,旋合麥門冬黃苓<sup>36</sup>腦子牛黃天竺黃茯苓,以朱砂爲衣,與五圓,竹葉湯化下,熱退而安.

광친택(廣親宅) 사대왕궁(四大王宮)의 다섯째 태위(太尉)가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병에 걸렸다. 여러 의원들이 보하는 약을 쓰면서 생강즙을 타서 복용시키라고 말하였다. 6월 한여름에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복용시키니 하루가 지나자 숨을 헐떡거리는 증상까지 생겼고 구토도 진정되지 않았다. 전 씨가 "서늘한 성질의 약재로 치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사에 상한 후 열사가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석고탕 3번 복용량을 모두 먹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들 "구토와 설사를 계속하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니 당연히 비위를 보해야 하거늘 어찌 서늘한 성질의 약재를 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대왕은 그 의원들의 말을 선택하였다. 그러고 나서 보비산 \* 정향산을 세 번 복용시켰다. 전 씨가 나중에 도착하여 "이 약을 복용시키면 안 됩니다. 3일 후에는 필시 배가 그득해지고 몸통에 열이 나면서 마실 것을 찾고 구역질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3일 후에 과연 그 말과 똑같이 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이렇다. 6월에 열기가 극심할 때 열사가 뱃속에

잠복하게 되면 물을 자꾸 마시게 만든다. 열사가 비위를 손상시키면 구토와 설사가 심하게 한다.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썼으니 금세 상초까지 뜨거워지게 되어 숨을 헐떡이고 물을 찾았던 것이다. 3일 후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의원들이 더이상 치료하지 못하여 다시 전 씨를 궁궐로 불렀고, 전 씨가 살펴보니 열증이 있었다. 그래서 백호탕을 세 번 복용시키고 그다음 백병자로 하법을 썼다. 다음 날에는 분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백호탕을 각각 두 번씩 먹였으며, 다섯째 날에는 석고탕을한 번 복용시키자마자 맥문동、황금、용뇌、우황、천축황、복령을 합하고주사를 겉에 입힌 것 5환을 죽엽탕에 녹여서 넘기게 했더니 열이 떨어지면서편안해졌다.

馮承務子五歲, 吐瀉壯熱, 不思食. 錢曰, 目中黑睛少而白睛多, 面色㿠白, 神怯也. 黑睛少, 腎虚也, 黑睛屬水, 本怯而虚, 故多病也. 縱長成, 必肌膚不壯, 不耐寒暑, 易虚易實, 脾胃亦怯, 更不可縱酒慾. 若不保養, 不過壯年. 面上常無精神光澤者, 如婦人之失血也. 今吐利不食壯熱者, 傷食也, 不可下, 下之虚, 入肺則嗽, 入心則驚, 入脾則瀉, 入腎則益虚, 此但以消積圓磨之, 爲微有食也. 如傷食甚, 則可下, 不下則成癖也. 實食在內, 乃可下之, <sup>37</sup>畢, 補脾必愈, 隨其虛實者<sup>38</sup>, 無不效者.

풍 승무(承務)의 5살 된 아들이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열이 펄펄 끓고 음식 먹으려 하지 않았다. 전 씨는 "눈의 검은자위가 작아지고 흰자위가 많아졌으며얼굴도 창백하고 정신도 허약해졌습니다. 검은자위가 작아진 이유는 신기가허해져서입니다. 검은자위는 신수(腎水)에 속하는데 선천적으로 신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병에 자주 걸릴 것입니다. 아마 어른이 되더라도 피부가 튼튼하지

못해 추위나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할 것이며, 쉽게 허증이 생겼다가 또 쉽게 실증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비위도 허약해서 마음대로 주색을 탐하는 일은 특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보호하면서 키우지 못한다면 청년 나이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얼굴에 생생함이나 광택이 나타난 적이 없는 것은 부인의 실혈증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지금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열이 심한 증상은 음식에 손상되었기 때문이지만 하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법을 써서 더욱 허해졌을 때 병사가 폐장으로 들어가면 해수가 되고, 심장으로 들어가면 경풍이 되고, 비장으로 들어가면 설사가 되고, 신장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허해집니다. 이 증상에는 그저 소적원을 갈아서 먹여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음식에 손상된 정도가 심하다면 하법을 써야하나 이때 하법을 쓰지 않으면 벽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뱃속에 가득 있으니 하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하법을 쓰고 난 후에 비장을 보하면 증상이 분명 좋아질 테고 그다음 허증과 실증에 따라 치료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廣親宮七太尉七歲, <sup>39</sup>吐瀉, 是時七月, 其證全不食而昏睡, 睡覺而悶亂哽氣, 乾 喊<sup>40</sup>, 大便或有或無, 不渴, 衆醫作驚治之, 疑睡故也. 錢曰先補脾, 後退熱. 與史君子圓補脾, 退熱石膏湯, 次日又以水銀硫黃二物下之, 生薑水調下一字. 錢曰, 凡吐瀉, 五月內九分下而一分補, 八月內十分補而無一分下, 此者是脾虛瀉, 醫妄治之, 至於虛損, 下之卽死, 當卽補脾, 若以史君子圓卽緩. 錢又留溫胃益脾藥止之. 醫者李生曰, 何食而啘<sup>41</sup>. 錢曰, 脾虛而不能食, 津少卽啘逆. 曰, 何瀉靑褐水. 曰, 腸胃至虚, 冷極故也. 錢治而愈.

광친궁(廣親宮)의 일곱째 태위(太尉)가 7살인데 구토와 설사를 했다. 이때는 7 월이었다. 증상으로는 전혀 먹지 못한 채 까라져 잠만 자고, 잠이 깨서는 가슴 을 답답해하고 목이 메이면서 구역질을 하고, 대변을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었으며, 갈증은 없었다. 여러 의원들이 경풍으로 생각하여 치료했으니 아마 잠만 자려고 하는 증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 씨는 "우선 비장을 보한 후에 열 을 떨어뜨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사군자원을 먹여 비장을 보한 후에 석 고탕을 써서 열을 떨어뜨리게 했고, 다음날에는 수은과 유황을 추가하여 생강 달인 물에 타서 1자 분량을 넘기게 하였다. 전 씨는 "대체로 구토와 설사 증상 이 있을 때 5월까지는 대부분 하법을 써야 하지만 1할 정도는 보법을 써야 하 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모두 보법을 써야 하며 하법을 써야 하는 경우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비장이 허해서 생긴 설사를 의원이 함부로 치료했다가 허 손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 지경에서 하법까지 쓰면 곧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비장을 보해주어야 하니 사군자원 같은 약으로 천천히 보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전 씨는 또 계속 위부를 따뜻하게 하고 비기를 더하는 약을 사용하여 증상을 먹게 하였다. 의원인 이 생원이 "왜 먹기만 하면 구역질을 하는가?"하고 묻자, 전 씨는 "비장이 허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면 진 액이 적어져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왜 청갈색의 물 같은 설사. 를 하는가?"하고 묻자, 전 씨는 "비위가 너무 허해져서 뱃속의 냉기가 극심해 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전 씨가 그렇게 치료했더니 나았다.

黃承務子二歲,病瀉,衆醫止之,十餘日,其證便靑白,乳物不消,身凉,加哽氣昏睡, 醫謂病困篤. 錢氏先以益脾散三服,補肺散三服,三日,身溫而不哽氣,後以白餅子 微下之,與益脾散二服,利止. 何以然,利本脾虛傷食,初不與大下,接<sup>42</sup>置十日,上 實下虛, 脾氣弱, 引肺亦虛, 補脾肺, 病退卽溫, 不哽氣是也. 有所傷食, 仍下之也. 何不先下後補. 曰, 便靑爲下藏冷, 先下必大虛, 先實脾肺, 下之則不虛, 而後更補之也.

황 승무(承務)의 2살 된 아들이 설사병에 걸렸다. 여러 의원들이 설사를 멎게 해보려고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10일 정도 지나자 청백색의 소화되지 않은 젖을 설사하고 몸통이 차가운 증상에 더하여 목이 메이고 까라져서 자는 증상 까지 생겼고 의원들은 증상이 심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 씨가 우선 익비산 을 3번 복용시킨 후 보폐산을 3번 복용시켰더니 3일 후에는 몸통이 따뜻해지 고 목이 메이지 않게 되었다. 그 후에 백병자로 살짝 하법을 썼다가 익비산을 2 번 먹였더니 설사가 먹었다. 어째서인가? 설사는 본래 비장이 허하거나 음식 에 손상되었을 때 생기는 법이다. 애초부터 크게 설사시키는 약을 먹이지는 않 은 채 10일 정도 조치하여 상부는 실하고 하부는 허해졌고, 결국 비기가 허약 해지면서 폐기까지 허해진 것이다. 비기와 폐기를 보해주니 증상이 완화되면 서 몸이 따뜻해지고 목이 메이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음식에 손상된 경우에 는 거듭 하법을 써야 한다. 왜 먼저 하법을 쓰고 나중에 보법을 쓰지 않았느냐 고 묻는다면 "푸른 설사를 하는 이유는 하부의 오장이 차갑기 때문이니 먼저 하법을 쓴다면 필시 너무 허해질 것이다. 우선 비장과 폐장을 튼실하게 만들고 그다음 하법을 쓰면 허해지지 않으니 그 후에 다시 보법을 쓰면 된다."고 답할 수 있겠다.

睦親宮中十大王瘡疹. 云瘡疹始終出, 未有他證, 不可下, 但當用平和藥, 頻與乳食, 不受風冷可也. 如瘡疹三日不出, 或出不快, 即微發之, 如瘡發後不多出, 即加藥, 加藥不出, 即大發之, 如發後不多, 及脉平無證, 即瘡本稀, 不可更發也. 有大熱者, 當

利小便, 小熱者, 當解毒. 若不快, 勿發勿下攻, 止用抱龍圓治之. 瘡疹若起, 能食者, 大黃圓下一二行, 卽止. 有大熱者, 當利小便, 有小熱者, 宜解毒, <sup>43</sup> 若黑紫乾陷者, 百样圓下之, 不黑者, 甚<sup>44</sup>勿下. 身熱煩燥, 腹滿而喘, 大小便濇, 面赤悶亂, 大吐, 此當利小便, 不瘥者, 宣風散下之也. 若五七日痂不焦, 是內發熱氣, 蒸於皮中, 故瘡不得焦痂也. 宜宣風散導之, 用生犀角磨汁解之, 使熱不生, 必着痂矣.

목친궁(睦親宮)의 열째 대왕(大王)이 창진에 걸렸다. 전 씨가 일러주기를 "처 음이든 나중이든 수포가 돋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하법을 써서는 안 됩니 다. 그저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약재를 쓰면서 자주 젖이나 음식을 먹이고 풍 사나 냉기를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3일째에도 수포가 돈 지 않거나, 혹은 돋긴 돋았지만 시원하게 돋지 않으면 살짝 발산시켜야 합니 다. 만약 창진에 걸린 후에 수포가 많이 돋지 않으면 발산시키는 약의 분량을 늘리고, 약의 분량을 늘려도 수포가 잘 돋지 않으면 크게 발산시켜야 합니다. 만약 발산시킨 후에도 많이 돋지 않고 맥이 평온하면서 다른 증상이 없으면 본 래부터 수포가 많이 나지 않는 창진이므로 다시금 발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열 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소변으로 열을 빼주어야 하고, 열이 조금 나는 경우에 는 열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포가 시원하게 돋지 않으면 발산시키지 도 말고 강하게 하법을 쓰지도 말아야 하니 다만 포룡원을 써서 치료하면 됩니 다. 창진에 수포가 돋았는데도 음식을 잘 먹는 경우에는 대황원으로 한두 번 하법을 쓰면 증상이 멎습니다. 만약 수포가 흑자색으로 마르면서 함몰되는 경 우에는 백상원으로 하법을 쓰고, 까맣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법을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몸통이 뜨겁고 번조증이 있으며 배가 그득하고 숨을 헐떡이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얼굴이 붉으며 가슴을 답답해하고 심하게 구토하는

경우에는 소변으로 열독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선풍산으로 하법을 써야 합니다. 만약 5 - 7일이 되어도 딱지가 마르지 않는 경우는 몸속에 열독이 발작하여 피부를 뜨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포의 딱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선풍산을 써서 열독을 배출시키고 생서각 간 즙을 써서 열독을 풀어주면 열이 다시 생기지 않게 되어 필시 수포가 마르면서 딱지가 앉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辛氏女子<sup>45</sup>五歲,病虫痛,諸醫以巴豆乾漆碙砂之屬治之不效,至五日外,多哭而俛仰,睡臥不安<sup>46</sup>,自按心腹,時大呌,面無正色,或靑或黃,或白或黑,目無光而慢,脣白吐沫,至六日,胃高而臥轉不安.召錢至,錢詳視之,用蕪荑散三服,見目不除靑色,大驚曰,此病大困,若更加瀉,則爲逆矣.至次日,辛見錢曰,夜來三更果瀉.錢于瀉盆中看如藥汁,以杖攪之,見有丸藥.錢曰,此子肌厚,當氣實,今證反虚,不可治也.辛曰,何以然.錢曰,脾虛胃冷則虫動,而今反目靑,此肝乘脾,又更加瀉,知其氣極虚也,而丸藥隨糞下,卽脾胃已脫,兼形病不相應,故知死病.後五日昏篤,七日而死.

신 씨의 5살된 딸에게 충통(虫痛)이 생겼다. 여러 의원들이 파두ㆍ건칠ㆍ망사 같은 약재를 써서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5일이 지나자 계속 울면 서 벌러덩 누운 채 손으로 배를 문지르고 가끔씩 크게 비명을 질렀고, 얼굴은 핏기가 없이 푸르거나 누렇거나 희거나 거무스름해지거나 했고, 눈은 생기가 없으면서 천천히 움직였으며, 입술이 하얗게 질리면서 거품을 토했다. 6일이 지나자 가슴이 부풀고 누워있을 때 데굴데굴 구르며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었 다. 전 씨를 불러 왔더니 전 씨가 자세히 살펴보고는 무이산을 3번 복용시켰다. 그래도 눈에 푸른빛이 없어지지 않자 전 씨가 크게 놀라며 "이 증상은 매우 위 험합니다. 만약설사까지 하게 되면 불치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이 되자 신 씨가 전 씨에게 찾아가 "밤에 삼경이 되자 결국 설사를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전 씨는 설사가 담긴 그릇을 마치 탕약처럼 살펴보면서 막대기로 휘젓다가 환약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 씨가 "이 아이는 살집이 많아서 당연히 기운이 튼실해야 하는데 지금 증상들은 도리어 허증이니 치료할 수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신씨가 "어째서 그렇습니까?"라고 물으니, 전 씨가 "비장이 허하고 위부가 차가우면 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눈이 푸르게 되었으니 이는 간목이 비토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시 설사까지 했다면 비기가 극심하게 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약이 설사와 함께 나왔으니 비위의 기운이 이미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몸의 형태에 맞는 증상과 몸속의 상태가 걸맞지 않기 때문에 죽을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 아이는 5일 후에 혼절하였고 7일째 죽었다.

段齋郎子四歲,病嗽,身熱吐痰,數日而咯血,前醫以桔更<sup>47</sup>湯及防己圓治之不愈, 涎上攻,吐喘不止.請錢氏,下褊銀圓一大服,復以補肺湯<sup>48</sup>、補肺<sup>49</sup>散治之.或問 段氏子咯血肺虚,何以下之.錢曰,肺雖咯血,有熱故也.久則虛痿,今涎上潮而吐, 當下其涎,若不<sup>50</sup>吐涎,則不甚便,蓋吐涎能虚,又生驚也.痰實上攻,亦能發搐,故 依法只宜先下痰,而後補脾肺,必涎止而吐愈,爲順治也.若先補其肺,爲逆耳,此所 謂識病之輕重先後爲治也.

단 재랑(齋郎)의 4살 된 아들이 해수에 걸려서 몸통이 뜨겁고 가래를 토하더니 며칠 후에는 각혈까지 했다. 처음 불렀던 의원은 길경탕과 방기원으로 치료했 으나 낫지 않았고, 담연이 울컥 올라오고 구토와 헐떡거림이 멎지 않게 되었 다. 전 씨에게 치료를 청하자 편은원 1환을 대제(大劑)로 만들어 넘기게 한 다 음 보폐산과 포비산을 써서 치료하였다. 혹자가 묻기를 "단 재랑의 아들은 각 혈한 것으로 보아 폐기가 허한데 어째서 하법을 썼습니까?"라고 하니, 전 씨는 "폐장 때문에 각혈을 했더라도 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 지나면 폐기가 허 약해질 테지만 지금은 담연이 울컥 올라오고 구토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담연 부터 배출시켜야 한다. 만약 계속 담연을 토하게 되면 잘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담연을 토하다가 폐기가 더 허해졌다면 경풍까지 생길 수 있고, 담연이 실하여 울컥 올라오게 되면 축닉도 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에 따라 우 선 담연을 배출시킨 다음에 비장과 폐장을 보한다면 분명히 담연도 멎고 구토 도 좋아지면서 순조롭게 치료된다. 만약 폐기 보하는 것을 먼저 했다면 불치증 이 되었을 것이다. 이 원리가 이른바 증상의 경중과 선후를 숙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鄭人齊郎中者,家好收藥散施,其子忽藏熱,齊自取青金膏三服,并一服餌之,服畢,至三更,瀉五行,其子困睡,齊言子睡多驚,又與青金膏一服,又瀉三行,加口乾身熱.齊言尚有微熱未盡,又與靑金膏,其妻曰,用藥十餘行未安,莫生他病否,召錢氏.至日,已成虛羸,先用前51白朮散,時時服之,後服香苽圓,十三日愈.

정나라 지역 사람인 제 낭중(郎中)은 약재를 사들여 주변에 나누어주는 일을 좋아하는 집안의 사람이다. 그의 아들이 갑자기 오장에 열이 나서 제 낭중은 직접 청금고 3번 복용량을 꺼내 한번에 모두 먹였다. 모두 먹인 후에 한밤중이되자 아들이 설사를 5번 하더니 지쳐 잠들었다. 제 낭중은 "아들이 자다가 계속 경기를 일으키기에 청금고를 한 번 더 먹였더니 다시 설사를 3번 하고는 입이 바싹 마르고 몸통이 뜨거워졌네."라고 말하였다. 제 낭중은 아직 미열이 남아있어 다시 청금고를 먹이자고 했으나 그의 아내가 "약을 열 번 정도 썼는데도 좋아지지 않았으면 다른 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하고 말하며 전 씨를 불렀다. 전 씨가 도착하여 "이미 허약해지고 여위었으니 우선 백출산을 많이 달여서 자주 복용시키다가 그 후에 향과원을 복용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13일을 치료하니 나았다.

曹宣德子三歲, 面黃, 時發寒熱, 不欲食, 而飲水及乳, 衆醫以爲潮熱, 用牛黃圓、麝香圓不愈, 及以止渴乾葛散服之, 反吐. 錢曰, 當下白餅子, 後補脾, 乃以消積圓磨之, 此乃癖也. 後果愈, 何以故. 不食但飲水者, 食伏於管內不能消, 致令發寒, 服止渴藥吐者, 以藥衝<sup>52</sup>故也, 下之卽愈.

조 선덕(宣德)의 3살 된 아들이 얼굴이 누렇게 뜨고 가끔씩 오한발열이 나면서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물이나 젖만 먹으려고 했다. 여러 의원들이 조열(潮熱)이라고 생각하여 우황원 · 사향원을 썼으나 좋아지지 않았고 지갈건갈산을복용시키자 오히려 구토까지 생겼다. 전 씨는 "당연히 백병자로 하법을 쓴 후에 소적원을 갈아서 먹여 비기를 보해야 합니다. 이 병은 벽적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치료한 후에 과연 좋아졌으니 왜 그런 것인가. 음식을 먹지 않

고 물만 마시려는 증상은 음식이 몸속에 남은 채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결국 한증을 발작하게 만든다. 갈증을 없애는 약을 복용시키자 구토한 이유는 약이 비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하법을 쓰니 증상이 곧 좋아졌다.

OF ORIENZA

### 錢氏小兒病<sup>53</sup>證直訣卷中 [終]

#### 소아약증직결 권중 [끝]

- <sup>1</sup>. 午前: ☞ ※취진본 ←
- 2. 机子: ☞杌子 ※취진본 ←
- 3. 語: ☞午 ※취진본 ←
- 4. 或作胎驚癎: ☞或作驚癎 ※문맥상 ←
- 5. ⑪: ☞嫩 ※취진본 ←
- 6. 胃:腎※취진본←
- <sup>7</sup>. 글자없음 : \*何 ※취진본 ←
- 8. 緊:☞噤 ※취진본 ↔
- <sup>9</sup>. 글자없음 : \*尙 ※취진본 ←
- 10. ⑩ : ☞東 ※취진본 ←
- <sup>11</sup>. 搐 : ☞ ※문맥상 ←

- 12. 今: ☞ 令 ※취진본 ←
- 13. 肺之病: ☞ ※취진본 ↔
- 14. 瀉: 散之 ※취진본 ←
- <sup>15</sup>. 熱: 絶 ※취진본 ←
- OF ORIENTAL 16. ⊕, ⊕ : ☞熱, 何 ※취진본
- <sup>17</sup>. 云: ☞方 ※취진본 ←
- 18. 呼: ☞呵 ※취진본 ←
- 19. 痺: ※취진본 ←
- <sup>20</sup>. 以 : 已 \*문맥상 ←
- 21. : ☞助, 各一大服, 至五日間, 瘡復紅活, 七日而愈 ※취진본 ←
- <sup>22</sup>. 若:蓋※취진본**←**
- <sup>23</sup>. 王: 旺 ※취진본 **←**
- 24. 邪: ☞斜 ※취진본 ←
- 25. 反: ☞及 ※취진본 ←
- <sup>26</sup>. 글자없음 : \*母脾亦弱, 木氣乘脾, 四肢卽冷. 治之當先 ※취진본 ↔
- <sup>27</sup>. 사지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 '사지소작(四肢所作)'의 의미는 잘 모르겠 다. ←

- <sup>28</sup>. 下: ☞不 ※취진본 ←
- 29. 袖裏: ☞神 ※취진본 ↔
- <sup>30</sup>. 三 : ☞五 ※취진본 ←
- 31. 能: ☞不能 ※취진본 ←
- OF ORIENTAL <sup>32</sup>. 글자없음 : \*下之 ※취진본·
- <sup>33</sup>. 寒 : ☞實 ※취진본 ←
- 34. 血: ☞而 ※취진본 ←
- 35. 글자없음 : \*補脾散 ※취진본 ←
- 36. 촊 : ☞芩 ※취진본 ←
- <sup>37</sup>. 글자없음 : 下※취진본←
- <sup>38</sup>. 者: ☞ ※취진본 ←
- <sup>39</sup>. 글자없음 : 病 ※취진본 ←
- <sup>40</sup>. 噦 : 嘔 ※취진본←
- <sup>41</sup>. 啘: 噦 ※취진본 ←
- 42. 揞: ☞措 ※취진본 ←
- <sup>43</sup>. 有大熱者, 當利小便, 有小熱者, 宜解毒, : ☞ ※연문 ←
- 44. 甚: ☞愼※문맥상 ←

- <sup>45</sup>. 子: 年 ※취진본 ←
- <sup>46</sup>. 俛仰, 睡臥不安: ☞仰臥 ※취진본 ←
- <sup>47</sup>. 更:梗※취진본←
- 48. 湯: ☞散 ※취진본 ←
- 49. 肺: ☞脾 ※취진본 ↔
- 50. 不: ☞爲 ※취진본 ←
- <sup>51</sup>. 用前: ☞多煎 ※취진본 ←
- <sup>52</sup>. 글자없음 : \*脾 ※취진본 ←
- 53. 病:◎藥 ←

# 錢氏小兒藥證<mark>目錄<sup>1</sup>卷下 소아약증</mark>직결 권하

1. 目錄: ☞直訣 ※서명 ←

# 方劑 방제



### 大靑膏 대청고

治小兒熱盛生風,欲爲驚搐,血氣未實,不能勝邪,故發搐也,大小便依度,口中氣熱,當發之.

열이 왕성하여 풍이 생겼다가 경축이 되려고 하는 소아를 치료한다. 소아는 혈과 기가 영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이기지 못하므로 경축이 발작하는 것이다. 대소변은 평소와 비슷하고 입속의 숨이 뜨거운 경우에는 발산시켜야 한다.

天麻(末) 壹錢, 白附子(末生) 壹錢伍分, 靑黛(硏) 壹錢, 蝎尾(去毒, 生末)、烏蛇稍肉 (酒浸焙乾, 取末) 各壹錢, 硃砂(硏)、天竺黃(硏)、 $^1$ .

천마(가루 낸다) 1돈, 백부자(가루 낸 후 익히지 않고 쓴다) 1.5돈, 청대(간다) 1 돈, 갈미(독성을 제거한 후 생째 가루 낸다) · 오사초육(술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려 가루 낸다) 각 1돈, 주사(간다) · 천축황(간다) · 사향(간다) 각 1자(字).

右同再研細,生蜜和成膏,每服半皂子大至一皂子大,月中兒粳米大,同牛黃膏溫薄荷水化一處服之,五歲已上,同甘露散服之.

이상의 약재를 한꺼번에 다시 곱게 간 후 생꿀과 섞어 고약처럼 만든다. 한 번복용할 때 조각자 절반 크기에서 조각자 크기만큼(생후 1달된 아이는 갱미만큼) 우황고와 함께 따뜻한 박하 달인 물에 녹여 한 번에 모두 복용시킨다. 5살이상은 감로산과 함께 복용시킨다.

 $^{1}$ . 글자없음 : \*麝香(硏) 各一字ヒ ※취진본  $\hookrightarrow$ 



### 凉驚圓 양경원

#### 治驚疳.

경감(驚疳)을 치료한다.

草龍膽、防風、靑黛 各參錢, 鉤藤 貳錢, 黃連 伍錢, 牛黃、麝香、龍腦 各壹匙.

초룡담 · 방풍 · 청대 각 3돈, 조구등 2돈, 황련 5돈, 우황 · 사향 · 용뇌 각 1술.

麪糊圓粟米大. 每服參伍圓, 金銀花湯下.

이상을 밀가루 풀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 - 5환씩 금은화탕으로 넘긴다.

### 粉紅圓 [又名溫驚圓] 분홍원 [온경원]

天南星(臘月釀牛膽中百日, 陰乾取末肆兩, 別研, 如釀者只剉炒熟用), 硃砂 壹錢伍分(研), 天竺黃 壹兩(研), 龍腦 半匙(別研), 坯子胭脂 壹錢(研. 乃染胭脂).

천남성(섣달에 소의 쓸개에 넣고 100일 동안 숙성시키면서 그늘에서 말린 후 가루 낸 것 4냥을 따로 간다. 잘 숙성된 것은 그냥 잘게 썰고 볶아서 익힌 것을 쓴다), 주사 1.5돈(간다), 천축황 1냥(간다), 용뇌 0.5술(따로 갈아 둔다), 배자연지(坯子胭脂) 1돈(간다. 물들일 때 쓰는 연지이다).

右用牛膽汁和圓鷄頭大,每服一圓,小者半圓,沙糖溫水化下.

이상을 우담즙에 개어 계두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환(작은 아이는 0.5환)씩 사당(沙糖)을 탄 따뜻한 물에 녹여서 넘긴다.

### 瀉靑圓方 사청원 처방

治肝熱搐搦,脉洪實.

간장의 열로 축닉이 발작하고 맥상이 홍실(洪實)한 경우를 치료한다.

當歸(去蘆頭, 切焙稱)、龍腦(焙稱)、川芎、山梔子仁、川大黃(濕帋褁煨)、羌活、 防風(去蘆頭, 切焙秤).

당귀(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 용되(곁불에 말린다) · 천궁 · 산치자인 · 천대황(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 강활 · 방풍 (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右件等分爲末,鍊蜜和圓鷄頭大,每服半圓至壹圓,煎竹葉湯同沙糖溫水化下.

이상의 약재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계두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0.5 - 1환씩 사당(沙糖)을 녹인 죽엽탕에 따뜻할 때 녹여서넘긴다.

### 地黃圓 지황원

治腎怯失音, 頗開不合, 神不足, 目中白晴多, 面色㿠白等方.

신기가 허약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숫구멍이 열린 채 닫히지 않거나 정 신이 부족하거나 눈에 흰자위가 많거나 낯빛이 창백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처 방이다.

熟地黃、山萸肉、乾山藥 各肆錢, 澤瀉、牡丹皮、白茯苓(去皮) 各參錢.

숙지황 · 산수유(과육) · 산약(말린 것) 각 4돈, 택사 · 목단피 · 백복령(껍질을 제거한다) 각 3돈.

右爲末,煉蜜圓如梧子大,空心溫水化下三圓.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빈속에 따뜻한 물로 녹여서 3환씩 넘긴다.

### 瀉白散 [又名瀉肺散] 사백산 [사폐산]

治小兒肺盛, 氣急喘嗽.

소아의 폐기가 왕성하여 숨이 급하거나 숨이 넘어갈 듯이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地骨皮、桑白皮(炒) 各壹兩, 甘草(炙) 壹錢.

지골피 · 상백피(볶는다) 각 1냥, 자감초 1돈.

右剉散,入粳米壹撮,水貳小盞,煎七分,食前服.

이상을 썰고 가루 낸 후 갱미(粳米) 1활과 함께 물 2소잔(小盞)에 넣고 7할이되도록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 阿膠散 [又名補肺散] 아교산 [보폐산]

治小兒肺虚, 氣粗喘促.

폐기가 허하여 숨소리가 거칠거나 숨을 헐떡이는 소아의 증상을 치료한다.

阿膠 壹兩伍錢(麩炒), 黍粘子(炒香)、甘草(炙) 各貳錢伍分, 馬兠鈴 伍錢(焙), 杏仁七個(去皮尖炒), 糯米 壹兩(炒).

아교 1.5냥(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서점자(향이 나도록 볶는다) · 자감초 각 2.5돈, 마두령 5돈(곁불에 말린다), 행인 7개(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 후 볶 는다), 나미 1냥(볶는다).

右爲末,每服壹貳錢,水壹盞,煎至六分,食後溫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 복용할 때 1 - 2돈씩 물 1잔에 넣고 6할이 되도록 달여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導赤散 도적산

治小兒心熱, 視其睡, 口中氣溫, 或合面睡, 及上竄咬牙, 皆心熱也, 心氣熱, 則心胃亦熱, 欲言不能, 而有就冷之意, 故合面睡.

소아가 심장에 열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런 아이가 잘 때 살펴보아 입 속의 숨이 따뜻하고 간혹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자며 눈을 치껴뜨고 입을 악다문다면 이 증상들은 모두 심장의 열 때문이다. 심기가 뜨거워지면 가슴도 뜨거워져서 말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않고 차가운 곳에 가고 싶어하므로 얼굴을 바닥에대고 자는 것이다.

生地黄、甘草(生)、木通 各等分.

생지황 · 감초(생것) · 목통 각각 같은 양.

右同爲末,每服參錢,水壹盞,入竹葉同煎至五分,食後溫服.一本不用甘草,用黃<mark>苓</mark> 1

이상을 한꺼번에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물 1잔에 넣고 죽엽과 함께 5할이 되도록 달여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어떤 판본에는 감초를 쓰지 않고 황금을 쓴다고 했다.

<sup>1</sup>. 촊 : ☞芩 ※문맥상 ←



### 益黃散 [ 又名補脾散 ] 익황산 [ 보비산 ]

治脾胃虚弱,及治脾疳,腹大身瘦.

비위가 허약한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비감(脾疳)으로 배가 빵빵해지면서 몸이 마르는 경우도 치료한다.

陳皮(去白) 壹兩, 丁香 貳錢 [一方用木香], 訶子(炮, 去核)、青皮(去白)、甘草 (炙) 各伍錢.

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1냥, 정향 2돈 [ 어떤 서적에는 목향을 썼다 ], 가자 (습지에 싸서 구운 후 씨를 제거한다) · 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 자감초 각 5돈.

右爲末,三歲兒壹錢半,水半盞,煎三分,食前服.

이상을 가루 낸다. 3살 아이 기준으로 1.5돈씩 물 0.5잔에 넣고 3할이 되도록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 瀉黃散 [ 又名瀉脾散 ] 사황산 [ 사비산 ]

#### 治脾熱弄舌.

비장의 열로 생긴 농설(弄舌) 증상을 치료한다.

藿香葉 七錢, 山梔子仁 壹錢, 石膏 伍錢, 甘草 參兩, 防風 肆兩(去蘆, 切焙).

곽향엽 7돈, 산치자인 1돈, 석고 5돈, 감초 3냥, 방풍 4냥(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右剉,同蜜酒微炒香,爲細末,每服壹錢至貳錢,水壹盞,煎至五分,溫服淸汁,無時.

이상을 썬 후 꿀 · 술과 함께 향이 나도록 살짝 볶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돈씩 물 1잔에 넣고 5할이 되도록 달여 맑은 웃물을 따뜻하게 복용한다. 복용 시간은 아무 때나 상관없다.

## 白木散<sup>1</sup> 백출산

治脾胃久虚,嘔吐泄瀉,頻作不止,精液苦竭,煩渴躁,但欲飲水,乳食不進,羸瘦困劣,因而失治,變成驚癎,不論陰陽虛實並宜服.

비위가 오랫동안 허하여 구토와 설사가 자주 나면서 멈추지 않거나 정액이 고 갈되거나 번갈과 번조가 있어 계속 물을 마시려고 하거나 젖이나 음식을 넘기 지 못하거나 바싹 마르면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증 상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경간(驚癎)으로 전략한다. 음증이나 양증, 허 증이나 실증에 상관없이 복용해도 좋다.

人參 貳錢伍分, 白茯苓 伍錢, 白朮 伍錢(炒), 藿香葉 伍錢, 木香 貳錢, 甘草 壹錢, 葛根 伍錢[渴者加至壹兩].

인삼 2.5돈, 백복령 5돈, 백출 5돈(볶는다), 곽향엽 5돈, 목향 2돈, 감초 1돈, 갈 근 5돈 [ 갈증이 있으면 1냥까지 늘린다 ] .

右㕮咀, 每服參錢, 水煎. 熱甚發渴, 去木香.

이상을 거칠게 자른다.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물에 넣고 달여 복용한다. 열이 심하고 갈증이 있으면 목향을 뺀다.

1. 白木散: ☞白朮散 ※문맥상 ←



### 塗顔法 도신법(塗顔法)

麝香 壹匙, 蝎尾(去毒, 為末) 半錢 [一作半匙], 薄苛葉 半匙, 蜈蚣末、牛黃末、青黛末 各壹匙.

사향 1술, 갈미(독성을 제거하고 가루 낸다) 0.5돈 [ 어떤 책에는 0.5술이라고 되어 있다 ], 박하엽 0.5술, 오공 가루 · 우황 가루 · 청대 가루 각 1술.

右同研, 用熟棗肉劑爲膏, 新綿上塗勻, 貼顧上, 四方可出壹指許, 火上炙手頻熨, 百日內外小兒可用此.

이상을 한꺼번에 갈고 익힌 대조 과육과 섞어 고약처럼 만든 후 사용하지 않은 천 위에 골고루 발라서 숫구멍에 붙인다. 숫구멍 주위로 손가락 한 마디만큼 덮어지도록 붙여야 한다. 불로 손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 그 손으로 숫구멍을 찜질한다. 생후 100일 내외의 갓난아이에게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 浴體法 욕체법(浴體法)

治胎肥,胎熱,胎怯.

아이가 뚱뚱하게 태어나거나 태열(胎熱)이 있거나 허약하게 태어난 경우를 치료한다.

天麻末 貳錢, 全蝎(去毒, 爲末)、硃砂 各伍錢, 烏蛇肉(酒浸, 焙乾)、白礬 各貳錢, 麝香 壹錢, 青黛 參錢.

천마 가루 2돈, 전갈(독성을 제거하고 가루 낸다) · 주사 각 5돈, 오사육(술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린다) · 백반 각 2돈, 사향 1돈, 청대 3돈.

右同研匀,每用三錢,水三碗,桃枝壹握,葉伍柒枝<sup>1</sup>,同煎至十沸,溫熱浴之,勿浴背.

이상을 한꺼번에 골고루 간다. 한 번 사용할 때 3돈씩 물 3사발에 넣고 복숭아 나무 가지 1줌과 잎 5 - 7장을 넣고 함께 달이다가 10소솜 정도 끓어오르면 이 물로 따뜻하거나 뜨겁게 씻긴다. 등은 씻기지 말아야 한다.

<sup>1</sup>. 枝: ☞枚 ※문맥상 ↔

### 甘桔湯 감길탕

治小兒肺熱,手搯眉目鼻面.

폐장의 열 때문에 손으로 자꾸만 얼굴을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桔梗 貳兩, 甘草 壹兩.

길경 2냥, 감초 1냥.

右爲麁末, 每服貳錢, 水壹盞, 煎至柒分, 去滓, 食後溫服. 加荊芥、防風, 名如聖湯. 熱甚加羌活、黃芩、升麻.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 후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형개 · 방풍을 추가하면 여성탕이라고 한다. 열이 심하면 강활 · 황금 · 승마를 추가한다.

### 安神圓 안신원

治面黃頰赤, 身壯熱, 補心. 一治心虛肝熱, 神思恍惚.

얼굴은 누렇고 뺨은 붉으며 몸통은 매우 뜨거운 증상을 치료한다. 이때는 심기를 보해야 한다. 어떤 책에는 '심기가 허하고 간장에 열이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경우를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다.

馬牙硝 伍錢, 白茯苓 伍錢, 麥門冬 伍錢, 乾山藥 伍錢, <mark>龍齒<sup>1</sup> 壹匙(研)</mark>, 寒水石 伍錢(研), 硃砂 壹兩(研), 甘草 伍錢.

마아초 5돈, 백복령 5돈, 맥문동 5돈, 산약(말린 것) 5돈, 용뇌 1술(간다), 한수석 5돈(간다), 주사 1냥(간다), 감초 5돈.

右末之,煉蜜爲圓,鷄頭大,每服半圓,沙糖水化下無時.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계두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0.5환씩 사당 녹인 물에 녹여서 넘기되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1. 龍齒: ☞龍腦 ※취진본 ←

# 當歸湯<sup>1</sup> 당귀산

治小兒夜啼者, 藏寒而腹痛也. 面青手冷, 不吮乳者, 是也.

소아의 야제를 치료한다. 야제는 장부가 차가워져 배가 아프기 때문에 생긴다. 얼굴이 푸르스름해지고 손이 차가워지며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것이 야제 의 증상이다.

當歸、白芍藥、人參 各壹分, 甘草(炙) 半分, 桔梗、陳皮(不去白) 各壹分.

당귀 · 백작약 · 인삼 각 1푼, 자감초 0.5푼, 길경 · 진피(흰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쓴다) 각 1푼.

右爲細末,水煎半錢<sup>2</sup>,時時少與服.又有熱痛,亦啼叫不止,夜發,面赤脣焦,小便黃赤,與三黃圓,人參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물 0.5잔에 넣고 달여서 자주 조금씩 복용시킨다. 한편, 열이 나면서 아픈 경우에도 계속 소리 지르며 우는데 밤에 발작하면 얼굴이 붉고 입술이 바짝 마르며 소변이 누렇거나 붉게 된다. 이때는 삼황원을 인삼탕으로 먹여야 한다.

1. 湯: ☞散 ※취진본 ↔

<sup>2</sup>. 錢: ☞盞 ※취진본 ←



### 瀉心湯 사심탕

治小兒心氣實,則氣上下行澁,合臥則氣不得通,故喜仰臥,則氣上下通.

소아의 심기가 튼실하여 숨이 제대로 오르락내리락하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누우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눕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누우면 숨이 제대로 통하기 때문이다.

1

황련 1냥(잔털을 제거한다)

右爲末,每服五分,臨臥取溫水化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5푼씩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녹여서 넘긴다.

 $^{1}$ . 글자없음 : st黃連 -兩(去鬚) st취진본 $\hookleftarrow$ 

### 生犀散 생서산

治目淡紅,心虚熱.

눈이 담홍색이 된 경우를 치료한다. 이는 심장의 허열 때문이다.

生犀 貳錢(剉末), 地骨皮 [ 自採佳 ] 、赤芍藥、柴胡根、乾葛(剉) 各壹兩, 甘草(炙) 五錢.

생서각 2돈(잘게 썰어서 가루 낸다), 지골피 [ 직접 캔 것이 좋다 ] · 적작약· 시호 뿌리·건갈(썬다) 각 1냥, 자감초 5돈.

右爲麁末, 每服壹貳錢, 水壹盞, 煎至柒分, 溫服, 食後.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돈씩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따뜻할 때 식후에 복용한다.

### 白餅子 [又名玉餅子] 백병자 [옥병자]

治壯熱.

열이 심한 증상을 치료한다.

滑石末 壹錢, 輕粉 伍錢, 半夏末 壹錢, 南星末 壹錢, 巴豆 念肆個(去皮膜, 用水壹升煮, 乾, 研細).

활석 가루 1돈, 경분 5돈, 반하 가루 1돈, 남성 가루 1돈, 파두 24개(피막을 제거하여 물 1되에 넣고 끓였다가 말린 후 곱게 간다).

右三味搗羅爲末,入巴豆粉,次入輕粉,又研勻,却入餘者藥末,如法令勻,糯米粉圓如菉豆大,量小兒虛實用藥,三歲已下,每服三圓至五圓,空心紫蘇湯下,忌熱物,若三五歲兒壯實者,不以此 $\mathbb{O}^1$ ,加至貳 $\mathbb{O}^2$ ,以利爲度.

위 약재에서 3가지(활석、반하、남성)는 빻고 망에 걸러 가루 낸다. 거기에 파두 가루를 넣고, 그다음 경분을 넣고 다시 곱게 간다. 그리고 나머지 약재 가루를 넣고 같은 방법대로 골고루 섞는다. 이것을 나미 가루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허실을 가늠하여 약을 쓰되 3살 이하는 한 번 복용할 때 3 - 5환씩 빈속에 자소탕으로 넘기게 한다. 뜨거운 음식을 피해야 한다. 만약 3 - 5살 아이가 튼실한 경우에는 이 방법대로 하지 말고 20환까지 점점 늘리다가 설사를 하면 그만 먹인다.

1. ①: ☞爲 ※취진본 ←

2. ⑩⑪: ☞拾圓 ※취진본←



### 利驚圓 이경원

治小兒急驚風.

소아의 급경풍을 치료한다.

青黛、輕粉 各壹錢,牽牛末 伍錢,天竺黃 貳錢.

청대 ㆍ 경분 각 1돈, 견우 가루 5돈, 천축황 2돈.

右爲末,白麪糊圓,如小豆大,貳拾圓,薄荷湯下.一法煉蜜圓,如芡實大,壹粒,化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표백한 밀가루로 쑨 풀에 개어 소두(小豆) 크기로 환을 빚고 20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연밀에 개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고 1알씩 녹여서 넘기는 방법도 있다.

### 括蔞湯 괄루탕

#### 治慢驚.

만경풍을 치료한다.

#### 括蔞根 貳錢, 白甘遂 壹錢.

괄루근 2돈, 백감수 1돈.

右用慢火炒焦黃色, 研勻, 每服壹匙, 煎麝香薄荷湯調下, 無時. 凡藥性雖冷, 炒焦用之乃溫也.

이상을 약한 불에 누렇게 되도록 볶은 후 골고루 간다. 한 번 복용할 때 1술씩 사향과 박하 달인 물에 타서 시간에 상관없이 넘긴다. 이 약재들은 약성이 서 늘하지만 볶아서 말리면 성질이 따뜻하게 변한다.

## 五色圓 오색원

#### 治五癎.

오간(五癎)을 치료한다.

硃砂 伍錢(研), 水銀 一兩, 雄黃 壹兩, 鉛 參兩(同水銀熬), 真珠末 壹兩(研).

주사 5돈(간다), 수은 1냥, 웅황 1냥, 납 3냥(수은과 함께 볶는다), 진주 가루 1 냥(간다).

右煉蜜圓如麻子大,每服參肆圓,金銀薄荷湯下.

이상을 연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 - 4환씩 금은화와 박하 달인 물로 넘긴다.

## 調中圓 조중원

人参(去蘆)、白朮、乾薑(炮) 各三兩, 甘草(炙) 減半.

인삼(노두를 제거한다) · 백출 ·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3냥, 자감초 절반 분량.

右爲細末,圓如菉豆大,每服半圓至貳參拾圓,食前溫水送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0.5환에서 20 - 30환 씩 식전에 복용하되 따뜻한 물로 넘긴다.

# 塌氣圓 탑기원

治虚脹,如腹大者.加蘿蔔子,名褐圓子.

기운이 허하여 생긴 창만으로 배가 빵빵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나복자를 추가하면 갈원자라고 한다.

胡椒 壹兩, 蝎尾(去毒) 伍錢.

호초 1냥, 갈미(독성을 제거한다) 5돈.

右爲細末, 麪圓粟米大, 每服伍柒圓至壹貳拾圓, 陳米飮下, 無時, 一方有木香壹錢.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과 섞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 - 7환에서 10 - 20환까지 복용하되 묵은 쌀로 쑨 미음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복 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목향 1돈이 추가되어 있다.

# 木香圓 목향원

#### 治小兒疳瘦腹大.

소아가 감병으로 바싹 마르고 배가 빵빵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木香、青黛(別研)、檳榔、荳蔲(去皮) 各壹分, 麝香(別研) 壹錢伍分, 續隨子(去皮) 壹兩, 蝦蟆 參個(燒存性).

목향 · 청대(따로 갈아 둔다) · 빈랑 · 두구(껍질을 제거한다) 각 1푼, 사향(따로 갈아 둔다) 1.5돈, 속수자(껍질을 제거한다) 1냥, 하마 3개(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右爲細末, 蜜圓如菉豆大, 每服參伍圓至壹貳拾圓, 薄荷湯下, 食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 - 5환에 서 10 - 20환까지 복용하되 박하탕으로 식전에 복용한다.

## 胡黃連圓 호황련원

治肥熱疳.

비감(肥疳)이나 열감(熱疳)을 치료한다.

川黃連 伍錢, 胡黃連 伍錢, 硃砂 壹錢(別研).

천황련 5돈, 호황련 5돈, 주사 1돈(따로 갈아 둔다).

右以上貳物爲細末,入硃砂末,都填入猪膽內,用淡漿水煮,以杖于銚子上用線釣之,勿着底,⑪¹壹炊久,取出,研入蘆薈麝香各壹分,飯和圓如麻子大,每服伍柒圓至貳參拾圓,米飮下,食後.

이상의 약재에서 황련 두 가지를 곱게 가루 낸 후 주사 가루를 넣고 한꺼번에 저담(豬膽) 속에 채워 넣는다. 묽은 장수(漿水)를 끓이면서 막대기를 솥 위에 걸치고 끈으로 저담을 매달아 놓되 솥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한 번에 오래 끓였다가 저담을 꺼내어 노회、사향 각 1푼을 넣고 함께 간 후 밥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 - 7환에서 20 - 30환씩 복용하되 식후에 마음으로 넘긴다.

1. □: ☞候 ※취진본 ←

# ⊕香散<sup>1</sup> 난향산

#### 治疳氣鼻下赤爛.

감병으로 코 아래가 빨갛게 짓무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蘭⑪葉²(菜名, 燒灰) 貳錢, 銅靑 伍分, 輕粉 貳字.

난향엽(나물 이름이다. 태워서 재로 만든다) 2돈, 동청 5푼, 경분 2자.

右爲細末,令匀,看瘡大小,乾貼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골고루 섞고 짓무른 부분의 크기를 가늠하여 마른 상태일 때 뿌린다.

1. □香散: ☞蘭香散 ※취진본 ←

2. 蘭⑪葉: ☞蘭香葉 ※취진본 ←

# ⊕粉散<sup>1</sup> 백분산

#### 治諸疳瘡.

여러 가지 감병으로 생긴 창을 치료한다.

## 海螵蛸 參分, 白芨 參分, 輕粉 壹分.

해표초 3푼, 백급 3푼, 경분 1푼.

### 右爲末, 先用漿水洗, 拭乾貼.

이상을 가루 낸다. 우선 장수(漿水)로 환부를 씻고 물기를 닦은 후 마른 상태에서 뿌린다.

1. □粉散: ☞白粉散 ※취진본 ←

# ⊕積圓<sup>1</sup> 소적원

#### 治大便酸臭.

소아의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香² 玖個,縮砂仁 貳拾個,烏梅肉 參個(焙),巴豆 貳個(去皮油心膜).

정향 9개, 축사인 20개, 오매육 3개(곁불에 말린다), 파두 2개(껍질과 기름기와 속꺼풀을 제거한다).

右爲細末, 麪糊圓黍米大, 參歲已上參伍圓, 已下參貳圓, 溫水下, 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3살이상의 소아는 3 - 5환을, 그 이하의 소아는 2 - 3환을 따뜻한 물로 시간에 상관없이 넘기게 한다.

- 1. □積圓: ☞消積圓 ※취진본 ←
- 2. ①香: ☞丁香 ※취진본 ←

## 安虫散 안충산

治小兒虫痛.

소아의 충통(虫痛)을 치료한다.

胡粉(炒黃)、檳榔、川練子(去皮核)、鶴虱(炒) 各貳兩, 白礬(鐵器熬) 壹分, 乾漆 (炒煙盡) 貳分, 雄黃 壹分, 巴豆霜 壹分.

호분(누렇게 볶는다) · 빈랑 · 천련자(껍질과 씨를 제거한다) · 학슬(볶는다) 각 2냥, 백반(쇠그릇에 넣고 가열한다) 1푼, 건칠(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볶 는다) 2푼, 웅황 1푼, 파두상 1푼.

右爲細末,每服壹匙,大者半錢,溫米飲調下,痛時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술씩(큰 아이는 0.5돈씩) 따뜻한 미음에 타서 넘기되 통증이 있을 때 복용한다.

## 紫霜圓 자상원

#### 治消積聚.

적취를 치료하여 사그라뜨린다.

代赭石(煅醋淬七次)、赤石脂 各壹錢, 杏仁 伍拾粒(去皮尖), 巴豆 參拾粒(去皮膜心, 出油).

대자석(불에 달궜다가 식초에 담그기를 7차례 한다), 적석지 각 1돈, 행인 50 알(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파두 30알(피막과 심을 제거하고 기름을 짠다).

右先將杏仁巴霜入乳鉢內, 細研如膏, 却入代赭石脂末研勻, 以湯浸蒸餅爲圓, 如栗米大, 壹歲服伍圓, 米飲湯下, 壹貳百日內兒參圓, 乳汁下, 更宜量其虛⑪¹加減, 微利爲度, 此藥兼治驚痰諸⑪, ⑪²下, 不致虛人.

이상의 약재 중에 우선 행인 、파두상을 막자사발에 넣고 곱게 갈아 고약처럼 만든 후 대자석 、적석지 가루를 넣고 골고루 간다. 이것을 뜨거운 물에 담근 증병(蒸餅)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는 5환을 따뜻한 미음으 로 넘기게 한다. 100 - 200일 된 아이는 3환을 젖으로 넘기게 한다. 그러고 나 서 아이의 허실을 살펴 가감하여 쓰되 설사를 약간 할 때까지 한다. 이 약은 경 풍과 담연으로 생긴 여러 증상들까지 함께 치료하고, 설사를 하게 만들지만 그 렇다고 사람을 허하게 하지는 않는다.

- 1. ①:☞實 ※취진본 ←
- <sup>2</sup>. ⊕, ⊕ : ☞症, 雖 ※취진본 **←**



# ⑪汗散<sup>1</sup> 지한산

治六陽虚汗, 上至頂, 不過胷也, 不須治之, 喜汗, 厚衣臥而額汗出也, 止汗散止之.

여섯 양경(陽經)이 허하여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정수리부터 가슴까지 땀이 나는 경우에는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희한(喜汗)은 두껍게 입힌 채 재워서 이마에서 땀이 나는 것이니 지한산을 써서 땀을 멎게 해야 한다.

右用<sup>2</sup>故蒲扇灰, 如無扇, 只將故蒲燒灰研細, 每服壹貳錢, 溫酒調下, 無時.

이 증상에는 오래된 포선(蒲扇)을 재로 만들어 쓴다.(만약 포선이 없으면 오래된 부들 태운 재를 곱게 갈아 쓴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돈씩 따뜻한 술에 타서 시간에 상관없이 넘긴다.

1. ⑩汗散: ☞止汗散 ※취진본 ↔

2. 右用: ※취진본 ←

## 香瓜圓 향과원

治遍身汗出.

온몸에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黃瓜(黃色者壹個, 去穰), 川大黃(濕帋褁煨, 至帋焦)、胡黃連、柴胡(去蘆)、鱉甲(醋炙黃)、蘆薈、靑皮、黃栢.

대황과(누렇게 된 것 1개의 속을 긁어내고 쓴다), 천대황(습지에 싸서 잿불에 굽되 습지가 바짝 마를 때까지 굽는다) · 호황련 · 시호(노두를 제거한다) · 별 갑(식초에 축여 누렇게 굽는다) · 노회 · 청피 · 황백.

右除黃瓜外,同爲細末,將黃瓜割去頭,塡入諸藥,置滿却蓋口,用杖子插定,漫火內煨熟,麪糊圓如菉豆大,每服參貳圓,食後冷漿水或新水下,大者伍柒圓至十圓.

이상에서 대황과를 제외하고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대황과의 한쪽 끝을 자르고 다른 약재를 채워 넣다가 가득 차면 잘라냈던 끝을 다시 덮고 나무 꼬챙이를 꽂아 고정한 후 약한 잿불에 넣어 익힌다. 대황과 속의 약재를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2 - 3환씩 식후에 식힌 장수(漿水)나 신급수로 복용한다. 큰 아이 기준으로 5 - 7환에서 10환을 복용한다.

# 花火膏 화화고

### 治夜啼.

야제를 치료한다.

## 燈花 壹棵.

등화 1줄기.

## 右塗乳上, 令兒吮之.

이것을 젖꼭지에 발라 아이가 빨아먹게 한다.

## 白玉散 백옥산

治熱毒氣, 客於腠理, 搏於血氣, 發於外, 皮上赤如丹, 是方用之.

열독이 주리에 침입하여 혈이나 기와 부딪힌 후 피부로 터져 나온 증상을 치료한다. 피부가 주사처럼 붉어졌을 때 이 처방을 쓴다.

白土 貳錢伍分[又云滑石], 寒水石 伍錢.

백토 2.5돈 [ 활석 ], 한수석 5돈.

右爲末,用米醋或新水調塗.

이상을 가루 낸 후 쌀식초나 신급수에 개어 환부에 바른다.

## 牛黃膏 우황고

治驚熱.

경풍으로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雄黃(小棗大, 用獨莖葡蔔根, 水並醋共大盞煮盡)、甘草末、甜硝 各參錢, 硃砂 半錢匕, 龍腦 壹匙<sup>1</sup>匕, 寒水石(硏細) 伍錢匕.

응황(작은 대조만한 응황을 줄기가 하나인 포도나무의 뿌리와 함께 물과 식초에 넣고 큰잔이 모두 졸아들 때까지 달여서 쓴다) · 감초 가루 · 첨초 각 3돈, 주사 0.5돈술, 용뇌 1돈술, 한수석(곱게 간다) 5돈술.

右同硏匀, 蜜和爲劑, 食後薄苛湯溫化下, 半皂子大.

이상을 한꺼번에 골고루 간 후 꿀에 개어 고약처럼 조제한다. 식후에 조각자절반 크기를 따뜻한 박하탕에 녹여서 넘긴다.

<sup>1</sup>. 匙: ☞錢 ※문맥상 ←

# 牛黃圓 우황원

治小兒疳積.

감병으로 생긴 적취를 치료한다.

雄黃(研,水飛)、天竺黃 各貳錢,牽牛(末) 壹錢.

웅황(갈아서 수비한다) , 천축황 각 2돈, 견우(가루 낸다) 1돈.

右同再研, 麪糊爲圓, 粟米大, 每服參圓至五圓, 食後薄苛湯下, 兼治疳消積, 常服尤佳. 大者加圓數.

이상을 한꺼번에 두 번 간 후 밀가루풀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 - 5환씩 식후에 박하탕으로 넘긴다. 이 약은 감병과 적취를 함께 치료하므로 늘 복용하면 더욱 좋다. 큰 아이는 환 수를 늘린다.

## 玉露散 [又名甘露散] 옥로산 [감로산]

治傷熱,吐瀉,黃瘦.

열사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누렇게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寒水石(軟而微靑黑 $^{1}$ 有細紋者是)、石膏(堅白而 $^{2}$ 牆壁手不可折者是好) 各半兩, 甘草(生) 壹錢.

한수석(경도가 무르면서 약간 청흑색을 띄고 자잘한 무늬가 있는 것이 좋다) · 석고(단단하면서 하얗고 담장에 기대고 손으로 눌러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 좋다) 각 0.5냥, 감초(생것) 1돈.

右同爲細末,每服壹匙,或半錢壹錢,食後溫湯調下.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술씩 혹은 0.5 - 1돈씩 식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넘긴다.

- <sup>1</sup>. ⊕ : ☞ 中 ※취진본 ←
- 2. 堅白而: ☞堅白而有 ※취진본 ↔

# ●祥圓<sup>1</sup> [一名南陽圓] 백상원 [남양원]

#### 治瘡疹倒壓黑陷.

창진에 딱지가 앉았다가 까맣게 움푹 꺼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用紅芽大戟,不以多少,蔭乾,漿水軟法<sup>2</sup>骨,日中曝乾,復內汁中,煮汁盡,焙乾爲末,水圓如粟米大.每服壹貳拾圓,研赤脂麻湯下.吐利同,無時.

홍아대극을 분량에 상관없이 그늘에서 말리고 장수(漿水)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후심을 제거하여 볕에 바싹 말린다. 이것을 다시 장수에 넣고 달여 장수가모두 없어지면 곁불에 말린 후 가루 내고, 물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한 번 복용할 때 10 - 20환씩 붉은 지마(脂麻)를 갈아서 달인 물로 넘긴다.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에도 동일하게 쓴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1. ⑩祥圓: ☞百祥圓 ※취진본 ←

2. 法: ☞去 ※《의방유취》←

# ●李膏1 [一名必勝膏] 우리고 [필승고]

#### 治同前方.

앞의 처방과 동일하게 창진에 딱지가 앉았다가 까맣게 움푹 꺼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 牛李子.

우리자.

右杵汁, 石器內 🖤 🗘 , 每服皂子大, 煎杏膠湯化下.

이것을 찧어 즙을 내고 돌그릇에 넣어 졸이면서 고약처럼 만든다. 한 번 복용할 때 조각자 크기씩 행인 x 아교 달인 물에 녹여서 넘긴다.

1. ◎李膏: 牛李膏\* ※취진본 ←

2. ⑩⑪: ☞熬膏 ※취진본 ←

# ⊕風散<sup>1</sup> 선풍산

#### 治小兒慢驚.

소아의 만경풍을 치료한다.

 $\bigcirc$  兩個, 陳皮、 $\Box$  各半兩, 牽牛 肆兩(半生半熟).

빈랑 2개, 진피ㆍ감초 각 0.5냥, 견우 4냥(절만은 생것, 절반은 익힌 것).

右爲細末,參貳歲兒,蜜湯調下五分,已上壹錢,食前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2 - 3살 아이는 따뜻한 꿀물에 타서 5푼을 넘긴다. 그이상의 아이는 1돈을 넘긴다. 식전에 복용한다.

- $^{1}$ .  $\mathbb{O}$ 風散 : 宣風散 \*취진본
- 2. ⑩⑪: ☞檳榔 ※취진본←
- 3. 甘⑪: ☞甘草 ※취진본 ↔

## 麝香圓 사향원

治小兒慢<sup>1</sup>驚疳等病.

소아의 경감(驚疳) 등 여러 감병을 치료한다.

草龍膽、胡黃連 各半兩, 木香、蟬殼(去劍, 為末, 乾秤)、蘆薈(去砂秤)、熊膽、青黛 各壹錢, 輕粉、腦麝、牛黃 各壹錢(並別研), 瓜蒂 貳拾壹個(為末).

초룡담 · 호황련 각 0.5냥, 목향 · 선각(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가루 낸다. 말린 상태 무게이다) · 노회(모래를 제거한 무게이다) · 웅담 · 청대 각 1돈, 경 분 · 뇌사 · 우황 각 1돈(모두 따로 간다), 과체 21개(가루 낸다).

右猪膽圓如桐子及菉豆大,驚疳,藏府或秘或瀉,清米飮或溫水下小圓伍柒粒至壹貳拾⑪²,疳眼,猪肝湯下,疳渴,燖猪湯下亦得,猪肉湯下亦得,驚風發搐,眼上,薄苛湯化下壹圓,更水研壹圓滴鼻中,牙⑪瘡³口瘡,研貼,虫痛,苦練子或白蕪荑湯送下,百日內小兒,大小便不通,水研封臍中,虫候加乾漆好麐香各少許,并入生油壹兩點,溫水化下,大凡病急則研碎,緩則浸化,小兒虛極,慢驚者勿服,尤治急驚痰熱.

이상을 저담(豬膽)과 섞어 오동자에서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경감(驚疳)에는 변비였다가 설사를 하기 때문에 묽은 미음이나 따뜻한 물에 작은 환 기준으로 5 - 7환에서 10 - 20환을 증상에 따라 복용한다. 감안(疳眼)에는 저간(猪肝) 달인 물로 넘기고, 감갈(疳渴)에는 튀긴 돼지고기 삶은 물에 넘겨도 좋고, 돼지고기 삶은 물에 넘겨도 좋다. 경풍으로 축닉이 발작하여 눈을 치켜뜨는 경우에는 박하탕에 녹여서 1환을 복용한 후 1환을 물에 갈아서 콧속에 떨어뜨려 준

다. 아감창이나 구창에는 환을 갈아서 환부에 붙인다. 충통에는 고련자나 백무이 달인 물로 넘긴다. 태어난 지 100일 이내의 아이가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환을 물에 갈아서 배꼽에 채워 넣는다. 충으로 생긴 증상에는 건칠과 품질 좋은 사향을 각각 조금씩 추가하고 생유(生油) 1 - 2방울까지 넣은 후 따뜻한 물로 녹여서 넘긴다. 대체로 증상이 위급하면 갈거나 빻아서 먹이고, 증상이 급박하지 않으면 녹여서 먹인다. 소아가 대단히 허약해져 만경풍이 생겼을때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급경풍이나 담열(痰熱)에도 잘 듣는다.

- 1. 慢: ☞ 一切 ※취진본 ←
- 2. ①: ☞粒 ※취진본 ←
- 3. 牙⑪瘡: ☞牙疳瘡 ※취진본 ←

## 大惺惺圓 대성성원

治驚疳百病及諸壞病,不可具述.

경감(驚疳)과 여러 증상 및 괴병(壞病)들을 치료하니 주치증을 모두 적을 수 없을 정도이다.

辰砂(研)、青礞石、金牙石 各壹錢半, 雄黃 壹錢, 蟾灰 貳錢, 牛黃、龍腦 各壹匙 (別研), 麝香 半錢(別研), 蛇黃 參錢(醋淬伍次).

진사(간다) · 청몽석 · 금아석 각 1.5돈, 응황 1돈, 섬회 2돈, 우황 · 용뇌 각 1술 (따로 갈아 둔다), 사향 0.5돈(따로 갈아 둔다), 사황 3돈(식초에 담금질을 5차 례 한다).

右研勻細,水煮蒸餅爲圓,朱砂爲衣,如菉豆大,百日兒每服壹圓,壹歲兒貳圓,薄苛溫湯化下,食後.

이상을 골고루 곱게 갈고 뜨거운 물에 담근 증병(蒸餅)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은 후 주사를 겉에 입힌다. 100일 정도 된 아이는 한 번에 1환씩을, 1살 아이는 2환씩을 따뜻한 박하탕에 녹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小惺惺圓 소성성원

解毒,治急驚風癇潮熱,及疾虛煩,藥毒上攻,躁渴.

독기를 풀어준다. 급경풍이나 경간(驚癎)이나 조열이나 허번증이나 약독이 치미는 경우나 번조나 갈증을 치료한다.

臘月取東行母猪糞(燒灰存性)、辰砂(水研飛)、腦射 各貳錢, 牛黃 壹錢(各別研), 蛇黃(西山者, 燒赤, 醋淬參次, 水研飛, 乾用) 半兩.

동쪽으로 눈 어미 돼지의 똥(섣달에 구하여 약성이 남도록 태우고 재로 만든다), 진사(물에 갈고 수비한다), 뇌사 각 2돈, 우황 1돈(각각 따로 간다), 사황 (서산 지역에서 난 것을 빨갛게 태웠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3번 한 후 갈아서 수비하고 말린다) 0.5냥.

右以東流水作麪糊圓桐子大, 硃砂爲衣, 每服貳參歲兩圓, 鑰匙研破, 溫水化下, 小兒緣牛, 便宜服壹圓, 除胎中百疾, 食後.

이상을 동류수(東流水)로 쑨 밀가루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겉에 입힌다. 한 번 복용할 때 2 - 3살은 2환씩 약시(鑰匙, 자물쇠)로 빻고 따뜻한 물로 녹여서 넘긴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1환을 복용하게 하면 뱃속에서 있었던 온갖 병을 없앤다. 식후에 복용한다.

## 銀砂圓 은사원

治涎盛, 膈熱實, 痰嗽, 驚風積潮熟.

담연이 왕성하여 흉격에 실열이 생기거나 가래 끓는 기침을 하거나 경풍이나 적취나 조열이 생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水銀(結砂子) 參皂子大, 辰砂(研) 貳錢, 蝎尾(去毒, 爲末)、鵬砂、粉霜(各研)、輕粉、郁李仁(去皮, 焙秤, 爲末)、白牽牛、鐵粉、好臘茶 各參錢.

수은(모래처럼 잘게 결정진 것) 조각자 3개만큼, 진사(간다) 2돈, 갈미(독성을 제거하고 가루 낸다) · 붕사 · 분상(각각 갈아서 쓴다) · 경분 · 욱리인(껍질을 제거하고 곁불에 말린 후 가루 낸다) · 백견우 · 철분 · 품질 좋은 납차 각 3돈.

右同爲細末, 熬梨汁爲膏, 圓如菉豆大, 龍腦水化下壹圓至參圓, 亦名梨汁餅子, 及治大人風涎, 並食後.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배 졸인 즙을 고약처럼 만든 것과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용뇌 탄 물에 녹여 1 - 3환을 복용한다. 이즙병자(梨汁餅子)라고도 한다. 풍사로 담연이 치성하는 성인의 증상도 치료한다. 모두 식후에 복용한다.

# 蛇黃圓 사황원

治驚癎,因震駭恐怖,叫號恍惚是也.

경간(驚癎)을 치료한다. 깜짝깜짝 놀라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이 나간 듯한 경우가 바로 경간이다.

蛇黃 參個(眞者,火鍛醋淬),鬱金 柒分(壹處爲末),麝香 壹匙.

사황 3개(품질이 좋은 것을 불에 달궜다가 식초에 담금질한다), 울금 7푼(한꺼 번에 가루 낸다), 사향 1술.

右爲末, 飯圓桐子大, 每服壹貳圓, 煎金銀磨刀水化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밥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 환씩 칼 간 물과 금은화 달인 물에 녹여서 넘긴다.

## 三聖圓 삼성원

化痰涎, 寬膈, 消乳癖, 化驚風食癎諸疳, 小兒壹歲以內, 常服極妙.

담연을 녹이고 흉격을 편안하게 하며 유벽(乳癖)을 삭힌다. 경풍이나 식간이 나 여러 감병을 치료한다. 1살 이내의 소아에게 늘 복용시키면 대단히 효과가 좋다.

#### 小靑圓

#### 소청원

青黛 壹錢, 牽牛(末) 參錢, 膩粉 壹錢.

청대 1돈, 견우(가루 낸다) 3돈, 이분 1돈.

#### 並研匀, 麪糊圓黍米大.

이상을 모두 골고루 간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 小紅圓

#### 소홍원

天南星(末) 壹兩(生), 硃砂 半兩(研), 巴豆 壹錢(取霜).

천남성(가루 낸다) 1냥(생것), 주사 0.5냥(간다), 파두 1돈(파두상으로 만들어 쓴다).

### 並研匀, 薑汁麪糊圓黍米大.

이상을 모두 골고루 간 후 생강즙을 넣어 쑨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 小黃圓

### 소황원

半夏(生末) 壹分, 巴豆(霜) 壹匙 $\mathsf{L}^1$ , 黃蘗(末) 壹匙 $\mathsf{L}^2$ .

반하(생것을 가루 내어 쓴다) 1푼, 파두상 1돈술, 황벽(가루 낸다) 1돈술.

### 並硏匀, 薑汁麪糊圓黍米大.

이상을 모두 골고루 간 후 생강즙을 넣어 쑨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 已上百日者各壹圓, 壹歲者各貳圓, 隨乳下.

이상의 약을 100일 된 아이는 각각 1환씩, 한 살 된 아이는 각각 2환씩 젖과 함께 넘긴다.

1. 匙匕: ☞錢匕 ※문맥상 ←

2. 匙匕: ☞錢匕 ※문맥상 ←



## 鐵枌圓 철분원

#### 治涎盛潮搐吐逆.

담연이 왕성하고 주기적으로 축닉이 발작하며 구역질을 하는 경우를 치료한 다.

水銀(砂子) 貳分, 硃砂、鐵粉 各壹分, 輕粉 貳分, 天南星(炮製, 去皮臍, 取末) 壹分.

수은(모래처럼 잘게 결정진 것) 2푼, 주사ㆍ철분 각 1푼, 경분 2푼, 천남성(습지에 싸서 구운 후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가루 낸다) 1푼.

右同研,水銀星盡爲度,薑汁麪糊圓粟米大,煎生薑湯下十圓至十五圓,二三十圓,無時.

이상을 한꺼번에 갈다가 수은이 별처럼 반짝반짝해지면 생강즙을 넣어 쑨 밀가루풀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생강 달인 물에 10 - 15환씩 혹은 20 - 30환까지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銀液圓 은액원

治驚熱膈實,嘔吐上盛,涎熱.

경풍으로 흉격에 실열이 있고 구토하며 상기되고 뜨겁고 끈적한 침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水銀 半兩, 天南星 貳錢(炮), 白附子 壹錢(炮).

수은 0.5냥, 천남성 2돈(습지에 싸서 굽는다), 백부자 1돈(습지에 싸서 굽는다).

右爲末,用石腦油爲膏1,每服壹皂子大,薄荷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석뇌유(石腦油)와 섞어 고약처럼 만든다. 한 번 복용할 때 조각자 한 개 크기만큼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sup>1</sup>. 膏:丸 ※취진본←

## 鎭心圓 진심원

治小兒驚癎心熱.

소아의 경간(驚癎)이나 심장의 열을 치료한다.

硃砂、龍齒、牛黃 各壹錢, 鐵粉、琥珀、人參、茯苓、防風 各貳錢, 全蝎 柒個 (焙).

주사 · 용치 · 우황 각 1돈, 철분 · 호박 · 인삼 · 복령 · 방풍 각 2돈, 전갈 7개 (곁불에 말린다).

右末,煉蜜圓如桐子大,每服壹圓,薄荷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 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 金箔圓 금박원

#### 治急驚涎盛.

급경풍이나 담연이 왕성한 증상을 치료한다.

金箔 貳拾片, 天南星(剉炒)、白附子(炮)、防風(去蘆須, 焙)、半夏(湯浸柒次, 切, 焙乾秤) 各半兩, 雄黃、辰砂 各壹分, 生犀末 半分, 牛黃、腦麝 各半分(已上六物研).

금박 20조각, 천남성(썰어서 볶는다) ·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 방풍(노두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곁불에 말린다) · 반하(뜨거운 물에 담갔다 말리기를 7차례 한 후 절편으로 썰고 곁불에 말린다) 각 0.5냥, 웅황 · 진사 각 1푼, 생서각 가루 0.5푼, 우황 · 용뇌 · 사향 각 0.5푼(이상 6가지 약재는 갈아서 쓴다).

右爲細末, 薑汁麪糊圓麻子大, 每服參伍圓至壹貳拾圓, 人參湯下, 如治慢驚, 去龍腦, 服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생강즙을 넣어 쑨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 - 5환에서 10 - 20환씩 인삼탕으로 넘긴다. 만 경풍을 치료할 때는 용뇌를 뺀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辰砂圓 진사원

治驚風涎盛潮作,及胃熱吐逆不止.

경풍에 담연이 왕성하여 주기적으로 울컥 나오거나, 위부의 열로 계속 구역질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辰砂(別研)、水銀砂子 各壹分, 天麻、牛黃 伍分, 腦麝(別研) 伍分, 生犀末、白殭蠶(酒炒)、蟬殼(去足)、乾蝎(去毒炒)、麻黃(去節)、天南星(湯浸柒次, 切, 焙乾秤) 各壹分.

진사(따로 갈아 둔다) · 수은(모래처럼 잘게 결정진 것) 각 1푼, 천마 · 우황 5 푼, 뇌사(따로 갈아 둔다) 5푼, 생서각 가루 · 백강잠(술에 축여 볶는다) · 선각(다리를 뗀다) · 건갈(독성을 제거하고 볶는다) ·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 천남성(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말리기를 7차례 한 후 절편으로 썰고 곁불에 말린다) 각 1푼.

右同爲末,再研勻,熟蜜圓如菉豆大,硃砂爲衣,每服壹貳圓或伍柒圓,食後服之,薄荷湯送下.

이상을 한꺼번에 가루 내고 다시 골고루 간 후 연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겉에 입힌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환에서 5 - 7환씩 식후에 박하 탕으로 복용한다.



### 剪刀股圓 전도고원

治一切驚風,久經宣利虛而生驚者.

경풍으로 생긴 증상들을 치료한다. 오랫동안 대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치료를 받으면 장부의 기가 허해져서 경풍이 생긴다.

硃砂、天竺黃(各研)、白殭蠶(去頭足,炒)、蝎(去毒,炒)、乾蟾(去四足並腸,洗,炙 焦黃,爲末)、蟬殼(去劍)、五靈脂(去黃者,爲末)各壹分,牛黃、龍腦(並研)各壹 匙,麝香(研) 伍分,蛇黃 伍錢(燒赤醋淬三伍次,放水研飛).

주사 · 천축황(각각 갈아서 쓴다) · 백강잠(머리와 다리를 제거하고 볶는다) · 전갈(독성을 제거하고 볶는다) · 건섬(네 다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후 누렇게 구웠다가 가루 낸다) · 선각(뾰족한 부분을 제거한다) · 오령지(누런부분을 제거하고 가루 내어 쓴다) 각 1푼, 우황 · 용뇌(모두 간다) 각 1술, 사향(간다) 5푼, 사황 5돈(빨갛게 달궜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3 - 5번 한 후 식으면 갈아서 수비한다).

右藥末共貳兩肆錢,東流水煮白麪糊圓桐子大,每服壹圓,剪刀環頭研,食後薄荷湯化下,如治慢驚,即去龍腦.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총 2냥 4돈을 준비한 후 동류수(東流水)로 쑨 밀가루 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환씩 가위의 손잡이 끝으로 갈아서 박하탕에 녹여 식후에 복용한다. 만경풍을 치료할 때는 용뇌를 뺀다.



# 麝蟾圓 사섬원

治驚<sup>1</sup>涎<sup>5</sup>潮搐.

경풍으로 뜨겁고 끈적한 침이 나오고 주기적으로 축닉이 생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乾蟾 秤貳錢( $\overline{\mathbf{p}}^2$ , 各別研), 鐵粉 參錢, 硃砂、青礞石末、雄黃末、蛇黃( $\mathbf{p}^3$ 取末) 各貳錢匕, 龍腦 壹匙匕 $^4$ , 麝香 壹錢匕.

건섬 큰것 총 2돈(불에 구워 재로 만들고 각각 따로 간다), 철분 3돈, 주사 · 청 몽석 가루 · 웅황 가루 · 사황(불에 구웠다가 담금질 한 후 가루 낸다) 각 2돈 술, 용뇌 1돈술, 사향 1돈술.

右件硏匀, 水浸蒸餅爲圓, 如桐子大, 硃砂爲衣, 薄荷水下半圓至壹圓, 無時.

이상의 약재를 골고루 간 후 물에 담갔던 증병(蒸餅)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겉에 입힌다. 박하를 담갔던 물에 0.5 - 1환을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1. 驚: 摩麗風 ※취진본 ←

5. 涎: ☞熱涎 ※취진본 ←

2. 灰: 燒灰 ※취진본 ←

3. 燒: ☞燒淬 ※취진본 ←

4. 匙匕: ☞錢匕 ※문맥상 ←



### 軟金丹 연금단

治驚熱,痰盛壅嗽,膈實.

경풍으로 열이 나고 가래가 끓는 기침을 하며 흉격이 실한 경우를 치료한다.

天竺黃、輕粉 各貳兩, 青黛 壹錢, 黑牽牛(取頭末)、半夏(用生薑三錢搗成麯, 焙乾, 再爲細末) 各三分.

천축황 · 경분 각 2냥, 청대 1돈, 흑견우(맏물 가루) · 반하(생강 3돈과 함께 찧 어서 누룩을 빚고 곁불에 말린 후 한 번 더 곱게 가루 낸다) 각 3푼.

右同研匀, 熟蜜劑爲膏, 薄荷水化下, 半皂子大至壹皂子大, 量兒度多少用之, 食後.

이상을 한꺼번에 골고루 간 후 연밀과 섞어 고약처럼 조제한다. 조각자 절반 크기에서 한 개 크기만큼 박하탕에 녹여 식후에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한다.

# 桃枝圓 도지원

疎取積熱及結胷,又名 $^{\mathbf{k}}$ 符 $^{1}$ .

적열(積熱)을 소통시 결흉(結胷)도 치료한다. 도부원이라고도 한다.

巴豆霜、川大黃、黃蘗(末) 各壹錢壹匙2, 輕粉、碉砂各伍分.

파두상ㆍ천대황ㆍ황벽(가루 낸다) 각 1돈술, 경분ㆍ망사 각 5푼.

右爲細末, 麪糊圓粟米³, 煎桃枝湯下, 壹晬兒伍柒圓, 伍柒歲貳參拾圓, 桃符湯下亦得, 未晬兒參貳圓, 臨臥.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복숭아나무 가지 달인 물에 복용하되 1살 아이는 5 - 7환을, 5 - 7살 아이는 20 - 30환을 복용한다. 도부탕에 넘겨도 효과가 좋다. 1살 미만의 아이는 2 - 3환을 복용한다. 자기 전에 복용한다.

- 1. 桃符: ☞桃符圓 ※취진본 ←
- 2. 錢壹匙: ☞錢匙 ※문맥상 ←
- 3. 粟米: ☞粟米大 ※취진본 ←

# 蟬花散 선화산

治驚風夜啼,咬牙咳嗽,及療咽喉壅痛.

경풍으로 야제가 있거나 입을 악다물거나 기침을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목구멍이 꽉 막혀 아픈 증상도 치료한다.

蟬花(和殼)、白殭蠶(直者, 酒炒熟)、甘草(炙) 各壹錢, 延胡索 半分.

선화(껍데기째 쓴다)  $\cdot$  백강잠(곧은 것을 술에 축여 볶아서 익힌다)  $\cdot$  자감초 각 1돈, 현호색 0.5푼.

右爲末, 壹歲壹匙, 肆伍歲半錢, 蟬殼湯下, 食後.

이상을 가루 낸 후 1살 아이는 1술을, 4 - 5살 아이는 0.5돈을 식후에 선각탕으로 넘긴다.

### 鉤藤引子 구등인자

治吐利,脾胃虚風慢驚.

계속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비위가 허해져서 만경풍이 된 경우를 치료한다.

鉤藤 參分, 蟬殼、防風(去蘆頭, 切)、人參(去蘆頭, 切)、麻黃(去節秤)、白殭蠶(炒黃)、天麻、蝎尾(去毒, 炒) 各半兩, 甘草(炙)、川藭 各壹分, 麝香 壹分(別研入).

조구등 3푼, 선각 · 방풍(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자른다) · 인삼(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자른다) ·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 백강잠(누렇게 볶는다) · 천마 · 갈미(독성을 제거하고 볶는다) 각 0.5냥, 자감초 · 천궁 각 1푼, 사향 1푼 (따로 갈아서 넣는다).

右同爲細末,每服貳錢,水壹盞,煎至陸分,溫服,量多少與之,寒多加附子末半錢,無時.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6할이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한다. 한증이 심하면 부자(가루 낸다) 0.5돈을 추가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抱龍圓 포룡원

治傷風瘟疫,身熱昏睡,氣粗,風熱痰實壅嗽,驚風潮搐,及蠱毒中暑,沐浴後並可服, 壯實小兒宜時雨<sup>1</sup>服之.

상풍(傷風)이나 온역(瘟疫)으로 몸통이 뜨겁고 죽은 듯이 자며 숨소리가 거칠 거나, 풍사와 열사 때문에 가래가 끓으면서 기침을 하거나, 경풍으로 주기적으 로 축닉이 발작하거나, 고독(蠱毒)이나 중서(中暑) 증상을 치료한다. 목욕 후 에 복용시키되 튼실한 아이는 자주 복용시켜야 한다.

天竺黃 壹兩, 雄黃(水飛) 壹錢, 辰砂、麝香(各別研) 半兩, 天南星 肆兩(臘月釀牛膽中, 陰乾百日, 如無, 只將生者, 去皮臍, 剉炒乾用).

천축황 1냥, 웅황(수비한다) 1돈, 진사ㆍ사향(각각 따로 간다) 0.5냥, 천남성 4 냥(섣달에 소 쓸개 속에 넣어 숙성시키면서 그늘에서 100일 동안 말린 것. 우 담남성을 구하지 못하면 생남성의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볶은후 말린 것을 쓴다).

右爲細末,煮甘草水和圓皂子大,溫水化下服之,百日小兒,每圓分作參肆服,伍歲壹貳圓,大人參伍圓,亦治室女白帶,伏暑用鹽少許,嚼壹貳圓,新水送下,臘月中雪水煮甘草和藥,尤佳,一法用漿水或新水,浸天南星參日,候透軟,煮參伍沸,取出,乘軟切去皮,只取白軟者,薄切焙乾,炒黃色,取末捌兩,以甘草貳兩半,拍破,用水貳碗浸壹宿,熳火煮至半碗,去滓,旋旋洒入天南星末,慢研之,令甘草水盡,入餘藥.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감초 달인 물에 개어 조각자 크기로 환을 빚고 따뜻한물에 녹여서 복용한다. 100일 된 아이는 1환을 3 - 4번 나누어 복용하고, 5살은 1 - 2환을 복용하며, 성인은 3 - 5환을 복용한다. 이 약은 처녀의 백대하(白帶下)도 치료한다. 더위 먹은 적이 있으면 소금을 약간 넣고 1 - 2환을 씹다가 신급수로 넘긴다. 납설수에 감초 달인 물로 약을 만들면 더욱 효과가 좋다.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수(漿水) 혹은 신급수에 천남성을 3일 동안 담가 놓아 물렁물렁해지면 그대로 3 - 5소솜 달였다가 꺼낸다. 아직 부드러울 때 절편처럼 썰고 껍질을 벗겨서 하얗고 부드러운 속 부분만 쓴다. 이것을 얇게 저미고 곁불에 말렸다가 누렇게 되도록 볶아 가루 8냥을 만든다. 감초 2.5냥을 빻아서 물 2사발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반 사발이 되도록 약한 불에 달인 후 건더기를 제거하고 이 물을 천천히 천남성 가루에 붓는다. 천천히 갈면서 감초 달인물이 전부 없어지면 나머지 약재를 넣는다.

1. 雨: ☞與 ※주학해본 ←

### 豆卷散 두권산

治小兒慢驚,多用性太溫及熱藥治之,有驚未退而別生熱症者,有病愈而致熱症者,有反爲急驚者甚多,當問病者幾日,因何得之,曾以何藥療之,可<sup>1</sup>解毒之藥,無不效,宜此方.

소아의 만경풍을 치료한다. 만경풍을 치료할 때 약성이 따뜻하거나 뜨거운 약 재를 많이 써서 치료하면 경풍 증상이 미처 줄어들기도 전에 다른 열증이 생겨서 만경풍은 나았으나 열증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낳거나 혹은 도리어 급경풍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병을 앓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어떻게 걸렸는지, 초반에 어떤 약으로 치료했는지 환자에게 물어본 후에 해독시키는 약을 쓴다면효과가 없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 처방이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다.

大豆黃卷[水浸黑豆生芽是也](曬乾)、板藍根、貫衆、甘草(炙)各壹兩.

대두황권 [물에 검은콩을 담가 싹이 난 것이다](볕에 말린다), 판람근, 관중, 자감초 각 1냥.

右四物同爲細末,每服半錢至壹錢,水煎,去滓服.甚者參錢,漿水內入油數點煎,又治吐虫,服無時.

이 4가지 약재를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0.5 - 1돈씩 물에 넣고 달이다가 찌꺼기를 제거하고 복용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3돈을 장수 (漿水)에 넣고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달여서 복용한다. 이렇게 하면 충을 토하는 증상도 치료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sup>1</sup>. 글자없음 : \*用 \*취진본 ←



### 龍腦散 용뇌산

#### 治急慢驚風.

급경풍과 만경풍을 치료한다.

大黃(蒸)、半夏(湯洗, 薄切, 用姜汁浸一宿, 焙乾, 炒)、甘草、金星石、禹餘粮、不灰木、青蛤粉、銀星石、寒水石.

대황(증기로 찐다) · 반하(뜨거운 물로 씻고 얇게 저민 후 생강즙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곁불에 말려서 볶는다) · 감초 · 금성석 · 우여량 · 불회목 · 청합분 · 은성석 · 한수석.

右各等分,同爲細末研,入龍腦壹匙,再研勻,新水調壹匙至伍分,量兒大小與之,通 解諸毒,本舊方也,仲陽添入甘松參兩枝,藿香葉末壹錢,金芽石壹分,減大黃一半, 治藥毒吐血,神妙.

이상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한꺼번에 곱게 가루로 간 후 용뇌 1술을 넣고 한 번더 골고루 간다. 신급수에 가루를 1술에서 5푼까지 타고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인다. 여러 독들을 두루 풀어준다. 전을은 본래의 처방에다 감송 2 - 3줄 기와 곽향엽 가루 1돈과 금아석 1푼을 추가하고 대황을 절반으로 줄여서 쓰곤했는데 약독이나 토혈 증상을 치료할 때 신효하였다.

# 虛風方 $^1$ 허증으로 생긴 풍사를 치료하는 처방

治小兒吐瀉,或悞服冷藥,脾虛生風,因成慢驚.

소아가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혹은 차가운 성질의 약을 잘못 복용하여 비장이 허해지고 풍사가 생기게 되어 만경풍으로 변한 경우도 치료 한다.

#### 大天南星 壹個(重八九錢已上者良).

천남성 큰 것 1개(무게가 8 - 9돈 이상 되는 것이 좋다).

右用地坑子一個,深三寸許,用炭火伍<mark>觔<sup>2</sup> 燒通赤,入好酒半盞在內,然後入天南星,却用炭火三兩條,蓋却坑子,候南星微裂,取出刺碎<sup>3</sup>,再炒匀熟,不可稍生,候冷爲細末,每服伍分或壹匙,量兒大小,濃煎生姜防風湯,食前調下,無時.</mark>

깊이 3치 정도되는 구덩이 속에 숯 5근을 채우고 온통 빨갛게 되도록 태운다. 좋은 술 0.5잔을 그 속에 부은 후 천남성을 넣고 곧바로 숯불 2 - 3개를 위에 덮었다가 천남성이 살짝 갈라지면 꺼낸다. 천남성을 잘게 썰어서 빻고 한 번 더골고루 볶아서 익힘으로써 조금도 익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나서 식으면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5푼 혹은 1술씩 생강과 방풍을 진하게 달인 물로 식전에 복용하되 시간은 크게 상관 없다.

<sup>1</sup>. 虚風方: ☞治虚風方 ※목록 ←

2. 觔: ☞斤 ※취진본 ←

3. 刺碎: ☞ 剉碎 ※취진본 ←



#### 虛風又方 허증으로 생긴 풍사에 쓰는 다른 처방

半夏 壹錢(湯洗七次,姜汁浸半日,曬乾),梓州厚朴 壹兩(細剉).

반하 1돈(뜨거운 물에 7번 씻고 생강즙에 한 나절 담갔다가 볕에 말린다), 재주 (梓州)에서 난 후박 1냥(잘게 썬다).

右件米泔參升同浸壹百刻,水盡爲度,如百刻未盡,加火熬乾,去厚朴,只將半夏研 爲細末,每服半匙壹匙,薄荷湯調下,無時.

이상을 쌀뜨물 3되에 100각(刻) 이내로 물이 전부 없어질 때까지 담갔다가 불에 올려 졸이면서 말린 후 후박을 제거한 채 반하만 곱게 갈아 가루 낸다. 한 번복용할 때 0.5 - 1술씩 박하탕에 타서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編銀圓 편은원

治風涎膈實上熱,及乳食不消,腹脹喘粗.

풍사로 끈적한 침이 나오고 흉격이 답답하며 상열감이 있거나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거나 배가 빵빵해지거나 숨을 헐떡이면서 숨소리가 거칠어진 경 우를 치료한다.

巴豆(去皮油心膜, 研細)、水銀 各半兩, 黑鉛 貳錢半(水配<sup>1</sup>結砂子), 麝香 伍分(別研), 好墨 捌錢(研).

파두(껍질과 기름기와 심과 막을 제거한 후 곱게 간다)  $\cdot$  수은 각 0.5냥, 흑연 2.5돈(수은과 함께 넣어 수은을 모래알처럼 자잘하게 뭉치도록 한다), 사향 5 푼(따로 갈아 둔다), 품질 좋은 먹 8돈(간다).

右將巴豆末並墨再研勻,和入砂子麝香,陳米粥和圓如菉豆大,揑褊,壹歲壹圓,貳參歲貳參圓,伍歲以上伍陸圓,煎薄荷湯放冷送下,不得化破,更量虛實增減,並食後.

이상에서 파두 가루를 먹과 함께 한 번 더 골고루 갈고 모래알처럼 된 수은과 사향을 넣은 후 묵은 쌀로 쑨 죽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 넓적하게 만든다. 1살 아이는 1환을, 2 - 3살 아이는 2 - 3환을, 5살 이상 의 아이는 5 - 6환을 식힌 박하탕으로 넘긴다. 그래도 담연이 없어지거나 답답 함이 뚫리지 않으면 다시 아이의 허실을 가늠하여 환의 숫자를 증감한다. 모두 식후에 복용한다. 1. 水硍: ☞同水銀 ※취진본 ←



# 又牛黃膏 또 다른 우황고

治熱<sup>1</sup>及傷風疳熱.

경풍으로 열이 나거나 상풍으로 생긴 감병에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雄黃(研)、甘草末、川甜硝 各壹分, 寒水石(生飛研) 壹兩, 腦子 壹錢, 菉豆粉 半兩.

응황(간다) · 감초 가루 · 천첨초 각 1푼, 한수석(달구지 않은 것을 수비한 후 간다) 1냥, 뇌자 1돈, 녹두 가루 0.5냥.

右研匀, 鍊蜜和成膏, 薄荷水化下半皂大, 食後.

이상을 골고루 갈고 연밀에 개어 고약처럼 만든다. 조각자 절반만큼을 박하탕에 녹여 넘기되 식후에 복용한다.

1. 熱: ☞驚熱 ※취진본 ←

# 五福化毒丹 오복화독단

治瘡疹餘毒上攻,口齒躁煩亦咽乾,口舌生瘡,及治蘊熱積毒熱,驚惕狂躁.

창진의 남은 독기가 위로 치받아 입이 바싹 말라 입을 다시고 목구멍까지 마르며 입이나 혀에 창이 생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열독이 쌓여 경기를 일으키면서 미친 듯이 날뛰는 증상도 치료한다.

生熟地黃(焙稱) 各伍兩, 元参、天門冬(去心)、麥門冬(去心, 焙秤) 各參兩, 甘草(炙)、甜硝 各貳兩, 青黛 壹兩半.

생지황 · 숙지황(곁불에 말린다) 각 5냥, 원삼 · 천문동(심을 제거한다) · 맥문 동(심을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각 3냥, 자감초 · 첨초 각 2냥, 청대 1.5냥.

右上八味爲細末,後硏入硝黛,鍊蜜爲圓如鷄頭大,每服半圓或壹圓,食後水化下.

위 8가지 중 앞의 6가지 약재를 곱게 가루 낸다. 첨초와 청대를 넣고 간 후 연밀에 개어 계두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0.5 - 1환씩 식후에 물에 녹여 복용한다.

### 羌活膏 강활고

治脾胃虚, 肝氣熱盛生風, 或取轉過, 或吐瀉後, 爲慢驚, 亦治傷寒.

비위가 허약하여 간장에 열이 왕성해져서 풍사가 생긴 경우나, 혹은 데굴데굴 구르거나, 혹은 구토와 설사 후에 만경풍이 된 경우를 치료한다. 상한도 치료한다.

羌活(去蘆頭)、川芎、人参(去蘆頭)、赤茯苓(去皮)、白附子(炮)各半兩,天麻 壹兩,白殭蠶(酒浸,炒黃)、乾蝎(去毒炒)、白花蛇(酒浸,取肉,焙乾)各一分,川附子(炮,去皮臍)、防風(去蘆頭,切焙)、麻黃(去節秤)各參錢,荳蔲肉、鷄舌香[即母丁香]、藿香葉<sup>1</sup>、木香各貳錢,輕粉壹錢,珍珠、麝香、牛黃各壹錢,龍腦半匙,雄黃、辰砂各一分[已上十味,各別研入].

강활(노두를 제거한다) · 천궁 · 인삼(노두를 제거한다) · 적복령(껍질을 제거한다) ·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0.5냥, 천마 1냥, 백강잠(술에 담갔다가 누렇게 볶는다) · 건갈(독성을 제거하고 볶는다) · 백화사(술에 담갔다가 살만 발라서 곁불에 말린다) 각 1푼, 천부자(습지에 싸서 구운 후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 방풍(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각 3돈, 두구(과육) · 계설향 [모정향] · 곽향엽 · 목향 각 2돈, 경분 1돈, 진주 · 사향 · 우황 각 1돈, 용뇌 0.5술, 응황 · 진사 각 1푼 [이상의 10가지 약재는 각각 별도로 간 후에 넣는다].

右同爲細末,熟蜜和劑,旋圓大豆大,每服一二圓,食前,薄荷湯或麥冬湯溫化下,實熱驚急<sup>2</sup>勿服,性溫故也,服無時.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대두(大豆)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환씩 식전에 따뜻한 박하탕이나 맥문동 달인 물에 녹여 복용한다. 실열이 있거나 급경풍이 있을 때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니 약성이 따 뜻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sup>1</sup>. 글자없음 : 沈香 ※취진본 ←
- 2. 驚急: ☞急驚 ※취진본 ←

### 郁李仁圓 욱리인원

治襁褓小兒大小便不通,驚熱痰實,欲得溏動者.

포대기에 싸인 갓난아이가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경풍으로 열이 있거나 가래가 끓으면서 곧 설사가 나올 것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郁李仁(去皮)、川大黃(去粗皮取實者, 剉, 酒浸半日, 控乾, 炒爲末) 各壹兩, 滑石 半兩(研細).

욱리인(껍질을 제거한다) · 천대황(겉껍질을 벗겨 알맹이만 잘게 썰고 술에 한 나절 담근 후 건져서 말리고 볶은 것을 가루 낸다) 각 1냥, 활석 0.5냥(곱게 간 다).

右先將郁李仁研成膏,和大黃滑石,圓如黍米大,量大小與之,以乳汁或薄荷湯下, 食前.

이상에서 우선 욱리인을 갈아 고약처럼 만들고 대황과 활석을 섞은 후 서미(黍 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젖이나 박하탕으로 식전에 복용한다.

### 犀角圓 서각원

治風熱痰實, 面赤, 大小便秘澁, 三焦邪熱, 府藏縕毒, 疎導極穩方.

풍사나 열사로 가래가 끓고 얼굴이 붉으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삼초의 열사가 흘러들어가 장부에 열독이 쌓인 경우를 치료한다. 꽉 막힌 것을 배출시키는 처방이다.

生犀角末 壹分, 人参(去蘆頭, 切)、枳實(去瓤, 炙)、檳榔 半兩, 黃連 壹兩, 大黃 貳兩(酒浸切片, 以巴豆去皮壹伯個, 貼在大黃上, 帋褁, 飯上蒸, 三次, 切, 炒令黃焦, 去巴豆不用).

생서각 가루 1푼, 인삼(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자른다) · 지실(속을 긁어내고 굽는다) · 빈랑 0.5냥, 황련 1냥, 대황 2냥(술에 담갔다가 절편으로 썰고 껍질을 벗긴 파두 100개를 대황 겉에 붙인 후 종이로 싸서 밥 짓는 증기에 3번 찐다. 이것을 잘게 썰고 누렇게 되도록 볶은 후 파두는 골라내고 쓰지 않는다).

右爲細末,鍊蜜和圓如麻子大,每服壹貳拾圓,臨臥熟水下,未動加圓,亦治大人,孕婦不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0 - 20환씩 자기 전에 끓인 물로 넘긴다. 반응이 없으면 환 수를 늘린다. 성인도 치료하며 임산부에게도 아무 손상을 주지 않는다.



# 異功散 이공산

溫中和氣,治吐瀉,不思乳食,凡小兒虛冷病,先與數服,以助其氣.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비기를 조화롭게 만든다.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젖이나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소아가 허랭해진 증상에는 우선 이약을 몇 번 복용시켜서 기운을 살려야 한다.

人参(切, 去頂)、茯苓(去皮)、白朮、陳皮(剉)、甘草 各等分.

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다) · 복령(껍질을 제거한다) · 백출 · 진피 (썬다) · 감초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每服貳錢,水壹盞,生薑伍片,棗兩個,同煎至柒分,食前溫服,量多少與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생강 5조각과 대조 2개를 함께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식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복용한다.

### 藿香散 곽향산

治脾胃虚有熱,面赤,嘔吐涎嗽,及轉過度者.

비위의 기운이 허하여 생긴 열로 얼굴이 붉으며 담연을 토하면서 기침을 하거나 데굴데굴 구르는 경우를 치료한다.

麥門冬(去心焙)、半夏麯、甘草(炙)各半兩,藿香葉 壹兩.

맥문동(심을 제거하고 곁불에 말린다) · 반하국 · 자감초 각 0.5냥, 곽향엽 1냥.

右爲末,每服伍分至壹錢,水壹盞半1,煎柒分,食前溫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0.5 - 1돈씩 물 1.5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인 후 식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sup>1</sup>. 盞半: ☞中盞 ※취진본 ←

### 如聖圓 여성원

#### 治冷熱疳瀉.

냉열감(冷熱疳)으로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胡黃連、白蕪荑(去扇, 炒)、川黃連 各貳兩, 史君子 壹兩(去殼秤), 麝香(別研) 伍分, 乾蝦蟆 伍枚(剉, 酒熬膏).

호황련  $\cdot$  백무이(날개처럼 생긴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다)  $\cdot$  천황련 각 2냥, 사 군자 1냥(껍데기를 제거한다), 사향(따로 갈아 둔다) 5푼, 말린 하마 5매(썬 것을 술에 넣고 졸여 고약처럼 만든다).

右爲末,用膏圓如麻子大,每服人參湯下,貳參歲者伍柒圓,以上者拾圓至拾伍圓,無時.

이상을 가루 낸 후 고약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2 - 3살 아이는 5 - 7환씩, 그 이상의 아이는 10 - 15환씩 인삼탕으로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白附子香連圓 백부자향련원

治腸胃氣虛,暴傷乳哺,冷熱相難,瀉痢赤白,裏急後重,腹痛搊撮,晝夜頻倂,乳食減少.

비위의 기가 허하여 젖을 먹고 갑자기 냉증과 열증이 왔다갔다하고 적백색의 똥을 지리며 뱃속이 당기고 뒤가 묵직하며 배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는 증상이 밤이든 낮이든 나타나고 젖이나 음식 먹는 양이 줄어든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木香 各壹分, 白附子 大貳個.

황련 , 목향 각 1푼, 백부자 큰 것 2개.

右爲末, 粟米飯圓菉豆大或黍米大, 每服拾圓至貳參拾圓, 食前淸米飲下, 日夜各肆 伍服.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밥에 개어 녹두 크기 혹은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0환에서 20 - 30환씩 식전에 묽은 미음으로 넘긴다. 낮과밤에 각각 4 - 5번씩 복용한다.

# 豆蔲香連圓 두구향련원

治泄瀉,不拘寒熱赤白,陰陽不調,腹痛,腸鳴切痛,可用如聖.

설사를 치료한다. 한증이나 열증이나 적리나 백리에 상관없이 음증과 양증이 일정하지 않고 복통이 있으며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끊어질 듯 아파 하는 경우에 쓰면 명약 같은 효과가 있다.

黃連(炒)參分,肉豆競、南木香各壹分.

황련(볶는다) 3푼, 육두구 · 남목향 각 1푼.

右爲細末, 粟米飯圓米粒大, 每服米飲湯下拾圓至貳參拾圓, 日夜各肆伍服, 食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좁쌀밥에 개어 쌀알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때 10환에서 20 - 30환씩 따뜻한 미음으로 복용한다. 낮과 밤에 각각 4 - 5번씩 식전에 복용한다.

### 小香連圓 소향련원

治冷熱腹痛,水穀利,滑腸方.

냉열복통(冷熱腹痛)을 치료한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대장을 부드럽게 만드는 처방이다.

木香、訶子肉 各壹分, 黃連 半兩(炒).

목향 · 가자육 각 1푼, 황련 0.5냥(볶는다).

右爲細末, 飯和圓菉豆大, 米飲下拾圓至參伍拾圓, 頻服之, 食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0환에서 30 - 50 환을 미음으로 넘기되 식전에 자주 복용한다.

### 二聖圓 이성원

治小兒藏府或好,或瀉久不愈,羸瘦成疳.

소아의 오장육부가 건강하더라도(간혹 설사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싹 마르면서 감병이 되려고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川黃連(去須)、黃蘗(去麁皮) 各壹兩.

천황련(잔뿌리를 제거한다) , 황벽(겉껍질을 제거한다) 각 1냥.

右爲細末,將藥末入猪膽內,湯煮熟,圓如菉豆大,每服貳參拾圓,米飲下,量兒大小加減,頻服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내고 가루를 저담(豬膽) 속에 채워 넣은 후 끓는 물에 삶아서 익히고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20 - 30환씩 미음으로 넘긴 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자주 복용한다.

# 沒石子圓 몰석자원

治泄瀉白濁,及疳痢滑腸腹痛者方.

하얗고 탁한 설사를 하거나, 감리(疳痢) 때문에 먹는 족족 똥을 지리면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木香、黃連 各壹分, 沒石子 壹個, 荳蔻仁、訶子肉 參個.

목향 · 황련 각 1푼, 몰석자 1개, 두구인 · 가자육 3개.

右爲細末, 飯和圓麻子大, 米飲下, 量兒大小加減, 食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 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하고 미음으로 식전에 복용한다.

#### 當歸散 당귀산

治變蒸,有寒無熱.

변(變), 증(蒸)으로 한증은 있으나 열증은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當歸 貳錢, 木香、官桂、甘草(炙)、人參 各壹錢.

당귀 2돈, 목향、관계、자감초、인삼 각 1돈.

右㕮咀, 每服貳錢, 水柒分盞, 薑參片, 棗壹枚去核, 同煎服.

이상을 거칠게 자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0.7잔에 넣고 생강 3조각과 대조 1개(씨를 뺀다)와 함께 달여서 복용한다.

#### 溫白圓 온백원

治小兒脾氣虛困, 泄瀉瘦弱, 冷疳洞利, 及因吐瀉或久病後成慢驚, 身冷瘈瘲.

소아의 비기가 허약하여 설사하면서 말라가거나, 냉감(冷疳)으로 음식을 그대로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구토와 설사 후나 오랜 병을 앓은 후에 만경풍이 생겨 몸통이 차갑고 계종(瘈瘲) 증상이 생긴 경우도 치료한다.

天麻(生) 半兩, 白殭蠶(炮)、白附子(生)、乾蝎(去毒)、天南星(剉, 湯浸柒次, 焙) 各 壹分.

천마(생것) 0.5냥, 백강잠(습지에 싸서 굽는다)、백부자(생것)、건갈(독성을 제거한다)、천남성(썰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말리기를 7차례 했다가 곁불에 말린다) 각 1푼.

右同爲末,湯浸寒食麵和圓如菉豆大,圓了,仍與寒食麵內養柒日,取出,每服伍柒圓至參貳拾圓,空心煎生薑米飲,漸加圓數,多與服.

이상을 한꺼번에 가루 낸 후 뜨거운 물에 담근 한식면(寒食麵)과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환을 다 빚으면 한식면 속에 넣고 7일 동안 숙성시켰다가 꺼내어 쓴다. 한 번 복용할 때 5 - 7환에서 20 - 30환씩 생강과 함께 달인 미음으로 빈속에 복용하되 점점 환 수를 늘려 많이 복용시킨다.

### 荳蔲散 두구산

治吐瀉煩渴,腹脹小便少.

구토와 설사를 하고 번갈이 있으며 배가 빵빵하고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를 치료한다.

荳蔻、丁香 各半分, 舶上硫黃 壹分, 桂府白滑石 參分.

두구 ㆍ 정향 각 0.5푼, 뱃전에 붙은 유황 1푼, 계부(桂府)에서 나는 백활석 3푼.

右爲細末,每服壹匙至半錢,米飮下,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술에서 0.5돈씩 미음에 타서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溫中圓 온중원

治小兒胃寒瀉白,腹瀉腸鳴,吐酸水,不思食,及霍亂吐瀉.

소아의 위부가 차가워 흰 설사를 하고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시큼한 물같은 것을 토하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구토와 설사를하면서 곽란(霍亂)이 있는 경우도 치료한다.

### 人參(切去頂, 焙)、甘草(剉焙)、白术 各壹兩(爲末).

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 감초(썰어서 곁불에 말린다) · 백출 각 1냥(가루 낸다).

### 右薑汁麵和圓菉豆大,米飲下壹貳拾圓,無時.

생강즙을 탄 밀가루 반죽과 이상의 약재를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은 후 미음으로 10 - 20환을 복용하되 시간은 상관없다.

# 胡黃連麝香圓 호황련사향원

治疳氣羸瘦,白虫作方.

감병으로 바싹 마르고 백충(白虫)이 생기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胡黃連、白蕪荑(去扇) 各壹兩, 木香、黃連 各半分, 辰砂(別研) 壹分, 麝香(剉研) 壹錢.

호황련 · 백무이(날개 같은 부분을 제거한다) 각 1냥, 목향 · 황련 각 0.5푼, 진 사(따로 갈아 둔다) 1푼, 사향(썰어서 간다) 1돈.

右爲細末,麵糊圓菉豆大,米飲下伍柒圓至拾圓,參伍歲已上者,可拾伍圓貳拾圓,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5 - 7환에 서 10환을 미음으로 넘기되 3 - 5살 이상의 아이는 15 - 20환도 괜찮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大胡黃圓<sup>1</sup> 대호황련원

治一切驚疳, 腹脹虫動, 好喫泥土生米, 不思飲食, 多睡, 嗞啀藏府或秘或瀉, 肌膚黃瘦, 毛焦髮黃, 飲水, 五心煩熱, 能殺虫消², 進飲食, 治瘡癬, 常服不瀉痢方.

경감(驚疳)으로 생긴 일체의 증상을 치료한다. 배가 빵빵해지면서 충이 꿈틀 대거나 진흙이나 생쌀을 자꾸 먹으려 하거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계속 자려고 하거나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며 변비나 설사를 하거나 살이 누레지면서 마르거나 머리털과 털들이 푸석푸석해지면서 누레지거나 계속 물을 마시려 하거나 오심에 번열이 생기거나 하는 증상들이다. 충을 죽여서 빵빵해진 배가 사그라들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창이나 개선도 치료하며 늘 복용하면 설사를 하지 않게 되는 처방이다.

胡黃連、黃連、苦楝子 各壹兩, 白蕪荑(去扇) 半兩 [春初參分], 蘆薈(別研)、乾蟾頭(燒存性, 別研) 各壹分, 麝香 壹錢(別研), 青黛 壹兩半(別研).

호황련 · 황련 · 고련자 각 1냥, 백무이(날개 같은 부분을 제거한다) 0.5냥 [ 초 봄에는 3푼을 쓴다 ] , 노회(따로 갈아 둔다) · 건섬두(약성이 남도록 태우고 따 로 갈아 둔다) 각 1푼, 사향 1돈(따로 갈아 둔다), 청대 1.5냥(따로 갈아 둔다).

右先將前肆味爲細末, 猪膽汁和爲劑, 每壹胡桃大, 入巴豆仁用油單一重裹之, 蒸熟去巴豆, 用米壹升許, 蒸米熟爲度, 入後肆味爲圓, 如難圓, 少入麵糊, 圓麻子大, 每服拾圓拾伍圓, 清米飮下, 食後臨臥, 日進參兩服.

우선 앞의 4가지 약재를 곱게 가루 내고 저담(豬膽)즙과 섞어 조제한다. 한 번에 호도 크기만큼 속에 파두인을 넣고 기름과 함께 전체를 싼 후 증기에 익혔다가 파두를 제거한다. 증기에 익히는 시간은 쌀 1되 정도로 밥을 해서 익을 정도로 한다. 그러고 나서 뒤의 4가지 약재를 넣고 환을 빚되 환이 잘 빚어지지 않으면 밀가루풀을 약간 넣고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0 - 15환씩 묽은 미음으로 식후 자기 전에 복용하되 하루에 2 - 3번 복용한다.

1. 大胡黃圓: ☞大胡黃連圓 ※취진본 ↔

<sup>2</sup>. 글자없음 : \*脹 ※취진본 ←

### 榆仁圓 유인원

治疳熱瘦悴有虫,久服充肥.

감열(疳熱)로 바싹 마르고 초췌하며 충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살이 통통해진다.

榆仁(去皮)、黃連(去頭) 各壹兩.

유인(껍질을 제거한다), 황련(끝을 제거한다) 각 1냥.

右爲細末,用猪膽柒個破開,取汁,與貳藥同和,入碗內,甑上蒸九日,每日壹次,候日數足,研麝香伍分,湯浸一宿,蒸餅同和成劑,圓如菉豆大,每服伍柒圓至壹貳拾圓米飲下,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내고 저담(猪膽) 7개를 짓이겨 즙을 낸 후 2가지 약재를 하나로 섞어 사발 속에 넣고 시루에 9일 동안 찌되 하루에 한 번만 찐다. 9일이 되면 사향 5푼을 갈아서 넣고 뜨거운 물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증병(蒸餅)과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5 - 7환에서 10 - 20환씩 미음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大蘆薈圓 대노회원

治疳殺虫,和胃止瀉.

충을 죽여서 감병을 치료한다. 위부를 편안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한다.

蘆薈(研)、木香、青橘皮、胡黃連、黃連、白蕪荑(去扇秤)、雷丸、鶴虱(微炒) 各 半兩, 麝香 貳錢(別研).

노회(간다) · 목향 · 청귤피 · 호황련 · 황련 · 백무이(부채 같은 부분을 제거한 후의 무게) · 뇌환 · 학슬(살짝 볶는다) 각 0.5냥, 사향 2돈(따로 갈아 둔다).

右爲細末, 粟米飲1圓菉豆大, 米飲下貳拾圓, 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조밥과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미음으로 20환을 시간에 상관없이 넘긴다.

1. 粟米飮: ☞粟米飯 ※취진본 ←

## 龍骨散 용골산

治疳口瘡, 走馬疳.

감병으로 입에 창이 생긴 경우나 주마아감(走馬牙疳) 증상을 치료한다.

砒霜、蟾酥 各壹匙, 粉霜 伍分, 龍骨 壹錢, 定粉 壹錢伍分, 龍腦 半匙.

비상 · 섬수 각 1술, 분상 5푼, 용골 1돈, 정분 1.5돈, 용뇌 0.5술.

右先研砒粉極細,次入龍骨再研,次入定粉等同研,每用少許傅之.

위 약재 중에서 먼저 비상을 아주 곱게 가루낸 후 용골을 넣고 한 번 더 간다. 그다음 정분 등 나머지 약재를 넣고 한꺼번에 간다. 사용할 때는 가루를 약간 씩 환부에 바른다.

## 橘連圓 귤련원

治疳瘦, 久服消食和氣, 長肌肉.

감병으로 바싹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운을 안정되게 하며 살을 붙게 만든다.

陳橘皮 壹兩, 黃連 壹兩伍錢(去鬚, 米泔浸壹日).

진피 1냥, 황련 1.5냥(잔뿌리를 제거하고 쌀뜨물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쓴다).

右爲細末, 研入麝香伍分, 用猪膽柒個, 分藥入在膽內, 漿水煮, 侯臨熟, 以針微劄破, 以熟爲度, 取出, 以粟米粥和圓菉豆大, 每服拾圓至貳參拾圓, 米飲下, 量兒大小與 之, 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사향 5푼을 갈아서 넣고 저담(豬膽) 7개 속에 약가루를 나누어 넣는다. 이것을 장수(漿水)에 삶으면서 익는 동안 바늘로 살짝 구멍을 낸다. 완전히 익으면 꺼내고 좁쌀죽과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0환에서 20 - 30환씩 미음으로 넘기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龍粉圓 용분원

#### 治疳渴.

감병으로 갈증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草龍膽、定粉、烏梅肉(焙秤)、黃連 各貳分

초룡담, 정분, 오매육(곁불에 말린다), 황련 각 2푼.

右爲細末,煉蜜圓如麻子大,米飲下壹貳拾圓,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0 - 20환을 시간에 상관없이 미음으로 넘긴다.

## 香銀圓 향은원

治吐.

구토를 치료한다.

丁香、乾葛 各壹兩, 半夏(湯浸柒次, 切焙)、水銀 各半兩.

정향 · 건갈 각 1냥, 반하(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말리기를 7차례 한 후 절편으로 썰고 곁불에 말린다) · 수은 각 0.5냥.

右上參味同爲細末,將水銀與藥同研勻,生薑汁圓如麻子大,每服壹貳圓至五七圓,煎金銀湯下,無時.

위 약재 중에서 앞 3가지 약재를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수은과 나머지 약재를 한꺼번에 골고루 갈고 생강즙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복용할 때 1 - 2환에서 5 - 7환씩 금은화 달인 물에 시간에 상관없이 넘긴다.

## 金華散 금화산

#### 治乾濕瘡癬.

건습에 상관없이 창이나 개선을 치료한다.

黃丹(煅) 壹兩, 輕粉 壹錢, 黃蘗、黃連 各半兩, 麝香 少許.

황단(불에 달군다) 1냥, 경분 1돈, 황벽 ㆍ 황련 각 0.5냥, 사향 약간.

右爲末,先洗,次乾摻之,如乾癬瘡,用臘月猪脂和傅,如無,用麻油亦可,加黃芩、大黃.

이상을 가루 낸다. 우선 환부를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약을 뿌린다. 진물이 나지 않는 창이나 개선에는 납월저지(臘月猪脂)와 섞어 서 바른다. 납월저지가 없으면 마유(麻油)를 써도 괜찮다. 황금, 대황을 더해 써도 괜찮다.

# 安虫圓 안충원

治上中二焦虚,或胃寒虫動及痛,又名苦楝圓方.

상초와 중초가 허한 경우를 치료한다. 혹은 위부가 차가워져 충이 꿈틀대고 아 픈 경우도 치료한다. 고련원이라고도 한다.

乾漆 參分(杵碎, 炒煙盡), 雄黃、巴豆霜 壹錢.

건칠 3푼(절구에 넣고 빻은 후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볶는다), 웅황·파두 상 1돈.

右爲細末,麵糊圓黍米大,量兒大小與服,取東行石榴根煎湯下,痛者煎苦楝根湯下,或蕪夷湯下伍柒圓至參貳拾圓,發時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목집을 가늠하여 먹이되 동쪽으로 뻗은 석류나무의 뿌리 달인 물로 복용한다. 통증이 있으면 고련근 달인 물로 넘기거나 무이탕으로 5 - 7환에서 20 - 30환을 넘긴다.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해야 한다.

## 蕪荑散 무이산

#### 治胃寒虫痛.

위부가 차가워져 충이 꿈틀대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白蕪荑(去扁秤)、乾漆(炒) 各等分.

백무이(부채 같은 부분을 제거한 무게) ㆍ 건칠(볶는다)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每服壹匙,伍分或壹錢,米飲調下,發時服.右方杜壬養生必用方同,杜亦治胃寒虫上.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술씩(5푼에서 1돈) 미음에 타서 넘기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해야 한다. 이 처방은 두임(杜壬)의 양생필용방과 같다. 두임 역시 위부가 차가워져 충이 올라올 때에 사용했다.

## 膽礬圓 담반원

治疳消癖, 進食止瀉, 和胃遣虫.

감병을 치료하여 벽적을 치료하고 음식을 먹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하고 위부를 편안하게 만들어 충을 내려가게 한다.

膽礬(眞者) 壹錢(爲麁末), 綠礬(眞者) 貳兩, 大棗 拾肆個(去核), 好醋 壹升.

담반(품질 좋은 것) 1돈(거칠게 가루 낸다), 녹반(품질 좋은 것) 2냥, 대조 40개 (씨를 제거한다), 품질 좋은 식초 1되.

#### 已上肆物同煎熬,令棗爛,和後藥.

위 4개 약재를 한꺼번에 달이고 졸여서 대조를 문드러지게 만든 후 아래 약재를 섞는다.

史君子 貳兩(去殼), 枳實(去穰, 炒) 參兩, 黃連、訶黎勒(去核) 各壹兩(並爲麁末), 巴豆 二七枚(去皮, 破之).

사군자 2냥(껍데기를 제거한다), 지실(속을 긁어내고 볶는다) 3냥, 황련 · 가리 륵(씨를 제거한다) 각 1냥(모두 거칠게 가루 낸다), 파두 14개(껍질을 제거하고 쪼갠다).

#### 已上伍物, 同炒令黑, 約參分乾, 入後藥.

위 5개 약재를 한꺼번에 볶아 까맣게 만들고 3할 정도 말린 후 아래 약재를 넣는다.

夜明砂 壹兩, 蝦嘛灰(存性) 壹兩, 苦楝根皮(末) 半兩.

야명사 1냥, 하마회(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1냥, 고련근피(가루 낸다) 0.5냥.

已上參物再同炒,候乾,同前肆物杵羅爲末,却同前膏和,入臼中杵千下,如未成,更旋入熟棗肉,亦不可多,恐服之難化,太稠即入溫水,可圓即圓如菉豆大,每服貳參拾圓,米飲溫水下,不拘時.

위 3개 약재를 다시 한꺼번에 볶다가 습기가 마르면 처음 4가지 약재와 함께 절구에 찧고 망에 걸러 가루 낸다. 그리고 앞의 고약과 함께 절구 속에 넣고 1,000번 공이질을 한다. 찰기가 부족하면 다시 한번 익힌 대추 과육을 넣되 너무 많이 넣지 말아야 하니 복용할 때 소화되기 힘들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너무 찰지면 따뜻한 물을 탄다. 환을 빚을 수 있게 되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20 - 30환씩 미음이나 따뜻한 물로 넘기되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眞珠圓 진주원

取小兒虛中,一切積聚驚涎,宿食乳癖,治大小便澁滯,療腹脹行滯氣.

소아의 허증으로 생긴 적취나 경풍이나 담연이나 숙식이나 유벽(乳癖) 일체를 치료한다. 또한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도 치료하고, 복창을 치료하여 막혔던 기를 운행시킨다.

木香、白丁香(真者)、丁香(末) $^1$ , 巴豆仁 十四個(水浸一宿, 研極膩)、輕粉 各伍分 (留少許, 爲衣), 白滑石(末) 貳錢.

목향 · 백정향(품질 좋은 것) · 정향(가루 낸다) 각 0.5돈, 파두인 14개(물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갈아서 아주 질게 만든다) · 경분 각 5푼(약간은 남겨두어 겉에 입힐 때 쓴다), 백활석(가루 낸다) 2돈.

右爲末, 研勻, 濕紙褁燒, 粟米飯圓麻子大, 壹歲壹圓, 捌玖歲已上至拾伍歲, 服捌圓, 炮皂子煎湯放冷下, 挾風熱難動者, 先服凉藥壹服, 乳癖者減圓數, 隔日臨臥壹服,

이상을 가루 낸다. 이것을 골고루 갈고 습지로 싸서 불에 태운 후 좁쌀밥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는 1환을, 8 - 9살 이상의 아이부터 15살까지는 8환을 복용하되 조각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달인 물을 식혀서 넘긴다. 풍증과 열증까지 겹쳐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서늘한 성질의약을 한 번 복용한 후에 이 약을 복용한다. 유벽이 있는 경우에는 환 수를 줄여서 하루건너 한 번 자기 전에 복용한다.

1. 글자없음 : \*各半錢 ※취진본 ←



## 消堅圓 소견원

消乳癖, 及下交妳, 又治痰熱膈實, 取積.

유벽(乳癖)을 삭히고 교내(交嬭)를 내려가게 한다. 또한 담열(痰熱)로 생긴 흉격의 실증을 치료하고 적취를 사그라뜨린다.

碉砂末、巴豆霜、輕粉 各壹錢, 水銀砂子 兩皂子大, 細墨 少許, 黃明膠(末) 伍錢.

망사 가루 · 파두상 · 경분 각 1돈, 수은(모래처럼 잘게 결정진 것) 조각자 2개 크기, 세묵 약간, 황명교(가루 낸다) 5돈.

右同研匀,入麪糊圓如麻子大,倒流水下,壹歲壹圓,食後.

이상을 한꺼번에 골고루 간 후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 다. 1살 아이 기준으로 1환을 식후에 도류수(倒流水)로 복용한다.

## 百部圓 백부원

#### 治肺寒壅嗽,微有痰.

폐장이 차가워져 답답하고 기침하면서 가래도 살짝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百部 參兩(炒), 麻黃(去節)、杏仁 四十個(去皮尖, 微炒, 煮三五沸).

백부 3냥(볶는다),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 행인 40개(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하고 살짝 볶은 후 3 - 5소솜 삶는다).

右爲末,煉蜜圓如芡實大,熱水化下,加松子仁肉五十粒,糖圓之,含化大妙.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뜨거운 물에 녹여서 넘긴다. 송자인(松子仁) 과육 50알을 추가하고 엿으로 환을 빚은 후 녹여서 먹 으면 효과가 대단히 좋다.

## 紫草散 자초산

#### 發斑疹.

반진(斑疹)에 수포를 돋게 한다.

釣藤鉤子、紫草茸 各等分.

조구등자 사 초용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每服壹匙,或伍分壹錢,溫酒調下,無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술 혹은 0.5돈씩 따뜻한 술에 타서 시 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秦艽散 진교산

#### 治潮熱減食蒸瘦方.

조열이 나면서 음식의 양이 줄고 증(蒸)을 거치면서 바싹 마르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 秦艽(去蘆頭, 切焙)、甘草(炙) 各壹兩, 乾薄荷 半兩(勿焙).

진교(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 자감초 각 1냥, 말린 박하 0.5냥(곁불에 말리지 않는다).

#### 右爲麁末, 每服壹貳錢, 水壹中盞, 煎至捌分, 食後溫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돈씩 물 1중잔(中盞)에 넣고 8 할이 되도록 달여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地骨皮散 지골피산

治虛熱潮作,亦治傷寒壯熱及餘熱方.

허열이 주기적으로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상한으로 열이 심하거나 상한 후에 열이 남아있는 경우도 치료한다.

地骨皮[自採佳]、知母、銀州柴胡(去蘆)、甘草(炙)、半夏(湯洗七次, 切焙)、人参(切去頂, 焙)、赤茯苓 各等分.

지골피 [ 직접 캔 것이 좋다 ] 、지모、은주(銀州) 지역에서 난 시호(노두를 제거한다)、자감초、반하(뜨거운 물로 씻고 말리기를 7차례 한 후 절편으로 썰고 곁불에 말린다)、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적복령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 每服貳錢, 薑伍片, 水壹盞, 煎至捌分, 食後溫服, 量大小加減.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생강 5조각과 함께 물 1잔에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여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한다.

## 人參生犀散 인삼생서산

解小兒時氣,寒壅欬嗽,痰逆喘滿,心忪驚悸,藏府或秘或泄,調胃進食,又主一切風熱,服尋常凉藥,即瀉而減食者.

소아가 전염병으로 한기가 뭉쳐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끓으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가슴이 그득하거나 무언가에 놀라고 두려워하거나 오장육부의 문제로생겨난 변비나 설사를 풀어준다. 위부를 편안하게 만들어 음식을 잘 넘기게 만든다. 또한 풍열로 평소에 서늘한 성질의 약을 복용하여 설사를 하고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일체의 증상도 치료한다.

人參(切, 去蘆) 參錢, 前胡(去蘆) 柒錢, 甘草(炙黃) 貳錢, 桔梗、杏仁(去皮尖, 略瀑乾, 爲末稱) 各伍錢.

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다) 3돈, 전호(노두를 제거한다) 7돈, 감초 (누렇게 굽는다) 2돈, 길경ㆍ행인(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하고 햇볕에 대충 말렸다가 가루 낸 것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각 5돈.

右將前肆味爲末,後入杏仁,再粗羅羅過,每服貳錢,水壹盞,煎至捌分,去滓溫服,食後.

위에서 앞의 4가지 약재를 가루 낸 후 행인을 넣고 한 번 더 굵은 망에 충분히 거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데워 식후에 복용한다.



# 三黃圓 삼황원

#### 治諸熱.

여러 가지 열증을 치료한다.

### 黃芩 半兩(去心), 大黃(去皮, 濕帋褁煨)、黃連(去鬚) 各壹錢.

황금 0.5냥(심을 제거한다), 대황(껍질을 제거하고 습지에 싸서 잿불에 굽는다) · 황련(잔뿌리를 제거한다) 각 1돈.

### 右同爲細末, 麪糊圓菉豆大或麻子大, 每服伍柒圓至拾伍圓貳拾圓, 食後米飲送下.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 혹은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5 - 7환에서 15 - 20환씩 식후에 미음으로 복용한다. 숫구멍이 닫히지 않거나 콧구멍이 막혀 숨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 治 傾開不合, 鼻塞不通方

治願開不合, 鼻塞不通方 숫구멍이 닫히지 않거나 콧구멍이 막혀 숨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

天南星大者, 微炮去皮, 爲細末, 淡醋調塗緋帛上, 貼頗上, 火炙, 手頻熨之.

천남성 큰 것을 습지에 싸서 살짝 굽고 껍질을 벗겨 곱게 가루 낸 후 묽은 식초를 골고루 바른 천에 바르고 숫구멍 위에 붙여 놓는다. 그러고 나서 불에 쬔 손바닥으로 자주 찜질해준다.

# 黃芪散 황기산

#### 治虚熱盜汗.

허열로 도한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牡蠣(煅)、黄芪、生地黄 各等分.

모려(불에 달군다) , 황기 , 생지황 각각 같은 양.

### 右爲末,煎服無時.

이상을 가루 낸 후 물에 달여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虎杖散 호장산

#### 治實熱盜汗.

실열로 도한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右用虎杖剉,水煎服,量多少與之,無時.

이때는 호장(虎杖)을 잘게 썰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捻頭散 염두산

#### 治小便不通方.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 延胡索、川苦楝 各等分.

현호색 , 천고련 각각 같은 양.

右同爲細末,每服伍分或壹錢,捻頭湯調下,量多少與之,如無捻頭湯,卽湯中滴油數點,食前.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5푼 혹은 1돈씩 <mark>염두탕(捻頭湯)</mark>1에 타서 넘기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한다. 염두탕이 없으면 따뜻한 물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쓴다. 식전에 복용한다.

1. 염두탕(捻頭湯): 백비탕(百沸湯)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잘 섞은 것 이다. ←

### 羊肝散 양간산

#### 治瘡疹入眼成翳.

창진이 눈으로 들어가 예막이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右用蟬蛻末,水煎羊子肝湯調服貳參錢,凡痘瘡纔欲着痂,即用酥或面油不住潤之,可揭卽揭去,若不潤及遲揭,瘡硬卽隱成瘢痕.

이때는 선태 가루를 새끼양의 간 달인 물에 타서 2 - 3돈을 복용한다. 대체로 두창에 이제 막 딱지가 앉으려 할 때 연유나 면유(面油, 얼굴에 윤기가 나도록 바르는 기름)를 써서 딱지가 촉촉하게 해주면 딱지가 떨어질 때 잘 떨어진다. 만일 딱지가 촉촉하지 않아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수포가 생긴 부분이 딱딱해 져 살 속으로 숨으면서 곰보가 된다.

### 蟬蛻散 선태산

治斑瘡入眼, 半年已內者, 壹月取效.

반진이 눈으로 들어간 경우를 치료한다. 반 년 이내에 생긴 증상의 경우 한 달이면 효과가 나타난다.

蟬蛻(去土,取末) 壹兩,豬懸蹄甲貳兩(罐子內,鹽泥固濟,澆存性1).

선태(흙을 제거하고 가루 내어 쓴다) 1냥, 저현제갑 2냥(동이 속에 넣고 뻘로 뚜껑을 밀봉한 채 약성이 남을 정도로 태운다).

右二味研,入羚羊角末壹分拌匀,每服壹匙,百日外兒伍分,參歲以上壹貳錢,溫水或新水調下,日三四,夜一二,食後服,一年以外難治.

위 2가지 약재를 갈고 영양각 가루 1푼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술씩, 100일 지난 아이는 5푼씩, 3살 이상의 아이는 1 - 2돈씩 따뜻한 물이나 신급수에 타서 낮에는 3 - 4번, 밤에는 1 - 2번 식후에 복용한다. 병을 앓은 지 1년 이상 되면 치료하기 어렵다.

1. 澆存性: ☞燒存性 ※문맥상 ←

# 烏藥散 오약산

治乳母冷熱不和,及心腹時痛,或水瀉,或乳不好.

유모 젖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배가 자주 아프거나 물 같은 설사를 하거나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天台烏藥、香附子(破,用白者)、高良薑、赤芍藥.

천태오약,향부자(쪼개서 흰 속만 쓴다),고량강,적작약.

右各等分爲末, 每服壹錢, 水壹盞同煎陸分, 溫服, 如心腹疼痛, 入酒煎, 水瀉米飲調下, 無時.

이상의 약재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돈씩 물 1잔에 넣고 6할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배가 아픈 경우에는 술을 넣고 달이고, 물 같은 설사를 할 때는 미음에 타서 넘긴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二氣散 이기산

治冷熱驚吐反胃,一切吐利,諸治不效者.

냉증 혹은 열증으로 경기와 구토를 하며 번위가 있으면서 구토나 설사에 다른 치료가 효과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硫黃 半兩(研), 水銀 貳錢半(研, 不見星).

유황 0.5냥(간다), 수은 2.5돈(많이 갈아서 반짝이는 부분이 없게 만든다).

右每服壹匙至伍分,生薑水調下,或同炒結砂爲圓.

이상을 한 번 복용할 때 1술에서 5푼씩 생강을 담갔던 물에 타서 넘긴다. 혹은 한꺼번에 볶아 수은을 모래처럼 덩어리지게 만든 후 환을 빚어 복용하기도 한 다.

# 葶藶圓 정력원

治乳食衝肺,咳嗽面赤痰喘.

젖이나 음식이 폐장에 부딪혀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가래가 끓으며 숨을 헐떡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甜葶藶( $\frac{1}{1}$  帋炒)、黑牽牛(炒)、漢防己、杏仁(炒, 去皮尖) 各壹錢.

첨정력(종이를 깔고 볶는다), 흑견우(볶는다), 한방기, 행인(볶은 후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각 1돈.

右爲末,入杏仁泥,取蒸陳棗肉和搗,爲圓如麻子大,每服伍圓至柒圓,生薑湯送下.

이상을 가루 내고 행인(간다)을 넣고 묵은 대조의 과육을 쪄서 넣은 후 한꺼번에 찧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5환에서 7환씩 생강 탕으로 넘긴다.

<sup>1</sup>. 膈: ☞隔 ※문맥상 ←

## 麻黃湯 마황탕

治傷風發熱無汗,咳嗽喘急.

상풍(傷風)으로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去節) 參錢(水煮, 去沫漉出, 曬乾), 肉桂 貳錢, 甘草(炙) 壹錢, 杏仁 柒個(去皮尖, 麩炒黃, 硏膏).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3돈(물에 삶으면서 거품을 걷어내고 건더기만 거른 후 볕에 말린다), 육계 2돈, 자감초 1돈, 행인 7개(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하고 밀 기울과 함께 누렇게 되도록 볶은 후 갈아서 고약처럼 만든다)

每服壹錢,水煎服,以汗出爲度,自汗者不宜服.

한 번 복용할 때 1돈씩 물에 달여 복용하되 땀이 날 때까지 복용한다. 자한(自 汗)이 있으면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 生犀磨汁 생서마즙

### 治瘡疹不快, 吐血衄血.

창진에 수포가 시원하게 돋지 않고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生犀磨汁.

생서각 간 즙

# 大黃圓 대황원

#### 治諸熱.

열이 나는 여러 증상을 치료한다.

### 大黃、黃芩 各壹兩.

대황 ㆍ황금 각 1냥.

右爲末,煉蜜圓如菉豆大,每服伍圓至拾圓,溫蜜水下,量兒加減.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5 - 10환씩 따뜻한 꿀물로 넘기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한다.

### 史君子圓 사군자원

治藏府虚滑,及疳瘦下利,腹脇脹滿,不思乳食,常服安虫補胃,消疳肥肌.

오장육부가 허약하여 먹은 것을 그대로 쏟아 내거나, 감병으로 바싹 말라 설사를 지리거나 배나 옆구리가 빵빵하게 불어나거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늘 복용하면 충을 안정시키고 비위를 보하여 감병이 없어지고 살이 붙게 된다.

후박(겉껍질을 제거하고 생강즙을 바른다) · 자감초 · 가자육(절반은 생것을 쓰고, 절반은 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서 굽는다) · 청대 각 0.5냥(청대는 경풍이나 열이나 설사가 있을 때만 넣는다. 감병만 있을 때는 넣지 않는다), 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1푼, 사군자(껍데기를 제거한다) 1냥(밀가루반죽으로 싸서 잿불에 묻어 익힌 후 밀가루반죽을 떼어 내고 쓰지 않는다).

右爲末,煉蜜圓如小鷄豆大,每服壹圓,米飲化下,百日已上一歲已下服半圓,乳汁化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계두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 환씩 미음에 녹여서 넘긴다. 100일 이상부터 1살 이하의 아이는 0.5환씩 젖에 녹여서 먹인다.



### 靑金丹 청금단

#### 疎風利痰.

풍사를 흩고 담연을 배출시킨다.

蘆薈、牙硝、青黛 各壹錢, 史君子 參枚, 硼砂、輕粉 各伍分, 蝎梢 拾肆個.

노회 · 아초 · 청대 각 1돈, 사군자 3개, 붕사 · 경분 각 5푼, 갈초 40개.

右末, 磨香墨拌圓麻子大, 每參圓, 薄荷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향묵(香墨) 간 즙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 燒靑圓 소청원

治乳癖.

유벽(乳癖)을 치료한다.

輕粉、粉霜、碙砂 各壹錢, 白麪 貳錢, 玄精石 壹分, 白丁香 壹匙, 定粉 壹錢, 龍腦拾匙.

경분 · 분상 · 망사 각 1돈, 백면 2돈, 현정석 1푼, 백정향 1술, 정분 1돈, 용되 10술.

右同一處研令極細,滴水和爲壹餅,以文武火燒熟,勿焦,再爲末,研如粉麪,滴水和圓如黃米,每服柒圓,漿水化下,參歲以下服伍圓,量兒大小,加減服之,此古方也.

이상을 한 곳에 넣고 매우 곱게 간 후 물을 떨어뜨리면서 반죽하여 한 덩이로 뭉친다. 적당한 불로 구우면서 익히되 까맣게 태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한 번 더 가루 내고 갈아서 향분이나 밀가루처럼 곱게 만들고 물을 떨어뜨리면서 황미(黃米) 크기로 환을 빛는다. 한 번 복용할 때 7환씩 장수(漿水)에 녹여서 먹인다. 3살 이하의 아이는 5환을 먹이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조절 한다. 이 처방은 옛날부터 쓰던 처방이다.

# 敗毒散 패독산

治傷風瘟疫風濕,頭目昏暗,四肢作痛,增寒壯熱,項强睛疼,或惡寒咳嗽,鼻寒聲重.

상풍(傷風)이나 온역(瘟疫) 등 풍습의 사기 때문에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사지가 쓰시며 오한과 열이 심하고 뒷목이 뻣뻣하면서 눈알이 아프며 간혹 오한과 기침이 나고 코가 막히면서 목소리가 잠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洗, 去蘆)、前胡、川芎、枳殼(炒)、羌活、獨活、茯苓、桔梗(炒)、人參 各 壹兩, 甘草 半兩.

시호(깨끗이 씻고 노두를 제거한다) · 전호 · 천궁 · 지각(볶는다) · 강활 · 독활 · 복령 · 길경(볶는다) · 인삼 각 1냥, 감초 0.5냥.

右爲末,每服貳錢,生薑薄荷煎.加地骨皮天麻,或㕮咀,加蟬蛻防風,治驚熱可加芍藥、乾葛、黃芩,無汗加麻黃.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생강 · 박하 달인 물에 먹인다. 지골 피 · 천마를 더하기도 한다. 혹은 거칠게 자르고 선태 · 방풍을 더하여 쓰기도 한다. 경풍으로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작약 · 건갈 · 황금을 더하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마황을 더하여 쓴다.

### 錢氏小兒藥證目錄<sup>1</sup>卷下 [終]

### 소아약증직결 권하 [끝]

1. 目錄: ☞直訣 ←



附方 [ 閻孝忠 ] 부록 처방 [ 염효충(閻孝 忠) ]



# 治法 치료법

余家幼稚多疾,率用錢氏方訣,取效如神,因復研究諸法,有得于心.如驚疳等,錢仲陽之未悉者,今見於下,并以仲陽傳附卷末.

우리집안에서는 아이 때 자주 병치레를 하면 대부분 전중양의 처방을 사용하였고 귀신같은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치료법을 연구한 결과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다. 경감(驚疳) 같은 병에 대해 전중양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내용을 지금 아래에 적고 그의 전기까지 합하여 책 뒤에 붙여 놓는다. <sup>1</sup>

小兒急慢驚, 古書無之, 惟曰陰陽癎, 所謂急慢驚者, 後世名之耳, 正如赤白痢之類, 是也. 陽動而速, 故陽病曰急驚; 陰靜而緩, 故陰病曰慢驚. 此陰陽虛實寒熱之別, 治之不可誤也.

急驚由有熱,熱卽生風,又或因驚而發,則目上目劄,涎潮搐搦,身體與口中氣皆熱, 及其發定或睡起,卽了了如故.此急驚證也.當其搐勢漸減時,與鎭心治熱藥壹貳服. [《直訣》中麝香圓、鎭心圓、抱龍圓、辰砂圓,及至寶丹、紫雪之類] 候驚勢已 定,須臾以藥下其痰勢[《直訣》中利驚圓、軟金丹、桃枝圓之類,或用大黃、朴硝 等藥],利下痰熱,心神安寧卽愈.

慢驚得於大病之餘, 吐瀉之後, 或悮取轉致脾胃虛損, 風邪承之 [凡小兒吐瀉不止, 必成慢驚, 宜速治], 似搐而不甚搐 [此名瘈瘲], 似睡而精神慢, 四肢與口中氣皆冷, 睡露睛, 或胃痛而啼哭如鵶聲. 此證已危, 蓋脾胃虛損故也.

소아의 급경풍 · 만경풍이란 말은 옛 의서에 나오지 않고 음간(陰癎) · 양간(陽癎) 이라고만 하였으니 급경풍 · 만경풍이란 말은 후대에 붙인 명칭일 뿐이다. 적백리란 말이 후대에 생긴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양의 기운은 움직이면서 빠른 성질이라 양증을 급경풍이라고 하고, 음의 기운은 가만히 있으면서 느린 성질이라 음증을 만경풍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증상의 음양 · 허실 · 한열을 구별해야만 치료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

급경풍은 열 때문에 생기니 열로 인한 풍사로 발병하거나, 혹은 무언가에 놀라 서 발병하기도 한다. 발병하면 눈을 치껴뜨면서 깜빡이거나 거품을 물면서 축 닉이 생기거나 몸부터 입 속의 숨까지 모두 뜨겁게 되었다가 진정되거나 잠이 들면 예전처럼 멀쩡해진다. 이것이 급경풍의 증상이다. 축닉이 점점 줄어들 때 가슴을 진정시키고 열을 다스리는 약을 주어 1 - 2번 복용시킨다. [《소아약증 직결》의 사향원 · 진심원 · 포룡원 · 진사원 · 지보단 · 자설 같은 처방들이 다 ] 경기가 진정되면 곧바로 약을 써서 담연을 배출시킨다. [《소아약증직 결》의 이경원 、연금단 、도지원 같은 처방들이다. 혹은 대황 、박초 같은 약재 를 쓴다 1 담연으로 열을 배출시키면 정신이 편안해지면서 금세 좋아진다. 만경풍은 중병을 앓거나 구토와 설사를 심하게 한 후에 발병하거나, 혹은 처방 을 잘못 선택하여 갑자기 비위의 기운이 허손해졌을 때 풍사가 침입하여 생기 기도 한다. [ 대체로 소아에게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필시 만경풍이 될 것이므로 재빨리 치료해야 한다 ] 만경풍의 증상은 축닉이 있는 듯하지만 심 하지는 않고, [이것을 계종(瘈瘲)이라고 한다] 잠이 든 것처럼 정신을 차리 지 못하며, 사지와 입 속의 숨이 모두 차갑고, 잘 때 눈동자가 보이는 증상이 있

으며, 간혹 배를 아파하면서 거위 소리처럼 소리지르며 울기도 한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위험한 상태이니 비위의 기운이 허손해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凡小兒吐瀉, 當溫補之. 余每用理中圓以溫其中, 以五苓散導其逆[五苓散最治小兒吐], 連與數服, 兼用異功散等溫藥調理之, 往往便愈. 若已虛損, 當速生其胃氣, 宜與附子理中圓, 研金液丹末, 煎生薑米飲調灌之, 惟多服乃效. [服至貳參兩無害]候胃氣已生, 手足漸暖, 陰退陽回, 然猶瘈瘲, 卽減金液丹壹貳分, 增靑州白圓子壹貳分, 同研如上服, 以意詳之, 漸減金液丹, 加白圓子, 兼用異功散、羌活膏、溫白圓、釣藤飲子之類, 調理至安. 依此治之, 仍頻與粥, 雖至危者, 往往死中得生, 拾救捌玖.

대체로 소아가 구토와 설사를 하면 따뜻한 약재로 보해주어야 한다. 나는 그럴때마다 이중원을 써서 뱃속을 따뜻하게 한 후 오령산으로 구토를 치료하되 [ 오령산은 소아의 구토 치료에 탁월하다 ] 연달아 몇 번 복용시키면서 동시에 이공산 같이 따뜻한 약을 써서 조리시키면 대부분 곧 좋아진다. 비위의 기운이 이미 허손해진 상태라면 속히 비위의 기운을 살려야 하니 부자이중원을 먹이고 금액단을 갈아서 가루 낸 후 생강즙을 넣고 쑨 미음에 타서 흘려 넣어 주되 계속 먹여야만 효과가 있다. [ 총 2 - 3냥까지 먹여도 무해하다 ] 비위의 기운이 살아나면 손발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음증이 줄어들고 양증이 다시 나타난다. 단, 계종(瘈瘲)이 있을 때만큼은 금액단의 분량을 1 - 2푼 줄이는 대신청주백원자를 1 - 2푼 늘린 후 한꺼번에 갈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용시켜야한다. 그리고 상태를 자세히 살피면서 점점 금액단을 줄이고 청주백원자를 늘

려 사용하고, 이공산 · 강활고 · 온백원 · 조등음자 같은 처방을 함께 써서 조리시키면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자주 죽을 먹이면 매우 위험한 상태였더라도 십중팔구 기사회생하게 된다.

金液丹,治小兒吐瀉虛極,最妙.沈存中《良方》論金液丹云:親見小兒吐利劇,氣已絶,服之復活者數人,眞不妄也.須多服方驗.

금액단은 구토와 설사로 심하게 허해진 소아를 치료하는 데 신효하다. 심존중의 《양방》에서는 금액단을 이렇게 평가했다. '극심한 구토와 설사로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한 소아를 직접 보았을 때 이 약을 복용시켜 다시 살린 아이가 몇 명 있으니 이 약의 효능은 진정 거짓이 아니다. 반드시 계속 먹여야 효과가 있다.'

驚風,或泄瀉等諸病煩渴者,皆津液內耗也.不問陰陽,宜煎錢氏白朮散,使滿意取 足飲之,彌多彌好.

경풍증이 있을 때 간혹 설사나 다른 증상과 함께 번갈이 있는 경우는 모두 몸속의 진액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음증이나 양증에 상관없이 전 씨의 백출산을 달인 후 배부를 정도로 충분히 마시게 한다. 많이 마실수록 효과가 좋다.

凡小兒急驚方搐,不用驚擾,此不足畏.慢驚雖靜,乃危病也.急驚方搐,但扶持,不可擒捉,蓋風氣方盛,恐流入筋脉,或致手足拘攣.

소아가 급경풍으로 축닉이 생기기 시작할 때 경기하면서 손발을 파닥거리지 않더라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만경풍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위험 한 병이다. 급경풍으로 축닉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는 그저 손발을 잡아주기만 하고 묶어놓지는 말아야 한다. 풍사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면 근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간혹 손발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治急慢驚,世人多用壹藥.有性溫性凉,不可泛用,宜審別之.又治慢驚藥,宜去龍腦,縱須合用,必以溫藥爲佐,或少用之.

급경풍 · 만경풍을 치료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처방을 쓴다. 약성은 따뜻하거나 서늘한 특징이 달라 일률적으로 쓰지 말아야 하는 법이니 잘 살펴서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만경풍을 치료하는 처방에는 용뇌를 빼야한다. 비록 꼭넣어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좌약으로 삼거나 혹은 적은 분량만 써야 한다.

### 凡小兒實熱, 疎轉後如無虛證, 不可妄溫補, 熱必隨生.

소아가 실열이 있을 때 대소변으로 배출시킨 후에도 허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함부로 따뜻한 약재로 보해서는 안 되니 열이 분명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治小兒驚風, 痰熱堅癖, 能不用水銀、輕粉甚便, 如不得已用之, 僅去疾卽止, 蓋腸胃易傷, 亦損口齒.

소아가 경풍으로 담열(痰熱)이 있고 딱딱한 벽적이 생겼더라도 가능하면 수은 이나 경분을 쓰지 않는 편이 좋다. 만약 부득이하게 쓰더라도 증상을 걷어낼 만큼만 쓰고 즉시 멈춰야 한다. 소아의 위장은 쉽게 상하기도 하고 입속이나이빨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治小兒壯熱昏睡、傷風、風熱、瘡疹、傷食,皆相似,未能辨認,間服升麻葛根湯、惺惺散、小柴胡湯甚驗,蓋此數藥通治之,不致悮也,惟傷食則大便酸臭,不消化,畏食,或吐食,宜以藥下之.

소아의 장열혼수(壯熱昏睡)、상풍、풍열、창진、상식(傷食)을 치료하는 법은 모두 비슷하다. 변증을 하지 않더라도 승마갈근탕、성성산、소시호탕을 간간이 복용시켜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처방들은 통치약이라서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식(傷食)만은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먹기를 거부하거나 음식을 토하기도 하니 적당한 처방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小兒耳冷骺冷, 手足乍冷乍熱, 面赤, 時嗽嚏, 驚悸, 此瘡疹欲發也. 未能辨認, 間服升麻葛根湯、消毒散, 已發未發皆宜服, 仍用胡荽酒、黄蘗膏. 暑月煩躁, 食後與白虎湯、玉露散, 熱盛與紫雪, 咽痛或生瘡與甘桔湯、甘露飲子. 餘依錢氏說, 大人同.

소아가 귀와 엉덩이는 차갑고 손발은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며 얼굴은 벌겋고 가끔씩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며 경계(驚悸) 증상이 있는 경우는 창진이 발작하려는 것이다. 변증이 되지 않더라도 승마갈근탕 · 소독산을 간간이 복용시키되 창진이 발작했건 발작하지 않았건 모두 복용시켜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호유주 · 황벽고를 쓴다. 여름철에 번조증이 겹치면 식후에 백호탕 · 옥로산을 먹인다. 열이 심하면 자설을 먹인다. 목구멍이 아프거나 헐면 감길탕 · 감로음자를 먹인다. 나머지는 전중양의 설명을 따르며 성인도 동일하다.

小兒多因愛惜過當,往往參兩歲未與飲食,致脾胃虛弱,平生多病.自半年以後,宜煎陳米稀粥,取粥面時時與之.拾月以後,漸與稠粥爛飯,以助中氣,自然易養少病.惟忌生冷、油膩、甜物等.

소아 때 너무 애지중지한 나머지 이유식을 먹는 2 - 3살 아이 때 비위가 허약해 져서 평생토록 병치레가 잦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묵은 쌀로 멀건 죽을 쑨 후 죽의 웃물을 자주 떠먹여야 한다. 생후 10개월 이후 부터는 점차 걸쭉한 죽이나 진밥을 먹여 위기를 길러주면 자연스레 잘 자라면 서 병치레가 드물어질 것이다. 생랭하거나 기름지거나 단 음식만은 피해야 한 다.

小兒治法, 大概與大人同, 惟劑料小耳. 如升麻葛根湯、惺惺散等, 雖人皆知之, 倉卒亦難檢, 今並載于下. 錢氏已有方者, 今不復錄.

소아의 치료법은 대체로 성인과 동일하며 분량만 적을 뿐이다. 승마갈근탕 성성산 같은 처방은 모두들 알고 있지만 갑작스러울 때는 찾아보기 어려우므 로 지금 모두 아래에 수록해 놓는다. 전중양의 책에 실려있는 처방은 중복하여 수록하지 않았다.

 $\leftarrow$ 

 $<sup>^{1}</sup>$ .  $\langle$ 전중양전angle은 편집 과정에서 책 첫머리에 있는 서문의 뒤로 옮겨진 듯하다.

# 又方 처방



### 升麻葛根湯 승마갈근탕

治傷寒溫疫,風熱,壯熱,頭痛,肢體痛,瘡疹已發未發,並宜服之.

상한, 온역(溫疫), 풍열(風熱), 장열(壯熱), 두통, 몸살, 창진(발병 전후와 상관 없음)에 모두 복용한다.

乾葛(細剉)、升麻、芍藥、甘草(剉,炙)各等分.

건갈(잘게 썬다), 승마, 작약, 자감초(썬다) 각각 같은 양.

右同爲麤末. 每服肆錢, 水壹盞半, 煎至壹盞, 量大小與之, 溫服, 無時.

이상을 한꺼번에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4돈씩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인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따뜻할 때 먹인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惺惺散 성성산

治傷寒時氣,風熱,痰壅,欬嗽,及氣不和.

유행성 상한, 풍열(風熱), 담옹(痰壅), 기침 및 숨이 고르지 못한 증상을 치료한다.

桔梗、細辛(去葉)、人参(切, 去頂, 焙)、甘草(剉炒)、白朮、白茯苓(去皮)、栝蔞根 各一兩.

길경·세신(잎을 뗀다)·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감초(썰어서 볶는다)·백출·백복령(껍질을 제거한다)·괄루근 각 1냥.

右同爲細末. 每服貳錢, 水壹盞, 入蔢荷伍葉, 煎至柒分, 溫服, 不拘時. 如要和氣, 入生姜伍片同煎, 壹法用防風壹分, 用川芎壹分.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박하 5잎과함께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숨이 고르지 못한 증상이 있다면 생강 5조각을 넣고 함께 달인다. 다른 방법으로는 방풍 1푼이나 천궁 1푼을 쓰기도 한다.

### 消毒散 소독산

治瘡疹未出,或已出未能匀遍,又治一切瘡.凉膈去痰,治咽痛.

창진으로 수포가 돋기 전이나 혹은 돋았더라도 온몸에 두루 퍼지지 않은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여러 가지 창도 치료한다. 흉격을 식히고 가래를 없애서 인후통을 치료한다.

牛蒡子 二兩(炒), 甘草 半兩(剉炒), 荊芥穗 壹分.

우방자 2냥(볶는다), 감초 0.5냥(썰어서 볶는다), 형개수 1푼.

右同爲麤末. 每服參錢, 水壹盞半, 煎至壹盞, 溫服, 不拘時.

이상을 한꺼번에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黃蘗膏 황벽고

治瘡疹已出,用此塗面,次用胡荽酒.

창진으로 수포가 돋은 경우를 치료한다. 이 약을 얼굴에 바른 다음 호유주를 쓴다.

黃蘗(去麤皮)一兩,甘草肆兩,新菉豆壹兩半.

황벽(겉껍질을 제거한다) 1냥, 감초 4냥, 햇녹두 1.5냥.

右同爲細末,生油調,從耳前至眼輪,並厚塗之,日參兩次.如早用,瘡不上面,縱有亦少.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생유(生油)에 개서 귀 앞부분부터 눈꺼풀까지 두껍게 바르되 하루 2 - 3번 바른다. 초기에 이 약을 쓰면 수포가 얼굴로 올라오지 않고, 혹시나 올라오더라도 적게 올라온다.

# 胡荽酒 호유주

胡荽(細切四兩,以好酒貳盞,煎壹兩1,沸入胡荽再煎,少時用物合定放冷).

호유(잘게 절편으로 썬 것 4냥을 좋은 술 2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인다. 끓기 시작하면 호유를 넣어 한 번 더 달이고 얼마 후에 그릇에 담아 가만히 둔 채식힌다).

右每吸壹兩,口微噴,從頂至足勻遍,勿噴頭面.病人左右常令有胡荽,卽能辟去汗氣,瘡疹出快.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한 번에 1냥씩 입에 머금은 후 입으로 살짝 내뿜으면서 환자의 정수리부터 발까지 골고루 내뿜되 머리와 얼굴에는 내뿜지 말아야 한다. 환자의 좌우에 항상 호유를 가지고 있게 하면 땀이 나려는 것을 물리칠 수 있어 창진에 수포가 시원하게 돋는다.

瘡疹忌外人及穢觸之物,雖不可受風冷,然亦不可擁遏,常令衣服得中,并虛凉處坐 臥.

창진이 걸렸을 때는 낯선 사람과 더러운 데 닿은 물건을 피해야 한다. 비록 풍사나 냉기를 받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억지로 막지도 말아야 한다. 항상 옷을 적당할 정도로 입히고 아울러 시원하고 텅 빈 곳에 앉히거나 뉘여야 한다.

<sup>&</sup>lt;sup>1</sup>. 兩 : ☞盞 ※문맥상 ←



### 四聖散 사성산

治瘡疹出不快及倒擫, 四聖散.

창진에 수포가 시원하게 돋지 않는 경우나 딱지가 앉지 않는 경우를 치료할 때는 사성산을 쓴다.

紫草茸、木通(剉)、甘草(剉炒)、枳殼(麩炒, 去穰秤)、黃耆(切, 焙)等分.

자초용 · 목통(썬다) · 감초(썰어서 볶는다) · 지각(밀기울과 함께 볶은 후 속을 파냈을 때의 무게) · 황기(절편으로 자르고 곁불에 말린다) 각각 같은 양.

右同爲麤末. 每服壹錢, 水壹中盞, 煎捌分, 溫服, 無時.

이상을 한꺼번에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돈씩 물 1중잔(中盞)에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又方 藍根散 다른 처방. 남근산.

板藍根 壹兩, 甘草 三分(剉炒).

판람근 1냥, 감초 3푼(썰어서 볶는다).

右同爲細末. 每服半錢或壹錢, 取雄鷄冠血參兩點, 同溫酒少許, 食後同調下. 貳方無證勿服.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0.5 - 1돈과 웅계관혈(雄鷄 冠血) 2 - 3방울을 따뜻한 술 약간에 탄 후 식후에 복용한다. 사성산과 남근산 2가지 처방은 증상이 없을 때 복용해서는 안 된다.

#### 治瘡疹倒擫黑陷.

창진에 딱지가 앉지 않거나 까맣게 움푹 파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 人牙(燒存性, 研入麝香少許).

인아(약성이 남도록 태운 후 사향 약간을 갈아 넣는다)

### 右每服參錢, 溫酒少許調下, 無時.

이것을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따뜻한 술 약간에 타서 넘긴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小猪兒尾尖(取血參伍點, 研入生龍腦少許).

새끼돼지의 꼬리 끝 부분에서 낸 피 3 - 5방울(생용뇌 약간을 갈아 넣는다).

右新水調下, 食後.

이것을 신급수에 타서 넘기되 식후에 복용한다.

# 龍腦丸 용뇌환

治伏熱在心, 昏瞀不省, 或悞服熱藥, 搐熱冒昧不知人, 及瘡疹倒擫黑陷.

열사가 심장에 잠복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인사불성 되거나, 혹은 뜨거운 성미의 약재를 잘못 복용하여 축닉이 생기고 열이 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창진일 때 딱지가 앉지 않거나 까맣게 움푹 파이는경우를 치료한다.

生梅花腦子(研) 半字或壹字.

생매화되자(간다) 0.5 - 1자.

右取新殺猪心壹個,取心中血同研作大圓,用新汲水少許化下.未省再服.如瘡疹陷伏者,溫酒化下.

이때는 갓 잡은 돼지의 심장 1개를 구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피를 모아서 생매화되자와 한꺼번에 간 후 큰 환으로 빚고 신급수 약간에 녹여서 넘긴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다시 먹인다. 창진에 수포가 움푹 파이는 경우에는 따뜻한 술에 녹여서 넘긴다.

# 甘露飮子 감로음자

治心胃熱,咽痛,口舌生瘡,并瘡疹已發未發並可服.又治熱氣上攻,牙齦腫,牙齒動搖.

심장과 위부의 열 때문에 생긴 인후통이나 입과 혀에 생긴 창을 치료한다. 창 진이 발작했든 발작하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열 이 위로 치밀어 잇몸이 붓고 이빨이 흔들리는 증상도 치료한다.

生乾地黃(焙秤)、熟乾地黃(焙秤)、天門冬、麥門冬(各去心, 焙秤)、枇杷葉(去毛)、黃芩(去心)、石斛(去苗)、枳殼(麩炒, 去穰)、甘草(剉, 炒)、山茵陳葉.

생건지황(곁불에 말린다) · 숙건지황(곁불에 말린다) · 천문동 · 맥문동(각각 심을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 비파엽(털을 제거한다) · 황금(심을 제거한 다) · 석곡(싹을 제거한다) · 지각(밀기울과 함께 볶은 후 속을 긁어낸다) · 감 초(썰어서 볶는다) · 산인진(잎)

右各等分爲麤末. 每服貳錢, 水壹盞, 煎捌分, 食後溫服. 牙齒動搖, 牙齦腫熱, 含嗽<sup>1</sup> 渫, 并服.

이상을 각각 같은 분량씩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인 후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이빨이 흔들리거나 잇몸이 붓고 화끈거리는 경우에는 모두 이 약을 머금고 입을 헹구다가 복용한다.

<sup>1</sup>. 嗽 : ☞漱 ※문맥상 ←



# 白虎湯 백호탕

解暑毒, 煩躁身熱, 痰盛頭痛, 口燥大渴.

더위를 먹어 번조 · 신열 · 담성 · 두통이 있거나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심한 증상을 풀어준다.

知母 壹兩半(焙乾秤), 甘草 半兩(剉炒), 石膏 肆兩, 白粳米 捌錢.

지모 1.5냥(곁불에 말린 것), 감초 0.5냥(썰어서 볶는다), 석고 4냥, 하얗게 도정한 갱미 8돈.

右同爲麤末. 每服參錢, 水壹盞, 煎至捌分, 食後, 溫冷隨意服. 氣虛人, 加人參少許同煎.

이상을 한꺼번에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물 1잔에 넣고 8할 이 되도록 달인 후 식후에 복용하되 따뜻하든 식히든 좋아하는 대로 복용한다. 허약한 사람은 인삼을 약간 추가하여 함께 달인다.

### 調肝散 조간산

瘡疹太盛,宜服此調肝散.令不入眼.

창진의 증상이 너무 심할 때에는 이 조간산을 복용해야 한다. 이 약은 수포가 눈 쪽으로 번지지 못하게 만든다.

生犀(錯,取末) 壹分,草龍膽 半錢,黃耆 半兩(切),大黃(去皮) 貳錢,石膏 半兩,桑白皮(自采,焙乾)、釣鉤藤子、麻黃(去節) 各壹分,括蔞(去皮)、甘草(炙) 各等分.

생서각(깎아서 가루 낸다) 1푼, 초룡담 0.5돈, 황기 0.5냥(절편으로 썬다), 대황 (껍질을 제거한다) 2돈, 석고 0.5냥, 상백피(직접 채취한 후 곁불에 쬐어 말린 다)、조구등자、마황(마디를 제거한다) 각 1푼, 괄루(껍질을 제거한다)、자감 초 각각 같은 양.

右爲麤末. 每服貳錢, 水壹盞, 煎半盞, 食後, 時時溫服少許.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0.5잔이 되도록 달인 후 식후에 복용한다. 수시로 조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治瘡疹入眼.

창진에 수포가 눈으로 번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馬屁勃 半兩, 皂角子 拾肆個, 蛇皮 半兩.

마패발 0.5냥, 조각자 40개, 사태 0.5냥

右入小罐子內,鹽泥固濟,燒存性,研細.溫酒調下壹貳錢,食後服.

이상을 작은 단지 속에 넣고 염니(鹽泥)로 입구를 칠하여 막은 후 약성이 남도 록 태우고 곱게 간다. 이 가루를 따뜻한 술에 타서 1 - 2돈을 넘기되 식후에 복 용한다.

#### 治瘡疹入眼成翳.

창진에 수포가 눈으로 번져 예막이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 括蔞根 半兩, 蛇皮 貳錢.

괄루근 0.5냥, 사태 2돈.

右同爲細末,用羊子肝壹個,批開入藥末貳錢,麻纏定,米泔煮熟,頻與食之,未能食肝,令乳母多食.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새끼양의 간 1개를 칼집 내고 가루 2돈을 넣어 삼끈으로 묶은 후 쌀뜨물에 푹 삶아서 자주 먹인다. 간을 씹어 먹지 못할 정도로 어리다면 유모에게 많이 먹게 한다.

蟬殼(末).

선각(가루 낸다).

右用水煎羊子肝湯,調服貳參錢.

이것을 새끼양의 간 삶은 물에 타서 2 - 3돈 복용한다.

凡豆瘡才欲着痂, 即用酥或面油, 不住潤之, 可揭卽揭去. 若不潤及遲揭, 瘡痂硬卽隱成瘢痕.

두창에 딱지가 막 앉으려고 할 때는 수(酥)나 면유(面油)로 쉬지 않고 촉촉하게 해주다가 뗄 정도가 되면 떼 버린다. 만약 촉촉하게 해주지 않거나 늦게 떼면 딱지가 딱딱해지게 되고 결국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흉이 지게 된다.

### 治口瘡.

입에 생긴 창을 치료한다.

大天南星(去皮, 只取中心如龍眼大, 爲細末).

천남성 큰 것(껍질을 벗기고 중심부를 용안육 만큼만 취한 후 곱게 가루 낸다)

### 右用醋調, 塗脚心.

이것을 식초에 개어 발바닥 중앙에 바른다.

#### 治癑耳.

농이(膿耳)를 치료한다.

### 白礬(火飛) 壹錢, 麝香 壹字, 坯子胭脂 [ 染胭脂也 ] 壹錢.

백반(가열하여 수분을 날린다) 1돈, 사향 1자, 배자연지 [ 물들이는 연지이다 ] 1돈.

### 右同研匀. 每用少許, 先用綿裹杖子, 搌淨摻之.

이상을 한꺼번에 골고루 간다. 한 번에 약간씩 던 후 천에 넣고 돌돌 말아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 둔다. 귀 속을 씻은 후 이것으로 비빈다.

治蓄熱在中,身熱狂躁,昏迷不食.

열사가 몸속에 쌓여 몸통이 뜨겁고 가만히 있지 못하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豆豉 半兩, 大梔子人 柒個(搥破).

두시 0.5냥, 치자인 큰 것 7개(몽둥이로 깬다)

右共用水參盞, 煎至貳盞, 看多少服之, 無時. 或吐, 或不吐, 立效.

이상을 한꺼번에 물 3잔에 넣고 2잔이 되도록 달인 후 상태를 가늠하여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토하기도 하고 토하지 않기도 하지만 금세 효과가 나타난 다.

#### 治虫咬心痛欲絶.

몸속에서 충이 깨물어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五靈脂(末)二錢匕,白礬(火飛)半錢匕.

오령지(가루 낸다) 2돈술, 백반(가열하여 물기를 날린다) 0.5돈술.

右同研. 每服壹貳錢, 水壹盞, 煎伍分溫服, 無時. 當吐出虫.

이상을 한꺼번에 간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돈씩 물 1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인 후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이 약을 복용하면 토 하게 되고 그때 충이 함께 나온다.

治脾胃虚寒吐瀉等病,及治冷痰.

비위가 허한(虛寒)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냉담(冷痰)도 치료한다.

齊州半夏(湯浸柒次,切,焙) 壹兩,陳粟米 參分[陳粳米亦得].

제주(齊州) 지역에서 난 반하(뜨거운 불에 담갔다가 식히기를 7번 한 후 절편으로 썰고 곁불에 말린다) 1냥, 묵은 속미 3푼 [ 묵은 갱미도 괜찮다 ].

右㕮咀. 每服參錢, 水壹大盞半, 生薑拾片, 同煎至捌分, 食煎1, 溫熱服.

이상을 거칠게 자른다.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물 1.5대잔(大盞)에 생강 10조각 과 함께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여 식전에 따뜻하거나 뜨겁게 복용한다.

<sup>1</sup>. 煎: ☞前 ※문맥상 ←

#### 治外腎腫硬成疝.

고추가 붓고 딱딱해져 산증이 된 경우를 치료한다.

#### 乾蚯蚓(爲細末).

말린 구인(곱게 가루 낸다).

#### 右用唾調塗, 常避風冷濕地.

이것을 침에 개어 환부에 바른다. 항상 바람 불거나 차갑거나 습한 곳을 피해야 한다.

### 釣藤膏 조등고

小兒腹中極痛, 乾啼後偃, 名盤腸內弔, 釣藤膏.

소아가 극심히 배를 아파하며 눈물 없이 울다가 바닥에 눕는 증상을 반장통 혹은 내조통이라고 한다. 조등고를 써야 한다.

沒藥(研)、好乳香(水中坐, 乳鉢研細, 秤)、木香、薑黃 各肆錢, 鼈子人 拾貳個.

몰약(간다) · 품질 좋은 유향(물속에 담가놓았다가 막자사발에 넣고 곱게 간다) · 목향 · 강황 각 4돈, 목별자인 12개.

右先將下參味同爲細末,次研入上貳味,煉蜜和成劑收之.每一歲兒,可服半皂子大, 餘以意加減,煎釣藤湯化下,無時.次用魏香散.

이 증상에는 우선 목향 · 강황 · 목별자인 3가지를 한꺼번에 곱게 간 다음 몰약 · 유향을 갈아서 넣고 연밀에 개어 환을 빚은 후 보관해 놓는다. 1살 아이 기준으로 조각자 절반 크기를 복용하며 이외에는 상태를 보아 가감한다. 조구등 달인 물에 녹여서 넘기되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복용한 다음에는 위향산을 써야 한다.

## 魏香散 위향산

蓬莪茂 半兩, 眞阿魏 壹錢.

봉아술 0.5냥, 품질 좋은 아위 1돈.

右先用溫水化阿魏, 浸蓬莪茂壹晝夜, 焙乾爲細末. 每服壹字或半錢, 煎紫蘇米飲, 空心調下.

이상의 약재 중에서 우선 따뜻한 물에 아위를 녹인 다음 봉아술을 만 하루 동안 담갔다가 곁불에 말려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0.25 - 0.5돈씩 자소를 함께 넣어 쑨 미음에 타서 빈속에 넘긴다.

### 地黃散 지황산

治心肝壅熱,目赤腫痛生赤脉,或白膜遍睛.四邊散漫者猶易治,若暴遮黑睛,多致失明,宜速用此方,亦治瘡疹入眼.

심장이나 간장에 열이 몰려 눈이 충혈된 채 붓고 아프면서 핏줄이 서거나 혹은 흰 예막이 눈동자를 덮은 경우를 치료한다. 눈 주위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행히 치료가 쉽지만 갑자기 예막이 검은자위를 덮게 되면 대부분 실명하게 되므로 이 처방을 속히 써야한다. 창진에 수포가 눈 쪽으로 번지는 증상을 치료하기도 한다.

生乾地黃(切, 焙秤)、熟乾地黃(切, 焙秤)、當歸(去蘆頭, 切, 焙秤) 各壹分, 黃連(去須) 壹錢, 木通 壹錢半, 玄參 半錢, 甘草 壹錢半(剉, 炒), 防風(去蘆頭, 焙)、羌活、生犀(末)、蟬殼(去土)、木賊、穀精草、白蒺蔾(去尖)、沙苑蒺蔾 各壹錢, 大黃(去皮取實者剉, 略炒) 壹錢.

생건지황(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 숙건지황(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 당귀(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썰어 곁불에 말린다) 각 1푼, 황련 (잔뿌리를 제거한다) 1돈, 목통 1.5돈, 현삼 0.5돈, 감초 1.5돈(썰어서 볶는다), 방풍(노두를 제거하고 곁불에 말린다) · 강활 · 생서각(가루 낸다) · 선각(흙을 제거한다) · 목적 · 곡정초 · 백질려(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 사원질려 각 1돈, 대황(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썬 후 살짝 볶는다) 1돈.

右爲細末. 每服壹字或半錢, 量大小加減. 煎羊肝湯, 食後調下, 日參夜壹. 忌口將息. 亦治大人.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0.25 - 0.5돈씩 아이의 몸집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양의 간을 삶은 물에 타서 식후에 복용하되 낮에 3번, 밤에 1번 복용한다. 음식을 가려 먹고 몸조리를 해야 한다. 성인도 치료한다.



#### 治熱痢下血.

열리(熱痢)로 혈변을 보는 증상을 치료한다.

#### 黃蘗(去皮) 半兩, 赤芍藥 肆錢.

황벽(껍질을 제거한다) 0.5냥, 적작약 4돈.

#### 右同爲細末, 飯和圓麻子大. 每服壹貳拾圓, 食前米飲下. 大者加圓數.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0 - 20환씩 식전에 미음으로 넘긴다. 성인은 환수를 늘려서 복용한다.

## 菖蒲圓 창포원

治心氣不足,伍陸歲不能言,菖蒲圓.

심기(心氣)가 부족하여 5 - 6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할 때는 창포원을 쓴다.

石菖蒲 貳錢, 丹參 貳錢, 人參(切, 去頂, 焙) 半兩, 赤石脂 參錢, 天門冬(去心, 焙秤)、麥門冬(去心, 焙秤) 各一兩.

석창포 2돈, 단삼 2돈, 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0.5냥, 적석지 3돈, 천문동(심을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 맥문동(심을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각 1냥.

右同爲細末,煉蜜圓,菉豆大或麻子大,溫水下伍柒圓至壹貳拾圓,不計時,日參肆服,久服取效.又有病後腎虛不語者,宜兼服錢氏地黃圓.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녹두나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빛는다. 따뜻한 물로 5 - 7환에서 10 - 20환을 넘긴다.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 3 - 4번 복용한다. 오랫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병을 앓은 후에 신허(腎虛)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씨의 지황원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

### 鷄頭圓 계두원

#### 治諸病後不語.

병을 앓은 후에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雄鷄頭 壹個(炙), 鳴蟬 參個(炙), 大黃 壹兩(取實, 處濕紙裹煨熟), 甘草 壹兩(剉,炒), 木通 半兩,當歸(去蘆頭,切,焙) 參分,黃耆(切,焙)、川芎、遠志(去心)、麥門冬(去心,焙) 各參分,人參(切,去頂,焙) 半兩.

응계두 1개(굽는다), 명선 3개(굽는다), 대황 1냥(알맹이만 뺀 후 습지에 싼 채 잿불에 묻어 익힌다), 감초 1냥(썰어서 볶는다), 목통 0.5냥, 당귀(노두를 제거 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3푼, 황기(절편으로 자르고 곁불에 말린 다)、천궁、원지(심을 제거한다)、맥문동(심을 제거하고 곁불에 말린다) 각 3 푼, 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0.5냥.

右同爲細末,煉蜜圓,小豆大.平旦米飲下伍圓,空心,日參肆,兒大者加之.久服取效. 鷄蟬貳物,宜求死者用之,不可旋殺. 孫眞人所謂殺生求生,去生更遠,不可不知也.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소두(小豆) 크기로 환을 빚는다. 새벽에 미음으로 5환씩 빈속에 넘기되 하루 3 - 4번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환수를 늘린다. 오랫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닭과 매미 2가 지는 죽음으로 향하고 싶은 자들이 쓰는 것이니 가볍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래서 손진인은 "미물의 생명을 죽여서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면 생명의 섭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했으니 이 말의 뜻을 꼭 알아야 한다.



### 羚羊角圓 영양각원

治腎虛或病後筋骨弱, 伍陸歲不能行, 宜補益肝腎, 羚羊角圓.

신허(腎虛)로, 혹은 병을 앓은 후에 근골이 허약해져서 5 - 6살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장과 신장을 보해야 하니 영양각원을 쓴다.

羚羊角(尖細而節密者是,錯,取末)、生乾地黃(焙秤)、虎脛骨(敲破,塗酥炙黃)、酸素仁(去皮,秤,炒)、白茯苓各半兩,桂(去皮取有味處,不見火)、防風(去蘆頭,切,焙)、當歸(同上)、黃耆(切,焙)各壹分.

영양각(끝이 얇고 뾰족하면서 마디가 짧다. 깎아서 가루 낸다), 생건지황(곁불에 말린다), 호경골(부순 후 연유를 발라 누렇게 굽는다), 산조인(속씨만볶아서 쓴다), 백복령 각 0.5냥, 계(껍질을 벗기고 맛이 나는 부분만 남긴다.화기에 닿지 않게 한다), 방풍(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당귀(앞과 같이 노두를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후 곁불에 말린다), 황기(절편으로 자르고 곁불에 말린다) 각 1푼.

右同爲細末,煉蜜和成劑.每服壹皂子大,兒大者加之,食前溫水化下,日參肆服,取效.

이상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환으로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조각자 크기만큼씩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추가한다. 식전에 따뜻한 물로 녹여서 넘기되 하루에 3 - 4번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 全蝎散 전갈산

治驚風,中風,口眼喎斜,語不正,手足偏廢不舉,全蝎散.

경풍, 중풍, 구안와사, 말이 어눌한 경우, 반신불수를 치료하려면 전갈산을 쓴다.

全蝎(去毒, 炒)、殭蠶(直者, 炒)、甘草、赤芍藥、桂枝(不見火)、麻黃(去節)、川芎、黃芩(去心) 各參錢, 天麻 陸錢, 大天南星(湯浸柒次, 去皮臍, 切, 焙) 三錢.

전갈(독성을 제거하고 볶는다) · 백강잠(꼿꼿한 것을 볶아서 쓴다) · 감초 · 적 작약 · 계지(불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 천궁 · 황금 (심을 제거한다) 각 3돈, 천마 6돈, 천남성 큰 것(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말리기 를 7차례 한 후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절편으로 썬 다음 곁불에 말린다) 3돈.

右爲麤末. 每服參錢, 水壹盞半, 薑柒片, 煎柒分, 溫服, 無時, 量大小與之, 日參肆服. 忌羊肉.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물 1.5잔에 생강 7조각과 함께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인 후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이되 하루에 3 - 4번 복용한다. 양고기를 피해야 한다.

## 和中散 화중산

和胃氣,止吐瀉,定煩渴,治腹痛,思食.

위기(胃氣)를 편안하게 하고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며 번갈을 안정시키고 복 통을 치료하며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만든다.

人参(切去頂, 焙)、白茯苓、白朮、甘草(剉, 炒)、乾葛(剉)、黃耆(切, 焙)、白褊豆(炒)、藿香葉 各等分.

인삼(절편으로 썰고 노두를 제거한 후 곁불에 말린다), 백복령, 백출, 감초 (썰어서 볶는다), 건갈(썬다), 황기(절편으로 자르고 곁불에 말린다), 백편 두(볶는다), 곽향엽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 每服參錢, 水壹盞, 乾棗貳個去核, 薑伍片, 煎捌分, 食前溫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3돈씩 물 1잔에 말린 대조(씨를 제거한다) 2개와 생강 5조각과 함께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여 식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紫蘇子散 자소자산

治欬逆上氣,因乳哺無度,內挾風冷,傷於肺氣;或呵氣未定,與乳飮之,乳與氣相逆,氣不得下.

기침이 심하여 상기된 다음 수시로 젖을 빨려고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는 몸속에서 풍사나 냉기에 상하여 폐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혹은 호흡이 안 정되지 않았을 때 젖을 물려서 젖과 숨이 부딪힘으로써 숨이 내려가지 못하게 된 경우도 치료한다.

紫蘇子、訶子(去核, 秤)、蘿蔔子、杏仁(去皮尖, 麩炒)、木香、人參(切去鬚) 各參兩, 靑橘皮、甘草(剉, 炒) 各壹兩半.

자소자 · 가자(씨를 제거한다) · 나복자 · 행인(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 후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 목향 · 인삼(절편으로 자르고 잔뿌리를 제거한다) 각 3냥, 청귤피 · 감초(썰어서 볶는다) 각 1.5냥.

右爲細末. 每服壹錢, 水壹小盞, 入生薑參片, 煎至伍分, 去滓, 不計時候, 溫服, 量大小加減.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돈씩 물 1소잔(小盞)에 생강 3조각과 함께 넣어 5할이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따뜻하 게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한다.



### 赤石脂散 적석지산

治痢後躽氣下,推出肛門不入.

이질을 앓은 후에 위기(胃氣)가 내려앉아 탈항된 경우를 치료한다.

真赤石脂(揀去土)、伏龍肝 各等分.

품질 좋은 적석지(흙이 없도록 털어낸다) , 복룡간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 每用半錢, 傅腸頭上, 頻用.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튀어나온 내장 끝에 자주 발라준다.

### 蘗墨散 벽묵산

治斷臍後爲水濕所傷,或 袍濕氣傷於臍中,或解脫風冷所承,故令小兒四肢不和, 脈腫多啼,不能乳哺,宜速療之.

탯줄을 끊은 후에 습기에 상하거나, 혹은 포대기에 감아놓을 때 습기가 배꼽으로 침범하거나, 혹은 옷을 풀어헤쳐 풍사나 냉기가 침범한 경우를 치료한다. 이렇게 되면 소아가 팔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배꼽 근처가 부으면서 계속 울며 젖을 먹지도 못하게 되니 속히 치료해야 한다.

黃蘗(炒)、釜下墨、亂髮(燒)各等分.

황벽(볶는다) , 부하묵 , 난발(태운다)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 每用少許傅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약간씩을 환부에 바른다.

### 至寶丹 지보단

治諸癎急驚,心熱卒中客忤,不得眠睡,煩躁,風涎搐搦,及傷寒狂語,伏熱嘔吐,並宜服之.

여러 가지 간질과 급경풍 또는 심장의 열로 갑자기 생긴 객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번조증이 있으며 거품을 물면서 축닉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상한으로 생긴 광증이나 잠복한 열로 생긴 구토도 치료한다. 이와 같은 증상에는 이 처방을 복용해야 한다.

生烏犀屑、生玳瑁屑、琥珀(研)、朱砂(細研,水飛)、雄黃已上各一兩(細研水飛),金箔 伍拾片(壹半為衣),銀箔 伍拾片(研),龍腦 壹分(研),麝香 壹分(研),牛黄 半兩(研),安息香 壹兩半(為末,以無灰酒飛,過濾淨,去砂石,約取壹兩,慢火熬成膏).

오서각(불에 달구지 않고 가루 낸다), 대모(불에 달구지 않고 가루 낸다), 호박(간다), 주사(곱게 갈아서 수비한다), 응황 각 1냥(곱게 갈아서 수비한다), 금박 50조각(절반은 겉에 입힌다), 은박 50조각(간다), 용뇌 1푼(간다), 사향 1푼(간다), 우황 0.5냥(간다), 안식향 1.5냥(가루 내고 무회주에 수비한 후 깨끗하게 걸러 알갱이를 제거한다. 대략 1냥 정도를 약한 불에 졸여서 고약처럼 만든다).

右生犀、玳瑁搗羅爲細末,研入餘藥令勻,將安悉香膏以重湯煮凝成,和搜爲劑.如乾,即入少熟蜜,盛不津器中,旋圓如桐子大.貳歲兒服兩圓,人參湯化下,大小以意加減.又治大人卒中不語,中惡氣絶,中諸物毒,中熱暗風,産後血運,死胎不下.並

#### 用童子小便壹合,生薑自然汁參伍滴,同溫過,化下伍圓,立效.

위에서 오서각과 대모를 빻고 망에 걸러 고운 가루로 만든 후 나머지 약재를 갈아 넣어 골고루 섞이게 한다. 그다음 고약처럼 만든 안식향을 중탕하여 응고 시킨 후 약가루를 섞어 조제한다. 물기가 너무 없으면 묵은 꿀을 조금 넣는다. 이것을 새지 않는 그릇에 담아 놓고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2살 아이 기준으로 2환씩 인삼탕에 놓여서 넘기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한다. 이 처방은 성인이 졸중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중악(中惡)으로 기절하거나 여러독성에 중독되거나 중열(中熱)로 눈앞이 어지럽고 깜깜해지거나 산후의 혈훈이나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치료한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동변 1홉에 생강 자연즙 3 ~ 5방울을 타서 따뜻하게 데운 후 지보단 5환을 녹여서 넘기게 하면 금세 효과가 나타난다.

#### 紫雪 자설

治驚癎百病, 煩熱涎厥, 及傷寒, 胃熱發斑, 一切熱毒, 喉痺腫痛. 又治瘡疹, 毒氣上攻咽喉, 水漿不下.

경풍이나 간질이나 온갖 병으로 생긴 번열이나 끈적한 침이 흐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상한이나 위열(胃熱)로 열꽃이 피는 등 일체의 열독과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상도 치료한다. 또한 창진에 독기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 물이나 국물도 삼키지 못하는 경우까지 치료한다.

黃金 拾兩, 寒水石、磁石、滑石、石膏 各肆兩捌錢(並搗碎).

황금 10냥, 한수석ㆍ자석ㆍ활석ㆍ석고 각 4.8냥(모두 빻는다).

#### 已上用水伍升,煮至肆升,去滓,入下項藥.

이상을 물 5되에 넣고 4되가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음 약재를 넣는다.

玄參 壹兩陸錢(搗碎), 木香(搗碎)、羚羊角屑、犀角屑、沈香 各半兩(搗碎), 升麻 壹兩陸錢(搗碎), 丁香 壹錢(搗碎), 甘草 捌錢(炙, 剉).

현삼 1.6냥(찧어서 부순다), 목향(찧어서 부순다) · 영양각(가루 낸다) · 서각 (가루 낸다) · 침향 각 0.5냥(찧어서 부순다), 승마 1.6냥(찧어서 부순다), 정향 1돈(찧어서 부순다), 자감초 8돈(썬다).

以上捌味,入前藥汁中,再煮取壹升伍合,去滓,入下項藥.

이 8가지 약재를 앞의 탕약에 넣고 한 번 더 달여서 1.5되가 되도록 달인 후 찌 꺼기를 제거하고 다음 약재를 넣는다.

#### 消石 參兩壹錢(芒消亦得), 朴消 壹斤(精者).

초석 3.1냥(망초도 상관없다), 박초 1근(정련한다).

以上貳味,入前汁中,微火上煎,柳木篦攪不住手,候有柒合,投在木盆中半日,欲凝,入下項藥.

이 2가지 약재를 앞의 탕약에 넣고 아주 약한 불에 올려 달이되 버드나무 막대 기로 쉬지 않고 젓다가 0.7되가 되면 나무로 만든 동이에 반나절 넣어 둔다. 응 고되려고 할 때 아래 약재를 넣는다.

#### 朱砂 參錢(飛研), 麝香當門子 壹錢壹字(研).

주사 3돈(수비하여 간다), 사향의 당문자(當門子, 결정) 1.25돈(간다).

#### 以上貳味,入前藥中攪匀,寒之兩日.

이 2가지 약재를 앞의 약에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이틀 동안 시원한 곳에 둔다.

右件成紫色霜雪. 每服壹字至半錢,冷水調下,大小以意加減. 咽喉危急病,捻少許乾嚥,立效. 又治大人脚氣,毒遍內外,煩熱不解,口中生瘡,狂易叫走,瘴疫毒厲卒死,溫瘧,五屍五疰,大能解諸藥毒. 每服壹錢至貳錢,冷水調下,並食後服.

이렇게 하면 약이 자색의 서리 형태로 변한다. 한 번 복용할 때 0.25 - 0.5돈씩 냉수에 타서 넘기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한다. 목구멍에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 손가락으로 약간 찍어 물기가 마른 후 빨아 먹게 하면 금세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성인의 각기병이나, 몸 안팎의 여러 가지 독기나, 번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나, 입 속에 생긴 창이나, 미친 듯이 소리지르며 뛰거나, 풍토병으로 생긴 악창으로 갑자기 죽거나, 온학(溫瘧)이나 오시(五屍)、오주(五疰)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약재의 독성도 매우 잘 풀어준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 돈씩 냉수에 나서 넘기되 식후에 복용한다.



### 理中圓 이중원

治吐利不渴,米穀不化,手足厥冷.

구토와 설사를 하지만 갈증은 없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며 손발 끝이 싸늘한 경우를 치료한다.

人参(去蘆, 剉)、白朮(剉)、乾薑(炮)、甘草(炙, 剉) 各壹兩.

인삼(노두를 제거하고 썬다) · 백출(썬다) ·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 자감 초(썬다) 각 1냥.

右爲末,煉蜜和圓鷄黃大.每服壹丸,水壹大盞化開,煎及柒分,連滓放溫服.小兒分爲參服,大小以意加減,食前.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달걀노른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때 1환씩 물 1대잔(大盞)에 풀고 7할이 되도록 달인다. 따뜻할 정도로 식혀 건더기째 복용한다. 소아는 3번에 나누어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한다. 식전에 복용한다.

## 五苓散 오령산

治霍亂吐瀉,躁渴飲水,小便不利.

토사곽란이 있거나 번조와 갈증이 나면서 물을 찾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澤瀉 貳兩半(剉), 木猪苓(去皮, 剉) 壹兩半, 官桂(去皮) 壹兩, 白茯苓 壹兩半(剉), 白朮 壹兩半(剉).

택사 2.5냥(썬다), 목저령(껍질을 제거하고 썬다) 1.5냥, 관계(껍질을 제거한다) 1냥, 백복령 1.5냥(썬다), 백출 1.5냥(썬다).

右爲細末. 每服壹錢, 溫湯調下, 渴躁, 新水調服. 大小以意加減, 不以時候.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1돈씩 따뜻한 물에 타서 넘긴다. 번조와 갈증이 있을 때는 신급수에 타서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附子理中圓 부자이중원

治脾胃寒弱, 風冷相承心痛, 霍亂吐利轉筋.

비위가 허한(虛寒)해진 틈에 풍사나 냉기가 침범하여 가슴이 아프고 토사곽란 과 전근(轉筋) 증상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去蘆, 剉)、白朮(剉)、乾薑(炮)、甘草(炙, 剉)、黑附子(炮, 去皮臍) 各壹兩.

인삼(노두를 제거하고 썬다) · 백출(썬다) ·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 자감 초(썬다) · 흑부자(습지에 싸서 구운 후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각 1냥.

右爲細末,煉蜜和,壹兩作拾圓.每服壹圓,水壹中盞化開,煎及柒分,稍熱服,食前. 小兒分作參兩服,大小以意加減.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1냥당 10환으로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 환씩 물 1중잔(中盞)에 푼 후 7할이 되도록 달이고 약간 뜨겁게 복용한다. 식전 에 복용한다. 소아는 2 - 3번에 나누어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 한다.

### 金液丹 금액단

治吐利日久,脾胃虛損,手足厥逆,精神昏塞,多睡露睛,口鼻氣凉,欲成慢驚風者. 又治大人陽虛陰盛,身冷脉微,自汗吐利,小便不禁.

오랫동안 계속된 구토와 설사로 비위가 허약해져 손발 끝부터 싸늘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계속 잠만 자면서 눈동자가 드러나거나 입과 코의 숨이 식은 경우를 치료한다. 이는 만경풍이 되려고 하는 상태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 양기는 허약하고 음기는 왕성하거나 몸이 차가우면서 맥이 미세하거나 자한이 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거나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舶上硫黃 拾兩(先飛煉去砂石,秤,研爲細末,用砂合子盛令捌分滿,水和赤石脂封縫,鹽泥固濟, 職乾.露地先埋壹水罐子,盛水滿,坐合子在上,又以泥固濟訖,常以參斤火養參日參夜足,加頂火壹煅成,候冷取藥.).

뱃전에 붙은 유황 10냥(우선 불에 가열하여 잡티를 제거하고 갈아서 곱게 가루 낸다. 이것을 뚜껑 있는 사기그릇에 담되 8할 정도만 채우고 물에 적석지를 개 어 뚜껑을 밀봉하고 염니(鹽泥)로 한 번 더 봉한 후에 햇볕에 말린다. 맨땅에 물을 담은 물단지를 묻은 다음 물을 가득 채우고 사기그릇을 그 속에 놓는다. 그리고 다시 염니로 봉한다. 쉬지 않고 3근의 땔감으로 3일 동안 충분히 가열 했으면 물단지 윗부분에 추가로 땔감을 땐 후 식으면 약재를 꺼낸다) 右以柳木搥乳鉢內, 研爲細末. 每服貳錢, 生薑米飲調下, 大小以意加減, 多服取效. 大人藥末壹兩, 蒸餅壹兩, 水浸, 去水, 和圓, 桐子大, 噝乾. 每服伍拾圓至百圓, 米飲下. 並空心連倂服.

이것을 막자사발에 넣고 버드나무 공이로 부순 후 갈아서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생강즙을 넣어 쑨 미음에 타서 넘기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한다. 많이 복용할수록 효과가 잘 나타난다. 성인은 약가루 1냥을 물에 담 갔다가 물기를 뺀 증병(蒸餅) 1냥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햇볕에 말 린다. 한 번 복용할 때 5 - 10환에서 10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소아와 성인 모 두 빈속에 연달아 복용한다.

#### 又方「范文正宅]

#### 다른 방법 [문정공(文正公) 범중엄(范仲淹) 집안의 처방]

硫黃(不以多少,淡黃通明者爲上. 飛煉去砂石, 硏爲細末, 用有蓋砂罐子壹個, 取水中田字草或益母草, 搗淤土成泥, 更入紙筋同搗, 固濟. 罐子貴不破, 嘰乾盛硫黃末在內, 可不滿兩指, 於露地深畫十字, 放罐子在中心, 使底下通透四面, 用炭約肆伍斤, 匀火簇, 不蓋罐子頂, 時時揭覷, 候化爲汁, 速去四面火, 用濕土埋壹宿, 次日, 取出於北蔭下, 不見日氣處撅壹坑子, 約壹貳尺, 將罐子去蓋, 倒埋壹宿, 次日取出, 和罐入湯內煮伍拾沸, 漉出取藥.).

유황(분량은 상관없다. 연노랑색이며 투명한 것이 품질이 좋다. 불에 가열하여 잡티를 제거하고 갈아서 곱게 가루 낸다. 뚜껑 있는 사기단지 1개에 물속에서 자라는 전자초(田字草)나 익모초를 넣는다. 개흙을 찧어 질게 만든 후 종이끈 을 넣고 한꺼번에 다시 찧어 뚜껑을 봉한다. 단지가 깨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햇볕에 말린 후 유황가루를 그 속에 넣되 손가락 2개만큼은 남겨야 한다. 이제 맨땅을 십자모양으로 깊게 파고 동이를 중앙에 놓되 동이 아래로 십자모양의 네 방향이 서로 통하도록 놓아야 한다. 숯불 4 - 5근을 골고루 모아 놓고 동이 위에는 뚜껑을 덥지 않은 채 자주 들여다보다가 유황이 녹아서 물처럼 되면 재빨리 네 방향의 숯불을 빼고 축축한 흙에 하룻밤 묻어 둔다. 다음날 북쪽 그늘에서 꺼낸 후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1 - 2자 깊이 정도 되는 구덩이를 하나 파고 동이의 뚜껑을 연다. 이것을 구덩이에 거꾸로 묻고 하룻밤 지난 후 다음날에 꺼낸다. 동이째 뜨거운 물에 넣고 5 - 6소솜 달인 후 천으로 걸러 유황을 얻는다)

右以柳木搥乳鉢內, 研如粉麵相似. 小兒因吐瀉之後, 變成慢驚風者. 每服壹貳錢, 生薑米飲調下, 倂服取效. 大人陰證傷寒, 脉微欲絶, 以水浸無鹽蒸餅, 和圓桐子大, 曒乾. 每服伍拾圓或百圓, 米飲下, 並空心服.

이것을 막자사발에 넣고 버드나무 공이로 부순 후 갈아서 분처럼 곱게 가루 낸다. 소아가 구토와 설사를 앓은 후 만경풍으로 변한 경우를 치료한다. 한 번 복용할 때 1 - 2돈씩 생강즙을 넣어 쑨 미음에 타서 넘기되 많이 복용할수록 효과가 잘 나타난다. 성인이 상한음증으로 맥이 미세하면서 끊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소금기 없이 빚은 증병(蒸餅)을 물에 담갔다가 섞어서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햇볕에 말려서 쓴다. 한 번 복용할 때 5 - 10환에서 10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소아와 성인 모두 빈속에 복용한다.



### 靑州白圓子 청주백원자

治小兒驚風,大人諸風.

소아의 경풍과 성인의 여러 풍증을 치료한다.

半夏七兩(生), 天南星參兩(生), 白附子貳兩(生), 川烏頭半兩(生, 去皮臍).

반하 7냥(생것), 천남성 3냥(생것), 백부자 2냥(생것), 천오두 0.5냥(생째 쓰되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右搗羅爲細末,以生絹袋盛,用井花水擺.未出者,更以手揉令出,如有滓更研,再入絹袋擺盡爲度.放磁盆中,日曒夜露,至曉棄水,別用井花水攪,又曒,至來日早,再換新水攪.如此春伍日,夏參日,秋柒日,冬拾日.[壹法肆時只浸壹宿]去水曒乾後如玉片,研細,以糯米粉煎粥清,圓菉豆大.每服參伍丸,薄荷湯下.大人每服貳拾圓,生薑湯下.癱瘓風,溫酒下.並不以時候服.

이상을 빻고 망에 걸러 곱게 가루 낸 후 새 천주머니에 담고 정화수에 넣어 풀어준다. 미처 녹지 않은 것들은 한 번 더 손으로 주물러서 풀어준다. 그래도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시 간 후에 천주머니에 넣고 풀어주면서 모두 풀어질 때까지 한다. 그다음 도자기동이에 담은 채 낮에는 햇볕을 쪼이고 밤에도 그대로 두다가 새벽이 되면 웃물을 따라 버리고 따로 준비한 정화수를 넣어 섞은 후 한 번 더 햇볕을 쪼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음날 새벽에 다시 새 정화수로 갈아 준다. 이 과정을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 동안 반복한다. [사계절과 상관없이 하룻밤만 담그는 방법도 있다] 그

러고 나서 물을 따라 버리고 볕에 말리면 옥 조각처럼 되는데 이것을 곱게 갈고 나미(糯米) 가루로 쑨 죽의 웃물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 - 5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성인은 한 번 복용할 때 20환씩 생강탕으로 넘긴다. 탄탄풍(癱瘓風)에는 따뜻한 술로 넘긴다. 모든 경우에 시간과 관계없이 복용한다.



## 小柴胡湯 소시호탕

治傷寒溫熱病,身熱惡風,頭痛項强,四肢煩疼,往來寒熱,嘔噦,痰實,中暑,瘧病,並宜服.

상한이나 온병으로 몸통이 뜨겁고 오풍이 있거나 머리가 아프면서 뒷목이 뻣뻣하거나 손발이 쑤시거나 한열왕래가 있거나 구역질을 하거나 가래가 끓거나 혹은 중서(中暑)나 학질을 치료할 때 복용한다.

柴胡(去蘆) 捌錢, 半夏(湯洗, 切, 焙) 貳錢半, 黃芩(去心)、人參(去蘆)、甘草(炙, 剉) 各參錢.

시호(노두를 제거한다) 8돈, 반하(뜨거운 물에 씻은 후 절편으로 자르고 곁불에 말린다) 2.5돈, 황금(심을 제거한다) · 인삼(노두를 제거한다) · 자감초(썬다) 각 3돈.

右爲麤末. 每參錢, 水壹盞半, 生薑伍片, 棗壹枚擘破, 同煎及捌分, 濾去滓, 放溫, 分作參兩服. 大小以意加減, 並不以時候, 日參夜貳.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3돈씩 물 1.5잔에 생강 5조각과 대조(손가락으로 눌러 쪼갠다) 1개를 함께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할 정도로 식혀 2 - 3번에 나누어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한다. 시간에 관계없이 낮에 3번 밤에 2번 복용한다.



#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 동씨소아반진비급방

론

東平董汲及之論次

동평(東平) 사람 동급(董汲, 자는 급지及之) 편저

##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序 동씨소아반진비급방론 서문

世之人有得一奇方,可以十全愈疾者,恐恐然惟慮藏之不密,人或知之,而使其藥之不神也,其亦陋矣.夫藥之能愈病,如得人人而告之,使無夭橫,各盡其天年以終,此亦仁術也.吾友董及之,少擧進士不第,急於養親,一日盡棄其學,而從事于醫.然醫亦非鄙術矣,古之人未嘗不能之,如張仲景、陶隱居、葛洪、孫思邈,皆名於後世.但昧者爲之,至於異貴賤別貧富,自鄙其學,君子不貴也.及之則不然,凡人之疾苦,如己有之,其往來病者之家,雖祁寒大暑,未嘗少憚,至於貧者或昏夜,自惠薪粲,以周其乏者多矣.他日攜小兒斑疹方一秩見過,求序於余.因爲引其略,亦使見及之之所存,知世之有奇方,可以療疾者,不足貴也.如此東平十柳居士孫準平甫序.

세상 사람들 중에 신효한 처방을 하나 구하여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저 꽁꽁 숨겨두지 못하여 남들이 눈치챌까 벌벌 떨면서 걱정한다면 그 처방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니 참으로 못난 짓이다. 그러므로 어떤 처방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어 사람들이 요절하지 않은 채 각자의 천수를 누리도록 만든다면 이 또한 인술(仁術, 의술)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친구 동급(董汲, 자는 급지及之)은 젊어서 진사시를 통과하기 전에 부모님 봉양이 급해지자 하루아침에 그동안의 학문을 포기하고 의학을 익힌 사람이다. 의학도 만만한 학문은 아니지만 성취를 이룬 옛사람도 있으니 장중경 \* 도은거 \* 갈홍 \* 손사막 같은 분들은 모두들 후세까지 이름을 떨치셨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이 의학을 하면서부터 환자의 귀천이나 빈부를 따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 스스로 의학을 하찮게 만들

었기 때문에 군자들은 더이상 의학을 귀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 동급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남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면 마치 자기가 질병에 걸린 것처럼 여겼고, 환자의 집에 왕래할 때는 극심한 한파나 무더위라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가난한 환자가 한밤중에 진료를 청하면 땔감이나 양식을 베풀어 궁핍한 살림을 도와준 경우가 많았다. 그가 얼마 전에 소아의 반진에 대한 책한 권을 가져와 나에게 보여준 다음 서문을 부탁하였다. 그래서 일의 전말을 적는 한편 동급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드러내니 세상에 신효한 처방을 가졌을 때 제대로 질병을 치료하는 이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겠노라. 이렇게 서문을 쓴다. 동평(東平) 사람 십류거사(十柳居士) 손준(孫準, 자는 평보平甫).

## 又 자서(自序)

夫上古之世,事質民淳,稟氣全粹,邪不能干,縱有疾病,祝由而已,雖大人方論,尚或未備.下逮中古,始有巫妨氏者,著小兒顱顖經,以卜壽夭別死生,歷世相援,於是小兒方論興焉.然在襁褓之時,藏府嫩弱,脉促未辨,痒不知處,痛亦難言,秪能啼叫,至於變蒸驚風客忤解顱,近世巢氏——明之.然於斑疹欲出證候與傷風相類,而略無辨說,致多謬誤,而復醫者不致詳慎,或乃虚者下之,實者益之,疹者汗之,風者溫之,轉生諸疾,遂致夭斃,嘘可歎也.今採摭經效秘方,詳明證候,通爲壹卷,目之曰斑疹備急方,非敢謂有補於後世,意欲傳諸好事者,庶幾鞠育之義存焉.東平董汲及之序.

무릇 상고 시대에는 생활이 단순하고 사람들이 순박하여 기질이 순수했기 때문에 질병이 쉽게 침범할 수 없었다. 비록 질병이 생기더라도 축원만 하면 나았으니 아이는커녕 성인에 대한 처방이나 이론조차 구비되지 않았었다. 시간이 흘러 중세에 이르러 비로소 무방씨(巫妨氏, 사무師巫)가 《소아노신경小兒顱顖經》을 저술하여 아이의 수명을 점치고 생사를 구별한 이후 대대로 서로보완하며 소아에 대한 처방과 이론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소아가 포대기에싸여 있을 때는 오장육부가 아직 연약하여 맥이 빨리 뛰어도 분간할 수 없고,가려움이 생겨도 어디인지 알아차릴 수 없으며, 아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그저 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변(變)ㆍ증(蒸)이나 경풍(驚風)이나 객오(客忤)나 해로(解顱)에 대해서는 근래에 소씨(巢氏, 소원방巢元方)가 일일이 밝혀놓았다. 그러나 반진(斑疹)이 돋으려할 때의 증상과 상풍(傷風)과 비슷한 증상

에 대해서는 구별법과 설명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잘못 치료하게 되었다. 게다가 의원이 신중히 살피지 않고서 간혹 허증일 때 하법을 쓰거나, 실증일 때 보 익하는 약재를 쓰거나, 반진에 한법을 쓰거나, 풍증에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써서 갑자기 다른 증상까지 생기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들고 있으니 아아 한탄할 일이다. 이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비법들을 모으고 증상에 대해 자세히 밝혀서 통틀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든 후 《반진비급방斑疹備急方》이라고 하였다. 후세에 도움이 되리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까닭은 아마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리라. 동평(東平) 사람 동급(董汲, 자는 급지及之) 쓰다.

## 總論 총론

論曰: 夫生民之道, 自微而著, 由小而大, 此物理灼然, 不待經史, 證據可知. 然小兒氣稟微弱, 故《小品方》云: 人生陸歲已上爲小, 陸歲已下, 經不全載, 所以乳下嬰兒有疾難治者, 皆爲無所依據. 至如小兒斑疹壹候, 不惟脉理難辨, 而治療最比他病尤重. 始覺證與傷寒陰癎相近, 通都輔郡, 名醫輩出, 則猶能辨其一二, 遠地左邑, 執病不精, 失於詳審, 投藥暴妄, 加之小兒藏府嬌嫩, 易爲傷動, 斑疹未出, 往往疑爲傷風, 卽以麻黃等藥重發其汗, 遂使表虛裏實, 若爲陰癎治之, 便用溫驚藥品, 則熱勢愈盛, 直至參肆日證候已定, 方得以斑瘡藥治之, 則所失多矣.

무릇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방법은 감춰진 부분을 계발해 주고 부족한 점을 키워 주는 것이다. 이는 만물의 분명한 이치이니 경전이나 역사서를 펼쳐보지 않아도 근거를 댈 수 있다. 그러나 소아는 기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소품방小 品方》에서도 '사람이 태어나서 6살 이상을 소아라고 한다.'라고만 했을 뿐 6살 이하는 책에 전혀 실려 있지 않다. 젖먹이 아이에게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기 어려운 까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 소아의 반진(斑疹)이라는 병은 진맥으로 알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법도 다른 병에 비하여 매우 어렵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상한(傷寒)이나 음간(陰癎)과 비슷하니 명의들이 많은 대도시라면 그중 한둘을 진단할 수 있겠지만 궁벽한 시골의 원은 병을 정밀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환자를 자세히 살피지도 못하며 약을 쓸 때도 제멋대로 쓰곤 한다. 게다가 소아는 오장육부가 연약하여 쉽게 손 상되거나 발병하기 때문에 반진이 아직 돈지 않았을 때 종종 상풍(傷風)으로

의심하고는 즉시 마황탕 같은 처방을 써서 땀을 확 빼려고 하다가 결국 몸의 표부는 허해지고 속은 실해지게 만들거나, 혹은 음간으로 여겨 치료하려고 온 경환 같은 처방을 쓰다가 열을 더욱 왕성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다가 3 - 4일 정도 지나 증상이 진정된 후에야 반진에 쓰는 처방으로 치료하지만 이미 놓친 부분이 많을 것이다.

大率世俗醫者, 斑疹欲出, 多以熱藥發之, 遂使胃中熱極. 其初作時, 卽斑疹見於皮下, 其已出者, 變黑色而內陷, 旣見不快, 尤用熱藥, 薰蒸其疾, 斑疹得熱則出愈難. 轉生熱證, 大小便不通, 更以巴豆取積藥下之, 則使兒藏府內虛, 熱又不除, 邪氣益深, 變爲喘滿便血, 或爲疱癰, 身體裂破, 遂使百年之壽, 一旦爲俗醫所誤者, 可不痛哉.

대체로 보통 의원들은 반진이 돋으려 할 때 대부분 뜨거운 성질의 약재로 발산시키려다가 결국 뱃속의 열을 극심해지게 만들고 만다. 발병 초기에 수포가 피부에 비칠 때나, 돋은 후에 검게 변하면서 속으로 움푹 꺼질 때나, 돋긴 하지만시원하게 돋지 않을 때 뜨거운 성질의 약재를 더 써서 반진을 훈증하려고 하는데 반진에 열이 더해지면 수포 돋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갑자기 열증이 생기면서 대소변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해서 파두같이 적취에 쓰는 약재로 하법까지쓰면 소아의 오장육부가 속에서 허해지고 열도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사기가 더욱 깊이 침입하면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이 부풀고 혈변을 보는 증상으로 변질된다.(혹은 포옹疱癰이 되어 몸의 살갗 전체가 갈라지기도 한다) 결국 100년 살 목숨을 하루아침에 보통 의원이 무너뜨리고 있으니, 아아 애통한 일이로다.

大抵斑疹之候,始覺多欬嗽,身體溫壯,面色與四肢俱赤,頭痛腰疼,眼睛黃色,多睡中瘈瘲,手足厥,耳尖及尻冷,小便赤,大便秘,三部脉洪數絶大不定,是其候也.其乳下兒,可兼令乳母服藥.其證候未全或未明者,但可與升麻散解之.其已明者,即可用大黃靑黛等凉藥下之,次即與白虎湯.如秋冬及春寒未用白虎湯之時,但加棗煎服,不必拘於常法.仲景云:肆月後天氣大熱,即可服白虎湯,特言其梗概耳,大率疹疱未出即可下,已出即不可下.出足即宜利大小便.其已出未快者,可與紫草散、救生散、玳瑁散之類,其重者,以牛李膏散之,或毒攻咽喉者,可與少紫雪及如聖湯,無不效也.其餘熱不解,身熱煩渴,及病疹兒母俱可與甘露飲.或便血者以牛黃散治之,兼宜常平肝藏,解其敗熱,慮熱毒攻肝,即衝於目,內生障翳,不遇醫治,瞳人遂損,尤宜慎之.然已出未平,切忌見雜人,恐勞力之人,及狐臭薰觸故也.未愈不可當風,即成瘡痂.如膿疱出可燒黑丑糞灰,隨瘡貼之,則速愈而無瘢也.及左右不可關胡荽,蓋能禦汗氣辟惡氣故也.如兒能食物,可時與少葡萄,蓋能利小便,及取如穗出快之義也.

대개 반진의 증상은 처음에는 계속 기침을 하거나, 몸 전체가 뜨끈뜨끈하거나, 얼굴과 사지가 모두 벌겋거나, 머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뻐근하거나, 눈동자가 누렇거나, 자면서 자주 경련을 하거나, 손발 끝이 차갑거나, 귀 꼭대기와 엉덩이가 차갑거나, 붉은 소변을 누거나, 변비가 생긴다. 삼부(三部)의 맥은 홍삭(洪數)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일정하지 않다. 이것이 반진의 증상이다. 젖먹이아이가 반진에 걸렸을 때는 유모에게도 약을 복용시켜야 한다. 증상이 아직 심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으면 우선 승마산을 먹여서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증상이 뚜렷해지면 대황ㆍ청대 같이 서늘한 성질의 약재로 하법을 쓴 다음 즉시 백호탕을 먹여야 한다. 만약 가을ㆍ겨울ㆍ초봄의 서늘한 날씨라 백호탕을

쓰지 못할 때는 그저 대조(大棗)를 가미하여 달인 약을 복용시키되 정해진 방 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장중경(張仲景)이 '4월 이후 날씨가 더울 때는 백 호탕을 복용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 뿐이다. 대체로 반 진에 수포가 아직 돋지 않았다면 하법을 쓰고, 수포가 이미 돋았다면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 충분히 수포가 돋았으면 대소변을 잘 소통시켜야 한다. 수 포가 돋긴 했으나 시원하게 돋지 않았으면 자소산 · 구생산 · 대모산 같은 처 방을 먹여야 한다. 증상이 위중한 경우에는 우리고(牛李膏)로 열을 풀어주어 야 하고, 간혹 열독이 목구멍을 침범한 경우에는 자설(紫雪) 약간과 여성탕을 먹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진이 나은 후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몸통이 뜨 거우며 번갈이 있는 경우에는 반진에 걸린 아이와 유모에게 각각 감로음을 먹 여야 한다. 혹 혈변을 눌 때는 우황산으로 치료하면서 동시에 간장을 회복시켜 야 한다. 남은 열독을 풀어줄 때는 열독이 간장을 침범한 후 곧장 눈으로 치받 아 눈에 예막이 생기는 경우를 조심해야 하니 이때 의원에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 실명하게 되므로 특히 신경써야 한다. 수포가 돋은 후 평평하게 가라앉기 전까지는 절대로 외부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니 힘쓰는 노동을 하 는 사람의 땀냄새나 액취가 수포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반진이 완전히 낫기 전에는 바람을 쐬지 말아야 하니 수포가 창이나 딱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고름 찬 수포가 터졌을 때는 검은 소의 똥 태운 재를 환부마다 바르면 속히 낫고 흉 터도 남지 않는다. 또한 아이의 주변에 호유(胡荽)를 항상 놓아야 하니 땀이 나 려는 조짐을 예방하고 악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아에게는 포도를 자주 조금씩 먹여야 하니 포도가 소변을 잘 내보내 서이기도 하고, 포도의 싹이 빨리 돋는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

小兒斑疹本以胎中積熱,及將養溫厚,偶胃中熱,故承時而作.《外臺方》云:胃爛卽發斑.微者赤斑出,極者黑斑出.赤斑出伍死壹生,黑斑出拾死壹生.其府熱卽爲疹,蓋熱淺也.藏熱卽爲疱,蓋熱深也.故《證色論》云:大者屬陰,小者屬陽.汲總角而來,以多病之故,因而業醫.近年累出諸處治病.當壬申歲冬無大雪,天氣盛溫,逮春初,見小兒多病斑疹.醫者頗如前說,如投以白虎湯之類,卽竊笑云白虎湯本治大人.蓋不知孫眞人所論,大人小兒爲治不殊,但用藥劑有多少爲異耳.則是未知用藥之法,故多失誤.今博選諸家及親經用有效者.方備錄爲書.

소아의 반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적열(積熱)이 있었거나 혹은 출생 후 너 무 따뜻하게 길러서 뱃속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더운 계절을 만나 생기는 것이 다. 《외대비요》에서는 '열 때문에 위부가 헐면 수포가 나타난다. 증상이 미약 하면 붉은 것이 생기고, 증상이 극심하면 검은 것이 생긴다. 붉은 수포가 생기 면 5명 죽고 1명 살지만, 검은 수포가 생기면 10명 죽고 1명 산다.'고 하였다. 육 부에 열이 있으면 발진이 되니 열이 비교적 얕은 곳에 있기 때문이고, 오장에 열이 있으면 수포가 되니 열이 비교적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 색론證色論》에서 '큰 것(수포)은 음에 속하며, 작은 것(발진)은 양에 속한다.'라 고 한 것이다. 나는 청소년 시기 이후로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의술을 업으 로 삼았다. 근래에 도처에서 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임신년 겨울은 눈 이 많이 내리지 않고 날씨가 매우 따뜻하더니 초봄에 되자 반진에 걸리는 아이 들이 많아졌다. 의원들은 대부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소아에 게 백호탕 같은 처방을 먹인다고 하면 곧 '백호탕은 원래 성인을 치료하는 처 방이거늘...'이라며 뒤에서 비웃었다. 아마 손진인(孫眞人)이 주장한 '성인과 소아의 치료는 다르지 않고 다만 약의 용량만 다를 뿐이다.'라는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이들은 처방 쓰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치료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 의학자의 처방과 직접 경험하여 효과 있는 처방을 널리 뽑은 다음 기록해 놓는다.



## 藥方 처방



## 升麻散 승마산

治疹疱未出, 疑貳之間, 身熱與傷寒溫疫相似, 及瘡子已出發熱, 並可服之方.

발진이나 수포가 돋지 않아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헷갈리지만 몸통이 뜨거워 상한이나 온역과 비슷한 경우, 또는 수포가 돋으면서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 다. 두 경우 모두 복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升麻、芍藥、葛根(剉炒)、甘草(炙) 各壹兩.

승마, 작약, 갈근(썰어서 볶는다), 감초(굽는다) 각 1냥.

右爲細末, 每貳歲兒, 服貳錢, 水壹盞, 煎至伍分, 去滓, 溫服不以時, 日參夜壹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2살 아이 기준으로 2돈씩 물 1잔에 넣고 5할이 되도록 달여 건더기를 제거한 후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낮에 3번, 밤에 1번 복용한다.

## 白虎湯 백호탕

治痘疱麩疹斑瘡赤黑, 出不快, 及疹毒餘熱, 并溫熱病, 中暑氣, 煩躁熱渴方.

수포(痘疱)나 발진(麩疹)이 새빨갛거나 혹은 까맣거나, 돋기는 하지만 시원하게 돋지 않는 경우나, 반진이 나은 후에 남은 열독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온열병이나 중서(中暑)나 번조증이나 열갈(熱渴)도 치료하는 처방이다.

石膏 肆兩, 知母 壹兩半(剉), 甘草(炙) 參兩, 人參 半兩.

석고 4냥, 지모 1.5냥(썬다), 감초(굽는다) 3냥, 인삼 0.5냥.

右爲細末,每服貳錢,水壹盞,入粳米貳拾粒,同煎至柒分,去滓,溫服,不以時,小兒減半服.春冬秋寒有證亦服,但加棗煎,并乳母亦令服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갱미(粳米) 20알을 넣고 한꺼번에 7할이 되도록 달인 후 건더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하고 소아는 절반 분량을 복용한다. 가을 ㆍ 겨울 ㆍ 봄의 쌀쌀한 날씨에 증상이 있을 때도 복용하되 대조를 가미하여 달여야 한다. 소아뿐만 아니라 유모도 복용해야 한다.

### 紫草散 자초산

治伏熱在胃經,暴發痘疱瘡疹,一切惡候,出不快,小便赤澁,心腹脹滿方.

잠복한 열독이 위부의 경맥에 있다가 갑자기 발작하여 수포(痘疱)나 발진(瘡疹)이 된 경우 등 악증 일체를 치료한다. 수포가 시원하게 돋지 않는 경우나, 소변이 붉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나, 배 전체가 빵빵해지면서 답답한 경우 도 치료하는 처방이다.

紫草(去苗) 壹兩, 甘草(生用) 半兩, 木通(去根節, 細剉)、枳殼(麩炒, 去穰)、黃耆 各半兩(炙剉).

자초(싹을 제거한다) 1냥, 감초(생째 쓴다) 0.5냥, 목통(뿌리와 마디를 제거한 후 잘게 썬다) · 지각(밀기울과 함께 볶은 후 속을 긁어낸다) · 황기 각 0.5냥 (구운 후 썬다).

右爲細末, 每服貳錢, 水壹盞, 煎至陸分, 去滓, 溫時時呷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6할이 되도록 달여 건더기를 제거한 후 따뜻하게 데워 자주 먹인다.

## 抱龍圓 포룡원

治一切風熱中暑,驚悸,瘡疹欲出,多睡,欬嗽涎盛,面赤,手足冷,發溫壯,睡中驚, 搐搦不寧,脉洪數,頭痛嘔吐,小便赤黃方.

풍증으로 생긴 열, 중서(中暑), 경계(驚悸), 수포(瘡疹)가 돋으려 하거나, 계속 자려고 하거나, 기침하면서 가래가 끓거나, 얼굴이 붉거나, 손발이 차거나, 온 몸이 뜨끈뜨끈하거나, 자면서 경기를 일으키거나, 축닉으로 불편하거나 하는 등의 증상에 맥이 홍삭(洪數)한 경우를 치료한다. 두통이나 구토나 소변이 붉거나 누레지는 증상도 치료하는 처방이다.

天南星(剉開, 裏白者生爲末, 臈月內取黃牛膽汁和爲劑, 却入膽內陰乾, 再爲末) 半斤, 天竺黃 貳兩(別研), 朱砂 貳錢(研水飛), 雄黃 半兩(研水飛), 麝香(好者) 壹錢(別研), 牛黃 壹字(別研).

천남성(쪼갠 후 속에 있는 흰 부분을 익히지 않은 채로 가루 낸다. 섣달이 되기 전에 누런 소의 담즙과 섞은 후 쓸개 속에 넣고 그늘에서 말린다. 사용하기 전 에 한 번 더 가루 낸다) 0.5근, 천축황 2냥(따로 갈아 둔다), 주사 2돈(갈아서 수 비한다), 웅황 0.5냥(갈아서 수비한다), 사향(진품) 1돈(따로 갈아 둔다), 우황 1 자(따로 갈아 둔다).

右同硏極細末, 甘草水和圓, 鷄頭大, 窨乾, 貳歲兒竹葉或薄荷湯化下壹圓, 不拘時候. 壹方不用牛黃.

이상을 한꺼번에 아주 곱게 갈아 가루 낸 후 감초 우린 물에 개어 계두실 크기로 환을 빚고 깜깜한 곳에서 말린다. 2살 아이 기준으로 1환을 죽엽이나 박하 달인 물에 녹여 먹이되 복용 시각은 무관하다. 어떤 책에는 우황을 쓰지 않았다.



## 救生散 구생산

治瘡疹膿疱,惡候危困,陷下黑色方.

반진(瘡疹)으로 수포에 고름이 잡히면서 위중한 증상으로 힘들어하거나 수포 가 검은색으로 움푹 들어가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豶猪血(臈月內以新瓦罐子盛,掛於屋東山,陰乾取末)一兩,馬牙硝 壹兩(研),鵬砂(研)、硃砂(水飛)、牛黃(研)、龍腦(研)、麝香 各壹錢(別研).

분저혈(섣달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기와나 단지에 담아 동쪽 산 쪽의 처마에 매단 채 그늘에서 말렸다가 가루 낸다) 1냥, 마아초 1냥(간다), 붕사(간다), 주사(수비한다), 우황(간다), 용뇌(간다), 사향 각 1돈(따로 갈아 둔다).

右同硏極細,每貳歲兒取壹錢,新汲水調下,大便下惡物,瘡疱紅色爲度,不過再服,神驗無比.

이상을 한꺼번에 아주 곱게 간다. 2살 아이 기준으로 1돈씩 신급수에 타서 먹인다. 대변으로 끈적끈적한 것이 나오면서 수포(瘡疱)가 붉은색이 될 때까지먹인다. 아마 2번을 넘기지 않고 비할 데 없이 신기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牛李膏 우리고

治瘡疹痘疱惡候,見於皮膚下不出,或出而不長,及黑紫內陷,服之卽順,救危急候. 愚小年病此,危惡殆極,父母已不忍視,遇今太醫丞錢公乙下此藥得安,因懇求眞法. 然此方得於世甚久,惟於收時不知早晚,故無全效.今幷收時載之,學者宜依此方.

발진(瘡疹)이나 수포(痘疱) 등 위중한 증상이 피부 속에서만 나타나고 밖으로 돈지 않거나, 혹은 돈긴 했으나 커지지 않거나, 혹은 거무스름하게 속이 움푹 꺼지는 경우를 치료하니 이 약을 복용하면 곧 증상이 순해져서 위급한 증상이 완화된다. 내가 어렸을 때 이 병에 걸려 위중한 증상이 극심해졌는데 부모님께서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실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금 태의승(太醫丞)이신 전을(錢乙) 공을 만나 이 약을 먹고 안정을 찾았고, 그 이후로 뛰어난 처방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 이 처방은 세상에서 사용한 지 꽤 오래되었으나 오로지우리자를 언제 채취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채취하는 때까지 수록해 놓으니 의술을 익히는 자들은 이 책대로 치료하면 될 것이다.

牛李子(玖月后取, 研, 絹濾汁不以多少, 於銀石器中熬成膏, 可圓. 每膏貳兩, 細研好 麝香, 入半錢).

우리자(9월 이후에 채취하여 갈아 놓고 천에 거른다. 이것을 분량에 상관없이 은이나 돌로 만든 그릇에 넣고 졸여서 고약처럼 되면 환으로 빚을 수 있다. 고 약 2냥마다 곱게 간 진품 사향을 0.5돈씩 넣는다) 右每貳歲兒服壹圓,如桐子大,漿水煎杏膠湯化下.如瘡疱紫黑內陷者不過再服,當取下惡血及魚子相似;其已黑陷於皮下者,卽紅大而出,神驗.

이것을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2살 아이 기준으로 1환씩 행인과 아교를 넣고 달인 장수(漿水)에 녹여 먹인다. 수포(瘡疱)가 거무스름하면서 속이 움푹 꺼진 경우에는 2번 정도 복용하면 검은 피나 물고기알 같이 동글동글한 것을 대변으로 누고, 이미 피부 속으로 까맣게 움푹 꺼진 경우에는 금세 붉게 부풀면서 시원하게 돋으니 참으로 신효하다.



### 玳瑁散 대모산

治瘡疹熱毒內攻,紫黑色,出不快.

반진(瘡疹)에 열독이 몸속을 침범하여 거무스름한 색의 수포가 돋긴 했으나 시원하게 돋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生玳瑁(水磨濃汁壹合, 豶猪心壹個, 從中取血壹皂子大, 同研).

생대모(물에 갈아서 만든 걸쭉한 즙 1홉. 분저심 1개의 속에서 빼낸 피 1조각 자 크기 만큼과 한꺼번에 간다.)

右以紫草嫩茸, 濃汁煎湯調, 都作壹服.

이것을 여리여리한 자초용을 걸쭉하게 달인 물에 타서 한꺼번에 모두 복용한다.

## 利毒圓 이독원

治瘡疹欲出前,胃熱發溫壯,氣麤腹滿,大小便赤澁,睡中煩渴,口舌乾,手足微冷,多睡,時嗽涎實,脉沈大滑數,便宜服之方.

반진(瘡疹)이 돋으려고 하기 전에 위부(胃腑)의 열로 온몸이 뜨끈뜨끈하거나, 숨이 거칠어지면서 배가 그득하거나, 대소변이 붉으면서 잘 나오지 않거나, 자 는 중에 번갈증이 있거나, 입과 혀가 마르거나, 손발이 약간 차거나, 계속 자려 고 하거나, 자주 기침하면서 가래가 끓는 증상이 있을 때 맥이 침대(沈大)하거 나 활삭(滑數)하면 이 처방을 복용해야 한다.

大黃 半兩, 黃芩(去心)、青黛 各壹錢, 膩粉(炒) 壹錢, 檳榔、生牽牛(取末) 各壹錢 半, 大青 壹錢, 龍腦(研)、硃砂 各半錢(研).

대황 0.5냥, 황금(심을 제거한다) · 청대 각 1돈, 이분(볶는다) 1돈, 빈랑 · 생견 우(가루 낸다) 각 1.5돈, 대청 1돈, 용뇌(간다) · 주사 각 0.5돈(간다).

右杵研爲細末,麵糊爲圓,如黃米大,每貳歲兒服捌圓,生薑蜜水下,不動再服,量兒大小,虛實加減.

이상을 절구에 갈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황미(黃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2살 아이 기준으로 8환씩 생강즙을 탄 꿀물로 넘긴다. 반응이 없으면한 번 더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이나 허실에 따라 가감하여 복용한다.



## 如聖湯 여성탕

治咽喉一切疼痛, 及瘡疹毒攻咽喉, 腫痛有瘡, 不能下乳食方.

목구멍이 아픈 여러 증상이나, 또는 반진(瘡疹)으로 열독이 목구멍에 침범하여 붓고 아프며 창이 생겨서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桔梗(剉)、甘草(生用)、惡實(微炒) 各壹兩, 麥門冬(去心) 半兩.

길경(썬다) · 감초(생째 쓴다) · 악실(살짝 볶는다) 각 1냥, 맥문동(심을 제거한다) 0.5냥.

右爲細末,每貳歲兒,服壹錢,沸湯點,時時呷服,不以時.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2살 아이 기준으로 1돈씩 비탕(沸湯)에 뿌려 자주 복용하되 복용 시각은 상관없다.

## 甘露飮 감로음

解胃熱及瘡疹已發,餘熱溫壯,齦齒宣腫牙痛,不能嚼物,飢而不欲食,煩熱,身面黃,及病瘡疱,乳母俱可服之.

위부(胃腑)의 열을 풀어준다. 또한 발진(瘡疹)이 돋은 후나, 반진이 나은 후에 남은 열로 몸이 뜨끈뜨끈하거나, 잇몸이 붓거나 아파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나, 굶었는데도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서 번열이 있고 얼굴과 온몸이 누레진 경우나, 수포(瘡疱)가 돋은 경우를 치료한다. 이 처방은 유모에게도 함께 복용시켜야 한다.

生乾地黃(切焙)、熟乾地黃(切焙)、天門冬(去心)、麥門冬(去心)、枇杷葉(去毛)、 黃芩(去心)、石斛(去根, 剉)、甘草(炙剉)、枳實(麩炒, 去穰)、山菌陳葉 各壹兩(去 土).

생건지황(절편으로 자르고 곁불에 말린다) · 숙건지황(절편으로 자르고 곁불에 말린다) · 천문동(심을 제거한다) · 맥문동(심을 제거한다) · 비파엽(털을 제거한다) · 황금(심을 제거한다) · 석곡(뿌리를 제거한 후 썬다) · 감초(구운후 썬다) · 지실(밀기울과 함께 볶은 후 속을 긁어낸다) · 산균진엽 각 1냥(흙을 제거한다).

右爲散,每服貳錢,水壹盞,煎至柒分,去滓,溫服,不以時候,量力與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건 더기를 제거한 후 따뜻하게 복용한다. 복용 시각은 상관없고 환자의 체력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



## 神仙紫雪 신선자설

治大人小兒一切熱毒,胃熱發斑,消痘疱麩疹,及傷寒熱入胃發斑,并小兒驚癎涎厥,走馬急疳,熱疳,疳黃,疳瘦,喉痹腫痛,及瘡疹毒攻咽喉,水漿不下方.

성인이든 소아든 일체의 열독이나 위부의 열로 반진이 발병한 경우를 치료한다. 반진으로 수포(痘疱)나 발진(麩疹)이 돋거나, 또는 상한으로 열독이 위부에 침입하여 생긴 반진을 없앤다. 또한 소아의 경간(驚癎), 가래, 주마아감(走馬牙疳), 열감(熱疳), 감황(疳黃), 감수(疳瘦)와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상이나반진(瘡疹)으로 열독이 목구멍을 침범하여 물이든 국이든 전혀 넘기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黃金 壹伯兩, 寒水石、石膏 各參斤, 犀角(屑)、羚羊角 各拾兩(屑), 玄參 壹斤, 沈香 (鎊)、木香、丁香 各伍兩, 甘草 捌兩, 升麻 陸兩(皆㕮咀).

황금 100냥, 한수석 · 석고 각 3근, 서각(깎아서 가루 낸다) · 영양각 각 10냥 (깎아서 가루 낸다), 현삼 1근, 침향(깎아서 가루 낸다) · 목향 · 정향 각 5냥, 감초 8냥, 승마 6냥(모두 거칠게 자른다).

右以水伍의,煮金至參의,去金不用,入諸藥,再煎至壹의,濾去滓,投上好芒硝貳斤半,微火煎,以柳木篦攪勿停手,候欲凝入盆中,更下研硃砂眞麝香各參兩,急攪勻,候冷貯於密器中,勿令見風.每服壹錢,溫水化下,小兒半錢壹字,咽喉危急病,捻少許,乾嚥之立效.

이상에서 황금을 물 5되에 넣고 3되가 되도록 달인 후 황금은 건지고 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약재를 넣고 한 번 더 달여 1되가 되면 건더기를 걸러낸다. 그리고 품질 좋은 망초 2.5근을 넣고 약한 불로 달이면서 버드나무 막대기로 쉬지 않고 젓는다. 약이 응고되려고 할 때 항아리 속에 넣고 주사 가루와 품질 좋은 사향 가루를 각각 3냥씩 넣은 후 재빨리 잘 섞어준다. 약이 식으면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1돈씩 따뜻한 물에 녹여서 복용한다. 소아는 0.25 - 0.5돈씩 복용한다. 목구멍이 매우 아프면 용량을 조금 더 늘린다. 물에 녹이지 않고 삼키게 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 調肝散 조간산

敗肝藏邪熱,解散斑疹餘毒,服之瘡疹不入眼目.

간장의 열독을 없애고 반진이 나은 후에 남은 열독을 풀어준다. 이 처방을 복용하면 반진(瘡疹)이 눈쪽으로 번지지 않는다.

犀角(屑) 壹分, 草龍膽 半錢, 黃耆 半兩(剉炙), 大黃 壹分(炒過), 桑白皮 壹分(炙剉), 釣藤鉤子 壹分, 麻黃 壹分(去根節), 石膏(別研)、括蔞實 各半兩(去穰皮), 甘草 壹 分(炙).

서각(깎아서 가루 낸다) 1푼, 초룡담 0.5돈, 황기 0.5냥(썰어서 굽는다), 대황 1 푼(볶는다), 상백피 1푼(구운 후 썬다), 조구등자 1푼, 마황 1푼(뿌리와 마디를 제거한다), 석고(따로 갈아 둔다) ` 괄루실 각 0.5냥(속과 껍질을 제거한다), 자 감초 1푼.

右爲散, 每服貳錢, 水壹盞, 煎至伍分, 去滓, 溫服, 量兒大小加減, 不以時候.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2돈씩 물 1잔에 넣고 5할이 되도록 달인 후 건더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하고 복 용 시각은 상관없다.

### 護目膏 호목고

治疹痘出後, 即須愛護面目, 勿令沾染. 欲用胡荽酒噴時, 先以此藥塗面上, 然後方可以胡荽酒噴四肢. 大人小兒有此. 悉宜用之方.

반진에 수포가 돋은 후에는 반드시 곧바로 얼굴과 눈을 보호하여 전염되지 않게 해야 하니 이때 쓰는 처방이다. 호유주를 환부에 뿜는 치료를 할 때는 우선이 약을 얼굴에 바르고 그 후에 호유주를 온몸에 뿜어야 한다. 성인이든 소아든 이 병이 있으면 누구든지 써야 하는 처방이다.

黃蘗 壹兩(去皮剉), 菉豆 壹兩半(揀淨), 甘草 肆兩(剉, 生用).

황벽 1냥(껍질을 제거하고 썬다), 녹두 1.5냥(깨끗한 것을 고른다), 감초 4냥(썰어서 생째 쓴다).

右爲細末,以生油調爲膏,從耳前眼眶並厚塗目三五遍.上塗面後,可用胡荽酒微噴,勿噴面也.早用此方塗面,即面上不生疹痘,如用此方塗遲,縱出亦少.

이상을 곱게 가루 내고 생유(生油)에 개어 고약처럼 만든 후 귀 앞부터 눈과 주위까지 모두 두껍게 3-5번 바른다. 얼굴에 고약을 바른 후에 호유주를 온몸에살짝 뿜되 얼굴에는 뿜지 말아야 한다. 일찌감치 이 고약을 얼굴에 바르면 얼굴에 수포(疹痘)가 생기지 않는다. 이 고약을 뒤늦게 바르면 얼굴에 수포가 돈더라도 적게 돋는다.



## 胡荽酒方 호유주

治斑痘, 欲令速出, 宜用此.

반진을 치료하니 수포를 빨리 돋게 하려면 이 처방을 써야 한다.

胡荽 參兩.

호유 3냥.

右細切,以酒貳大盞煎令沸,沃胡荽,便以物合定,不令氣出,候冷去滓,微微從頂已下噴背及兩脚胃腹,令偏,勿噴頭面.[仍將滓焙乾,紅絹袋子盛,縫合令乳母及兒帶之,餘酒與乳母飲之妙.]

이것을 잘게 절편으로 썬다. 술 2대잔(大盞)을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달인 후 호유를 담그고 뚜껑을 닫아 김이 새지 않게 한다. 술이 식으면 건더기를 제거 한다. 정수리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등과 다리와 가슴과 배까지 술을 아주 조 금씩 골고루 뿜되 얼굴에는 뿜지 말아야 한다. [호유주를 뿜은 후 건더기를 곁불에 말리고 붉은 천주머니에 담아 실로 꿰맨 후 유모와 아이에게 차고 다니 게 한다. 남은 술을 유모에게 마시게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 牛黃散 우황산

治瘡疹陽毒入胃,便血日夜無節度,腹痛啼哭,牛黃散方.

반진(瘡疹)에 열독이 위부(胃腑)로 들어가서 온종일 수없이 혈변을 보고 배가 아파 소리 지르며 우는 경우를 치료한다. 우황산이다.

#### 鬱金 壹兩, 牛黃 壹錢.

울금 1냥, 우황 1돈.

右研爲末,每貳歲兒服半錢,以漿水半盞,煎至參分,和滓溫服,大小以此增減之,日貳服.

이상을 갈아 가루 낸다. 2살 아이 기준으로 0.5돈씩 장수(漿水) 0.5잔에 넣고 3 할이 되도록 달인 후 건더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 늠하여 용량을 가감하고 하루 2번 복용한다.

## 蛇蛻散 사태산

治斑疹入眼, 翳膜侵睛, 成珠子方.

반진이 눈으로 들어가 예막이 눈동자까지 번지거나 구슬처럼 뭉치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馬勃 壹兩, 皂莢子 貳柒個, 蛇退皮(全者) 壹條.

마발 1냥, 조협자 14개, 사태(온전한 것) 1개.

右入小罐子內, 封泥, 燒不得出煙存性, 研爲末, 溫水調下壹錢, 食後.

이상을 작은 단지에 넣고 진흙으로 봉한 후 연기가 나지 않으면서 약성이 남도록 불에 굽는다. 약재를 갈아 가루 낸다. 따뜻한 물에 타서 1돈을 복용하되 식후에 복용한다.

## 眞珠散 진주산

治斑疱瘡疹入眼疼痛, 翳膜眼赤羞明方.

반진에 수포(斑疱)나 발진(瘡疹)이 눈으로 들어가 아프거나, 예막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눈부셔하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 括蔞根 壹兩, 蛇退皮(全炙) 壹錢.

괄루근 1냥, 사태(온전한 것을 구워서 쓴다) 1돈.

右為末, 用羊子肝壹枚, 批開去筋膜, 掺入藥貳錢, 用麻縷纏定, 以米泔內煮熟, 任意 與喫. 如少小未能喫羊肝, 以熟羊肝研和爲圓, 如黃米大, 以生米泔下拾圓, 乳頭上 與亦可, 日參服. 「兒小未能食肝, 與乳母食之佳. ]

이상을 가루 낸다. 새끼 양의 간 1개를 쪼개어 근막을 제거하고 약가루 2돈을 넣은 후 삼끈으로 묶어서 고정한다. 이것을 쌀뜨물에 넣고 끓여서 익히고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한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간을 조금도 먹지 못하면 익힌 간을으깨서 황미(黃米) 크기로 환을 빚은 후 끓이지 않은 쌀뜨물로 10환을 먹인다. 젖꼭지에 올려놓아 먹여도 괜찮다. 하루 3번 먹인다. [ 아이가 어려서 간을 먹일 수 없으면 유모에게 먹게 해도 효과가 있다. ]

## 後序 후서(後序)

余平生刻意方藥,察脉按證,雖有定法,而探源應變,自謂妙出意表.蓋脉難以消息 求證,不可言語取者,縫褓之嬰,孩提之童,尤甚焉,故專一爲業,垂肆拾年,因緣遭 遇,供奉禁掖,累有薄效,誤被恩寵.然小兒之疾,陰陽爲癎最大,而醫所覃思,經有 備論,至於斑疹之候,蔑然危惡,反驚搐,傷寒貳癎大同,而用藥甚異,投劑小差,悖 謬難整,而醫者恬不爲慮.比得告歸里中,廣川及之出方一秩示予,予開卷而驚歎曰: 是予平昔之所究心者,而子乃不言傳而得之,予深嘉.及之少年,藝術之精,而又愜 素所願以授人者.於是輒書卷尾焉.

나는 평생 의술에 몸담은 사람으로, 맥을 짚고 증상을 진단할 때 정해진 방법이 있더라도 원인을 찾고 변화에 대응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효과가 좋았다고 스스로 말하곤 한다. 대체로 진맥으로 증상을 찾기 어렵고 문답으로 증상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도 포대기에 싸인 갓난아이부터 아장아장 걷는 아이까지는 특히 어렵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소아 치료를 업으로 삼아 40년을 지냈고, 그동안 성군을 만나 황실을 섬기면서 몇 번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과분하게 은총을 입기도 하였다. 한편 소아의 병에서는 음간(陰癎, 만경풍)과 양간(陽癎, 급경풍)이 가장 위중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깊이 고민하고 책에도 설명이 있다. 반진의 증상은 소리 없이 위중하다는 점이 경풍 ㆍ축 닉과 정반대이다. 그 증상이 상한 ㆍ음간 ㆍ양간과 대략 같지만 쓰는 처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치료에 실패하여 수습하

기 어려운데도, 의원들은 태연히 있으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주변에 알리자 광천(廣川) 사람 동급(董汲, 자는 급지及之) 군이 책 하나를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책을 읽어보고 놀라서 "이것은 내가 평생 연구한 분야이네. 자네는 말로 전수받지 못했음에도 반진의 원리와 치료법을 깨달았으니 매우 훌륭하네."라고 말하였다. 동급 군은 젊었을 적부터의술이 뛰어났고 흔쾌히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책 말미에 쓰노라.

#### 時元祐癸酉拾月丙申日,翰林醫官太醫丞賜紫金魚袋錢乙題.

원우 계유년(1093) 10월 병신일. 한림의관(翰林醫官) 태의승(太醫丞) 사자금 어대(賜紫金魚袋) 전을(錢乙) 쓰다.

## 해제

## 개요

《소아약증직결小兒藥證直訣》은 북송(北宋)의 전을(錢乙)이 저술한 소아과 전문서적으로 염효충(閻孝忠)이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 서지사항 및 판본

《소아약증직결》은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번역은 청대 강희년간의 기수당 영인본을 저본으로 삼고 취진본을 대교본으로 삼았다. 기수당 영인본에 누락되거나 탈락된 경우 또는 오탈자를 취진본에서 교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감기를 달고 번역에 반영하였다.

- 청대 강희59년(1720) 삼우당각본
- 청대 강희년간 기수당 영인본
- 상해 위생출판사 영인본
- 보적회편본
- 주씨의학총서본
- 난릉당 교간 의서 2종본

- 기수당 간행 의서 2종본
- 관회당 모간 의서 3종본
- 중국의학대성 3편본
- 전세장서자고 의부본
- 중국의학명저진품전서본
- 《영락대전》에서 모은 무영전각본에 근거한 청대 사고관신본(취진본)
- 석음헌총서본(사고집일본)
- 총서집성초편본(사고집일본)

## 저자사항

전을(1032-1113)은 자가 중양(仲陽)으로 중국 송대의 저명한 소아 의사이다. 선대는 절강지역 전당(錢塘) 사람이며 증조부인 전빈(錢贇)은 북쪽인 운주(鄆州, 현재 산동 성 동평현東平縣)로 이주하였다. 그의 평생의 행적은 유기(劉跂)가 지은 〈전중양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전을은 어렸을 때 고모부 여씨를 따라 의학을 공부하였고 많은 서적을 두루 보았다. 그래서 '처방을 지으면 두루 효과가 있었고 한 스승만을 부르지 않았으니 치료하는 족족 모두 효과가 있었다. 이는 소아 의사였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평이 있다. 원풍년간에 전을은 유장공주(愈長公主) 딸의 병을 치료하여 한림의학(翰林醫學)을 제수받았다. 원풍2년에 황자인 의국공(儀國公)이 계종(瘛瘲)을 앓았을 때 전을이 황토탕(黃土湯)으로 치료하여 태의승(太醫丞)으로 승급되

해제

면서 자의(紫衣)와 금어(金魚)를 하사받았고 이때부터 명성을 크게 떨쳤다. 전을의

저서는 《상한론지미傷寒論指微》 5권과 《영해론嬰孺論》 100편이 있었으나 아쉽게

도 모두 망실되었고, 《소아약증직결》만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구성 및 내용

《소아약증직결》은 전을 친구의 아들인 염효충이 전을의 소아과 저작, 이론, 의안, 처

방 등의 자료를 널리 수집한 후 정리하고 편찬하여 만든 책으로 대략 송대 선화년간

(1119-1125)에 완성되었다. 총 3권으로 상권은 의론-맥법-병증-치료법 체제로 모두

80여종의 소아 병증에 따라 실려있다. 중권은 소아에 대한 의안 23조를 열거하면서

의안 뒤에는 모두 가상의 문답을 붙여 의학 이론을 밝혀 놓았다. 하권은 방제를 수록

하면서 본초의 배오관계와 사용법, 환 · 산 · 고 · 단 등의 제형에 대해서 서술하였

다.

권상: 重刻錢氏小兒藥症直訣序, 原序, 錢仲陽傳, 脈證治法

• 권중:記嘗所治病二十三證

• 권하:方劑

의의 및 특징

436

《소아약증직결》은 중국에 현존하는 최고의 이론, 치료법, 방제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대량의 병증과 의안을 수집한 소아과 전문서이다. 전을은 학식이 넓고 깊어 그의 의학은 선대로는 저멀리 영추와 소문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가깝게는 남양을 사숙하여 소아과에 적용하였다. 옛 것을 사숙하되 너저분하지 않았으니 변증과 진단에 대해서는 물론 치료법과 방제에 있어서도 모두 소아과 분야에 대한 발전과 부흥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후세에 '소아과의 성인'이라고 높임을 받게 되었다.

#### ※ 참고자료

中醫古籍珍本集成 兒科卷 小兒藥證直訣.

## 일러두기

### 판본 및 구성

- 이 책은 청대 강희연간의 기수당(起秀堂) 영인본을 저본으로 삼고, 글자가 마멸되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진본(무영전각본武英殿刻本)과 대교하여 보완하였다.
- 이 책은 권상(맥법, 증론, 치료법), 권중(의안), 권하(처방)로 구성되어 있다.
- 처방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하여 형태를 약간 변형하였으며 글자의 차이는 없다. 포제법은 괄호로 묶었고, 나열은 '''으로 구분했으며, 용량은 공백으로 구분하였다.

### 표기법

- 포제법은 괄호로 묶어 표시하였다.
- 대제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거나 한자 병기를 하지 않고 독음으로 달아놓았다. 처방명에 붙은 바로가기(처방은 ~~문에 나온다)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兩(냥), 錢(돈), 分(푼), 釐(리), 條(조), 字(자) 등으로 통 일하여 표기하였다.
- 생강을 뜻하는 薑, 姜, 干은 薑으로 통일하였다.

- 龜의 독음은 인명이 아닌 경우에 '구'로 통일하였다. 두음법칙에 따라 尿, 衄, 泥 가 첫음절인 경우에는 '요', '육', '이'로 처리하였다.
- 목단(모란), 목과(모과), 앵도(앵두) 등 현대 한글과 발음이 다른 경우는 한자의 독음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길경이나 지각 등 표기법이 다양한 본초는 桔梗이나 只殼처럼 하나로 통일하였다.
- 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은 오동자 크기 · 속미 크기와 같이 풀었다.



##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서명 : 국역 소아약증직결 小兒藥證直訣

원저자 : 전을 錢乙

국역 · 해제 : 이정현

발행인 : 이진용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1년 12월 13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 · 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1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 디자인 · 이미지 ·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 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SN2013110]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 랫폼 구축

